국가안보 파일

1962년 9월 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1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본인의 워싱턴 방문기간 동안, 본인은 칼 케이슨(Carl Kaysen)과 테드 소렌슨(Ted Sorenson)에게 박정희 의장이 대통령에게 내년 봄 극동아시아를 순방할 때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구두 초청을 전했다. 초청은 또한 만일 영부인이 홀로 순방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경우 영부인에게도 전해졌다. 케이슨은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 본인은 귀환하면 대통령이 그의 초청에 감사했으며 극동지역을 순방할 경우 그 초청을 잊지 않겠다는 것을 박의장에게 통보하기로 케이슨과 소렌슨과 합의하였다.
3. 기록을 위하여 이 전문을 보낸다.

버거(Berger)

1962년 9월 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1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본인은 오늘 박의장과 첫 번째 면담을 가졌으며 두 시간이상 진행되었다. 우리는 여러 주제를 논의하였다. 이 전문은 한-일 협상을 다룬다. 다른 주제는

별도의 전문들에서 다루겠다.

2. 본인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담에 대하여 워싱턴은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케네디 대통령이 박의장에게 보내는 비밀서한을 갖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면담을 시작하였다. 유사한 서한이 라이샤워(Reischauer) 대사에 의하여 이케다(Ikeda) 수상에게 전달되었다. 조 대령은 박의장에게 서신을 번역해 주었는데 박의장은 서신의 내용을 듣고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3. 본인은 그런 다음 워싱턴으로 가는 도중 배(Pae) 대사와 Takeuchi(다케우치)와 이세키(Iseki)를 만났으며 워싱턴을 오고 가는 길에 라이샤워 대사와 현안에 대하여 장시간 대담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올 가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하여 신중한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문제는 재산청구권과 무상원조에 대한 한국의 요구와 일본의 제안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이다. 이것이 최종 금액을 이끌어 낼 정치회담이 열릴 수 있을 정도로 좁혀질 수 있을까.

4. 본인은 우리는 한국이나 일본과 더불어 금액을 논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양측의 한계점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양측이 과감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차이는 배 대사-일본 회담에서 충분히 좁혀지지 않을 것이고 정치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5. 박의장은 조용히 그리고 길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올 가을에 일본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한국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 목표를 향해 한계점까지 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최종 타결을 위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작년에 그가 회담을 시작했을 때 자신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을 극비사항으로 본인에게 밝히고 싶지만 만일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문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내각수반과 외무부장관이다. 그는 금액을 최고회의에 조차도 밝히지 않았다. 금액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에게 그것을 소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상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재산청구권과 무상원조 명목으로 3억 달러, 장기차관으로 2억~3억 달러이다.

6. 그는 본인에게 일본인들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많은 소비재들을 가져가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타결에 제한을 가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본인은 매년의 상환이 약 5,000만 달러로 제한될 것이며 타결의 일부분을 형성할 당좌계정에 들어 있는 4,500만 달러를 제외하면 일본이 외화로 지불할 전망은 거의 없으며 이러한 제한을 제외하면 한국이 그들이 원하는 자본재와 시설과 소비재가 어떻게 혼합되든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일본산업이 수행해야 할 다른 사업을 고려하여 계획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 시간계획의 문제이다. 박의장은 그들은 자금을 수력발전계획, 철도, 광업 장비 등과 같은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일본인 기술자의 활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7. 본인은 당면문제는 일본의 수기(Sugi) 대표가 제시한 1억 5,000만 달러와 배 대사가 제시한 5억 달러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그런 다음 그가 현 시점에서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라이샤워 대사와 본인이 국무부로부터 일본과 한국 대표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샤워 대사가 적절한 시기에 재산청구권과 무상원조에 대한 한국의 최종 요구금액이 배 대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되 이것이 박의장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논평 :

8. 본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노선을 제안 한다 :

   A. 라이샤워 대사가 일본으로부터 지급에 관한 제한에 대한 본인의 평가가 정확한지 혹은 다른 제한이 부과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B. 만일 위에서 언급한 본인의 견해가 확증된다면, 라이샤워 대사는 일본인들에게 이곳의 상황에 대하여 본인이 평가하기로는 한국인들은 재산권청구와 무상원조로 이주일 전에 본인이 다케우치(Takeuchi)와 이세키(Iseki)에게 제시한 3억에서 4억 달러가 아니라 3억에서 3억 5,000만 달러로 그리고 장기차관으로 2억 달러에 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

C. 본인의 견해로는 만일 일본인들이 수기-배 회담에서 2억 5,000만달까지 접근하지 않는다면 한국인들은 정치회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D. 다케우치가 라이샤워 대사와 본인에게 자신은 오히라(Ohira) 외상에게 만일 재산청구권과 무상원조로 3억 달러의 지불이 한국문제를 한 번에 그리고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일본은 최고 이 금액까지 가야한다는 것을 권고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국 정부의 지도자들로부터 만일 재산청구권과 무상원조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인들은 그것을 최종적인 타결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 다케우치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

버거(Berger)

1962년 9월 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1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오늘 본인과 박의장과의 대담에서 본인은 워싱턴에서 협의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장면의 재판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지난 주에 본인이 외무부장관과 내각수반에게 전화상으로 간단히 말했지만, 박의장에게 이 기소는 국제적으로 한국에게 손해가 되며 올 가을 유엔 토론에서 한국에게 문제를 추가시킬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장면이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은 차지하고라도 그의 성품을 알고 있는 그의 친구들은 아무도 그가 쿠데타-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2. 박의장은 다음과 같이 장황하게 대답하였다 :

A. 그는 그 재판의 국제적 의미를 매우 잘 자각하고 있다. 그 이상으로 그는 장면이 지도적인 카톨릭 신자이므로 세계의 카톨릭 신자들은 엄청

나게 이 사건에 당황해 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B. 이 때문에 그는 개인적으로 장면이 처음부터 체포되거나 기소되어서는 안 되며 정중히 심문받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C. 재판이 진행되자 다른 피고들의 증언으로부터 장면이 연루되었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장면이 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인상을 남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최초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

D. 군사법정은 9월 20일경에 판결을 내릴 것이며 (우리가 확보한 다른 정보는 9월 27일), 그 이후에 장면은 두 개의 항소를 할 것이다.

E. 법정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박의장)는 형이 집행, 감형, 혹은 면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는 현재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에게 말할 수 없지만 국제적인 추이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을 본인에게 확신시키기를 원했다.

3. 본인은 그가 마음에 두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이 재판은 SOF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한국의 사법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장면 재판이 사법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면밀히 조명될 것이며 범죄자 재판관할권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협상에 복잡함을 더해줄 것이다. 박의장은 이 문제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자신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솔직히 말한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

4. 그가 진지하게 말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본인은 그가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손해를 입었으나 본인은 박의장이 사건의 최종결정을 위하여 자신에게 오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본인은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문제를 그대로 둘 것을 제안하고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면 현재 심리 중이라고 답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버거(Berger)

1962년 9월 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2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어제 본인이 박의장을 방문했을 때 박의장은 한국 군대의 규모에 대하여 미국의 결정이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본인은 워싱턴에서 이 문제의 검토가 진전된 단계에 있으나 아직 계속 60만 명 규모를 유지할 것인지 감축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만일 감축이 결정되면 내년에 3~4만 명 규모가 될 것이며, 조속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인은 박의장이 무엇인가 말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의 논의로 넘어갔다.

2. 계속된 경제계획국 의장 김유택(Kim Yu-T'aek)과의 대화에서 김은 1963년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국방장관이 제출한 국방예산의 규모를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삭감할 예정이지만 기껏해야 21억 원 이하로 삭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예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산을 20억 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1개 사단 내지 2개 사단의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 관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말 것을 본인에게 요청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3. 본인은 워싱턴의 기관들도 대한민국 군대 규모를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4. 논평 : 워싱턴이 군대를 감축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놀라지 않을 것이며 본인 생각에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용될 것이다. 언제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본인이 알 수 있는가. 결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조만간에 결정되기를 희망한다.

버거(Berger)

1962년 9월 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2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어제 본인과 박의장과의 면담에서 박의장은 김유택(Kim Yu-T'aek)이 미국을 방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내각수반도 전에 본인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였다.)

2. 본인은 두 사람에게 우리는 김유택이 말한바 즉, 원조논의, 국무부장관, 국방장관과의 회담 등등, 국무부장관과의 합동기자회견 등등으로 판단해 볼 때 그의 방문에 동의할 수 없으나, 해리먼 주지사는 김유택이 논의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의 고위관료들과 회담을 주선할 것이다. 본인은 또 이러한 회담은 워싱턴에 있는 우리의 관리들에 의하여 우리의 지급잔액문제를 김유택과 한국 정부에게 국내로 가져가도록 활용될 것이며 이 영향은 우리의 원조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박의장은 위에서 언급한 견해에 따라 말했으며, 워싱턴에서 본인의 협의와 9월 말에 있을 킬렌(Killen)의 방문에 대하여 박의장에게 한 보고에서 김이 방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4. 후에 김은 본인을 찾아와 "이곳이 일이 바빠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BRD-IMF 회담에 참석할 대표단은 재무부장관 김세원, 경제계획국 부의장 차견회(T'chah Kyun-Hui), 한국은행 연구원장 윤성두(Yun Sung-Tu), 그리고 재무부 외환국장 이재설(Yi Chae-Sol) 등이다.

5. 김유택은 자신이 방문했을 경우에 예견했던 여러 부서의 고위관료들과의 회담이 재무부장관과 위의 대표단에게 주선되도록 요청했다.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이 대표단의 일정을 책임질 것이다.

6. 본인은 비록 워싱턴이 잘 알고 있다하더라도 재무부장관에게 그들의 문제를 언급할 기회를 줄 것과 우리가 회담을 이용하여 1억 5,000만 달러의 지원원조와 같은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현실을 깨우치도록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버거(Berger)

1962년 9월 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22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외무부장관은 어제 본인에게 현 홍콩영사 최문경(Ch'oe Mun-Kyong)이 외무차관으로 임명되었다고 전하면서 장관은 최 차관이 9월 20일부터 10일 동안 워싱턴에 머물면서 한국대사관과 미국 관리들을 만나고 특히 그의 장래 임무수행을 위해 국무부 행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가 마지막 목표에 대하여 초청을 해 줄지 여부를 물었다.
2. 본인은 즉시 국무부를 대신하여 초청장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은 그의 일정에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과 더불어 국무부가 이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버거(Berger)

1962년 9월 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3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외무부는 워싱턴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국무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언론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대사관에 통보하였다. 외무부는 놀라움을 표하면서 설명을 요청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합동언론성명이 양 수도에서 발표되어야 한다.
2. 대사관은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할 것을 예상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가 고통스럽게 떨쳐버리려고 했던 의구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기로 작정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버거(Berger)

1962년 9월 7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20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해리먼(Harriman) 주지사는 오늘 사실이 어떻든지 장면의 군법회의 공판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면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김종오(Kim Chong-O) 장군에게 제안하였다.
2. 그는 또 기회를 이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한-일 협상의 타결에 대한 케네디 대통령과 자신의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끝.

러스크(Rusk)

1962년 9월 11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뉴욕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2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이 대사(한국)는 오늘 요스트(Yost)를 방문하여 제17차 유엔총회에서 있을 한국안건을 논의하였다. 그는 한국이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아프리카에서 자신이 행한 노력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는 모로코에서 성공적이었으며 세네갈에는 다소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으나

아이보리 해안지역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콩고에 대하여 그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가질 가치가 있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리오(Leo)가 통일된다면 그 국가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유엔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이 대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절단이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 지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작년에 한국문제에 대한 "제네바회담"을 주장했단 인도네시아 대사의 입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올해 그러한 제안이 상정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북한의 회원국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가 어려운 사안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는 북한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북한에 사찰을 허락할 용의가 포함된 최근의 북한 선동적 성명을 언급하였다.

이 대사는 소련의 한국안건은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보고서 작성 문제와 연관하여 토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스티븐슨(Stevenson)

1962년 9월 21일
육군성 통신국 전문
발신 : 미 8군사령관
수신 : 미 태평양육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전문번호 : KA 41900 EUSA G1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C) 북한 육군 제2보병사단에 대한 배경 : 북한 육군 제2보병사단 내부에서 있었던 집단 월남 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62년 7월 17일에 남한으로 귀순한 제2사단 소속의 한 상사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월남음모의 전개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1957년과 1958년 초에 제2사단장은 자신의 사단이 집단적으로 남한으로 탈출할 비밀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58년 3월 2사단이 안협(Anhyop)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공산군 사단과 교체되었던 시기에 사단장을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주요 간부

들과 예하 지휘관들이 그 계획을 수행하도록 발탁되었다. 예를 들어 사단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남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헌병중대장은 심복부하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58년 8월 사단장과 사단의 정치활동에 대한 노동당의 검열기간 동안 음모 증거들이 드러났다. 후속 조사에서 사단장은 58년 12월에 숙청당했고, 그의 심복부하들은 1959년 초에 숙청당했다. 2사단이 비무장지대에 도착한 지 일 년 후인 59년 3월 2사단은 제10보병사단에 의하여 교체되었으며 인천지역의 제7군단 예비사단이 되었다. 1959년 나머지 기간과 60년까지 음모에 연관된 장교들의 숙청은 계속되었다. 월남한 상사는 결과적으로 2사단의 장교 절반가량이 체포되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다고 말했다. 제7군단의 예비사단으로 배속된 지 17개월 후인 61년 8월에 2사단은 비무장지대에 있는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정보참모부 논평 : (C-NF) 그 월남자가 제공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체포된 한 북한간첩(502-ISP-PKA-SIR-27, 61년 8월 23일)의 미확인된 보고와도 일치한다. 보고서의 활동들은 59년 3월 2사단이 비무장지대에서 갑작스럽게 교체된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1959-1960년 기간에 안협-인천 지역에 있는 병력의 배치에 관하여 전투서열 보유에 있어서의 차이를 채워주고 있다. 이러한 귀순음모는 부분적으로 1958년 이래 북한 육군에 의하여 단행된 군사적, 정치적 보안조치의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현지주둔 사단에서 병력을 차출했던 비무장지대 경찰부대들은 현재 특별히 조직된 다음에 현지 사단에 배속된다. 비무장지대 경찰부대원들은 정치적인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는다. 또한 북한군 내부의 북한노동당 세포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반공산당 분자들이나 활동을 감시, 보고하기 위해 낮은 단계에까지 그 세력이 확장되어있다. 반동분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은 그러한 반대를 누르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며 통제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C-NF) 대한민국의 국내사정 : 현재 남한의 상황은 비교적 평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은 현재 대한민국 육군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정부 관청들과 관리들에 대한 검열에 관심을 쏟고 있다.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외무・국방위원회 의장 김동하(Kim Tong-Ha) 중장과 그의 팀은 현재 대한민국 육군 제1군사령부를 검열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 육군 사령부를 검열할 예정이다. 김재춘(Kim Chae-Chun) 준장과 5명의 팀은 군수기지사령부와 진해의 해군기지사령부, 그리고 육군사령부를 검열할 예정이다.

박의장은 최근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선거법의 준비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과 모든 관련요원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든 혹은 정부의 견해든 발언을 멈출 것을 명령하였다. 중요인사들의 비공식적인 발언들이 정권의 의도에 대한 무성한 대중적 억측을 자극하였으며 국내언론들의 광범위한 조작으로 이어졌다. 박의장의 명령 이후 실제로 모든 중요 관리들은 언론이나 혹은 사적인 대화에서 모든 비공식적인 발언을 삼갔으므로 정권의 조치에 대한 대중들의 억측과 염려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현재 대중들의 지배적인 태도는 박의장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커다란 추측을 하면서 정부의 의도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정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 (C-NF)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고 있음 : 62년 9월 19일 대전에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중에 내각수반 김현철(Kim Hyon-Cho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의장이 강력한 지도력을 제공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혁명정부는 5개년 경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해야 하며 국가의 산업화와 병행하여 농업의 부흥도 완수해야 한다.” 자신의 발언을 엄격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한하면서 그는 비록 박 장군은 정부가 민간에 이양되면 정치활동을 중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가 장차 정부의 수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참모부 논평 : (C-NF) 내각수반의 발표는 박의장을 내년에 설립될 민간정부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하게 논리적이고 유능한 사람으로서의 대중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체적 전략의 일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9월 14일, 대한민국 육군 지휘관 장창국 중장은 공개적으로 박의장을 포함한 “혁명주체”는 장래의 민간정부에 참여하여 5개년계획의 목표달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그들이 불러일으킨 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시기적절한 인기였으며 박의장의 궁극적인 대통령 선거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만일 필요로 하는 충분한 인기가 형성되면 박의장의

당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덜 급진적이 될 것이며 대중들과 국제적 의견을 좀 더 잘 만족시키는 것들이 될 것이다.

이 정보는 민감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단사령부급 이하로 유포되어서는 안된다.

1962년 9월 26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9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7월 17일이래 주한미군은 지급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국방부가 부과한 지역조달의 제한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부차관보 번디(Bundy)는 워싱턴에서 본인에게 한국의 특수상황이 인정되며 일괄 면제는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요청한 특별한 면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고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그러한 요청을 일시적 면제를 허락했던 서태평양 조달활동 본부장(일본 미군사령관)에게 제출하였다. 영구면제요청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본인은 이러한 요청이 최우선적인 검토와 관대함을 갖고 처리되기를 간청했다. 계란, 돼지고지, 배터리, 타이어, 그리고 비슷한 산업체들이 우리의 과거 정책에서 격려와 미국의 차관까지 들여가면서 장려되었는데 만일 면제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실업자와 정부와 대중의 적개심의 증가로 진정으로 곤경에 처할 것이다.

2.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의하여 감소된 지역조달의 위협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언론에서 그것에 대하여 상당히 다루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들은 미국과 대화할 때마다 그것을 거론하고 있다. 그것은 9월 3일 경제계획 국 의장 김유택과 공식적인 대화의 주제였으며 9월 22일 토요일 킬렌(Killen), 멜로이(Meloy) 장군, 그리고 본인이 외무부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주제였다.

3.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미군의 지역조달의 증가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당분간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대한민국이 약 8,800만 달러를 획득할 수 있는 현재 규모의 수준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제약이 가해지기 전해인 1963 회계연도에는 9,000만 달러까지 인상된다는 약속을 희망한다. 예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1963 회계연도 동안에 최종적인 획득을 계산하기 어렵지만 현지의 지표는 만일 면제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외환획득은 8,300만 달러로 줄어들 것이며 만일 제한이 적용된다면 대한민국의 획득에 있어서 감소는 현저할 것이다.

4. 미국과 한국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가능한 해결책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외환획득을 더 많이 미국에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1962 회계연도에 대한민국은 약 1,300만 달러를 미국 물품의 수입에 소비하였는데 이 금액은 한국이 획득한 미국의 지출예산 5,500만 달러의 23%에 해당한다. 만일 우리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획득 중에서 더 많은 분량을 미국에서 소비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또 훨씬 적은 서류작업을 통하여 우리의 목표를 좀 더 충분히 그리고 단순하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8월에 이것을 재무부의 존 레디(John Leddy) 차관보와 논의했는데, 레디 차관보는 그러한 방법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재무부는 그것을 검토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의 계좌와 일정한 기술적인 배치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토요일 외무부의 토론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대한민국은 그것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만일 워싱턴의 부처에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에 찬성하는 결론이 만들어지고, 재무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적인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면, 우리는 이곳에서 밀어 붙여보겠다.

버거(Berger)

1962년 9월 28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볼(Ball)
수신 : 뉴욕 유엔미국대표부
전문번호 : 80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유엔 미국대표부는 최(Choe)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

미국은 항상 한국의 통일을 앞당기고 한국안건의 유엔 토론에서 대한국민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념에 관심이 있지만 과거 북한의 도전으로부터 판단해 보건대 북한이 어떻게 조직되든지 간에 유엔 보호 하에서나 혹은 유엔 보호 행정하에서 치러질 선거를 수용할 것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구성되든지 간에 유엔군대를 수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한다. 소련은 한반도에 주둔하기 위하여 조직된 유엔군의 권리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군을 재조직한다는 선진개념은 외국군대의 철수에 대한 소련의 제안이라는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 소련이 제안한 안건은 유엔군의 구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외국" 군대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용가능한 유엔군 구성의 어떠한 변화도 그들에게는 수용 불능이다. 뉴욕의 942는 중립국들이 얼마나 쉽게 외국군대의 철수라는 제안에 피상적으로 유혹 당하는지 나타낸다. 유엔군 구성의 변경은 최소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은 그러한 조처를 제안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해야만 한다. (검열삭제)

이전에 밝혔듯이 미국은 도움이 될만한 한국문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알지 못한다. (검열삭제). 끝.

볼(Ball)

1962년 10월 5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33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내년에 민간정부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제기했던 평가와 관련하여 박의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9월 20일 본인의 박의장에 대한 요청의 결과로서 박의장의 집무실은 어제 정오에 오늘 오후로 약속을 정하자고 전해왔다. 우리는 한 시간 이상 함께 했다.

2. 본인은 개정된 헌법의 심의에 대하여 대사관과 국무부에 계속 통보하기 위하여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 이석재(Yi Sok-Chae) 대령으로 하여금 정치고문관과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배려해준 데 대하여 박의장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면담을 시작하였다. 그 정기회담은 우리에게 계속적이고 내부적인 견해를 제공하여 우리가 소문과 언론에 대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였다. 헌법은 잘 제정되고 있는 것 같으며 위원회와 공개청문회에 외부인사를 활용한 덕분에 개정헌법은 국민투표에서 인준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상이다. 본인은 그런 다음 박의장에게 좀 더 진전된 선거방식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였다.

3. 의장은 다음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말하면서 입을 열었다 :

   A. 계획들은 그가 이 주제에 대하여 지난번 대화에서 묘사한 것과 거의 같다. 참고전문을 참조할 것.

   B.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는 거의 확실히 12월 성탄절 이전에 실시될 것이다. 정당들은 그런 다음 그 헌법에 근거하여 1963년 초에 기능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C. 혁명지도자들이 단순히 군대를 원상 복귀시키지 않을 것이며 민간인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지 정부가 조만간 옛날 방식으로 회귀할 것이며 더 많은 군사쿠데타에 문호를 열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군사지도자들은 군복을 벗고 다음 정부의 일부분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의장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입법부의 일정한 숫자의 구성원들을 임명하는 방법을 옹호하고 있으나 그는 이것을 반대했다. 그것은 다른 나라, 특히 터키에서 실패하였으므로 한국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D. 내년 5월이나 혹은 6월에 치러질 선거는 국민들이 정당들과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직한 선거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혁명지도자들은 민간인들과 함께 선거에서 자신들의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군대로 복귀할 것이고, 다른 자들은 정부와 산업의 여러 직책에 임명될 것이다.

E. 박의장 자신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는 군대로 복귀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본인도 그가 묘사한 방식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본인은 상황논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건들이 그의 딜레마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동의하면서 웃었다.

5. 본인은 그에게 만일 정부가 정당 활동과 선거를 지배할 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와 외부 위원회와 공청회라는 장치를 이용할 의도가 있는지 물으면서 이것이 헌법의 운용에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다시 한번 지적하였다. 그는 이것을 심사숙고했으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조치들이 발표되면 언론과 국민들은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며 정부는 그런 다음 국민정서를 근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정보는 위원회라는 장치는 여전히 고려중이라고 한다.)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미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있다. 이것은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법령을 어기는 것이지만 정부는 만일 그러한 모임이 조용히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내하기로 결정하였다.

6. 본인은 정당 활동이 시작되면 계엄령은 철회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박의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것은 선거일이 공포되기 전까지 그리고 선거 한 달 전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일단 정당 활동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선거운동은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의장은 자신도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가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미국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희망하는 이유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본인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의 원조의 규모는 매우 잘 확정되어 있으므로 물가인상은 신중한 예산과 신용정책에 의해서만 억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7. 이러한 주제에서 벗어난 대화 이후에 본인은 그가 생각하기에 누가 대통령에 출마할 것 같으냐고 물었다. 그는 만일 그가 출마하면 지원할 의도가 있지만 만일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참여하겠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본인은 그에게 주요 참가자들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그는 후보자들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8. 본인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하여 정부 내에 두 가지 견해가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총선과 같은 시기에 치러져야 한다는 것과 좀 더 일찍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 계획도 취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국민투표를 치른 다음 두 개의 선거에 비우호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생각했다. 다른 한편으로 별도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주장도 있었다. 그는 본인의 견해를 물었다. 본인은 이것은 어떤 방식이 그의 정당이 가장 많이 선출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며 (이것과 다른 문제들과 더하여) 실질적인 정치의 문제라고 말했다.

버거(Berger)

1962년 10월 5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33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본인의 논의에서 제기된 것들은 현재 다음 8개월 동안의 진로를 준비하는 통신문에서 분석될 것이다.

9. 순탄한 정부이양과 그 이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훌륭한 명성을 가진 과거의 정치가들을 포함하여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감싸 안기 위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기반을 가진 국민 통합적 정당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커다란 국민적 인기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의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본인은 그런 다음 새로운 정당에서 군대와 더불어 참여하겠다고 접근했던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으나 본인이 알기로 혁명에 매우 동정적이었던 저명한 지도자들이 접근했다는 인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장은 연초 이후 정치활동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인은 박의장이 정치정화 대상목록에 있는 좀 더 많은 지도자들을 풀어줄 의도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몇몇을 풀어줄 용의가 있으나 이것 역시 연초 이후

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 최종적으로 본인은 정치활동의 재개됨에 따라 미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정부에 호의적인 사람들과 우리의 견해에 비판적인 사람들 모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우리는 중립에 설 의도가 있음을 그에게 말하기를 원했다. 즉,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문제이다. 의장은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시점에 그것에 관해서 본인에게 말할 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버거(Berger)

1962년 10월 10일
정일권이 C. Kaysen에게 보낸 서신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17 Box 127A

친애하는 케이슨씨(Mr. Kaysen) :

10월 9일의 당신의 편지와 관련하여, 미국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가 다른 자료들과 비교했을때 합리적인 수치라고 지적한 소련연방국(Sino-Soviet Bloc Countries)의 광물보고서(Mineral facts)에서 인용한 1961년도의 한국의 북측지역의 생산량과 1차 5개년계획의 목표연도인 1966년의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생산계획량을 비교한 아래 수치들을 오늘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북한	대한민국
	1961	1966 목표연도
석탄	11,790,000톤	11,740,000톤
시멘트	2,263,000톤	1,370,000톤
조강(Crude Steel)	776,000톤	310,000톤
압연강(Rolled Steel)	536,000톤	N.A.(not available)
선철(Pig iron)	930,000톤	250,000톤
비료	662,000톤(광석(Mineral))	521,500톤(암모늄 유황염)
전력	10,418,000,000KWH	4,509,000,000KWH

나는 어제 아침 하버드시절의 기억을 되살려준 당신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들의 하버드시절을 회고하기 위해 다음 주 또는 당신이 편리한 시간에 오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당신의 사려깊은 생각과 우리의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이해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어제 대통령과의 회담동안 당신이 보여준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명/
정일권 대사

1962년 10월 1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34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10월 10일 대화에서 외무부 동북아시아국장 황호을(Hwang Ho-Ul)은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0일 김종필이 동경을 방문하는 동안 김종필이 이케다(Ikeda) 수상과 오히라(Ohira) 외무상과 나눌 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황은 김종필의 대화가 한-일 회담에 진전을 가져와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갖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진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재정적인 타결을 협상할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최규하(Ch’oe Kyu-Ha) 공사가 협의를 위하여 10월 12일 소환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김종필이 방문하기 전에 일본정부가 새로운 제안에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김과 오히라는 그런 다음 공식적으로 그 제안에 합의하고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정치회담에 대한 기초공사를 할 것이다.

(검열삭제)

버거(Berger)

1962년 10월 1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35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10월 13일 언론은 장면이 자신이 무죄라는 근거로 사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변호인은 언론에 자신은 10월 12일 재심재판부의 사건배당 이후 법정시한 7일 이내에 고등군사법정에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군사법정 당국은 장면의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초래된 상황을 숙고하기 위하여 비상회의를 소집하였다.

2. 군사법정의 규정에 의하면 체포영장은 재심당국이 형량을 사면하면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형량이 10년이나 그 이상일 경우 죄수를 자동적으로 방면할 의무는 없다. 만일 피고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그는 방면되고 소송은 끝난다. 이처럼 장면은 자신을 유죄로 남겨둔 채 오직 군사정부의 자비에 의지하여 방면되는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만일 그가 7일 이내(10월 19일)에 항소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재심당국의 행동은 확정될 것이고 장면은 석방될 것이다.

3. 장면은 만일 군사정부가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한다면 그는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유리한 조건에 있는 자신의 적들이 공격하는 경우로 생각하고 있다.

버거(Berger)

1962년 10월 15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36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장면은 석방되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할 것이다. 공판 이전에 그는 뉴욕으로 가서 맨하탄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바램을 표현하였는데 그의 가족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아직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2. 석방에 대한 현재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만일 장면이 항소를 고집한다면 또 다른 공판을 하여야 하며 사건의 해결은 한동안 늦어질 것이다.

3. 군사정부 내의 권위 있는 소식통은 만일 장면이 장도영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고 석방 전에 말했다. 이것은 석방 즉시 미국의 보호를 받아 한국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장면이 석방조건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의 결과에 따라 변화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참고전문 2항의 진술과 일치할 것이다. 대사관은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버거(Berger)

1962년 10월 15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31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박대통령의 경호실장 박종규(Pak Chong-Hyu) 중령은 몇 주일 전에 전임 미육군 소령 요시 카네가이(Yoshi G. Kanegai)에게 편지로 자신은 비밀경호훈련을 받기 위하여 미국에 가고 싶으며 모든 비용은 한국이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카네가이는 1961년 11월 박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두 사람과 함께 일했던 국무부의 경호담당관 프랜시스 툴리(Francis W. Tully)에게 전화를 했다.

(검열삭제)

러스크(Rusk)

1962년 10월 16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32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대사 귀하

한국대사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부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김종필의 임명을 계속 조르고 있다. 귀하가 알다시피, 계획은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을 포함하여 정보와 보안 분야의 관리들이 김종필과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검열삭제) 국무부장관실에 간단한 인사방문을 하도록 제한한다. 만일 그러한 방문이 실제로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국무부장관은 책임 있는 대의정부의 발전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한국의 장래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김종필 에게 간단히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무부장관에 대한 제안된 방문의 장점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한다. 지급 전문으로 응답하라. 끝.

러스크(Rusk)

(다음은 전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손으로 쓰여 진 내용이다 : 역자 주)

이전의 전문에서 국무부는 서울 대사관에게 고위급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만일 대사가 생각하기에 러스크 장관을 만나는 것이 김의 명성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러스크 장관과의 회합을 주선할 용의가 있다.

1962년 10월 1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37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한국일보는 10월 17일 동경 주재기자 임삼본(Yim Sam-Pon)로부터 동경 주재 미국대사관은 김종필이 국무부장관과 국방부 고위관리들 뿐만 아니라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의 권력이양문제, 한·일 협상, 경제·군사원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이야기가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꾸며낸 말인지 조속히 알고 싶다.
2.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언론의 질문에 대응하고 있다 :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미국 관리들과 정보와 보안에 관련된 상호 이해관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문을 해주도록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았다."
3. 만일 대통령과의 면담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그러한 회담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4. 동경대사관도 위의 지침을 따를 것을 제안한다.

버거(Berger)

1962년 10월 1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37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김종필이 오히라(Ohira), 이케다(Ikeda)와 회담을 마치고 바로 오기 때문에 국무부장관을 예방하는 것은 협상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있는 한·일 협상의 진전을 촉진하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넓히는 데에도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참고전문 2항의 마지막 문장에 언급된 주제에 추가하여 국무부장관과 회담의 주요 토론사안이 될 것이다.
2. 국방장관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부통령과의 약속은 강력히 반대한다.

버거(Berger)

1962년 10월 1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동경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110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한국일보 기사는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다. 대사관 직원 중 아무도 임삼본(Yim Sam-pon)이나 혹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김의 미국방문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

대사관은 이 주제에 대하여 접근 받은 적이 없지만 만일 접근을 받는다면 참고전문이 제시한 제안에 따를 것이다.

라이샤워(Reischaur)

1962년 10월 19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33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국무부는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에 대한 북한의 반대를 조사하기 위한 사람에 대하여 호의를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유엔에 대한 북한의 도전과 완고함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개인을 임명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에 위엄을 더해주는 것이며 유엔과 대한민국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개인의 임명은 우리의 견해로는 UNCURK를 비난하는 보고서를 초래할 뿐이며 아마 폐지를 제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구성이나 조항의 변경을 제안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러한 제안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불이익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안 즉, 통일의 진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하여 보고하고

조사하는 개인을 임명하는 제안이 더 좋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태는 재통일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함축적으로 승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UNCURK가 부적절하다는 함축적 의미에 의하여 UNCURK가 손상당하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그러한 업무를 담당한 개인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유엔총회가 개인을 선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나긴 논쟁을 유발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을 얻는다는 것 또한 쉽지 않다.

2. 국무부는 최우선적인 필요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얻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한국과 더불어 결의안을 정하는 데 매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미국대표부는 이 점을 반복하여 한국 대표단에게 압박하고 만일 수용된다면 우리의 결의안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손상시킬 것이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회피하는 만큼 대한민국에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바란다. 어떠한 초청도 행해지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의 제안에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당한 정도로 북한의 무절제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총회에서 수용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우리 편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결의안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것은 우리에게 결의안의 문구를, 예를 들면, 양측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고 북한에 매우 불리한 서문의 2항과 3항을 결정하는 데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할 것이다.

3. 2항에서 기술된 유엔 미국대표부가 해야 할 주장에 뒤이어 서울 대사관은 외무부와 국제외교국장에게 위의 2항의 실질적인 주장을 이용하여 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를 제안한다.

4. 국무부는 만일 북한이 의석을 차지한다면 회의장에서 퇴장하겠다는 한국의 위협은 현재 적절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참고전문 3항의 마지막 두 문장의 권고조치들에 동의한다. 끝.

러스크(Rusk)

1962년 10월 2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39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동경 대사관은 두 정부간 관계정상화는 전적으로 다른 성격의 문제이며 이미 긴밀한 우호관계를 향유하고 있는 두 정부간에 맺어진 행정협정 협상보다도 더욱 더 큰 범위임을 외무부에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군사정부와 많은 군사협정을 맺고 있으며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유엔과 같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더욱이, 작년에 대한민국은 많은 자유세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확대하였다.

2. 민간정부가 회복될 때까지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을 연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헌법기능의 일정부분이 정지되고 계엄령의 실시로부터 결과 된 법정과 법률절차에 있어서 다소 비정상적인 국내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정부의 회복이 뒤따르는 변화를 예상하고 더 중요하게는 개정된 헌법의 채택을 전재로 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에 이끌려 나와서는 안 되는 한편 외무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채택될 헌법의 성격을 알기 전까지 협상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범죄자 재판관할권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3. 외무부는 SOFA의 복잡성을 상기하여야 한다. 9월 6일 한-미 합동 언론발표에서 언급되었듯이 “모름지기 주둔군의 지위협정은 복잡한 현안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상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헌법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주둔군지위협정의 체결은 민간정부의 회복 때까지 순연될 것이다.”

두 번째 문장과 “따라서”라는 용어의 사용은 복잡성과 협상체결에 필요한 시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4.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의 경우와 같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도 비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합의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버거(Berger)

1962년 10월 23일
국무부 착신 항공우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57호
제목 : 김종필의 방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9 Box 129

1. 김종필의 방문과 귀하의 김종필과의 대화는 본인이 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그의 확신과 따라서 그의 생각에 군사정부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의 복잡성이 더해질 것 같다. (검열삭제)

5. 김과의 대화를 전술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가 군사정부의 많은 건설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군수품 절도행위의 감소, 밀수의 감소, 농업개혁조치, 개선된 세금징수, 반공보안조치의 개선, 일본과 협상타결 노력, 최근의 정부의 물가상승 위협에 대한 자각징후와 그 압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군사정부의 건설적인 행동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본인은 워커힐, 주식시장조작 이나 혹은 화폐개혁의 실패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을 제안한다.

6. 정부의 선거계획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의 계획은 후보자들의 선택을 조종하는 것이고 대부분 김종필의 의심스러운 행위들에 대한 질문의 범주에 들어갈 정부의 조치들의 어떤 측면에 대하여 당혹스러운 질문을 제기할 후보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인(訴因)이 공평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논의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다룰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왔던 노선은 혁명의 이상, 개혁, 재능과 개성이, 정부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동체의 지지를 얻고 혁명적 계획의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계속하며 궁극적인 정상 민주정체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하여, 민간인들의 재능 및 개성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복무로부터 은퇴하여 민간의 책임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반대하지 않으나 군대의 중립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이 강조되

어야 한다. 정부가 광범위한 토론의 자유 하에서 얻은 대중적 위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상을 김종필에게 분명하게 심어줘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한국 내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우방들은 한국 정부를 옹호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버거(Berger)

1962년 11월 1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40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1. 대한민국 언론은 지난주 내내 김종필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 정부가 그의 정치적 계획을 승인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내용을 반복하여 전면기사로 실었다. 김의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면담 이후에 언론은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이 "미국 대통령과 행정 부처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며 한국의 군사정부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 내용은 김 부장이 "군사정부의 계획들은 계속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의 맥락에서 기사화 되었다. 기사는 "김 부장은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으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로스토(Rostow)와 본인의 대화에 대한 보고서는 "혁명주체는 다음 4년 동안 민간정부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김종필의 설명을 인용했으며 "로스토는 김 부장이 설명한 상세한 그와 같은 계획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한 "소식통"을 인용하였다. 장관과의 논의로부터 김이 인용한 바는 단순히 그가 "우리를 매우 격려했다"는 것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장관이 말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방문을 종합하는 일반 뉴스보도는 "미국 정부는 민간정부의 형성에 대한 조건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국의 혁명주체들이 취한 조처들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케네디 행정부는 대한민국의 군사정부에 대하여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10월 29일 연합통신

기사는 오늘까지 한국어판 신문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분명히 어용뉴스기사의 홍수는 김종필과 군사정부의 모든 계획에 대한 미국 의지지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이다. 국무부는 김이 만난 모든 미국 정부의 관리들과 부서들이 일반적인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들을 다루었다면 그것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보내주기 바란다.

버거(Berger)

1962년 11월 2일
국무부 발송 항공서한
발신 : 국무부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4883호
제목 : 한국 중앙정보부 김종필 부장의 미국방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개요와 요약

한국 중앙정보부 김종필 부장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초청으로 1962년 10월 23~29일 워싱턴을 방문하였다. 그가 우선적으로 중앙정보국 요원들과 관계하였지만 그의 방문을 정보와 보안문제에 대한 협의로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미국으로 오는 도중에 일본의 수상 및 외무상을 방문했던 중요한 정치계와 정부의 인물로서 그는 자연히 미국의 고위관리들과 정보 및 안보 이외의 현안들에 관하여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사전계획에서조차 김은 미국의 최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착 후에 그는 계속 압력을 가했으며 심지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면담약속을 만들었다. 그는 미국 관리들과 미국 내 한국 공동체에 호의적인 인상을 주기를 원하며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상을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 한편, 그는 또한 명백히 인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의 방문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진촬영과 뉴스보도가 있었다. 그는 뉴욕, 플로리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호놀룰루를 짧게 방문하기 위하여 10월 30일 워싱턴을 떠났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도중에 동경에 잠깐 들를 예정이다.

방문단의 일행들

네 명의 한국관리들이 한국에서 왔다 : 김종필 자신; 중앙정보부의 제2국장 윤일권(Yun Il-kyun) 대령; 계획국장 조주원(Cho Chu-won) 대령; 김의 통역관으로 참가한 중앙정보부의 연락담당국장 김상인(Kim Sang-in) 대령 등이었다.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행이 미국에 도착한 때부터 한국대사관 김동환(Kim Tong-hwan) 공사가 일행에 합류하였다.

일정과 여행계획

10월 24일 - 중앙정보국의 브리핑.

10월 25일 - 국방부 정보국과 육해공군 정보부서들의 브리핑,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차관보 윌리엄 번디(William P. Bundy) 방문, 무명용사묘지에 헌화, 한국대사관이 주선한 국제개발처(AID) 책임자 파울러 해밀턴(Fowler Hamilton) 방문.

10월 26일 - 한국대사관이 주선한 상무장관 루터 하지스(Luther Hodges) 방문, 연방수사국 시설 시찰,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 방문.

10월 27일 - 합참의장 맥스웰 타일러(Maxwell D. Taylor) 방문.

10월 29일 - 국무부 정보 & 연구국 국장 로저 힐스먼(Roger Hilsman)과 비서관의 브리핑, 힐스먼이 주최하는 백악관 영빈관에서 점심식사, 국무부장관 딘 러스크(Dean Rusk)와 차관 애버릴 해리먼(W. Averell Harriman)과의 대화.

메릴랜드주 포트 홀라버드(Fort Holabird)에 위치한 방첩대 훈련소를 방문한 후 김은 10월 30일 뉴욕을 향하여 출발했다. 그 시점부터 그의 여행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30일 ~ 11월 1일 뉴욕방문, 11월 1~3일 밴 플리트(Van Fleet) 장군의 손님으로서 플로리다 방문, 11월 3~5일 로스앤젤레스 방문, 11월 5~7일 샌프란시스코 방문, 11월 7~9일 호놀룰루 방문. 그는 11월 13일 서울로 귀환하기 전 11월 10~12일 3일 동안을 동경에서 보낼 예정이다.

고위 미국 관리들과의 논의

1) 국방부 차관보 윌리엄 번디 - (검열삭제) 번디는 전자에 대하여 아무런 결

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말했으며 F-104보다도 오히려 F5A 항공기를 제공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1963 회계연도의 군사원조의 규모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는 작년의 규모와 같다고 말했다.

2) 국제개발처(AID) 책임자 파울러 해밀턴 - (검열삭제) 해밀턴은 경제원조자금의 의회삭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아무런 확답이나 금액을 제공하지 않았다.

3) 상무장관 루터 하지스 - 김은 미국의 민간투자의 유치에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개발한 장관의 경험에 비추어) 관한 장관의 조언을 요청하였다. 장관은 그에게 성가신 통제로부터의 자유, 공무원들의 정직성, 기업가 집단의 자신감, 그리고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 장관의 한국방문에 대하여 말했다. 그는 농담으로 만일 장관이 그의 체류 동안에 최소한 5시간을 그에게 할애해주지 않는다면 그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장관은 자신의 일정은 버거(Berger) 대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대답했다.

4)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로버트 케네디 -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케네디는 김에게 연방수사국과 법무부의 법집행과 수사 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했다.

5) 맥스웰 타일러 장군 - 타일러 장군과 김은 (검열삭제)와 남북한간의 침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6) 국무부 정보 & 연구국 국장 로저 힐스먼 - 힐스먼은 김에게 쿠바에 있는 소련의 미사일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했으며 중요한 사진들의 사본을 그에게 주었다.

(10월 29일 국무부장관 및 차관과의 대담에 관한 비망록과 국무부 로스토(Rostow) 공사와의 대화 비망록은 곧 뒤따라 보고될 것이다.)

한국인의 사교 일정

아마도 김 대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대사관은 그에게 많은 야당인사들을 포함한 전체 한국인 공동체와 사교적으로 만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정식으로 미국인이 된 사람들과도 만날 기회를 제공하였다. 10월 24일에 대사는 그의 관저에서 성대한 만찬을 제공하였다. 참석자들 중에는 전임 대사 양유찬(Yang Yu-ch'on), 전

임 공사 한표욱(Han Pyo-uk), 민주당 지도자 이석기(Yi Sok-ki)와 이철승(Yi Ch'ol sung), 그리고 Korean Affairs Institute의 김영정(Kim Yong-jeung) 등이 있었다. 이들과 최경록(Ch'oe Kyong-nok) 장군은 10월 27일 김동환(Kim Tong-hwan) 공사가 주최하는 뷔페 만찬에 초대되었다. 대사는 10월 26일 한국과 관련되어 있거나 과거에 관련되었던 미국 군인과 민간인들을 초대하여 정식 만찬을 베풀었다.

국무부의 로스토 공사는 10월 26일 조찬을 베풀었고 10월 28일 김과 한 번 더 회담을 가졌다.

언론의 선전과 논평

대사관이 고용한 사진사들과 신문의 사진기자들은 금지된 보안지역이나 혹은 사전에 금지된 지역을 제외하고 방문기간 내내 활동사진과 스틸사진을 찍었다. 예를 들면 중앙정보국과 백악관 영빈관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김은 특히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케네디와 사진을 찍지 못한 것을 애석해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이 워싱턴에 돌아가면 직접 서명한 사진을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김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일행은 매우 열광적으로 광고와 선전을 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김이 귀국 후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 같았다.

그는 상당히 자유롭게 한국 언론 대표들 및 일부 미국 언론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가 국무부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일본에서 그가 나눈 대화를 거의 전부 숨김없이 그들에게 제공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제공한 많은 논평 중에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 온 것들은 다음과 같다 : (1) 비록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이 쿠바에서 너무 천천히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은 최근의 미국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그의 워싱턴 도착 즉시의 논평; (2) (그가 10월 26일 몇몇 미국 관리들을 만난 후에) 자유로운 민간정부로의 이양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양을 촉진시킬 임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의 견해에 미국 정부가 동의했다는 주장.

러스크(Rusk)

1962년 11월 3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33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이미 보도된 한국 군사정부의 정부이양계획에 대한 미국의 승인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하여 국무부 대변인은 토요일 오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러한 계획은 다른 주제들 가운데서 논의되었다. 김 부장은 헌법에 근거한 민간정부의 회복 일정을 앞당기려는 한국 군사정부의 의도를 재확인하였다. 김 부장은 정부에 국민의 진정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야당들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시행할 의지가 있으며 1월에 정치토론금지조치가 제거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관리들의 견해에 대한 더 많은 질문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그들은 선거의 실시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약속이행에 그 중요성을 둔다." 끝.

러스크(Rusk)

1962년 11월 7일
국무부 발송 항공서한
발신 : 국무부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5140호
제목 :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호크 지대공 미사일 협정에 대한 제안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국무부 국제개발처(AID)-국방부 합동 메시지

I. 워싱턴은 주한미군이 1962년 10월 3일 편지로 국방장관에게 보낸 한국과의 호크미사일 협정 초안의 최종 내용을 검토하였다. 협정의 서명을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에서는 국방장관이 하는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한

국 국방장관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하고자 한다 :

(1) 기지용 토지의 획득과 지대공미사일 기지의 건설, 그리고 초안 제1항 b(1)에서 특정한 시설을 지원할 권한

(2) 초안 2항 a-d에서 밝힌 설비와 배치를 결정할 권한

(3) 초안 2항 e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공된 정보와 장비에 대한 재산권의 보호

(4) 초안 4항 b에서 규정된 대한민국 인원에 통제

초안 8항 b가 "실행"(아마 "이행"의 의미로)은 미국 정부가 결정한대로 자금의 가용성에 달려있다고 가정한 반면, 실제로 모든 미국 정부의 약속은 승인된 1963 회계연도나 혹은 전년도의 MA계획에 의하여 지원된다. 이것은 또한 초안 1항 a (5)에 있는 미국 요원을 위한 시설 건설, 초안 3항 b의 유지관리, 4항 a와 d의 훈련 등의 책임에도 적용된다.

II.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의 확인이외에도 초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

협정의 제목 - 언급된 MDA협정 날짜가 1961년 대신에 1950년 1월 26일로 변경되어야 한다.

도입단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1950년 1월 26일에 체결된 상호방위원조 협정 제1조 1항에 따라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서명 대표들은 한국의 공중미사일체계에 호크 탄두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한 사항들을 협상한다."

1항 a (6) - 이 조항은 a항과 따로 분리하여 새로운 b항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은 부속문서의 목록에 있는 모든 장비를 전달한다는 의미인데 1항 b (2)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시 쓰여 져야 한다.

1항 b - 이 조항은 c로 다시 계획되어져야 하며 "한국 정부는 위의 1항 a에서 언급한 장비와 다른 품목들을 받아들이며 대외군사원조(MAP)를 통하여 계획된 건설자재 이외에 미국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문구로 시작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1항 b (1) -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항으로 나누어 다시 쓰여 져야 한다 : "(1) 공중미사일체계에 호크 탄두를 설치한 적절한 장소를 획득하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제공한 일정대로 그와 같은 설치시설을 건설한다. (2) 도로, 주택,

유지시설, 창고, 통신망, 발사장 등 주한미군사령관이 인정한 공중방어설비를 충족시킬 모든 필요한 설비를 건설 한다"

수정된 c항의 하위 항목들을 번호를 다시 매겨라.

2항 e, f, g, h - 만일 한국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하고 있다면 왜 이 항목들에서 "대한민국 국방장관"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한국 정부"라는 표현을 쓸 것을 권고한다. e항부터 h항에 담겨있는 하위항목들을 짧게 줄이고 e항의 하위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번호를 매겨라 :

"(1) 미사일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한다....

(2) 부속문서 A부터 E에서 열거된 품목들을 선물, 판매,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개인과 단체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4) 주한미군사령관이 제공한 기술적인 지침과 다른 조언에 따라 조항들을 만들며 파괴에 대해서는...

(5) 공군부대의 육상수송을 지속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6) 매년의 훈련점검의 실시를 제공하고..."

4항 b - "한국 정부는 ...을 확립하고 ...을 제공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에 대한 조치를 취 한다"라고 변경되어야 한다.

4항 c - "한국 정부는 ...을 시작 한다" 그리고 "확립한다, 한국 정부는 ...을 제공 한다"라고 변경되어야 한다.

5항 - 제목 뒤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도입하는 문장이 있어야 한다.: "1962년 5월 기밀정보의 교환에 대하여 우리 두 정부간에 체결한 협정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보안장치가 공중미사일체계의 호크미사일 수송에 적용될 것이다 :"

5항 f -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 할 것이다"라고 시작해야 한다.

7항 a - (1)항의 끝에 있는 마침표를 ;으로 바꾸고 (2)항의 말미에 인용부호를 넣어야 하며, (3)항의 말미의 ;다음에 인용부호를 추가해야 한다.

8항 b - "이러한 합의 비망록의 실행" 대신에 "이러한 합의의 실행"으로 시작해야 한다.

결론문구는 "전술한 합의는 1962년 _월 _일에 합의되었다"로 되어야 한다.

부속문서 A의 첫 페이지의 quantity HIPIR과 AN/MSQ-39는 4대신에 8로 이해되어야 하며 Radar Set, Illuminator, AN/MPQ-33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62년 10월 태평양사령부 메시지 DTG 100454z에 따른 변화이다.

부속문서를 첨부한 서명된 협정의 사본들을 국방장관실, 합동참모부, 육군성, 국무부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러스크(Rusk)

1962년 11월 10일
육군성 통신참모부 전문
발신 : 한국 유엔군사령관
수신 : 워싱턴 합동참모부, 태평양사령부
전문번호 : NOFORN UK 60714 OC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대한민국 외무부는 인도의 델리에 주재하는 공사로부터 네루 수상이 중국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한 전략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한국에 인도사절단을 보낼 것을 대한민국에 요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만일 요청이 들어오면 대응을 위하여 대사와 본인의 동의를 구하였다. 대사와 본인은 모두 만일 이것이 인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단계에 머문다면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지침 하에서 찬성을 표했다.

멜로이(Meloy)

1962년 11월 19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41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1. 본인은 김종필이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과장한 것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발표한 본인의 권고(참고전문)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재고하였다. 비록 그러한 수정발표가 기록을 바로잡기는 하

겠지만 한국에서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미국의 공식입장표명에 대한 충분한 수단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킬렌(Killen)과 본인이 나눈 대화의 관점에서 보면, 본인은 사실을 스스로 말함으로써 과장된 주장을 일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국무부가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참고전문에서 언급된 본인의 권고를 무시하기 바란다.

2. 그러나 우리가 군사정부와 그의 선거계획에 대하여 분명한 미국의 태도를 밝혀야 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것은 만일 정부가 미국의 태도를 계속 잘못 진술할 경우에 특히 그렇다.

버거(Berger)

1962년 11월 2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뉴욕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188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소련은 오늘 한국문제에 관한 토론에서 남북한 모두의 참가를 제의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이 결의안이 이 주제에 대하여 미국이 결의안을 제출할 필요성을 종결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게 열려있는 대체안들은 (A) 작년에 제출한 것들과 유사한 소련의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과 (B) 단순히 북한에 대한 언급에 관하여 별도의 투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A)의 장점은 지난 두 총회의 절차에 대한 상대적 확실성과 단순성이다. (B)의 장점은 그것이 북한에 대한 좀 더 단호한 거절이며 총회의 입장을 1961년 봄 이전의 입장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B)의 위험성은 만일 별도의 투표에서 북한의 이름을 지우는 데 실패한다면 북한은 자격 없이 참가를 요청받을 것이고 우리는 아무런 견제장치도 갖지 못할 것이다.

만일 국무부가 다른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투표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내린 다음 만일 확실히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B) 전략을 택할 것이며 만일 (B)를 성공시키는 것이 의심스러우면 (A)를 따르겠다.

내일 첫 번째 위원회는 한국이 마지막 안건이 될 것인지 여부를 토론할 것이다. 소련은 만일 총회가 초청장을 발부한다면 북한이 뉴욕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한국 참가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만일 소련이 이것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B)방식의 성공을 확신한다. 소련의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총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한국문제가 제기되는 시점보다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만일 투표결과가 불분명하거나 혹은 다른 전술적 상황이 불리하다면 우리는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토의 때까지 참가결의안 투표를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스티븐슨(Stevenson)

1962년 11월 23일
국무부 착신 항공서한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
제목 : 잉여재산 협정의 수정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1.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1959년 10월 1일 서울에서 조인된 한국에 위치한 미국의 잉여재산의 처분협정(TIAS 4328)에 대한 개정안을 대사관에 공식 제안했다.

배경

2. 미국의 재산처분 및 판매 담당 관리들을 통제하는 법과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상기증에 근거하여 한국에 있는 미국의 모든 잉여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노력해왔다. 1959년 10월 1일 협정의 체결을 이끈 협상은 모든 잉여재산이 무상으로 정부에 이양되어야 한다는 방식을 달성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희망 때문에 주로 오래 끌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타결된 협정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협상된 가격으로 잉여재산을 구매할 우선권을 갖는다. 협정체결 이후 3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잉여재산을 무상으로 얻으려는 압력을 유지시켜왔으며 현재의 공식적인 개정제안은 이러한 압력의 계속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개정요청

3. 외무부의 노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협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개정된 협정은 잉여재산이 한국으로부터 수출판매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 노트를 접수하자마자 대사관은 그 부서의 책임 있는 관리에게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는 동안에 수출판매를 중지하는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협정의 4조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을 사실상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통보했다. 그 부서의 관리는 이것은 불합리한 요청이므로 철회하겠다고 쉽사리 인정했다. 대사관은 또한 노트에 있는 다른 사항들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 및 상업 및 산업부 관리들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개정안을 요청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조망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비공식적 대화 이전에 보고관은 개정안에 대하여 미국 부서들의 합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 사령부, 미8군, 미국 운영사절단 장교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외무부 관리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외무부는 개정요청의 이유를 요약한 비망록을 대사관에 제출하였다. 첨부문서 2번이 그 비망록의 사본이다.

사용을 마찬 자동차의 수입 (노트의 첫 번째 단락)

4.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들은 한국 경제는 현재 한국 군대의 자동차를 교체하려는 대외군사원조(MAP)의 계획이 진전됨에 따라 남아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던 자동차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처분된 것을 제외한 자동차의 수입금지는 국가의 연약한 부품산업에 경쟁적으로 민간경제가 트럭으로 홍수를 이루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으로 협정에 양해와 해석의 비망록에 기록되었다. 관리들은 이 금지조항은 부품산업(ICA 자금으로 지어진 몇 개의 공장들)이 막 시작하려고 몸부림쳤던 지난 3년 동안에는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제 바뀌었고 현재는 가용한 자동차의 사용 가능한 모든 부분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이 관리들은 말했다. 사용 만료된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협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무런 반대가 없다는 것이 이곳의 미국 부서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잉여재산의 수출제한 (노트의 두 번째 단락)

5.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 금지된 잉여품목들만 수출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하기를 원한다. 한편 협정은 현재 수입이 가능하든 아니든 어느 품목이라도 수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성문화된 협정은 잉여재산의 우선 구매권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 정도에 있어서 수출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지적하였다.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개정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진짜 의도는 모든 잉여재산이 정부가 정한 가격에 확보되도록 하는 구매자시장의 설립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업체를 재산의 유일한 구매자로 만들려는 생각이 드러났을 때 더욱 분명해졌다.[1] 만일 미국이 이 조건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모든 잉여재산을 공짜로 확보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곳에 주재하는 미국 부서들 간에 이 점에 대한 토론에서 제안된 개정안의 수용은 재산처분 및 판매 담당관의 협상력을 실제로 제거하는 것이며 그를 독점적 구매자들의 손아귀에 두는 것이므로 제안된 개정안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점이 합의되었다.

합동위원회의 설치 (노트의 세 번째 단락)

6.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들에 따르면 제안된 합동위원회는 잉여재산처분계획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논의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결정을 내린다. 관리들이 판매의 가격과 조건을 협상하고 재산처분 및 판매 담당관의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수단으로 합동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과 대화한 지 수분이 지나자 드러났다. 정부 관리들에게 재산처분 및 판매 담당관이 미국의 법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장교이며 그의 결정은 합동위원회의 견해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자 그들은 합동위원회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

1) 11월 15일 상업 및 산업부는 "미 육군의 잉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발표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잉여재산의 경매 자 들은 상업 및 산업부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오직 등록된 업체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은 "경매에서 불합리한 경매가격을 제시하여 가격을 약화시킴으로써 계약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상업 및 산업부 장관의 지침이나 명령을 어길 경우" 취소될 수 있다.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는 경매를 조작할 상업 및 산업 부 산하의 조직을 설립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맡고 있는 미 육군 장교들이 거래완료 서명에 대하여 그 조직을 주의 깊게 감시하며 만일 조작의 증거가 드러나면 육군규정에 따라 처분을 중지한다.

그 보고관은 실제로 그러한 문제들은 모든 레벨의 특별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며 현재 잘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비공식 조정장치는 논의 이외에는 다른 힘이 없는 정교한 공식 위원회의 조직을 필요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동위원회는 아무 쓸모도 없으며 제안된 개정안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곳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부서들의 합의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견해

7. 버거(Berger)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주한미군사령관 가이 멜로이(Guy S. Meloy, Jr.) 대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서술하였다. 첨부문서 3번은 그 서한의 사본이다.

권고

8. 대사관은 미국이 외무부 노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제안된 제의 즉, 수입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자동차가 오직 폐기물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애기 위하여 협정에 들어 있는 해석과 양해의 비망록을 개정하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대사관은 나아가서 대사관이 노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에서 제안된 협정의 개정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외무부에 전달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대사관은 개정이 노트의 교환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라고 가정하며 만일 국무부가 개정을 승인한다면 한국정부에 제출한 노트 초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대사를 대신하여 :
대사관 일등서기관 윌리엄 포드(William J. Ford)

첨부 : 1. 외무부 노트
2. 외무부 비망록
3. 주한미군사령관의 서한

< 첨부1 >

외무부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면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1959년 10월 1일 조인된 한국에 위치한 미국의 잉여재산의 처분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협정의 부분 개정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고자 한다. 다음은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주요 요점이다 :

1. 자동차를 원래의 형태로 한국에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제4조 해석과 양해의 비망록을 개정.

2. 한국으로부터 제거될 잉여재산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협정의 4조의 일부분을 개정.

3. 재산처분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할 합동위원회의 설치.

외무부는 두 정부의 실무자들의 회담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하여 제안된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논의 기간동안 한국에서 제거될 상태에 있는 재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위에서 언급한 제안은 협정의 전체적인 변경을 결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정의 6조에서 규정한 “재협상을 위한” 제안으로서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무부의 견해이다.

외무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미합중국 대사관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서울
1962년 8월 16일

< 첨부2 >

외무부

비망록

1962년 10월 10일 외무부 경제국 관리들과 미국 대사관 간부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덧붙여 말하자면, 외무부는 1962년 8월 18일 외무부 노트 E (E)-8856에서 그 요지를 설명했던 1959년 10월 1일 조인된 한국에 위치한 미국의 잉여재산의 처분협정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

1. 협정 4조의 “해석과 양해의 비망록”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기를 제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잉여자동차가 완전한 형태로 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당국이 판매하기 위

하여 내놓은 자동차를 유용하게 쓰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미군 당국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던 자동차의 대부분이 지나치게 낡아서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교역계획"을 변경하여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가 운송수단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국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협정 4조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했든 그렇지 않든**, 어느 물품이든지" 제한 없이 한국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오직 한국으로 수입 금지된 물품들만 한국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하여 한국이 한국에 있는 그러한 재산들을 보유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국이 한국에 있는 미국의 잉여재산을 이용하여 현재의 5개년계획하에 있는 한국의 경제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이러한 개정을 다시 제안하는 것이다.

3. 한국 정부는 판매 중에 있는 재산의 가격안정을 포함하여 한국 내의 미국 잉여재산처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협상할 수 있는 합동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구가 관련된 한국의 관리들과 미국의 처분당국 사이에 친밀한 이해와 협조 하에서 처분사업의 순조로운 운용에 있어서 탄탄대로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서울
1962년 10월 12일

< 첨부3 >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APO 301

1962년 10월 9일

주한미군(USFK)
친애하는 대사님:

1959년 10월 1일 조인된 한국에 위치한 미국의 잉여재산의 처분협정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을 제안한 1962년 8월 18일에 작성된 대한민국 외무부의 제안에 대한 조회를 마쳤다.

이 주제에 대하여 외무부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대사관의 심사숙고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1. 미군 잉여 자동차와 관련된 잉여부품의 원래 형태로 대한민국에 수입을 허락하도록 협정 4조의 양해 비망록을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원되어야 하며 사용 완료된 잉여물품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은 협정의 이 부분을 조기에 바꾸는 것을 선호한다.

2. "한국으로부터 제거될 잉여재산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기본협정 4조의 해당항목을 수정하자는 제의는 수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조항에 따라 최소한도로 판매를 줄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항의 수정도 역시 민간 경매인이나 구매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게 판매된 재산에 대하여 가격과 조건을 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대한민국 정부에 부여하게 될 것이다.

3. 재산처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법률적 반대는 없지만 그런 위원회는 거의 유용한 목적에 이용되지 못할 것이다. 두 정부간 현재의 의사소통 경로가 불만족스럽다는 징후는 없으며 위원회의 설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특히 수출판매 영역에서 잉여재산의 처분을 방해하는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의 미국 위원들은 재산처분을 규정하는 동일한 지침과 정책에 의하여 구속을 받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가 잉여재산을 한국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최근의 관행을 보면, 협정의 제안된 변경을 협상하고 논의하는 기간 동안에 수출판매의 중지에 미국이 동의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중지는 협정의 개정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종료 물품의 판매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부품판매에 대한 구매자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위의 입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 대사관을 돕고자 하는 데 있다.

안녕히,

/서명/

멜로이(G. S. Meloy, Jr.)

미국 육군 대장

사령관

1962년 11월 23일
국무부 착신 항공서한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
문서번호 : A 364
제목 : 전임 대통령 윤보선과의 대화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1. 윤보선이 정치 참사관에게 본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진술(참고전문 B의 20항)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본인은 11월 20일 그를 본인과의 점심식사에 초대하였다. 본인은 3월 17일 그가 정치정화법으로 인하여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본인과 논의한 이래 만나지 못했었다. (참고전문 A 참조) 그와 본인의 지난 회담들에서 그는 항상 절제되고 조용하고 천천히 발언했다. 이번 점심식사에서 그는 매우 격앙되어 있었으며 빠르고 용감하고 감정적으로 말했다.

2. 처음 약간의 잡담 후에 그는 한국의 상황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비브(Habib)가 그들의 대화의 자세한 설명을 본인에게 해주었기 때문에(참고전문 B 참조) 윤보선은 본인이 그의 조국의 장래에 대한 그의 염려와 생각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가 오직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군사정부가 헌법과 선거에 대한 국민투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과 그가 가장 염려하던 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헌법 하에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통령 독재가 국가에 부과될 것이다. 아무도 헌법에 반대하여 발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민중들은 지나치게 획일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며 따라서 국민투표는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다. 그런 다음 부정선거가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위험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안게 될 것이다. 그는 만일 현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경우 미국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가정해왔었으나 김종필의 미국 방문에서 보듯이 미국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3. 본인은 우리는 현 상황이 안고 있는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중요인사들과의 대화에서 세 가지를 성취하도록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고 말했다 :

a. 정치정화 목록에 올라 있는 인사들에 대한 가능한 한 광범위한 해제.

b. 계엄령의 해제

c. 선거운동에서 자유토론과 자유언론.

4. 본인은 김종필은 워싱턴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전해 들었으며 우리의 견해에 관하여 아무런 환상도 없었다고 말했다. 본인은 그에게 다음의 문서들을 읽어 주었다 :

a. 국무부 대변인의 11월 3일 논평

b. 10월 29일 워싱턴 연합통신의 특전에서 발췌한 내용

"케네디 행정부는 한국의 군사정부에 대하여 여전히 냉정함을 드러내고 있다. 군사정부 지도자들의 의도에 대하여 질문되어져야 할 의문들이 여전히 있으며 다음 7월까지 민간정부를 회복시키겠다는 서약의 이행 여부"

c. 10월 23일 뉴욕타임스의 서울발 특전에서 발췌한 내용 : "미국 관리들과 김종필의 관계는 좋지 않다." 그리고 "그의 미국과의 갈등은 그의 지나친 권력추구의 결과이다."

5. 본인은 정부가 계엄령을 철회할 것 같은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 최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분열되어 있다. 만일 이것이 실행된다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길로 갈 것이며 야당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중요 정치인들이 불행하게도 배제되어 있지만 자신의 경우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6. 윤보선은 계엄령의 철회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승리하기로 결심했으며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가 없더라도 스스로 권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당신이 농민들이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의 아무도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이번 선거를 조작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둘째, 주요 지도자들이 출마를 금지당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야당이 형성될 수 있겠는가? 셋째, 정부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모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필요한 모든 자금을 갖고 있다. 야당은 오직 2~3개월밖에 없으며 이렇다 할 자금이 없다. 그는 한국에서 3개의 정당을 조직하는 것을 도왔으며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최소한 7~8개월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선거는 진정한 야당이 형성될 시간을 주기 위하여 연기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되어야 한다.: 3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광대극이다. 책임 있는 지도자 중 누구도 박정희에 대항하여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박은 아마 심지어 야당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음모의 일부이고 모든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7. 윤은 그런 다음 매우 감정적으로 되었다. 미국은 수년 동안 커다란 실수를 저질러왔다고 그는 말했다. 루즈벨트(데오드르)는 일본의 한국지배를 동의했다 (포츠머스조약). 미국은 "자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회담에서 독립을 얻으려는 한국을 돕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분단에 동의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1949년 한국에서 우리의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그 실수에 도를 더하였고 한국은 우리의 관심밖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피로 우리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으나 가장 큰 고통은 한국 사람들이 당한 고통이었다. 우리는 12년의 독재지배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후원하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군사정부 지도자들이 헌법적 부정과 기만적 선거를 통하여 한국에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것을 허락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오랜 고통의 역사를 간직해왔으며 그들은 더 큰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이상이 현재 개입되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수많은 고통을 불러일으켰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공산주의에 기울었고 중립화된 한국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의 희생양이 되었다 : 4·19 학생혁명이 터졌을 때 이러한 감정은 장면 정권 기간동안 위협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만일 군사독재가 민주선거의 가면을 쓰고 그 권력을 영속시킨다면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기만으로 보일 것이고 결국 망상에서 깨어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적인 슬로건을 따라 공산주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일들이 조용하다고 해서 강한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저 깊은 곳에서는 용솟음치는 불만이 있으며

조만간 다시 문제가 될 것이며, 그것은 또한 반미(反美)형태를 띨 것이다.

8. 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앞으로 몇 개월을 맞설 수 없으며 차라리 그의 나라가 그러한 엄청난 운명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자살하는 편이 더 낫겠다고 말했다. 오직 미국만의 영향력과 압력만이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

9. 본인은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와 선거에서 오는 상황이 안고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상황은 극도로 복잡해서 간단하고 단순한 해결책이 없다. 그는 한국문제를 미국의 책임으로 돌렸으나 대부분의 책임은 한국의 역사와 한국 국민들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본인은 그에게 장면 정권하에서 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염려스럽다는 그의 걱정을 본인에게 설명한 것을 상기시켰다. 본인은 미국은 장면 정권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그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은 우리 모두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며 혁명이라는 것은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정부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 중에는 심각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고맙게 여길 만한 것들도 있다. 정부는 많은 건설적인 일들을 하였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며 민중 선동도 없었다.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약속과 국민의 위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부에 대한 약속도 있다. 선거가 국민이 희망하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야당을 형성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은 올 여름에 경제정책에 관하여 한국 정부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으며 우리는 그러한 정책을 바꾸게 하기 위하여 조용히 작업을 했으며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는 현재도 그와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게 한국 정부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하도록 종용하라고 요청하였다 :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상황은 미묘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을 잡고 있어서 우리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0. 윤보선은 정부가 여러 건설적인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재는 파멸을 이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막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피 흘림이 있을 것이며 한국의 민주주의 모든 희망은 끝장날 것이다. 그는 박정희에게 지난 3월 그가 하야하려고 할 때 그 위험에 대하여

말했으며 행동하도록 간청하였으나 박은 관심이 없었다.

11. 본인은 군사정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마지막 기회라고 누누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 만일 자신들이 실패한다면 한국은 공산화될 것이다. 본인은 그런 무조건적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인은 이번 선거가 한국의 장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한국이 운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죽음이나 공산주의의 승리는 아니다.

12. 윤보선은 자신이 미국에 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본인은 그의 요청을 매우 신중히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우리의 문제는 많은 지도자들이 미국에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문제에 직면해야한다.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용기있게 맞서야 한다. 본인은 그가 여권을 얻어서 스스로 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서서히 사태를 살펴왔으며 그 대답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13. 윤보선은 이곳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즉시 워싱턴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본인은 워싱턴은 철저히 문제의 모든 측면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14. 윤보선은 본인이 그에게 말했던 것을 언론에 얘기하여 한국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알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국민들은 미국인들이 이 정부가 했거나 혹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승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 본인은 당분간 우리는 정부 내외의 핵심인사들과 조용한 논의와 제한적인 성명을 통하여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본인은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몇몇 정부 외부의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며, 대사관의 선택된 요원들이 다른 정치가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정부의 지도자들도 우리에게 불만이 있으며 정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불만이 있는 지점에 미국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이것은 거의 두 시간에 걸친 대화 중에 유일한 미소(희미한 것임)를 자아내었다.)

15. 대화는 그가 미국에 초청되어야 한다는 것과 미국 입장에 대한 공식성명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막을 내렸다.

/서명/

사무엘 버거(Samuel D. Berger) 대사

1962년 11월 2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뉴욕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1930호
제목 : 한국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요스트(Yost)는 오늘 한국사절단 사무실에 있는 최 외무부장관을 방문했다. 한국문제가 자세히 논의되었다.

최 장관은 북한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토론기간 동안에 의석을 차지하고자 하며 그 증거로서 이번 주 중에 유엔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련의 의회주의적 책략과 강력한 발표가 설명되기를 원한다. 최 장관은 대한민국이 국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민간정부를 향한 조처들과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현저한 증가는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반위에 그는 미국이 작년에 제안했던 "오직 대한민국만" 의석을 차지하는 결의안과 같은 형태의 결의안을 관철시킬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그러한 결의안의 중요성은 대한민국 국내전선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요스트는 미국은 물론 이러한 형태의 결의안을 선호하며 이곳의 대한민국 사절단과 소련의 의석배정 결의안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절차가 비록 최종결과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몇몇 국가들을 소외시킬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외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은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을 설득하여 그 절차를 수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좀 더 많은 논의를 한 후에 미국과 대한민국 사절단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 각 국 대표들의 의견을 알아보면서 의석배정 전략에 대한 최종 결론을 몇 일 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검열삭제)

미국과 대한민국 사절단은 유엔 토론이 다가옴에 따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대화를 마쳤다. 토론이 12월 10까지는 시작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12월 첫 주까지 준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은 논의된 추가사항들이다 :

1. 요스트는 북한이 공산주의 이념갈등에 있어서 베이징 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김일성은 중국의 접근과 소련에 대한 그의 개인적 애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최 장관은 대답했다. 최 장관은 옌안(Yunnan)과 소련 파벌 사이에서 후자가 여전히 최고위층에 있다고 특히 강조했다. (검열삭제)

요스트(Yost)

1962년 11월 26일
국무부 착신 항공서한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
제목 : 김종필이 기자들에게 행한 발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1.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언론과 비공식 접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언했다 :

2. 내년에 실시될 선거는 유례없이 공평하고 정당할 것이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엄벌에 처해질 것이며 부정과 불법을 막기 위하여 철저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시기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고회의가 연구 중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3. 약간 증가될 것이라고 보도된 원조규모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종필은 중요한 문제는 원조가 어떻게 쓰여 지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자본의 유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국내투자와 결부시키는 것을 염려하였다. 잘못되면 한국은 “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그의 미국방문에 관하여, 김종필은 “정부이양”에 대한 자신의 발표는 현 정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혁명이념이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한 정치가들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는 국무부장관 러스크(Rusk)와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케네디(Kennedy)와 로스토(Rostow)씨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간정부의 수립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이것의 일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종필은 미국 관리들은 이 계획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혁명정부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그 계획이 무리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케네디와 자신의 대담은 특히 고무적이었으며 한국에 대한 케네디씨의 이해는 대담 전과 후에 전적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김종필은 언론에게 "본인은 미국인들이 우리가 고생하여 만들고 있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논평하였다. 그는 수일 내에 정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방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논평 :

6. 김종필이 약속한 전체적인 기자회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일부 한국 사람들이 그의 주장이 한국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방문 기간동안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는 인상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처음에는 대통령 선거를 3월에 실시하고 뒤이어 5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보도는 대통령 선거가 연기되어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날 실시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대사를 대신하여:
/서명/
필립 하비브(Philip C. Habib)
대사관 정치담당 참사관

1962년 11월 27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35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1. 클리브랜드(Cleveland) 차관보와의 대화에서 최 외무부장관은 "오직 대한민

국만" 의석을 취하는 결의안(소련의 결의안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삭제)을 강력히 옹호하였다. 그는 개선된 상황 하에서 올해 최소한 중국 대표의 결의안이 확보했던 정도의 넉넉한 표 차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참고전문에서 보고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윤 참사관은 소련이 북한의 옹호자로서 스스로 자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략이 중·소간에 갈라진 틈을 더욱 벌릴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리브랜드는 가능한 한 "오직 대한민국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위험을 지적한 다음 미국과 대한민국 대표단이 신중히 표를 계산한 후에 뉴욕에서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자고 제안하였다.

2. 최 장관은 압록강과 두만강 변에 유엔군을 주둔시키자는 대한민국의 아이디어는 유엔군 철수의 요구가 매우 강력할 경우에 대비한 반론으로서 의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클리브랜드는 공산중국의 근접으로 만주에서 미치는 압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유엔군 철수의 비효율성을 수사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완충지대를 제안으로서 제출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우리가 유엔군을 철수시킬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유엔군 철수에 대한 토론의 반론으로서 아시아에서 공산중국의 확장을 언급할 다른 나라 대표들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대한민국의 정책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에 유엔군이 주둔하는 것을 지지하므로 완충지대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에 유엔군 주둔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방식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끝.

러스크(Rusk)

1962년 11월 3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42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미국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발표된 언론발표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제안함. 11월 27일의 언론발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정부는 내년에 생필품 수입을 위하여 총 7,500만 달러의 원조지원금이 가용하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알렸다. 이 자금은 최근에 미 의회가 1963 회계연도 외국원조법에 따라 승인되었다. 이 자금의 사용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에 주둔하는 미국 운영사절단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다. 섬유제품과 미국이 재정 지원한 비료가 이 자금으로 획득할 주요 품목이 될 것이다.

위의 금액은 몇몇 필수품의 조속한 조달을 시행할 필요에 따라 워싱턴의 국제개발처(AID)가 1963년에 한국에 제공될 총 원조지원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하기 전에 미리 사용될 수 있다.

버거(Berger)

1962년 11월 3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한국 유엔군 사령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UK 11221 AS DTG 300749z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1. 제160차 군사정전위원회가 유엔 사령부의 요청으로 판문점에서 62년 11월 29일 11시에 소집되어 14시 26분에 휴회되었다.

2. 유엔 사령부는 북한 당국에게 62년 11월 2일 비무장지대에서 유엔 사령부 소속 경비초소를 고의로 공격하여 5발의 수류탄으로 유엔 병사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부상당했다고 비난했다. 유엔 사령부는 또 북한이 62년 11월 10일 유엔차량 한 대를 매복 공격하였다고 추궁하였다.

3. 북한 당국은 유엔이 혐의를 조작하고 합동조사도 요구하지 않은 사건을 자신들이 조사했다고 말했다. 유엔은 고의 공격의 사실들이 정전위원회에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치 않다고 말함으로써 북한 당국을 엄히 꾸짖었다. 북한 당국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들의 폭력과 잔악성에 대한 긴 선동적 발표를 읽음으로써 대응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유엔이 그 사건을 거짓이라

고 선언하고 그들에서 협의를 둔 것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협의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유엔은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4. 북한 당국은 유엔이 11월 24, 25, 29일에 해상침투를 하였으며 11월 21, 26, 27일에 비무장지대에서 발포사건을 일으켰다고 비난하였다. 그런 연후에 그들은 휴회하자는 유엔의 제의에 동의하였다.

5. 회담장 건물 밖에서 증가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북한 당국은 합동보안지역에 비무장 보안요원들을 이례적으로 많이 데려왔다. 유엔은 추가로 35명의 비무장 경찰요원들 배치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긴장을 가라앉히는 데 기여했다.

1962년 12월 6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35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1. 정일권 한국대사는 12월 5일 해리먼(Harriman) 주지사와 후에 오히라(Ohira) 일본 외상에게 김-오히라 합의는 (a) 당좌계정의 타결과 (b)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오히라가 김에게 보낸 최근의 서한에서 제기한 새로운 문제들 때문에 약화되었다는 염려를 표명하였다.

2. 한국대사관의 보고자에 따르면 오히라 외상은 새로운 문제들은 그 합의가 이케다(Ikeda) 수상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을 때 수상이 제기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김-오히라 합의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정 대사에게 말했다 :

   A. 이케다(Ikeda)는 합의는 처음에 혹은 정해진 기간의 마지막에 혹은 분할 등의 방법으로 완전한 타결을 함으로써 당좌계정에 대한 타결 절차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재무상은 비 변제 자금이 전부 해외경제협력자금에서 출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금은 장기저리 계획을 위하여 고안되었으므로 일부 한국의 계획이 이 범주에 들어와서는 안 되며 수출입 은행이 이것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오히라는 외무성이 자신이 귀국한 후에 한국에 제출할 수 있게 제안을 상세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 한국대사관은 12월 5일 오후에 서울로 자세한 보고서를 전송하였다.

러스크(Rusk)

1962년 12월 7일
국무부 착신 항공서한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
제목 : 박정희 의장의 선거계획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1. 12월 6일 본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박의장과의 회담에서 본인은 10월 5일에 있었던 대화(참고전문)와 정부의 의도와 시간표에 대하여 김종필이 워싱턴에서 다짐했던 전반적인 진술을 언급하였다. 국무부는 새로운 헌법뿐만 아니라 이것들도 연구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과 선거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본인에게 이 두 가지 법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얻을 것을 요청하였다.

2. 박의장은 세부사항들은 아직 준비 중이며 그 자신도 최고회의가 무엇을 권고할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가 초안 작성 위원회에 내린 전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

   a. 한국은 과거에 많게는 60여개에 이르는 분열적 정당의 폐해를 앓아왔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정당이 상당한 지지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제한조치들은 정당형성을 실제로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여유가 없어서는 안 된다. (**논평** : 초

안 작성 위원회는 정당은 최소한의 도와 지방 지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건의할 것이다.)

b. 법조항은 후보가 일자리를 약속하거나 표를 매수하거나 나중에 보상받기 위하여 부패를 결과하는 대규모의 선거자금을 살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3. 우리는 1953년 이래 군대는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을 심어주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후보가 현역군인으로서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으로서 출마할 것인가에 여부에 대한 그의 논평을 요구하였다. 그는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민간인으로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의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고회의 자체가 이 문제로 의견이 나뉘어 있다.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이 현역군인 자격으로 출마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법률적인 관점에서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요지는 비상조치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에게 현역으로 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법을 바꾸는 것은 법률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현역이 아닌 명단에 있으면서 평복차림으로 출마한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속임수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4. 본인은 박의장에게 만일 현재와 선거 시기 사이에 전개될 정치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는 정부는 다른 문제로 너무나 바빠서 여당을 조직하는 문제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조용히 회합을 가져왔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그 문제를 거의 생각해보지 않아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본인은 그런 다음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과 질문들로 그를 압박했다 :

a. 정부는 정당법과 선거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그들이 기본원리를 알기 전까지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b. 정치활동의 허락되면 여당은 즉시 조직될 것이며 최소한 후보자들과 정강정책과 전략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c. 야당은 분열되어 있고 아직도 연합되어 있지 않으며 지도자들, 후보자

들, 정강정책, 전략과 이슈들에 대한 합의도 없다. 그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야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는가?

5. 그는 이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복하여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야당은 그들 자신들의 노선에 따라 자유롭게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본인에게 확신시킬 수 있었다. 본인은 여당은 그 자체의 기록으로 출마할 것이지만 무슨 이슈들이 야당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뒤틀린 미소를 지으면서 통화개혁문제, 주식시장, 부정축재법 등이라고 대답했다. 본인은 야당이 동등한 라디오방송 시간을 가질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6. 본인은 그런 다음 그에게 대통령 선거가 3월에 별도로 실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5월에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좀 더 생각해보았는지 물었다. (참고전문 8항 참조). 그는 그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인은 그에게 지난번에 그가 본인의 견해를 물었으며 본인은 이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말해주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본인이 보기에 야당이 자체조직을 정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다면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불공평하다고 간주될 것이며 그렇게 공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장은 야당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3월은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야당은 3월 선거를 공평성에 대한 즉각적인 이슈로 삼을 것이며 박의장도 국제적인 견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동료 외교관들과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 사람들과 이야기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3월은 야당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외의 합리적인 인사들이 선거를 공평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인은 그에게 5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단 하나의 선거일을 심사숙고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그는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자체가 이 문제로 분열되어 있어서 자신도 어떤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7. 본인은 그에게 현재 활동을 금지당한 정치가들에 대한 더 많은 해제조치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였다. 본인은 미국 정부가 장면 정부가 행한 정치가 추방조치에 강력히 반대하였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이 문제를 도입하였다. 박의

장은 3월에 그의 정부가 행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알고 있었다. 정치적 권리의 박탈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을 행한 방법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다. 만일 법에 따라 법정의 공개된 심리에서 정식 혐의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러한 조치는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면 정부와 그의 정부가 행한 방법은 - 대규모적 범주와 비밀로 -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가 가장 광범위한 해제를 허용할 것을 희망한다.

8. 이 지점까지 박의장은 우호적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 불행히도 그 상황은 한국에 맞지 않는다. 과거 정치인 중에 회개의 징후가 거의 없다. 그들은 나쁜 기록을 갖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를 매우 엄격히 다룰 작정이다. 우리는 실제로 아무도 해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9. 본인은 그에게 정부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력히 권고해왔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여당을 조직하려고 하고 있었다. 협소한 기반위에 설립된 정당은 결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은 어느 국가의 어느 정당에서든지 진실이다. 본인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가능한 많은 그룹들과 협조하여 광범위한 기반위에 그의 정당을 설립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쉽지 않으며 타협과 서로 다른 세력의 균형유지라는 미묘한 문제들을 내포한다. 본인은 그에게 만일 그가 선거에서 승리하여 안정된 기반 위에 다음 정부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것에 더하여 야당과 언론에 대한 광범위한 자유는 국가의 단합과 안정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만일 선거가 불공정하다는 비난으로 끝난다면 본인은 다음 정부의 안정에 관하여 매우 염려스럽다.

10. 본인은 그의 부하 중 일부가 미국 정부가 그의 정부의 선거계획을 지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로 대화를 마쳤다. 본인은 그에게 10월 5일에 우리는 이들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무부 대변인은 11월 3일에 우리가 이들 선거의 실시에 부여한 중요성을 밝혔다. 본인은 그에게 한국어로 된 11월 3일의 내용의 사본을 주면서 그것을 주의깊게 읽어볼 것을 권했다. 본인은 우리는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지도 않는다.

만일 그의 부하 중 일부가 우리가 선거계획과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1. 박의장은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할 것이라는 것을 본인에게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에게 정중하게 본인의 논평에 감사함을 표했고 미국의 태도를 고려하여 현역군인으로 출마하는 문제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하여 좀 더 많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12. 본인은 계엄법과 관련한 전날의 성명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며 박의장도 마찬가지였다.

/서명/
사무엘 버거(Samuel D. Berger) 대사

1962년 12월 2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45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0 Box 129

1. 박의장은 1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현안과 한-일 관계에 대한 약간의 논평을 곁들이면서 군사정부의 정치계획을 설명하였다. 박의장은 미리 제출된 12개의 서면질의에 답한 후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다음은 발표된 주요 정치성명이다.

2. 대통령 선거는 4월 초에 실시되며 국회의원 선거는 5월 말에 실시될 것이다. 권력이양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아마 8월 중순에 이루어질 것이다.

3. 군 참모총장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은 민간인으로서 다음 정부에 참여할 것이며 일부는 지방에서 출마할 것이고 일부는 비례대표제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참가자들의 혁명서약 위반 주장을 잘 알고 있으나 국익에 계속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료들

을 포함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정부 관리들은 2월 말까지 퇴임하여야 하며 내각개편을 필요로 할 것이다. 출마하는 군 장교들은 동일한 날짜까지 예비역 신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박의장은 다음 정부에 참여할 것이다. 그의 대통령 후보자리는 "해당 정당"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자신은 당원으로서 그 결정에 따를 것이다.

4. 정치활동은 1월 1일에 재개될 것이다. 그전까지 약 170명이 추가로 정치정화 대상에서 해제될 것이다. 금지된 모든 사람들을 해제할 계획은 없으나 "혁명이념을 지지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이 점차적으로 해제할 것이다.

5. 혁명이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산주의 정강정책의 기반위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정부여당을 형성할 것이다. 만일 혁명이념을 수용한다면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포함할 것이다. 허용될 개인들이나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것을 거절했다. 정부는 복수 정당 제도를 촉진하며 야당들에게 "최대한의 원조를 부여"할 것이다. 정부가 과거 자유당 인사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부인했으며, 자유당 인사들은 민주당 인사들을 선호하는 차별을 불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 사회주의 정당이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나 정당들은 박의장이 "진보적" 이념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던 민주헌법과 반공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당의 출현 가능성은 의심스럽다.

7. 정부는 비록 왜곡되거나 의도적으로 속이는 기사는 허용되지 않으나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환영한다. 국가안보가 걸려있는 곳을 제외하고 뉴스의 출처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예상되며 장래에 한국일보 사건과 같은 사건은 정부가 직접 다루기보다는 언론조직에서 언급되어져야 한다.

8. 박의장은 윤보선의 기자회견에 관한 논평을 거절했으며 국민투표가 정부의 지지에 대한 표시라고 주장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비슷한 결과를 예상하는 것을 거절했다. 박의장은 초청은 받았지만 권력이양 이전에 외국을 여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통화개혁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만일 누군가가 처벌되어야 한다면 책임을 받아들이겠으나 정부의 노력으로 2개월만에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지적했다.

9. 박의장은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청구를 타결하기 위한 일본의 제안에 다음과 같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 4,500만 달러의 당좌계정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3억 달러 지불; 7년 거치 20년 상환 3.5%의 이자로 정부 대 정부 차관으로서 10년에 걸쳐 2억 달러; 나머지 협정이 타결되기 전에 시작될 민간차관 1억 달러.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어업협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특별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며 보존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일본 정부의 사절단 설치와 경제협력 등이 타결 이후에 유일한 현안이다. "비록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타결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었다.

논평 :

10. 기자회견은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발언들을 확인하였으나 거의 새로운 정보는 추가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은 새로운 정치유세의 극적인 시작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며 박의장은 매우 논쟁적인 현안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피했다.

매지스트레티(Magistretti)

1963년 1월 11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48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유엔(UN) 사령부와 대사관은 태국 정부가 유엔 사령부로부터 보병 중대를 철수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군 파견부대를 철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1월 6일자 방콕월드에 실린 내용을 포함하는 태국으로부터의 보고서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유엔군 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JCS]에 1월 7일 08시 50분 그리니치 표준시에 전송된 영국 전문 50012호 참조).

2. 만약 태국이 철수한다면, 터키도 미국이 아닌 다른 유엔 회원국들로 구성된

군 병력이 유엔군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터키군 중대를 철수하려고 또 다시 강력하게 시도할 것이며 이는 유엔 사령부에 미국 이외의 다른 유엔 회원국로 구성된 연합부대가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3. 최초의 16개 유엔 참가국들 중 남아있는 2개의 비(非)-미국 국가들의 상실은 유엔군을 미국군이라 부르는 공산주의의 선전활동에 상당한 확신을 주게 될 것이며 유엔군의 철수 조항을 시행시키려는 시도로 활용될 것이다.

4. 유엔 주재 태국 대사 앤슈코트(Ansuchote)는 대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태국 정부는 유엔 사령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신임을 표명했다. 앤슈코트 대사는 태국 군대를 터키 군대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않을 것을 태국 정부에 건의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1월 10일 회담에서 앤슈코트 대사는 국방부장관이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상 대리는 자신의 좋은 친구이며 앤슈코트 대사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음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5. 사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국무부는 방콕 대사관이 태국 정부에게 적절한 대표권을 행할 권한을 부여하길 바란다. 대사관은 유엔군에 태국군과 터키군을 잔재하게 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버거(Berger)

1963년 1월 1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491호
제목 : 대사관 전문 A-492에 관하여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대사관은 1월 12~13일 송요찬 장군이 만약 그가 군사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을 계속한다면 암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음을 통보했다. 특히 김종필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송 장군의 비판은 계속되었고, 정부의 하위관리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으나 고위층에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다. 우리는 박정희와 다른 쿠데타 지도자들이 송 장군에게 격노해 있다는 몇몇 보고서를 갖고 있다.

2. (검열삭제)

첫 번째 협박은 왜 송 장군이 이런 중대 시기에 정부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지 물었던 박정희의 동료들로부터 가해졌으며, 비난을 그만두지 않으면 송 장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그 다음엔 재향군인회 대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송 장군을 방문해서 송 장군의 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비난은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는 몇몇 젊고 뜨거운 혈기를 지닌 젊은이들을 격앙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3. 송 장군은 협박들은 심각한 것이며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말을 삼갈 계획이다. 그는 새로 부임한 한국의 중앙정보부(ROK-CIA) 국장으로부터 경호조치들을 제안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 송 장군은 "누가 이런 감시 조치들에 대항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군 동료들로 구성된 영속적인 무장 경호를 계획하고 있다.

4. (검열삭제)

6. 우리는 한국 정부가 송 장군을 위협하여 침묵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편 협박이 실행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송 장군은 멜로이(Meloy) 장군에게 멜로이 장군과 대사를 만나고 싶다는 전갈을 보냈는데, 아마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큰 보호막은 공식적으로 그의 안전에 관련된 미국을 얻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7. 송 장군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는 이승만 정권의 대낮 살해를 회고하게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이 대내외적으로 가져올 손실과, 특히 미국에 미칠 명백한 결과와 송 장군을 알고 있는 미국 고위층에 올 영향에 대해서도 인식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출처를 통해서 정치체제에 대한 비난자들과 특히 송 장군에 대해 과감한 수단으로 협박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8. (검열삭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송 장군이 긴박한 공격에 관한 말을 들었거나 실패한 공격시도를 받았었거나 했다면, 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보호나 피난처를 얻기 위해서 틀림없이 미국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를 긴장시킬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9. 국무부의 견해를 요청한다.

버거(Berger)

1963년 1월 1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49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에 내게 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공부장관과 외무부장관 역시 그의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보아 섬유 수출 제약에 대해 논의하려는 듯하다.

2. 국무총리는 그들이 방금 워싱턴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받았다는 말부터 시작했다. 상공부장관은 국무부가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대사관에 통보했던 사실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1960년 중반부터 1961년 중반까지 자료에 의거하여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9번과 26번 품목들에서 200만 달러를 넘겼다는 것이다. 상공부장관이 언급하길, 한국 정부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1963년을 “수출의 해”로 공표하였고 이미 5개 품목에서 1,400만 달러를 계약하였고 500만 달러를 추가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은 좀 더 화가 난 억양으로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온 멋진 새해 선물이었고 나름대로 이익을 얻기 시작하고 있는 한국인의 노력에 대한 강력한 일격이었다고 말했다. 상공부장관은 다른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서 사

들인 면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반면, 9번과 26번 품목들에서 생긴 수입의 620만 달러로 미국의 면을 사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언명했다.

3. 국무총리는 본인에게 한국이 크게 실망했다는 사실을 국무부에 알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추가 이권(利權)을 위해 청원해 주길 요청했다.

4. 본인은 (사실이 아닌) 한국에 대한 무역 제한에 관한 최종 결정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으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회답했다. 회담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섬유 수출 제한 프로그램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관련된 모두에게 이 문제점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논평했다.

5. 대한민국 대사관이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이곳에서의 반발은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미국이 군사정부에 대해 대립해 있다는 증거로 야당들에 의해 악용될 것이며 또한 미국이 한국의 문제점들에 대해 둔감하다는 증거로도 취급될 것이다. 본인은 국무부가 한국을 위해 좀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음을 알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버거(Berger)

1963년 1월 1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0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어제 박정희 의장과 2시간 동안의 대담에서 그는 본인이 홍콩에서 복귀한 즉시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그의 마음 속에 토의하고 싶은 많은 것이 있으며 본인의 회담 요청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2. 본인은 정부에 대한 소문을 믿는 것에 대해 과거 수차례 박정희에게 주의를 받았던 것에 대해 언급했다. 본인은 대사관 활동에 관해 돌아다니고 있는

소문에 대해 그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면담 신청을 했다. 본인은 그의 몇몇 동료들이 대사관 관리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만났던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고, 미국이 정부를 비난하는 송요찬을 격려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본인은 그가 우리가 이 민감한 정치적 시기에 무엇을 했었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고, 따라서 한국 정부와 본인 사이에, 그리고 박정희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오해가 없기를 원했다.

3. 본인은 지난 18개월 이상 정치 활동의 결여로 인해서 대사관은 현재 표면화되고 있는 많은 정치적 지도자들을 몰랐거나 그들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알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우리의 견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현재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 역시 몇 가지 경우에는 대화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반대파와 중립파, 직업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담들을 사람들이 왜곡할 수 있고 혹은 심지어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항하는 모든 가능한 대응책을 취하고 있었다. 대사관에 있는 몇몇 관리들만이 이러한 접촉에 지명되어 있다. 각자는 미국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와 접촉시 발언할 수 있는 범위를 지시받았다.

   우리의 입장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

   A. 쿠데타 세력의 분열이 심각한 불안과 위험 국면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이 단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현존하는 이견들은 협상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B. 주요 정부 정당은 모든 계층과 분파로부터 최대로 가능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지지기반을 넓혀야 한다.

   C. 민주주의 수행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야당도 필요하다.

   D. 주요 야당은 매우 폭넓은 기반 위에 형성되어서 국민들이 선거에서 실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질적인 지난 증오심들은 국가적 이익에 있어서는 극복되어야 한다.

   E.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4. 본인은 대사관 관리들이 어느 한국 정치가가 무엇을 하거나 말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조언하는 것을 거절하도록 엄격히 지시했다. 더구나 분명한 허위진술들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면, 미국이 군사정부 정당이나 반대 야당을 지원한다거나; 군사정부와의 미국관계는 원조를 감축함으로써 보여준 것처럼 좋지 않다거나; 미국은 군사정부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하는 등등의 것들에 있어서 우리 관리들은 이들 내용을 정정할 것을 지시받았다. 결국 본인은 우리가 어떤 한 측이나 단체에게 유용되거나 관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선거를 통해 만들어질 어떠한 정부와도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5. 박정희는 많은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했으나, 그와 본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토의했고 그는 우리의 조치들이나 조작된 비평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극도의 자신감 속에서 본인과 다른 문제들을 토의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몇 개월간,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정치에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언짢아 했고 극도로 우울해 했다.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면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가의 번영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사사로운 권력만을 원하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박을 비롯한 어떠한 수단이라도 동원한다. 예를 들면, 바로 어제 (前－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으로서 통화개혁 실패에 따른 희생양이었던) 유원식 육군준장이 의회의 여당 입후보자로서 임명되길 요청하였고, 정당에 의해 입후보자들이 결정되어졌을 때 그는 기자회견을 해서 정부를 비난하였다. 송요찬 역시 정부를 비난하였다. 정치는 추잡한 장사이며 그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권력을 민간정부에게 이양하고 군대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지키면 혁명이 후퇴할 것을 매우 우려하였다. (각각의 지도자들은 혁명 전에 이러한 결과에 관한 개인적인 맹세에 서명했었다.) 이것은 그를 상당히 괴롭혔고 두 세 명의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것과 그들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도록 비밀리에 요청하였다. 그는 이것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6. 본인은 이 연구가 개인적으로 그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쿠데

타 세력에게 적용될 것인지 질문했다. 그는 두 가지 모든 경우가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결정은 1월 말까지는 취해질 것이라 했다. 그는 미리 나에게 통보할 것이며 진심으로 추후 몇 주 동안 그 이상의 상황에 대해 토의하고 싶다고 했다.

7. 그가 본인의 견해에 대해 묻지 않았었지만 오래지 않아 본인의 견해를 물어올 것이 분명하다. 본인은 그와 혹은 전체 쿠데타 세력이 부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만약 그들이 부대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매우 예기치 못한 상황을 야기할 것이다. 본인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고 또한 정부로부터의 지침도 받고 싶다.

8. 그리고 본인은 쿠데타 세력 내의 심각한 분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데타 세력을 함께 단합시킬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렇소, 나는 임시정부를 함께 통솔할 것을 확신하오." 라고 답변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의장님,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의견 차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기도 하고 실직적으로 분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분열이 생기게 되면 거기엔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고 멜로이(Meloy) 장군이 관계될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본인을 확신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박정희는 그렇다고 답하며 사실 이견이 있으나 풀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명의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은 여당의 준비위원회에 편입될 것이라는 이전 날의 성명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 중 몇 명은 김종필에 대해 중립적이고, 몇 명은 적대적이며 여당에서 그를 완전히 축출하고 싶어 한다.) 본인은 한국의 중앙정보부 부장으로서 김종필의 후계자 지정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그는 알았다고 답하며 이 문제 역시 김용순 육군소장을 임명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본인은 또한 누가 정부 여당의 의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필은 의장직을 원하고 있다.)

10. 박정희는 웃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며, "나는 혁명적 지도자들 중에서 누군가 당 의장직을 차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그 자리는 청렴하고 애국심 있는 명망 있는 훌륭한 시민이 앉아야 하며 김종필은 한 사람의 당원이 될 뿐이오. 당신의 견해에 대해서

감사하오." 라고 했다. 본인은 그것이 신중한 해결책이며 그에게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11. 박정희는 한국이 상당히 미국의 충고와 지지에 의존해 왔고 미국 없이 한국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의 정부가 실수한 것들에 대한 우리 측의 이해와 도움의 태도에 대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싶어 했다.

12. 그때까지 우리는 1시간 30분 동안이나 얘기했으나 그는 계속해서 더 얘기하고 싶어 했다. 이 첫 번째 최근의 회담 이후, 본인은 이곳에서의 처음 6개월 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던 관계를 재정립했고, 이번 기회에 11항에서 밝힌 그의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

A. 그의 정부를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측의 역량은 그의 정부가 우리가 좋은 의도로 지원할 수 있었던 수많은 건설적인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에게 가졌던 각별한 신임을 이유로 우리 측의 지지를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B. 그는 권력에 대한 한국 정치인들의 욕망에 대해 멸시하며 얘기하기도 했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을 얻는 것이었고 권력을 원하는 정당이나 개개인들이 부도덕할 것은 없다. 불명예스러운 것은 그들이 권력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C. 정치는 비정한 사업이며 그는 그 첫 맛을 보았다. 비판은 차기 6 개월 동안 계속해서 더 할 것이며 그는 그에 재빨리 대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D. 그가 인식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는 쿠데타 이후 정치에 관여되어 있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통해서 공동으로 쿠데타세력을 유지해 왔다. 그는 다소간의 재량과 성공으로 국민과 군대와 정치에서 균형을 이루어 왔다. 그는 한-일 간에 가능하면서도 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해결점으로의 협상을 이루어냈다. 대한민국은 많은 국가들에게 외교적 수완을 넓혀갔고 유엔에서도 두 가지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는 18개월 동안 한국 내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온 관계로,

선동도 없었고, 거의 유혈도 없었으며 암살도 없었다. 만약 그가 그의 몇몇 동료들이나 야당에게 몹시 실망했다면, 관직에서의 18개월 동안의 경험으로 더욱 더 현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E. 만약 군 관료들이 예비역 상태이거나, 군복을 벗거나 해서 일반 시민이 되는 것에 따라서는 군 지도자가 시민정부를 회복하려는 그들의 맹세를 참작하여 양심적으로 정당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인은 그에게 이 점을 강조했고 정부는 정책으로 이것을 공표했다. 만약 정부 여당이 현재 일반 시민들을 포용하여 그 기반을 확장하거나, 정당에서의 최대한의 권력과 통치력의 몫을 주거나 하고, 또한 만약 야당이 자유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선거활동을 하면, 국민들은 어느 정당을 택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어느 당이 이기던지 결국은 시민의 정당이 될 것이다.

F. 중요한 점은 선거 동안이나 후에도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폭력과 새로운 쿠데타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G. 그는 이 나라의 주요 특권층을 직접적으로 제압했고 심지어 야당도 그를 청렴하고 국익을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 그가 실수를 했거나 실망했다면, 정치나 정책, 혹은 사람에 있어서 완벽함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13. 본인은 이 설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박정희가 관직의 보유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필요로 하고,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에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분적인 이유는 앞으로 닥칠 수개월 동안의 어려운 시기에 그를 움직일 수 있길 희망하면서 우리의 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다시 성립할 수 있길 원했기 때문이다.

14. 본인이 박정희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우리의 회담에 감사하다는 말로 끝을 냈을 때,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처음으로 한 숨 돌리며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짓누르는 압박감 속에 있었고 그걸 이해하는 미국인을 만나 편안해졌다며 곧 다시 전화 하겠다고 했다.

버거(Berger)

1961년 1월 1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0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논평 :

1. 박정희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의구심과 김종필의 후원 아래 진전되어 온 탄탄하게 오랫동안 준비된 정치적 계획들을 이 시점에서 재고하려는 그의 의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책적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한 번의 회담으로 그의 움직임의 정확한 방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박정희의 현재 심경에 대한 원인과, 그의 결심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와 우리 측에게 어떤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박정희는 분명 대의정부로 변화하기 위한 정치적 계획들의 현명함과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시점에 서있다. 국무부가 알고 있듯이, 대사관은 또한 이 계획들의 본질에 관여해 왔다.

3. 쿠데타 세력 내부로부터의 압력 하에, 박정희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김종필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협소하게 자리 잡은 그러면서 견고히 통제된 수단이 견고한 통솔력과 바람직하고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쿠데타 세력의 위협적인 분열과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박정희로 하여금 부분적인 수정을 모색하게 했다. 반(反)김종필 세력은 지난 몇 주에 걸쳐 김종필은 위험한 인물이며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설령 박정희가 김종필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당과 정부의 통치권을 김종필이나 그 주변 인물에게 양도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김용순을 한국의 중앙정보부(ROK-CIA) 국장으로 내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김종필 체제의 부분적인 수정과 김종필 진영 밖에서 당준비위원회로 소속을 바꾼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이 조금 전에 발표한 성명은 당 최고 책임자인 김종필의 기본적인 권력 체

제에 사실상 변화가 없으며 그의 적들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대사관이 가졌던 김종필과 그의 의도에 관한 초점에 따르면 (대사관 전문 A-399 참조) 쿠데타 세력 내에 대립이 있다는 것이다. 김종필의 손 안에 정치력이 집중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그들은 지금 쿠데타 세력의 통합이 깨질 위협하에 너무 늦기 전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 박정희의 대응책으로 보건대, 만약 김종필이 당을 차지하게 되면 생겨날 많은 분파들과 결과들, 그리고 그가 김종필의 적들로부터의 압력에 저항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에 박정희는 점점 더 눈을 떠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김종필과 그의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힘은 단지 그들의 응집력과 광범위한 보안대나 정치적 조직에서 생겨나는 것 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그들의 투철하고 혁명적인 열정과 결연한 추진력에서도 오는 것이다. 김종필은 협상을 하려 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방향이 쉽게 바뀌지도 그의 확신이 쉽게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5. 여전히 대사관은 김종필 계획에 대한 수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박정희가 가진 의구심들이 어쩌면 위태로운 이 시기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박정희가 결정권을 갖고 설령 그것이 김종필의 입맛에 맞지 않을 지라도 그 결정이 충분한 힘으로 실행된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단 하나의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김종필이 그의 당 체제를 확고히 한다면 그것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6. 쿠데타 세력은 군 생활로 돌아가야 하고 정치적 상황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박정희의 생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우리는 박정희 역시 우리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한 것은 민간인들과 군인들에게 권력이 분점 되도록 촉진하는 요소들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김종필이 행한 결정적인 역할의 과감한 축소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7. 우리는 박정희에게 정치로부터 물러나거나 쿠데타 세력을 철수시키라는 제안이나 충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가 이러한 가능성들에 대해 언급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가 어떠한 확고한 해답을 원하거나 기대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본인은 그에게 우리의 일관된 견해인 당과 정부는 군의 거물들 중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그룹에 의한 통치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제안했다. 그는 당 의장이 민간이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본인에게 질문했다. 그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전환기에나 훗날에도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로부터 폭넓고 가능한 후원 위에 견인되는 당 내에서 권력과 의사결정의 분배가 있어야만 한다.

8. 설령 김종필의 힘이 약해진다 해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박정희는 광범위하게 근거를 둔 정당을 세울 수 있는 독립적인 민간인 구성원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김종필이 추구하고 있는 옹색한 계획과는 확연히 다른, 권력의 분배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는 일이다.

9. 우리는 현 상태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부를 분열의 와중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그의 생각에 일반적인 동감을 표한다. 우리는 꼭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박정희가 김종필을 내던져 버리거나 어떠한 결정적인 힘을 찾거나 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김종필의 위축은 미국의 조치가 아닌 한국인에 의해 일어나야 한다고 믿고 있다.

10. 우리는 당의 통합을 서두를 것이지만 박정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침에 따라 지혜롭게 동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박정희의 확신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검열삭제) 협상이나 당쟁을 수용하는 그의 태도, 그리고 그의 독립적인 덕망에 대한 박정희의 본능은 그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강력한 입장 표명 없이 그를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다음 번 그와의 회담에서 본인은 그가 제시한 한도 내에서 그를 움직이려고 노력할 생각이다.

11. (검열삭제)

12. 본인은 국무부가 어떠한 의견이나 지침이라도 보여준다면 감사할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1월 21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1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군사정부에서의 주도권 싸움은 여전히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첨예하게 남아 있다. 1월 21일 저녁 5시간에 걸친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다음날 아침까지 휴회되었다.

2. 김종오 한국군 참모총장은 대사에게 회의에서의 토의는 다음의 3가지 안건에 집중되었다고 언급했다 : A) 당 행정상 조직이 정부의 정치조직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것, B) 당으로 옮겨 앉은 한국의 중앙정보부(ROK-CIA) 관리들은 중앙정보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C) 당의 지방 조직가들은 중앙정보부와 같은 "당"에서가 아니라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전체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종오는 박정희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단계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4. 김종오는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만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즉시 대사와 멜로이(Meloy) 장군에게 공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5. (검열삭제) 한국의 중앙정보부의 7번째 부서인 인사과는 방심하지 않고 만약 김종필이 지시한다면 김종필 반대파들을 체포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러한 방침에 관한 시행에 대해선 아직 아무 것도 가시화된 것은 없다.

6. 대사는 1월 22일 아침 박정희와 만날 계획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내에서의 분열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의 논쟁들은 박정희의 결심을 어렵게 할 것이다. 과감한 기도와 결말을 행하려는 김종필 반대파들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1월 2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1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합동참모본부 테일러(Taylor)에게 전달

1. 박 의장은 멜로이(Meloy) 장군과 본인에게 오늘밤 평상복을 입고 그의 사택으로 와주길 청했다. 박정희는 최고회의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언급하며 말을 시작했다. 그는 동의를 얻어 내기 위하여 여러 측면으로 많은 인사들과 얘기를 나누었으나 그것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최고회의의 몇몇 위원들은 여당을 차지하려 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축출되어야만 할 것이라 했다. 그들은 혁명이 부여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고 그것은 박의장에게 오명을 씌웠다. 김종필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의 하나의 요인이다. 그는 어제 김종필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오늘도 역시 한 두 명의 인사와 얘기를 했고 (그가 나중에 언급한 바에 의하며 유양수라는 사람이다)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

A. 김종필은 정당에서 사직할 것이고 선거 후까지 외국으로 갈 것이다.

B. 몇몇 위원들은 최고회의에서 축출될 것이다.

C. 남아있는 최고회의 위원들은 군대와 최고회의에서 물러나 그들이 남길 원하는 어느 당이라도 합류할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남기를 선택한 위원들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새 정부가 시작되는 여름에는 군대로 돌아갈 것이다.

D. 축출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기 위해 퇴임한 사람들은 각각의 행정부서장들에 의해 지목된 관료들에 의해 재배치 될 것이다.

E. 김종필은 정치활동으로부터의 은퇴에 동참하도록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할 것이다. 그는 의장에게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고 약속했다.

F. 박정희는 국방부장관과 김종오 한국군 참모총장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이고, 국방부장관은 1월 24일 16시에 다른 세 명의 육해공 참모총장들에게 알릴 것이다.

G. 앞서 말한 계획은 1월 24일 18시에 최고회의에 알려질 것이다.

H. (검열삭제)

2. 멜로이(Meloy) 장군이 문제가 있을 만한 곳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종오)은 영향 받을 몇몇 해병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병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박정희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수도방위 사령부를 보충하는 예방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3. 박정희는 위에서 개괄한 일련의 조치가 국가에 일시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래의 안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최고회의 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는 민간인 체제가 성립되면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혁명 지도자들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4. 멜로이(Meloy) 장군과 본인은 박 의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A. 최고회의는 통보받은 바 없다.

B. 그는 1월 24일 회의에서 그의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최고회의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C. "최고회의의 몇몇 위원들의 축출"은 그들이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회의 후에 체포되어 자택에 구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 후에는 아마도 미국이나 해외로 갈 수 있도록 석방될 것이다.

D. 축출될 최고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 강상욱 퇴역 육군 준장, 김윤건 해병대 소장, 오충건 퇴역 해병대 준장, 박원빈 대령, 그리고 정세웅 해병대 대령이다. 이들은 당 기구의 통치권을 잡기 위해 음모를 꾸며 왔고 반(反) 혁명적인 활동들로 인해 구금될 것이다.

E. 김종필은 아마도 내일 사퇴할 것이다. 계획집행의 첫 번째 조치로서 오래지 않아서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5. 멜로이 장군과 본인은 축출될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 모두는 김종필의 반대파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박정희는 한국 내 미(美) 중앙 정보부에서 데려온 김종필 지지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와 정당 내에 채워질 주요 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국무부가 그들의 축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축출은 김종필 주변의 소규모단체들에 의한 당 조직의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통제와 더불어 현재 중요한 쟁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정희가 이러한 논점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각 질문에 박정희는 당 준비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리는 준비위원회가 김종필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발탁되고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인 쟁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는 이점을 박정희에게 주지시켰다.

6. 박정희는 김동하 중장과 최고회의의 다른 이들이 지난 주에 준비위원회에 합류했을 때 그는 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견을 김종필과 타협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다고 했다. 그 대신 김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위원회에서 축출할 것을 요구했고 그의 목적은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고 당을 차지하려는 것임이 분명함을 보여줬다. 만약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김동하는 사태에 대해 박정희와 논의하지 않고 약속한대로 언론에다 준비위원회로부터의 사임을 발표할 것이다. 이 그룹의 다른 이들도 주머니에 사표를 갖고 다니며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만약 그들이 그들 나름의 방법대로 할 수 없다면 며칠 내로 하나하나 사임함으로써 박정희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의 결심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그들을 축출하려는 것이다.

7.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느 편에도 서있지 않으며, 김동하, 송요찬, 유원식 등 정당의 다른 비판자들 편도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전환기에 한국 내에서 적격성을 지키려는 데 있다. 우리는 김종필과 HIFOAIDES가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 조직에 대해 연구했다. 당은 김종필이 이끄는 소규모 그룹에 의해 고도로 집중 통제되고 있음이 분명했다.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이 그룹은 모든 계층과 국회, 행정 부처에서 당

을 통치하려 할 것이고, 선거 후 정부 내의 또 다른 정부를 존속해 갈 것이다. 그는 과거 정당들의 약점을 피하고 한국의 정치적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수들에 의해 계획된 당 조직에 대해 상세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김종필과 한국의 중앙정보부의 인사들이 김종필의 계획인 당 조직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 당 계획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들이 있고 지식 있는 한국인들은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8. 우리는 그의 의도는 그가 약술한대로의 조치들을 통하여 이 사태를 안정시키려는 것이지만, 축출되고 감금된 최고회의 위원들이 불안정한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쫓겨난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들은 김종필 편에 섰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단지 당파적인 그룹들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 행동이 김종필의 그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9. 우리는 그가 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최고회의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망설이고 나서는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10. 우리는 박 의장에게 그의 계획은 최고회의의 모든 위원들이 최고회의로부터 사퇴하고 원하는 당에 입당하거나 정치는 그만두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고회의에 남아있거나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고회의 위원들을 축출하고 그들을 자택에 감금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것이 불안정을 두드러지게 할 것이라는 염려를 되풀이 했다.

11. 우리는 박 의장이 그가 세운 행동 지침에 대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일 우리와 다시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장은 처음에 그의 지침은 사태를 즉각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만약 그가 우리의 제안에 따른다면 문제의 그 그룹은 여당으로 옮겨,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할 것이고, 당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통치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결정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 내일 멜로이(Meloy) 장군이 김종오 장군을 만나면, 그는 그 계획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고쳐 말할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1월 2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2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현 위기의 절정은 박정희가 참고전문 B에서 설명한 계획들을 실행하려고 움직인 1월 24일 저녁이 될 것이다. 그는 그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만분자의 무력사용을 막기 위해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 다양한 가능성들이 떠오르고 있다 :

A. 박정희의 계획은 경쟁하는 두 집단을 권력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융합을 바탕으로 사태를 안정시키려는 순수한 의도이며, 이는 점진적으로 당과 정부 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박정희의 계획이 수용될 수도 있으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전해졌을 때 경쟁자들이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문제점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 내에 그것을 관철시킬 충분한지지 기반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유지시킬 충분한 힘도 확보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머리를 가진 자들이 폭력을 행할 기회는 항상 남아있다.

B. 박정희의 계획은 당의 효과적인 통치로부터 함경도 그룹을 제거함으로써 함경도 그룹과 그 지지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김종필의 지지자들에 의해 의도되었거나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 계획의 궁극적인 결과는 의도했던 바이든 아니든 김종필의 역할과 권력의 지속을 가져올 수 있다.

C. 반(反) 김종필 파들은 그들이 제거되는 동안에 김종필 그룹을 강력한 위치에서 남겨둘 신속한 개편 계획에 반대할 것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안팎의 반(反) 김종필 파들은 반(反) 박정희 파가 되고 성공할 것 같지 않지만 직접적인 강력한 행동을 시도하거나 반대당을

형성함으로써 정부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3. 우리는 위의 대안 (B)가 폐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해결책이지만 안정을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다. 대안 (C) 역시 안정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다. 박정희가 김종필을 제거하고 당을 재조직하는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국가재건최고회의 그룹을 그대로 남겨두도록 우리가 박정희에게 촉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내부에서 경쟁하고 있는 세력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게 할 것이고 여전히 새로운 통합의 여지를 남겨 놓을 것이다. 지난밤 박정희는 함경 해병대 그룹이 완전히 우세해질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최종 분석에서 위 2 항의 대안 (A)는 만약 박정희가 효과적으로 김종필을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 그룹을 세운다면 가장 적게 반대할 만한 안건이다.

5. 1월 24일 18시에 예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회의 개최와 그 결과가 알려지기 전까지 우리 측에서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잠시 물러나 며칠 동안의 냉각기를 가질 수도 있다. 박정희는 김종필의 권력 유지와 반대파 제거는 불안정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우리의 견해를 인지하고 있다.

6. 여당 준비위원회 대변인은 1월 24일 아침 김종필이 당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으나 공식적인 사임에 관한 조치는 1월 27일 준비위원회 회의 때까지 유보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사임 제의는 2항(B)을 초래할 가능성을 변경하지 못하며 1월 24일 저녁 정부 내의 반대파를 없애고 원래의 당 계획과 김종필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계획과 일치된다.

7. 우리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전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8. 국무부의 견해를 요청한다.

버거(Berger)

1963년 1월 2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2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검열삭제)

2. 박정희는 다음과 같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

   A. 김종필은 여당으로부터 사임하기로 했고 가능한 한 하루 이틀 안에 한국을 떠날 것이다. 아마 일본으로 가서 제3국으로 갈 것이다.

   B. 박정희는 5명의 김종필 반대파 관리들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축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C.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정당은 분리될 것이다.

   D. 박정희는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다.

3. (검열삭제)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A. 그들은 정치적 사태를 안정시키려 하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박정희는 이러한 단계에서 물러설 수 없고 따라서 관료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던 기본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한다.

   B. 박정희의 지도력이 상실되고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된다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지금부터 8월까지 경제적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치적 상황은 혼란스러울 것이며 혁명의 목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C. 만약 5명의 관료들이 축출된다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력의 안정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끼치며 무너지게 될 것이다.

4. (검열삭제) 결정들은 1 월 24일 저녁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공표될 것이고 박정희는 충성과 화합을 요청할 것이다. 그는 그것은 곧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종필은 아직 최종 결정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있으나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내에서 8번째 계급인 대령들도

협력할 것이다. 박정희는 반(反) 김종필 파의 김풍건과 오종건에게 얘기하여 그들의 지지를 약속 받았다. 안정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우호적이어서 박정희는 수도방위사령부에 경계를 풀라고 했다.

5. (검열삭제) 정당으로부터 김종필을 제거함으로써, 박정희는 당 업무에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그는 민주당 의장인 옛 항일 애국자 이갑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할 것이다. 박정희의 당 업무에 대한 더 큰 관련은 최근 몇 주 동안 있었던 정치적 "실패"를 덜하게 할 것이다.

6.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은 그들 자신의 장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현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남을 수도 있고 군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시민 정부를 세운 후에 어느 곳으로라도 갈 수 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탈퇴해야만 한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당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7. (검열삭제) 당 구성원의 움직임에 대해 물었다. 특히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그 밖의 기관에서 김종필에 의해 주요 요직을 내정 받았던 사람들에게 질문했다. 그는 입당하려는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은 당 조직에 의해 선별될 것이고 "나쁜 평판을 지닌 자들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조직은 당 사무국의 권력은 줄이고 당 통치력은 확대하도록 수정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당 기반을 확장시킬 것이고 대중의 지지를 증가시킬 것이다.

8. 현재 계획은 오종건, 강상욱, 정세웅이 당장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떠나 온전히 당에 헌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 활동을 선택하게 되면 당에 헌신하면 된다.

9. (검열삭제) 그는 의장과 거의 밤을 새워가며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책들을 고려한 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져 올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했다.

10. (검열삭제) 우리는 박정희가 우리가 지지할 만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있다.

11. 국무부는 박정희가 멜로이(Meloy) 장군을 만나러 왔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며, 본인은 지난밤 그에게 대사관은 사소한 파벌의 위험과 계속되는 불안

정한 상태에서 비록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창설에 대항하는 세력들의 조화와 함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만약 커다란 변화없이 계획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오랜 걱정거리인 김종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숨쉴 수 있겠지만 너무 빠른 낙관론은 금물이다. 암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김종필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통합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본인은 단독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 회복을 위한 현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생각이다.

12. (검열삭제) 본인에게 오늘 저녁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평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진행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역시 신경을 쓰고 있다.

버거(Berger)

1963년 1월 24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국무부,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52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통치 그룹 내의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박정희의 계획을 적절히 완화시킨 귀하의 성공을 축하한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동안 어떻게 사건이 펼쳐질지 지켜볼 때까지 섣부른 낙관론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귀하의 훌륭한 보고에 근거하면 우리는 지금 위기를 무사히 지나가고 박정희와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를 얻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적당한 시기에 귀하는 박정희가 좀 더 민간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해서 그와의 향상된 관계를 이용할 것이라고 사려된다.

3. 1월 16일 (대사관 전문 503호)에 귀하가 박정희와 취했던 노선은 일반적으

로 우리의 생각과 일치한다. 우리는 만약 한국인들이 민간정부로의 전환이 조작되어 왔다고 생각한다면, 대중적으로 지지를 얻고 안정적인 정부를 가질 기회를 상실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통치 그룹을 위해 그리고 효과적인 야당들을 위해 좀 더 광범위한 기반의 필요에 대하여 박정희에게 행한 귀하의 조언은, 만약 그것이 한국을 비현실적인 속도로 미국식 대표정부로 몰아가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의 정치 형태는 아마도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가진 효과적인 정부보다는 덜 중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차 귀하가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필요 상황에서는 체제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해 줄 것을 제안한다. 정권은 학생이나 지식인들, 노동자나 농민 등 중요 계층을 겨냥해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중의 요구와 뜻에 맞는 정책들을 공표하고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좀 더 활발한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러스크(Rusk)

1963년 1월 25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2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지난 3시간 동안 받은 연속적인 보고서는 어제 유양수가 우리에게 약술했던, 최고회의에서 일반적인 지지를 얻었던 의장직과 이 나라에서 김종필을 떠나게 함으로써 이 곳의 사태를 안정시키려 했던 계획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종필은 다시 투쟁하고 있고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결정에 대항하기 위해 그가 통치하고 있는 여당 준비위원회를 이용하고 있다. 이 대립은 현재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여당 사이에 있지만 태도의 변화를 취할 핵심 인물들의 비율에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당 준비위원회의 핵심 회의는 김종필의 위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했던 내일로 예정됐었다. 만약 당 의장이나 핵심 지위를 유지 한다면, 사태는 불

안정하게 계속될 것이다.

2. 앞서 말한 결과에 따라 본인은 박정희와의 회담을 요청했고 멜로이(Meloy) 장군과 본인은 1시간 30분간 회담을 하고 돌아왔다. 그가 말한 것은 1번 항목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김종필이 사퇴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언급으로 봐서 그는 비록 이것이 최고회의 내의 커다란 분열을 의미할지라도 당 준비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임이 명백하다. 지난 며칠 동안 떠올랐던 새로운 핵심 권력자는 김종필과 노선을 같이 하는 김종열(마이크 김) 장군이다. 멜로이 장군과 본인은 1시간 안에 그를 만날 것이다. 본인은 국무부가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대해 경계하기를 바라면서 이 전문을 보내며 곧 상세한 설명을 보낼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1월 26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국무부,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45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국무부는 급변하는 사태에 대한 귀하의 훌륭한 대처와 보고를 칭찬하는 바이다.

2. 우리는 (전문 520호에서 언급한) 쿠데타 세력 내부의 당파 싸움의 타협적인 해결책은 더 오랜 기간 정치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민간 통치로의 평화적인 전환이라는 가장 바람직한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는 귀하의 판단에 동의한다.

   A. 우리가 기대하길, 박 의장의 책략은 김종필의 승리와 절대적인 지도력으로 귀착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만약 박의 승리가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정당을 위한 계획을 자유롭게 실행하도록 그를 내버려 둘 경우에는 그러하다.

B. 김종필에 대항하는 군에 의한 군사 쿠데타는 또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군의 간섭이라는 유감스러운 선례는 강화되었고 민간정부로의 전환은 좌절될 것이다. 또한, 만약 쿠데타와 같은 지도력이 함경파로 한정된다면 과연 그것이 의미 있는 대중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3. 타협적인 해결책을 촉진하고 있는 귀하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러스크(Rusk)

1963년 1월 26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2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월 25일 멜로이(Meloy) 장군과 본인이 박 의장과 (지난 이승만 내각의 前-국방장관이며 민주공화당 준비위원회 위원) 김정열과의 회담에서 제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최고회의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참고전문 A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당 준비위원회 대다수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 겉으로 드러난 2가지 핵심 논점은 다음과 같다.

A. 김종필의 의장직 사퇴

B. 현재 국가적, 행정적, 지방적 각 계층에 임명된 수많은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 세력의 조직개편

3. 드러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김종필을 비롯한 그의 지지자들과 혁명을 이끌었고 김종필의 권력 축소를 바라며 재정비된 당에서 의회를 통치할 입후보자들인 대부분의 군 인사들 사이에서의 권력 싸움이다.

4. 당 준비위원회는 1월 26일 회의에서 이러한 논점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음의 78명의 위원들을 구성 한다.

A. 김종필과 그의 계획에 반대하며 위의 2-A항 안건을 지지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4명을 포함한) 14명의 전직 군 장교들

B. 위의 두 가지 안건 모두에 반대하고 만약 이 시행들을 감행하면 자리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김종필이 뽑은 대부분 젊은 17명의 지식인들

C. 그밖에 전직 정치가들, 원로 교수들, 사업가들, 언론인들, 김정열을 포함한 전직 군장교 등 47명의 "중간 그룹". 이 그룹은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 그룹이 다음의 결과들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살피고 있다.

I. 국가재건최고회의와 "혁명세력"은 하위직으로 민간인들을 좌천시킬 의회를 위한 171명의 후보자를 요구할 것이다.

XI. 정당은 군 부대라는 꼬리표가 붙을 것이다.

III. 젊은 지식인들은 사퇴할 것이라는 그들의 위협을 실행하고 현재 모든 계층에서 순조롭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당 기구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할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전직 군인들로 대체될 것이고 지방당 우두머리들은 정당 후보자들이 이승만의 낡아빠진 자유당 정권 식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려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5. "중간 그룹"은 당이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낼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인해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군의 지배에 따를 준비를 하지 않고 만약 이러한 압력이 가해지면 사임하겠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그룹은 김종필(#)과 그가 당에 공급할 충분한 금전적 상속과 함께 그의 조직이나 인원들의 기본적인 유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협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김종필을 당의 어느 위치에라도 남겨놓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를 완전히 심지어 해외로 떠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 의장은 현재 이 타협안에 따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그리고 밀사를 통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6.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국가재건최고회의도 김종필의 지

지자들도 이 협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1월 26일 계획된 당 준비위원회의 회의에서 논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중간 탑승자들"은 두 대립자들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할 경우 결정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경우 그들은 1월 27일 추가 회의를 요구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7. 박 의장은 멜로이 장군과 본인에게 말하길, 만약 최종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가 김종필의 사임을 받아들이기 거부한다면, 그는 그들이 다시 생각하기를 요청하기는 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질의에 대해 그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5명의 위원을 제외한 모두가 그의 결심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것은 김정열의 언급으로 봐서는 미심쩍은 일이며, 소식통의 보고도 만약 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양 측에 항복한다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거의 모든 위원들은 오늘로 박정희에게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 경우 대부분의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측과 박 의장과 김종필 측 사이에 정면 충돌이 있을 것이다. 박 의장은 김종오 참모총장의 지지를 확신하고 있으나 해병대와 공수부대 여단의 후보자들이 가만있지 않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지지할 것이다.

8. 사건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고 모든 사태는 조만간 심지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

   A. 박정희와 김종필에게서 돌아선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은 (박 의장에게는 이미 사적으로 전달되었지만) 여당의 구조와 중앙집권화된 통치력은 공산당을 닮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당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시장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한－일 문제를 팔아 치우기 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등등의 공격을 하려 한다. 본인이 박 의장에게 이 점에 대해 지적했을 때, 만약 그런 공산주의적 비난이나 개인적 공격처럼 너무 거친 공격이 있다면 그는 "반(反)－혁명적 활동"으로 현장에서 체포하여 보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B. 당의 존경할만한 사람들인 체하고 있는 "중간 탑승자들"은 당 내에 남아 있기 어려울 것이다.

C.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대다수가 박정희에게 도전할 것이고 그는 그들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며, 현재 제정되어 있는 규칙을 폐지하고 그가 이끌 수 있는 어떠한 구성원이든지 가지고 통치할 것이다.

D. 이 모든 것에 대한 반향은 박정희만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 민간정부로의 순탄한 전환으로의 계획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9. 우리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모든 측들을 계속해서 설득할 것이지만, 현재의 파벌주의나 염려스럽고 열정적인 권력 투쟁은 상당히 맹렬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본인은 박정희에게 말하길, 1월 24일 우리가 제안했던 해결책이 안정을 약속할 것처럼 보이는 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는 위험스럽게 보이며 이점에 대해 멜로이(Meloy) 장군과 본인은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정희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있으며 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멜로이 장군과 본인은 이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의문을 갖고 있으며 김정열은 비관적이었다.

버거(Berger)

(#)누락된 것. 정정이 따를 것.

일시 : 1963년 1월 26일
발신 : CIA WATCH
문서화 번호 : 268428Z
주제 : 대한민국 군부와 정부 내부의 비상상황

(검열삭제)

1. 한국군 최초의 특수 부대인 공수부대의 작전계획반 일원인 김광모 대위는 1963년 1월 26일 10시 45분 그의 부대가 경계 태세에 있음을 (검열삭제) 공표했다. 김광모는 더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짧게 덧붙였다 (검열

삭제).

2. (검열삭제) 1961년 5월 군사 쿠데타에 해병대와 함께 참여했던 그의 군 부대는 현 사태에 대해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해 했다. 그는 장교들 사이에 다시 서울로 진군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말들이 오갔다고 밝혔다.

3. 1963년 1월 26일 03시 00분, 첩보부의 모든 장교단원들은 대략 100여 개의 한국 해병부대가 서울 근교에 집결해 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사서함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경계 태세는 1월 26일 05시 00분 한국의 중앙정보부(ROK-CIA)에 의해 해제됐다.

4. 첩보분과인 조사국인 법무부의 검사관 사무실은 기밀로 취급된 2급 비밀 기록을 받았는데 사무실은 모든 기밀 정보를 파기하고 철수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였다.

5. (검열삭제) 유포, 국무부, 육군, 해군, 공군, 주한미군(USKF), 미8군, 주한미 해군, 미 태평양함대, 미 태평양공군, 태평양지구 연합군사령부.

1963년 1월 2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2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여당 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 김종필의 의장직 사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반대 없이 투표에 임했다. 당 대변인에 따르면, 거절에 대한 동의는 어제까지 김종필의 반대편에 있었고 며칠 전 박 의장의 명령으로 감금되었던 인물들 중의 하나인 강상욱에 의해 행해졌다. 입수된 다른 정보와 더불어 이것은 반(反) 김종필 세력은 갈라졌고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의 새로운 동맹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여전히 김종필에 대한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반대파들에게는 몇 가지 어려운 핵심사항들이 있으나, 박정희가 1월 26일 장황하고 지루한 국가재

건최고회의(SCNR) 회의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당 사이에 짜놓은 분명한 경계"에 대해 언급한 후에 김종필에 대해 추측하건대 훨씬 더 많은 반대를 비롯해서 만약 그들이 어떠한 분쟁이라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그는 그들과 다른 이들에 대한 조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그것은 분명해졌다. 지금부터는 "최고회의는 당 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 없다." "만약 당 문제와 관련지어 최고회의에서 더 이상의 논쟁이 있다면, 최고회의의 폐지나 붕괴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의장의 권한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3. 앞의 사건들 이면에는 박정희가 기대했던 계속되는 작전행동과 결정이 있었고 그것은 박정희가 김종필에 대항하는 함경파와 해병대 반대파를 고립시킴으로써 사태를 안정시킬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김종필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게 될 것이다. 해결책은 김종필이 의장직이나 혹은 당에서 다른 핵심 지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4. 수반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A. 현재까지 김종필 반대파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당에 합류한 몇몇 위원을 포함한 5명의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의 사임 : 이석재, 강상욱, 오종건, 조시형, 김채춘

   B. 과거 김종필과 밀접하게 지냈던 8번째 계층인 대령들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위원회 위원장직 7개 중 5개를 차지하게 될 개편단행

   C. 국가재건최고회의는 4명의 군 부장을 포함해서 18명의 위원들로 축소될 것이다. 조정은 현재 박정희가 김종필 자리의 유지를 지지하는 다수파를 갖는 결과이다.

5.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의장으로서 김종필에 대한 준비위원회의 승인에 대한 박정희의 최종 발표이다. 박정희는 금요일에 본인에게 말하길, 그는 재고할 것을 요청 할 테지만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었다. 지난 48시간의 행동작전과 재조정 이면에는 수많은 거래가 감춰져 있음이 분명하며, 그 중 하나는 김종필의 정확한 지위에 관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몇몇은 김종필이 잠시 휴식을 가질 것을 제안했으나 이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김종필이 커다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떠오르는 것은 분명하며 아마도 당 의장으로

서게 될 것이다.

6. 박정희의 결정은 모든 주요 구성원들에 의해 수용되었고 박을 지지하는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졌다. 군 지도부는 박정희를 지지하고 있고 그의 입장을 강하게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 :

   A. 만약 위기에 대한 이런 "해결책"이 반대에 부딪친다면, 박정희는 감금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종필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추방될 것이다. 전(前)국부총리 송요찬이나 전(前)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인 유원식처럼 성가신 반대파들처럼 함경도 파는 현재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B. 현재 김종필과 다른 이들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동이 가해질 수도 있다. 김종필에게 유리한 이러한 해결책을 옹호하는 박정희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C. 국무총리와의 오늘 회담에서 그는 본인에게 말하길, 그는 당에서 김종필을 축출해야 한다고 하며 김종필은 믿을 수 없고 김종필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종필이 당에 남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에 박정희를 만나 그를 설득해서 김종필을 의장직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하게 할 생각이다. 그는 이 문제로 사임할 것이며 두 세 명의 다른 장관들도 역시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이 회담에 관해서 따로 보고할 것이다.

   D. 정일권 대사는 함경도 지도자로 유명하며 사임을 생각하고 있다.

7. 앞서 말한 것들은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결과들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사태의 안정과 힘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A. 군사정권의 주요 특징이었던 박정희－김종필의 관계는 지난 몇 주 동안 가장 커다란 골칫거리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것은 김종필이 박정희를 필요로 하는 만큼 박정희도 김종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었다.

   B. 여당은 권력의 새로운 토대로 떠올랐고 김종필은 그의 이전의 권력의

토대였던 한국의 중앙정보부로부터 그가 조직하고 배치했던 당으로 옮겨 앉았다. 김종필 반대파들은 그를 몰아내려던 시도에서 실패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힘은 약해진 반면, 대신 김종필은 당에서의 그의 지배력을 확인했다. 비록 김종필은 당 내에서 권력을 노리는 자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있었을 때보다는 숫자적으로도 훨씬 적고 약하다.

C. 당의 준비위원회에 있는 민간인 구성원들에게는 혁명 이후 주요 정치적 논점에 있어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김종필에 대한 그들의 지지에서, 민주공화당(DRP) 민간인 구성원들은 그에 대한 그들의 의존 정도를 나타냈고 그 과정에서 김종필 역시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 예로 말하자면, 그와 그의 당에 대한 군부 반대파로부터의 공격을 견뎌내기 위하여 그의 민간인 동료들을 이용함으로써 김종필은 현재 정치에서 민간인 우위의 대변인으로서 그 자신을 올려놓고 있다.

D. 당에서 김종필의 지위와 지도력의 방식은 당과 정치적 안정에 있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정치적 격동의 중심에서 야당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김종필의 지도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군 지도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로 돌아설 수도 있고 정부의 추문에 대한 내부적 인지를 이용하여 정부에 대한 비난에 강도를 더할 수도 있다.

8. 쿠데타 세력의 권력투쟁과 불화는 전체 정부와 이 나라에서 정부의 지위를 약화시켰다. 만약 야당에 대한 변절이 일어난다면, 선거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선거 행위와 얼마나 비난을 참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었다. 그러나 만약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 한층 더 큰 관심을 가진다.

9. 우리는 아직 지난 며칠 간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들의 정책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거나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지 제시할 입장에 있지 않다. 되도록 빨리 제시하겠다.

버거(Berger)

1963년 1월 2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3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1월 27일 2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국무총리는 국지적 사태와 관련해 본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만약 김종필이 권좌에 남아있을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본인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사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2. 그의 답변은 이러했다 :

A. 김종필은 이 나라에서 가장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인물이다. 그는 선거에 불리한 인물이며 그를 제거하지 않는 한 여당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는 김종필이 축출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서울 전체에 환호가 울려 퍼졌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B. 만약 김종필이 당을 이끌어갈 것을 주장한다면, 그는 패배를 맛봐야 할 것이며 "정치적으로 사망" 상태가 될 것이다. 만약 그가 이 나라를 떠나 선거 후에 돌아온다면, 동일한 장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C. 준비위원회는 김종필에 의해 직접 가려졌고 당연히 그를 지지할 것이다. 만약 박정희가 김종필을 의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한다면 사임하겠다는 그들의 위협은 박정희를 끌어들이려는 완전한 허세일 뿐이다. 준비위원회가 당 업무에서 아무런 간섭 없이 그 자리에서 김종필의 위치에 대한 결정을 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박정희의 결정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김종필이 당을 지배할 것인가의 결말은 상당히 광범위해서 오직 박정희만이 이 결정을 할 수 있다. 김종필은 알력을 일으키는 요인이며 당에 그가 잔류함으로써 오는 영향은 군 지도자들 중 몇몇 그의 반대파를 반대 진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다. "선거전은 완전히 타

락할 것이긴 하지만 이들 반대파들이 김종필의 금전적 거래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선거전은 참으로 난폭해질 것이다."

D. 1960년 그가 이승만에게 이기붕을 던져 버리라고 충고하지 않았다면 자유당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 결과가 조작됐음이 분명해졌을 때 그는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사퇴했다. 그는 현재 많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고 다시금 사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두 세 명의 다른 장관들도 역시 사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3. 국무총리는 지난 주 중에 박정희는 김종필을 제거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김종필과 준비위원회 그리고 김종필의 감상적인 동료들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바꿨다.

(검열삭제)

거기엔 당연히 거래의 연속과 김종필을 옹호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세력의 재조정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확실히 박정희는 현재 안정을 유지하려는 그의 가장 큰 소망에 따라 김종필을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4. 그래서 본인은 만약 김종필이 당에 남게 된다면 우리의 입장에 대한 국무총리의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61년 12월 우리는 박정희가 1962년 말까지 군사정부를 일괄하여 지킬 수 있겠으나 정부가 선거 시기로 접어들고 권력을 향한 극심한 당파간의 항쟁과 투쟁이 생기면 통합에 있어서의 막대한 부담감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리의 평가를 바탕으로 예상했던 것이었다.

5. 따라서, 지난 몇 주 동안의 진전들은 이 시기에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정기적으로 분석했었고 미리 우리의 입장을 통하여 생각했었던 것이기에 우리로서는 놀랄만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핵심 인사들에게 언급했었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혁명 세력의 통합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분열되면 모든 사태는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B. 우리는 군 지도자들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당파적, 개인적 세력 다툼이 있으나 어떤 개인이나 세력도 통합을 깨뜨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고 싸움은 타협에 의해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C. 여당의 지도력은 가능한 한 많은 군 세력과 민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넓혀져야 한다.

D. 만약 앞의 상술된 내용이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민간정부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다.

6. 본인은 모든 우리의 노력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나 혹은 대항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열삭제)

7. 국무총리는 현재 박정희는 김종필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박정희와 정부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지 덧붙였다. 본인은 그의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상황은 시간마다 바뀌고 있고, 새로운 제휴관계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조정이나 타협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당면한 위기는 김종필이 당의 핵심 권력 자리에 남아있는 것으로 극복될 것이다. 이것이 확실한 안정이나 순탄한 전환 그리고 공정한 선거로 비춰질 지의 여부는 상관없다. 본인은 만약 김종필이 권력에 잔류할 경우에 그 자신에 대해 말했던 일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사태에 대해 미리 판단하길 원치 않았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는 영향 받지 않겠지만, 추후의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에 걸친 사건의 진행에 의해서, 특히 선거 운영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8. 국무총리는 우리가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우리는 어느 측에서 서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야당이 불행하게도 분열되고 제안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9. 본인은 국무총리가 박정희를 만나서 다시 한번 그의 견해를 표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할 것이고 계속해서 소식을 알리겠다고 했다.

10. 논평 : 국무총리가 긴장을 늦추고 나에게 기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김종필이 핵심 권력 자리에 남아있게 될 경우 벌어지게 될 사태에 대한 염려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의 논평은 눈앞의 위기는 극복되는 반면 사태는 안정이나 건전함과는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버거(Berger)

1963년 1월 3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3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현재 입수되고 있는 정보 보고서의 쇄도와 연관된 지난 주의 사건들과 여러 가지 대담들은 안정을 해치는 결과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경감되고 융합되는 듯하지만 군사 정권 내의 분열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2. 일시적 휴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했다 :

   A. 혁명과 당 통합, 그리고 최고회의의 모든 위원들에 대한 박정희의 강한 압박에 대한 요청들

   B. 반대파들에게 행한 김종필의 잘못과 과오에 대한 고백과 앞으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

   C. 당 내의 권력 분배, 당의 통치, 핵심 자리로부터 상당 수 자신의 인맥의 제명에 대하여 그의 반대파와의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김종필의 약속

3. 추후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은 만약 이러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견고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의 현재 평가는 김종필과 당 안팎에서 그가 휘두르는 거대한 권력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안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4.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난 4-5일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은 야당의 압력에 부딪친 김종필에 의한 계획적인 휴지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가 진심으로 권력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안전하게 단계별로 나아가 심지어는 사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위에 서려는 것이며 (아래 8-9항에서 단계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그는 이미 반대파에게 복수할 적절한 순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5. 김종필의 반대파는 앞에서 말한 것들에 대해 의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며칠, 몇 주 동안 어떤 전술과 전법을 사용할지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6. 우리는 지난 주에 아무런 충돌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동안 우리는 사태에 있어서 얼마 동안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잠시 휴식기를 가질 것이다. 이 휴식기가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전개시키려는 관망파에 의해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커지면 분열이 일어나고 조만간 사태가 다시 험악해질 수도 있다. 김종오는 한 매개인을 통해 멜로이(Meloy) 장군과 본인에게 전언하길, 만약 체포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격앙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7. 우리는 함경도 파와 연합된 군 장교 구성원들에 의한 여당의 장악 시도가 실패했을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수 있다. 그들의 선택은 지금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

   A. 김종필의 세력을 꺾기 위해 싸우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당 내에 머무는 것;

   B. 약간의 성공 가능성으로 새로운 당을 세우는 것; 혹은

   C. 선거전에서 여당을 날려버릴 가외의 공격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야당에 합류하는 것

8. 근본적인 문제는 여당 안팎에서 김종필의 자리와 권력에 대해 문제를 삼고 계속해서 격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참고전문 A)의 7B항에서 우리가 김종필은 그의 권력 기반을 한국의 중앙정보부에서 당으로 이전했다고 언급했던 것은, 그가 한국의 중앙정보부 두뇌집단의 일부와 지지자들을 당의 핵심 자리로 움직임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가 계속해서 한국의 중앙정보부의 부서들을 강하게 장악하고 있어서 자신의 권력을 확장시켰다고 보고했어야 했고, 신임 국장인 김용선은 조사감독국으로부터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김종필은 오래 전에 우리에게 선거 후에 이 부서들을 정부의 행정 분과로 옮길 것이라는 그의 의향에 대해 얘기했었고 최근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는 곧 그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그가 양보할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기 위해

서 그들은 검찰관 사무실과 법무무장관, 경찰로 옮길 것이다. 본인은 1월 29일 국무총리와 가진 또 다른 회담에서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기관들에까지 김종필의 세력을 더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사관과 그 직렬의 관리들만 이동될 것이고 상급자들은 빠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의 어조나 망설임으로 보아 그 역시 상당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월 25일 멜로이 장군과 본인의 박정희와의 회담에서 (참고전문 B), 본인은 누가 한국의 중앙정보부를 책임지고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자신이라고 했다. 그가 현재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 재정비 등등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우리는 장차 어쩌면 그 입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

9. 앞에서 기술한 권력의 지속적인 원천에 더하여, 김종필은 정부 각 부처와 해외 공관의 수백 개의 자리에 그의 인물들을 심어놓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 있다. 그는 재향군인회, 노동조합 등등에도 관계하고 있으며 "친구들을 얻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의 운용력에 충분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10. 이 모든 사람들이 김종필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일 수도 있다. 김종필이 권력의 자리에 머물 경우에만 그들은 그에게 붙어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밀려나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그를 버릴 것이고 항상 권리의 유보를 행하고 있었다고 고백할 것이다. (지난 주 김종필이 물러날 것처럼 보였을 때 이미 몇 명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했었다.)

11. 간단히 말하면, 지난 18개월 동안 김종필이 해왔던 것은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혹은 공산당)과 유사한 극으로 치닫는 기구의 설립이며, 한 사람의 손안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커다란 위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위험은 매우 심각하게 박정희 자신, 민주적 제도의 발전, 공정선거와 자유로운 비판 등을 위협할 것이며, 만약 박정희가 김종필과 끝낸다면 그것들을 고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2. 이것은 바로 정부의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하고 있는 권력의 집중이며, 앞으로 며칠 혹 몇 주 안에 당 내부와 야당에 의해 문제시 될 것이다.

13. 우리가 김종필의 반대파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 대로 그들이 다시금 김의 권력과 조직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 김종필의 전술은 어쩔 수 없다면 약간의 저항을 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원래대로 지키려고 할 것이다. 야당은 만약 김종필의 권력이 축소된다면 그가 완전히 사태에서 물러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김종필 문제에 있어서는 더 많은 대결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

14.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박정희는 다시 이 사태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1월 29일 우리는 김종필과 박정희의 측근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입수하였는데, 박정희는 김종필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려 한다는 것이고, 만약 김종필이 그의 반대파와 어떤 타협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떠나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진정시키려고 계획된 겉치레일 수도 있다. 우리는 후자가 더 그럴 듯하다고 생각한다. 김종필은 할 수 있는 한 약삭빠르게 움직이고, 그의 반대파는 그와 적수가 되지 못하며, 당 내의 민간인 동지들은 그의 조직 구성의 천재성에 매료되어 있다. 그는 그의 반대파의 기선을 제압하고 당 내에서 그의 권력을 사용할 것이고, 다시 박정희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권력에 굶주려 있는 소위 "중간 탑승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15. 첫 번째 시험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준비위원회의 반(反) 김종필 세력은 공식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 :

A. 부 사무총장이 된 김동환 당 사무총장의 복직

B. 핵심 조직의 장들의 교체

C. 좀 더 균형 잡히고 폭넓은 대표제를 위해 당 준비위원회에 50명의 위원들을 추가할 것

D. 김종필은 2주일간의 휴식을 취할 것

김종필은 이와 같은 협상에 동조할 것처럼 보이는 듯했으나, 위의 어떠한 제안도 준비위원회의 대다수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박정희는 PSOY* 문제에 있어서 (지난 주 박정희가 발표했던) 비간섭이라는 행동지침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김종필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시 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한다.

16.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는 김종필이 과거 공산주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현재 정당에서 고문관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김종필의 반대파에 의해 문제되었던 것이다. 본인 역시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1월 28일 멜로이(Meloy) 장군과 본인이 박정희를 만났을 때, 본인은 우리는 물론 오래 전부터 이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반공산주의를 천명했던 정부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언급했다. 본인은 대화의 답보상태라는 현 시점에서 정부 전체가 공산주의의 전복 책동에 휩쓸릴 가능성에 대해 그에게 나타냈던 염려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 박정희는 함구했으나 유상수가 다음날 본인에게 전하길 이 사태에서 김종필을 제거하려는 일괄 협상(현재는 실패한)은 "나쁜 평판을 지닌 인물들의 축출"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은 이것이 본인의 논평에 대한 답변이라고 받아들였다.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행해진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다.

17.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과 김종필에 관한 주요 문제가 다시 야기됐을 때 과연 박정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때는 박정희는 김종필에 대항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비록 박 의장의 측근들이 김종필을 될 수 있으면 이 나라 밖으로 퇴장시키라고 충고했고 또다시 그렇게 하길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가 다시 김종필 편에 설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18. (검열삭제) 원조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들이 1963년의 바람직한 부분을 통해 그들을 보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도움을 뻗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대출 신청은 처리될 것이나 미국 정부의 인가 이전에 공표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19. (검열삭제)

버거(Berger)

* 받은 대로임.

참고 : 1월 30일 오후 5시 합동참모본부에 전달 됐음.

1963년 1월 31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4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1 Box 129

1. 본인은 1월 29일 국무총리를 점심에 초대해 김종필과 그의 반대파 사이의 "협의" 결과 상황에 관해 그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답변했다 :

   A. 충돌은 없었지만 사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거기에는 김종필이 양보하면서 드러난 어떤 가능성이 있으나, 그는 그것은 새로운 대립과 분열이기 쉽다고 생각했다.

   B. 정부는 2월 초 정치적 정화 목록에서 허정을 비롯한 200명 이상의 인물들을 정리할 것이다.

   C. 그는 1월 26일 본인에게 표명했던 김종필은 이 나라에서 떠나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그가 남을 것인지 사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본인은 이것을 사태의 전개에 달려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2. 본인이 전개했던 명제는 김종필의 권력과 조직의 집중과 확장에 있어서 본인이 보았던 위험이었다. 그는 그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몇가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의 설명은 분명하지 않았으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분명했다.

버거(Berger)

1963년 2월 11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5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4 Box 129

1. 그의 요청에 의해 2월 11일 2시간 동안 본인은 김종필과 만났다. 회담 내내 그가 주로 애기했으며, 김종필은 조용하지만 극도로 엄숙하게 현 사태에 관한 그의 견해에 대해 말했다.

2. 혁명 정부 내부의 정당 계획과 조직, 통제에 관한 최근의 논쟁에 관한 간단한 언급을 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와 정부의 선의는 혁명의 주류와 정치적 적들, 그리고 한국인들에 의해 잘못 해석되었다. 불행히도 한국의 정치가들은 변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진 채로 남아있다. 심지어 정당들이 형성되기 전에 야당은 정부를 비방하는 일에 몰두하고, 비록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을 형성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통일된 기반 위에 선거를 거부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3. 김종필은 한국에서의 정치 문제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나라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안정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인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점점 더 절망적이고 불안정해지고 있는 결과로 인해, 정부 내에서 올바른 통치를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는 한-일 정상화의 전망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 자체 내부로부터의 야당 때문에 가망이 없다는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국내 정치적 사건의 압박 하에 정부 안의 인물들은 현재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필요한 양보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것은 군 지도자들의 야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정치인들의 무책임감과 약해진 공직자들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외무부장관은 화합에 이르는 점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있다.

4. 정부 안팎에서와 그의 혁명적 동지들 사이에서의 무책임감으로 인해, 박 의장은 대통령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2월 10일 김종필은 박정희와 오랜 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고 박정희는 사태를 통솔하는 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 2월 14일이나 15일쯤 그는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서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결정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그는 모든 전직 정치가들에게 취해진 정치활동 금지의 해제와 5월까지 선거를 연기하는 것

에 동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박정희는 8월 민간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동안 정부의 우두머리로서 남아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5. 김종필은 말하길, 박정희는 이러한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A. 그는 모든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부패에 환멸을 느꼈다.

   B. 그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 혁명의 주류에 대해 신뢰를 잃고 있었다. 그들은 혁명의 과제를 실행하는 것에 점점 약해져가고 있었고 기성 정치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은 더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경제적 상황의 악화를 더욱 더 가중시킬 것이다.

   C.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의 이런 타락된 상태에서 선거 후라 해도 그로서는 안정된 정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6. 의장은 정치에서 물러나겠다는 그의 결심에 있어서 상당히 단호하다. 만약 그가 입후보하지 않으면, 민주공화당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는 박정희에게 결정을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박정희는 사태에 대해 상당히 고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종필은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막연히 느끼고 있다.

7. 만약 박정희가 이러한 결심을 고집한다면, 김종필은 정치권 밖에서 그를 따를 의향이다. 그는 2월 하반기에 계획된 정당간의 최초의 합의를 통해 민주공화당에 남을 것이고 당의 화합이 계속되면 그때 물러날 것이다. 그는 만약 그것이 더 나은 정치적 분위기를 약속한다면 정치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박정희가 대통령에 입후보 할 것인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가 입후보하지 않는다면 당파싸움이 횡행하고, 부패가 생겨나고 혼란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 염려했다. 그는 강력한 정부나 지도자로서의 박정희가 없이는 8월 이후 안정에 있어서 거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1964년에는 거대한 내분과 쿠데타의 가능성도 예언했다.

8. 김종필은 박정희의 신임을 강화하고 그가 정치권에 머물도록 그를 격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말을 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본인에게 달렸다고 말했

다. 정반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종필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해왔다고 말했으나, 박정희의 결정에 비추어 보아 그는 텅 빈 벽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운명은 미국의 입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미국의 조치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다 :

A. 그는 본인이 박정희가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사태의 안정에 기여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했다.

B. 그는 만약 우리가 박정희를 되돌리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선택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가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다.

C. 그는 야당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만들려는 정치인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는 윤보선과 본인의 최근 만남에 관해 언급하면서 본인이 야당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만나지 않았으면 하고 제의했다.

D. 이 나라의 안정화를 보증하기 위해서 즉시 경제원조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발표는 중요하다. 비록 그런 원조가 당장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약속은 유용한 손짓이며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E. 그는 그다지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혼란을 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야당이 이용하고 있는 한국의 식량 문제에 관해 우리가 희망적인 성명을 발표해 주길 기대했다. 야당은 이미 더 큰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시위 단계에 3월 1일 학교로 돌아갈 학생들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9. 본인은 김종필에게 말하길, 박정희가 본인에게 말할 때까지 준비된 그의 계획과 관련지어 공식적인 성명은 없었으면 한다는 나의 바램을 박에게 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본인은 이러한 사태에 의해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하고 미국 정부와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본인은 그에게 박정희와 본인이 대화를 나눌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을 박의장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10. 본인은 김종필에게 우리는 전환기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개월 동안의 암담함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혁명 세력이 일치 단결하고 개개인마

다의 심각한 이견들과 권력, 정책들이 정부 통합을 파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여당의 기반을 넓혀서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이 권력을 독차지하지 않고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을 강조해왔다. 우리의 조언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당이나 영향력 있는 어느 야당에 합류하겠다고 말해왔다. 우리는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유롭게 비평할 권리와 함께 공정한 선거는 한국인들이 양 당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안정된 상태를 창출해낼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혁명 정부 내부와 그리고 야당 내부의 문제들로 인한 이 힘든 사태에서 불안정을 더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워야만 한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한국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전환을 이루어냄으로써 문제점들은 한국인들 자신에 의해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본인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사태의 복잡성을 더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본인은 의장이 조만간 본인과의 상담 전에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리지 않도록 김종필이 그에게 알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회담을 끝냈다. 김종필은 의장에게 즉시 알릴 것이며 그의 답변에 관해 본인에게 통보해 주겠다고 했다.

11. 논평 : 이번 회담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수많은 가능한 해석들이 있다. 앞서 상술된 사항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김종필의 견해는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의 사건들과 민주공화당 내부에서의 분열, 물가인상의 압박 하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 격렬한 야당의 공격, 대중적 지지의 상실은 그의 정부에 대한 박정희의 신뢰와 그의 정치적 전망을 축소시켰다. 때때로 박정희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그의 바람에 관해 본인에게 말했었다. 따라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박정희가 그의 바람에 있어서 진지하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를 연기하고 정치 세력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허락하는 반면 쿠데타 세력의 토대 위에 정부의 안정을 지킬 것이다.

12. 또 다른 가능성은 박정희가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그의 정치적 전망을 밝게 하며 대중들의 경제적 두려움을 완화시킬 과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명백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계획된 김종필의 접근이다. 그 과정에서 김종필의 위치는 강화될 것이고 전환을 위한 최초의 계획을 확실한 미국의 원조와 동의로써 실행하려 할 것이다. 김종필은 어쩌면 더 큰 불안정

이나 심지어 새로운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해서 박정희의 확신의 결여를 과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13. 세 번째 가능성은 박정희와 김종필이 정치활동의 재개 금지, 선거의 불명확한 보류,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에 대한 군사정부 통치의 영속성을 정당화할 혼돈과 혼란의 전조를 만들어 내려는 것일 수도 있다.

14. 김종필의 전체적인 접근은 전술적인 움직임일 수 있으며, 이것은 박정희가 당에 의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 나중에는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그는 반대 야당의 공격에 있어서 핵심 요인이었던 최초의 맹세를 지킬 준비가 된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창출하는 반면 혼돈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당의 압력으로 결국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의 이미지를 창출하려고 한다.

15. 우리는 이 새로운 사태에 관해 철저하게 연구하고 있고 미국에게 열려있는 선택들에 관한 우리의 의견을 전개시키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부에 제출할 것이다. 본인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든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박정희가 정치에서 물러나겠다는 그의 바람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약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만약 그가 남는 것에 동의한다면, 정부를 통괄하고 이 전환기에 이 나라에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2월 12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국무부, 볼(Ball)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동경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479호, 148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4 Box 129

1. 국무부는 참고전문에서 열거된 정치적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협상에 있어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가올 봄에 일본 의회의 승인에 맞춰 타협안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 발전에 상당한 손실과 함께 협상의 전망은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으로서

는 계속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냄에 있어서의 실패는 한국인들에 의한 연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무부는 사태에 대한 김종필의 평가에 어느 정도 회의를 갖고 있으며 "전면적인" 협상을 소집하기 위해 열린 제 25차 한-일 회담에서의 합의에 관해 2월 11일 외무부장관의 성명을 보고 받았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안을 밀고 나가야 하며 다른 방도는 없다고 믿고 있다.

2. 따라서 국무부는 버거(Berger) 대사가 올 봄 한-일 간의 협상의 성공의 심각한 중요성을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층에게 강하게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 촉구 사항에는 "이승만" 라인은 법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올 봄을 넘어 연기하는 것은 한국 경제 발전의 전망에 해를 입힌다는 점, 그리고 만일 쿠데타 세력이 상당한 신뢰를 확보했던 재정적 안정을 잃는다면 대중적 환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 등 미국 측의 입장을 되풀이해서 언급해야 할 것이다. 해리먼(Harriman) 지사는 2월 8일 정 대사에게 한-일 협상에 관한 생각을 표명했다. 그는 일본 의회 회기는 5월에 끝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한국은 그 전에 협상을 잘 매듭짓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승만" 라인은 국제법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을 지적하며 한국은 다양하고 이치에 맞는 입장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정 대사는 한국은 침투에 대항하는 방어선 협정과 융통성 있는 어업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만약 대사도 그렇게 권한다면 정 대사와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3. 이러한 즉각적인 의견들 이외에도, 국무부는 서울 대사관과 동경 대사관으로부터의 가능한 한 상세한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계획표와 일본 의회의 협상 조정 계획을 필요로 한다.

볼(Ball)

1963년 2월 12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국무부, 볼(Ball)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48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4 Box 129

본인은 올 봄 한-일 간의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는 점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이곳에서 가장 최우선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귀하에게 강조하고 싶다. 진실로 두려운 것은 만약 앞으로 몇 주안에 두 정부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오래토록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검열삭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귀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있는가?

(검열삭제)

끝.

볼(Ball)

1963년 2월 1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6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4 Box 129

1.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간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현재 상황에서 그것은 3월이나 4월에 협상을 결정지으려 했던 처음의 계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전환 이전에 합의에 서명하려는 의향은 여전하지만 내부의 정치적 상황의 혼란한 특징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고 있다. 전체적인 정치적 태도가 바뀔 수도 있고 정부가 심각한 위기로 몹시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를 어업 문제에 끼워 넣음으로써 얻어질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문제를 밀어붙일 대안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하는 것이고 정치적 위기가 약해지지 않는 한 최초의 시간 계획표에 얽매일 수만은 없다는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2. 참고전문 3항에는 현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상세한 일정표가 없다. 최초의 계획에는 대통령 선거는 4월 중순이고 국회의원 선거는 5월 중순으로 되어있었다. 며칠 전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4월 8일로 바뀔 것이라

는 강한 암시를 받았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믿을만한 보고서들은 정부는 현재 5월 어느 날까지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그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치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입후보에 관한 박정희의 결정은 현재 이 나라 전체 사태의 핵심 요인이다. 정부와 당 관리들은 밤을 새워가며 회의하고 지시도 계속적으로 바꾸는 등 모두들 지독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한-일 협상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최상의 움직임인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버거(Berger)

1963년 2월 1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6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4 Box 129

1. 본인은 2월 14일 박 의장과 1시간 반 동안 만났다. 그는 현 사태를 설명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1월 1일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 야당은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일삼아왔고 민간정부로의 재편성의 공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혁명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야당은 또한 정치정화법 아래 행해진 정치금지령의 철폐, 선거의 유보, 그리고 한국 내 중앙정보부(ROK-CIA)의 무력화를 요구하고 있다.
2. 박정희는 다음과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 정치적 상황의 안정
   B. 경제적 상황의 안정
   C. 공정 선거의 수행 책임
   D. 민간정부로의 점진적인 전환 책임
3.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이다. 여러 정당들간의 싸움은 반드시 최소화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 선거나 경제적 안정, 민간정부로의 평화로운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는 자신이 어떠한 정당과도 관계없는 반대파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으면 그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다음의 행동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A. 대통령 후보에서 퇴진

B. 정치정화법 아래 구속되었었던 거의 모든 전직 정치인들의 석방

C. 선거일의 연기

4. 이렇게 한 후에 그는 정부의 이전을 유보한 채로 행정부서의 활발한 관리에 모든 시간을 바칠 생각이다. 이것은 그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구성원들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퇴진은 더한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조언하며 다른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국무총리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선호하고 있다. 박정희는 다시, 본인이 어떤 조언이나 의견에 대해 들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5. 본인은 박 의장이 본인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본인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관련된 문제점들과 요인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정과 효과적인 전개, 순탄한 전환, 그리고 오래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었다. 문제점들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정신적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만약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할 올바른 해결책들을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감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믿고 있다.

킬렌(Killen)은 경제계획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고 한국 정부는 지원된다면 우리가 경제적 안정화를 해낼 수 있는 해박한 인물들을 가지고 있다. 한편 몇몇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를 즉시 안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원조하고 미국의 잉여곡물양도법(PL 480)에 따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 자체로 안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당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가상승의 압박을 줄이기 위한 결단과 시행이다. 이것이 행해진 다음에라야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친 우리의 추가 원조

가 효과적일 것이다.

6.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인은 두세 가지 가공의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것들에 대한 논의는 며칠 연기하고 싶었다. 그 기간에 본인은 워싱턴으로부터의 견해를 받기를 기대했고 또한 좀 더 많은 정부 안팎의 핵심 인물들과 대화를 하기를 원했다. 본인은 며칠 동안 사태를 조사하고 싶었고 그에게 결심을 재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본인은 그에게 며칠 후 우리가 다시 대화를 할 때까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동의했다.

7. 본인은 2월 13일 저녁 그와 허정의 만남에 대해 질문했다. 그가 말하길, 그와 허정은 정당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최우선 이익 면에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허정은 우선 정부의 특정 조치들과 그가 근본적으로 정치적 감금 상태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비평했고 의장은 사과했다. 그리고 나서 허정은 모든 혁명 지도자들은 민간정부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정희는 그와 같은 시행의 결과물에 대해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허정은 정당들과 그들의 최근 활동들에 대해 과연 그들 중 누가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것인지 의문이라며 비난했다. 박정희가 말하길, 그가 허정 자신에게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허정은 아무런 확신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박정희는 허정에게 말하길, 혁명가들이 군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민간정부를 비난하는 일에만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의 생각은 군대는 정부와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허정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만약 박정희와 나머지 사람들이 군대로 돌아가고 우월한 입장에 서서 시기적절한 조언과 필요하다면 정부를 위해 지원을 한다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이것은 군 구성원들을 정부의 고위층에 올려놓게 되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허정의 생각이라고 하기엔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허정과의 대화를 통해서 반대파가 군사정부를 비난하는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좋은 의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8. 본인은 박정희에게 말하길, 허정은 기본적으로 혁명과 박정희의 지지자였고 한국 내 하나의 핵심 인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첫 번

째 인물들 중의 하나였다고 했다. 박정희는 본인이 허정을 만나면 그가 민주공화당에 합류해 그곳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할 것인지 물어봐 줄 것을 요청했다.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박정희는 심지어 허정이 당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열삭제)

9. 우리는 그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본인을 초청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우리의 대화와 관련된 사실들을 밀고 나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당연히 우리는 며칠 내에 의견 교환을 위해 다시 만날 것이다.

논평 :

10. 박정희가 정치적 경선에서 퇴진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가는 비록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점은 잠시 제쳐 놓을 수 있다.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길로 결심을 하든지 불안정을 더할 즉각적인 발표를 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앞으로 며칠 동안 몇몇 핵심 인물들과 사태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가질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은 본인에게는 사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 어떠한 가망성들이 있는지 돌아볼 기회를 줄 것이다. (검열삭제)

버거(Berger)

1963년 2월 14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볼(Ball)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48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4 Box 129

해리먼(Harriman)으로부터 버거(Berger) 대사에게

1. 귀하는 참고전문 6(B)항에 진술된 이유들로 인해 박정희가 대통령 직에 입

후보하도록 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김종필과 이동원의 귀하에게의 접근은 (귀하의 전문들 557호와 563호 참고)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틀림없이 의도된 것이므로 귀하는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반면, 귀하는 입후보하지 않으려는 박정희에게 권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렸음이 분명하다. 귀하는 질서 있는 전환이 되도록 해야 하는 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2. 귀하는 김종필의 이탈에 관해 솔직하게 충고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약 입후보에 있어서 박정희의 동요는 단지 구실일 뿐임이 증명되고 우리가 김종필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통치권과 우리의 관계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귀하는 김종필이 민주공화당을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보국(CIA) 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순수한 국민의 수락을 얻을 당의 기회를 말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한 어조로 재차 충고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3. 귀하는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가진 정부를 발족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목적의 성취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얻었는가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다.

4. 귀하를 위한 정보. 만약 박정희가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가 선거 때까지 계속 머무른 다면, 우리는 박정희 아래서 과도정부의 안정된 정세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한국인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강력한 정부는 박정희 없이 선거 후에 예를 들면, 허정과 같은 지도자 아래 발전될 수 있을 것이고 군사적 파벌들은 그러한 정부를 지원할 것이다. 정보 끝.

5. 참고로 전송된 앞서의 견해들은 귀하가 연루되어 있는 곳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상세하게 기술된 지시사항은 아니다.

6. 이 시점에서 본인의 방문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워싱턴의 의견과 한국 정치에 대한 노리드(Norred)의 견문이 필요하다면 그가 귀하를 돕기 위해 잠시 갈 수 있다. 알려주길 바람.

볼(Ball)

1963년 2월 15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6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4 Box 129

1. 대사관은 국무부 관리들이 한국 사태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김종필과 그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아직까지 박정희와 통하지 않고 있는 함경파의 생각을 규칙적으로 보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정 대사와 계속 논의할 것을 믿는다.

2. 한국의 함경파 구성원들은 야당을 구성할 것을 생각하고 있고 (김종필을 비롯한) 몇몇은 함경파 인물 김동하가 사실상 당 조직을 담당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여러 보고서들이 있다. 이렇게 진술된 정치 계획안들이 많지는 않고 우리도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허정이 함경파에 의해 구성되고 지배하는 당의 이름뿐인 지도자 직함을 수락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불충분한 기반과 강한 지역적 특성, 당 지도자 자리에 군대 구성원들이 우세한 그런 정당이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얻거나 우리의 이익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3. 그것은 민주공화당에 함경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민주공화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야망이 반영된 함경파 구성원들에 의한 정치적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김종필이 당 조직을 지배하고 있는 한 가능성이 없는 일이며, 김종필과 함경파 구성원들과의 격렬한 불화가 있을 경우 그들은 자신들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야당 정치 세력과의 제휴를 시도할 것이다. 만약 김종필이 그들을 너무 강하게 밀어내면 대신에 함경파가 쿠데타를 생각할 가능성은 항상 있고, 그들에게 당 조직은 유용한 것이 될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2월 15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7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4 Box 129

1. 귀하의 유용한 전문에 감사한다.

2.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박정희는 본인에게 (참고전문 A의 2항과 3항에서)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발표에 그의 마음이 기울어짐을 얘기했다. 본인은 우리가 국무부 전문의 1항에서의 위치보다 훨씬 더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것은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인 한 미국 정부는 그의 추론에 동의하고 그의 행로가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안정에 있어서 최상의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본인의 두 번째 대화에서 말할 것을 제안한다. 김종필과 한국 내 중앙정보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는 우리의 견해를 알고 있다). 본인이 우리가 우리 견해의 긍정적인 암시를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A. 만약 본인이 그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본인은 그가 이것을 두 가지 코스 중 어느 것이라도 우리가 수용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우리가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말하며 달아날 결심을 할 것이다.

   B.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박정희가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의 생각(질서 있는 전환을 보증할 최상의 방법으로서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던 의견)이라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지가 우리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C. 만약 그가 퇴진할 결심을 한다면, 그는 미국이 그런 행동을 지지한다는 분명한 표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지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퇴진의 이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다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만약 나중에 여당이 그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우리의 공식적 지지는 그가 자신을 번복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3. 상황은 우리 측에서 적극적인 조치 없이 더 이상 떠돌아다닐 수 없다. 본인은 만약 박정희의 우유부단함이 단지 진심이 아니고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해결책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통치권과 우리의 관계는 어려워질 것이나 이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만약 김종필에 의해 짜여진 계획이 구체화되면 국민들과 통치권의 관계가 악화될 것에 더 신경 쓰고 있다. 만약 박정희가 달아난다면, 그는 진정한 변화에 따르지 않는 김종필의 조직과 더불어 그렇게 할 것이다.

4.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가진 박정희의 발표된 의향 덕분에,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에서 사태에 영향을 끼칠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런 비교적 우호적인 조건 하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안정적이라는 것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고 만약 (참고전문 B의 4항에서 언급했듯이) 전환 절차가 질서 있고 민주적이라면 바라건대 박정희 없이도 강한 정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난 밤 허정과의 오랜 토론에서 본인은 우리의 생각은 나타내지 않은 채 많은 질문으로 그를 탐색했다. 그는 박정희와 군대는 반드시 물러나야 하며 이것만이 비록 어느 정도의 혼돈이 있을지라도 사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혼돈은 어떠한 실질적인 위험을 보여줄 만큼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민주공화당과는 함께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그는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탄원했다.

6. 2월 15일 아침 멜로이(Meloy) 장군과 본인은 한국군 참모총장인 김종오 장군을 만났다. 우리는 그에게 “만약 박정희가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면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핵심 질문을 던졌고 계속해서 몇 개의 다른 질문들을 했다. 다음은 김의 의견이다 :

A. 김종오는 박정희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 그와 몇몇은 박정희에게 그의 계획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하기 전에 한국 내 중앙정보부의 부패를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사 혁명은 국가의 추문으로 끝날 것이고 군 세력의 실패와 명성은 몇 년 동안 상처받을 것이고 박정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약 박정희가 이 조치를 받아들인다면 박정희와 군 지도자들은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 조언에 대해서 박정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종오는 만약 이러한 조언에 대해서 김종필이 알게 된다면 그는 암살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 박정희가 한국군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것을 지지할 것이다. 그가 입후보하는 것보다는 물러나는 것이 문제를 덜 일으킬 것이다. 만약 그가 퇴진한다면 문제는 김종필과 몇몇 그의 지지자들, 몇몇 혁명적 혈기를 지닌 젊은이들, 그리고 반대할 군의 몇몇들로부터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만약 박정희가 군대에게 이 사태를 처리할 분명한 지시를 내리고 동요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만큼 강하지 않다. 그는 박정희가 확실한 지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종오 장군은 이 점에 관해 수도방위사령부를 맡고 있는 장군과 그에게 동조하는 두세 명의 다른 군 지도자들과 논의했다.

C. 김종오는 만약 박정희가 물러난다면 그가 입후보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는 이 나라에 문제가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가 한국 내 중앙정보부의 분규 상태를 정돈하지 않은 채 입후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두어 달 안에 학생들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그와 다른 사람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7. 본인은 두 세 사람을 더 만날 생각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한 행로는 위의 2항에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확실히 본인의 마음을 결정했다. 본인은 워싱턴으로부터의 전갈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받은 후인 2월 16일 저녁이나 17일에 그를 만나고 싶다고 2월 16일 오전 박정희에게 얘기할 계획이다.

8. 본인의 행로에 대한 국무부의 승인을 보내주기 바란다. 박정희가 그가 퇴진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될 경우 우리는 국무부가 어떠한 논평이라도 전달해 주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제안을 보낼 것이다.

9. 멜로이 장군과 킬렌(Killen)은 모든 사항을 통보받았다.

버거(Berger)

1963년 2월 1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7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4 Box 129

1. 참고전문에서 보고된 대화의 후속조치를 위해 본인의 요청으로 2월 17일 박의장과 만났다. 본인은 그에게 워싱턴에 보고한 이전의 대화에 대해 말했다. 또한 그가 1월 중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본인에게 말했던 것을 상기했다. 그 후 우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만약 그가 그런 입장을 택한다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개해 나갔다. 2월 14일 그가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공정 선거를 보장하고 민간정부로의 순탄한 전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정치정화법 아래 있던 금지령을 해제하고 선거를 연기하겠다고 했었다. 그는 그러한 행로를 받아들이지 않을 국무총리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압박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다. 본인은 계속해서 말하기 전에, 혹시 그가 2월 14일 표명했던 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문했다.

2. 그는 “특별히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며 그의 근본적인 생각은 그 조치 이후 잇따를 사태와 관계있었다고 답변했다. 그가 보는 5가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감금으로부터 정치인들의 대량 석방은 정치 영역에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B. 민주공화당(DRP) 내부에 심각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정당은 붕괴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혼란은 있을 것이다.

   C. 관계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은 또한 공직자들 사이에 걱정을 야기할 것이다.

   D. 경제적 불안정은 투자가들에 있어서 망설임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기업

활동은 둔화될 것이며 사재기가 증가함에 따라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E. 한-일 정상화는 아마도 중단될 것이다.

3. 그가 염려하는 더 큰 문제는 선거 후의 결과다. 민주공화당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만약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국가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과 통제가 모두 잘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거론된다면, 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4. 본인은 만약 그가 입후보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민주공화당이 이기고 불확실성의 한 요인을 없애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민주공화당이 패배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결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잔재할 것인지 그 결과들에 대해 질문했다.

5. 그리고 본인은 그가 입후보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아직은 아니다, 우리의 지난번 대화 때와 달라진 것은 아직 없다"라고 답했지만,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결과에 있어서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6. 본인은 그가 본인의 의견을 물었고 본인은 많은 생각과,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사안들에 관해 워싱턴과 상의하고 한국의 몇몇 핵심 인물들과의 대화를 거쳐서 본인의 의사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었다. 본인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몇 가지 근본적인 것들이 떠오르고 있다.

A. 학생 혁명에 잇따라 이 혁명도 실패로 끝날 수는 없다. 다음 움직임들은 반드시 혁명의 청렴함과 그 목적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B. 해결책은 국민들, 군대, 그의 혁명 동지들, 그리고 반대파에게도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C.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명예, 정직함 그리고 군의 통합은 여전히 원래대로의 상태로 있어야 할 것이다.

D. 해결책은 한국의 상황에 맞는 한국인들의 해답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박정희의 해답이어야 한다.

7. 본인은 만약 그가 입후보하지 않는다면 생겨날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가 상

당히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국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국민적 화합을 위한 원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은 반드시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지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군사 혁명은 한국의 역사적 과정의 한 부분이 되었다. 국민들은 군대나 박 의장 어느 누구에게도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8. 본인은 그가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그의 의견과 그가 언급한 이유들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결론을 이끌게 했던 논리와 이유는 적절하고 현명한 것이라고 본인은 느꼈다. 그러나 뭔가 좀 더 필요하고 본인은 많은 것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그의 문제를 풀어낼 방법을 위한 하나의 유형이 그의 언질로부터 거대하게 떠오르고 있음을 보았다. 본인은 만약 그가 어떤 계획들에 그의 동지들, 군대, 그리고 반대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어떤 계획들이란 다음의 것들이다 :

   A. 군인들은 국가의 독립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치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어떠한 정부라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B. 그와 함께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군대로 돌아가거나 만약 원한다면 정치에 입문할 자유로운 시민이 되거나 선택권을 가질 것이다.

   C. 군인들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 있어서 역량 있는 훌륭한 신체와 힘을 나타낸다. 국가는 혁명정부에 의해 일하게 됐었던 능력 있는 군인들의 공헌을 빼앗지 않는 것이 좋겠다.

   D.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미래의 정부에 의해서라도 보복 당하지 않아야만 한다. 한국은 과거 숙청의 나쁜 경험이 있고 그와 같은 순환은 깨뜨려야만 한다. 과거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인 특사는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법아래, 법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정치적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않아야 한다.

   E. 비준되었었던 헌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적절한 과정에서

생긴 경험에 비추어 추후에 수정될 수는 있다.

F. 정치정화법 하의 금지령은 보복의 순환을 깨뜨리려는 당으로서 철폐되어야 한다.

G. 그의 동료들, 군대, 반대파 모두들 사이에 박 의장이 정부 전환의 집행자 역할을 하고 자신을 정치 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완전한 지지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데 동의가 있어야 한다.

H. 정치 무대에서 한-일 정상화 문제를 풀기 위한 전반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되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박정희의 손에 남겨져 있어야 한다.

9.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이 사태에 관한 그 자신의 생각에 근거한 자신의 의견으로부터 나왔음을 지적했다. 본인은 이 나라의 누군가 이 해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돌려서 질문했다. 본인은 그가 그의 동지들과 군 장교들, 반대 야당 지도자들을 불러 그와 같은 계획들이 국민적 화합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인지 생각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화합과 안정에 있어서 그의 원칙을 받아들이기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혁명의 정직함과 군인들의 성실함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혁명은 그들의 공약을 실행할 것이고, 그는 그의 동료들을 보호하고 오해를 풀 것이며, 국민들의 혁명에 대한 존중을 얻게 될 국민적 화합의 조건을 창출해 낼 것이다.

10. 박정희는 모든 핵심 사항에 있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다. 그는 이것들을 가리켜 “귀하는 지금 매우 좋은 생각들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본인은 문제점들을 생각해보도록 대표그룹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만약 그의 의견들이 이들 선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선거전에 있어서 분열되고 위태로운 사안들은 제거될 것이다. 남아있는 사안들은 정부를 유지할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뿐이다. 그러면 그는 자유롭게 정부를 다스리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일할 수 있으며 순조로운 정부의 전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1. 그는 그것들에 관하여 문제점들을 연구할 사람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경제적 안정의 관점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질문했다. 본인은 이 접근법은 국민들의 걱정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그가 정치적 방해없이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며, 우리는 적절하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12. 본인은 그가 정부의 전환 후에 그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했고 그는 군대로 돌아가지 않고 은퇴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본인은 그가 정직함과 공약의 수행에 있어서 굉장한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원한다면 정치에서 그의 미래를 바라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한국은 다시 한번 국민적 존경을 일으킬 대체적 정치적 지도자를 필요할지 모른다.

13. 박정희는 그의 행동들은 곧 정치적 불안정의 문제와 부딪칠 것이기에 오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야당 지도자들과 만났었는지 물었다. 본인은 허정과 만났고, 대사관 관리 한사람이 윤보선과 만났으며 우리는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청했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확신하는 그들의 견해는 그들이 그와 같은 해결책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가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허정과 윤보선 둘 다 박정희 하에 한-일 회담을 종결하길 바라고 있으며 당분간은 헌법도 그대로 두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본인은 또한 군인들의 의견도 알고 싶어서 한국군 참모총장 김종오 장군과도 얘기했다. 박정희는 본인의 견해에 대해 다시 감사하다고 했고, 앞으로의 문제에 관해서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으며, 본인은 1시간 반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떠나왔다.

14. 논평 : 문제는 박정희의 손안에 있고 그는 틀림없이 그의 동지들과 먼저 협의하려 할 것이고 아마도 선택된 민간인 지도자들과도 상담할 것이다. 우리는 김종필이나 그의 역할에 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김종필이 다시 내부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으며 그를 제거하기 위한 전면적인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들었다. 김종오가 오늘 본인에게 전한 의견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합의도 알고 있다), 김종필은 반드시 첫 단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필은 그 자신의 정치적 추방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박정희를 정치에서 몰아내려는 어떠한 방책이라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문

제의 처리는 한국인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위원회(GOVT Councils)에 정확히 반영될 우리의 생각을 확고히 하는 것만이 필요할 것이다. 본인은 만약 박정희가 정치에서 은퇴하겠다는 그의 바램이 진심이라면, 논의된 제안들은 빠른 안정과 모든 점에서 진보적 전망의 초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김종필이 축출된다면, 박정희는 그의 혁명 동지들로부터 대통령에 입후보하라는 더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는 그 행로를 택할 것이다. 대신에, 그는 전직 정치가들의 금지령 해제나, 선거 유보, 그리고 심지어 김종필을 제거하라는 요구에 따르는 것과 같은 예비 수단을 택할 수도 있으나 그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버거(Berger)

1963년 2월 1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7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4 Box 129

박 의장은 조금 전 특정 상황들 하에서 정치에서 퇴진할 것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대사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언질이 있을 때까지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버거(Berger)

1963년 2월 1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7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4 Box 129

1. 박정희가 발표한 성명에 관한 질문에 대해 언론에 응답함에 있어서, 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미국 대사관은 박정희 의장의 성명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협의된 사항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대사관은 그 성명이 국민적 화합과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민간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국무부도 같은 입장을 따라줄 것을 요청한다.

버거(Berger)

1963년 2월 18일
국무부 정보조사국장 보고서
수신 : 국무부장관
발신 : 로저 힐스먼(Roger Hillsman)
정보노트 : 박정희의 남한의 정치적 위기의 해결책 제시

박정희의 퇴진 제의 박정희 의장은 오늘 공식적으로 타협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그의 핵심적인 요점들은 다음과 같다 : 쿠데타 세력과 혁명정부 관리들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전제되면 그는 정치 활동을 그만둘 것이다; 정치정화법 아래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정치인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풀릴 것이다; 선거는 5월 이후로 유보될 것이다. 그는 2월 23일까지는 모든 당 지도자들이 그 계획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길 바란다.

예상되었던 당과 쿠데타 세력의 반응 정치 지도자들은 박정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정부 후원 정당은 만약 박정희가 대통령직에 입후보하지 않는다 해도 거의 탄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선거를 미루는 것은 야당들로 하여금 조직을 정비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쿠데타 세력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아마도 박정희가 제안한 해결책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김종필과 그의 단체는 보복하지 않는다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 당연히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불안정의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강화된 술책들 박정희는 잠정적인 휴식기를 얻기 위함이거나 혹은 현재 군대

역할의 얄팍한 속임수의 지속을 합리화할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다. 더 그럴듯한 것은 그가 진심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추후 며칠동안은 박정희, 쿠데타 세력의 파벌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초조한 협상들이 있을 것이다. 논쟁들은 박정희가 제안한 보복에 대한 약속과 정치적 퇴진의 정도에 집중될 것이다.

1963년 2월 2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9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4 Box 129

(참고전문에 있는) 그의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본인이 배(Pae) 대사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전문은 한-일 협상 과정에 있어서 박정희 은퇴의 영향에 대한 그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전문은 다케우치(Takeuchi)와 다른 이들에게 적절한 것으로 구두로 전해질 사안임을 건의한다.

1.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박 의장의 제안은 KCP 우위의 통치 정당 내부 충돌의 분명함과 3월에서 5월 동안 통치 정당과 군사 정권에 대항할 것을 지시 받은 이 나라의 대중적 소요의 위험 가능성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한국 군대는 관련되는 만큼 분열도 될 것이다. 박 의장, 군 고위층, 몇몇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정부 밖의 지도자들은 1월 초에 이런 모든 것을 알기 시작했다. 2월 초까지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듯이, 사태는 갈수록 불안정해졌다.

2. 2월 첫째 주까지 공정 선거와 민간정부로의 비교적 순조로운 전환을 확신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이 분명했다. 그때까지는 한-일 문제 해결도 조직적 활동의 주요 사안이며 통치 정당 안팎에서 김종필 반대파는 그를 “변절”, “배반”, “반역”과 같은 감정적인 내용과 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등등으로 책임을 덮어씌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한-일 간의 타협은 어떠한 것

이라도 강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3. 2월 18일 박정희의 성명은 한-일 협상을 비롯한 모든 복잡한 요인들을 처리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성명은 군 장교들, 몇몇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의원들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로부터 강력한 격려와 함께 그 자신의 추론과 재능의 산물이었다. 특정 상황에서 물러나겠다는 그의 제안과 김종필의 퇴각은 오해와 의혹을 풀게 했다. 이제는 최소한의 동요로 민간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의 가능성이 생겼다.

4. 한-일 협상과 관련지어, 조만간 며칠 내로 거의 모든 지도자들과 정당들이 받아들일 2월 18일의 성명은 한-일 문제를 정치적 무대에서 없애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은 핵심 정치인들이 해결에 이르고자 하는 박정희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박정희의 성명과 장애물을 조정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김종필의 축출은 해결을 향한 전망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박정희는 이제 상당히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어업권 문제의 타협에 있어서 보다 나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지만 협상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다. 금전적인 협상은 얼마간 현재의 상태로 머무르기 쉬울 것이다.

5. 이케다(Ikeda)와 오히라(Ohira)의 성명들은 양호했다. 그들은 협상이 거의 계획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일본 언론도 같은 어조로 쓰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야당 지도자들에게 애기하면서 우리가 얻은 반응은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정보 보고 전문
발신 : 대한민국/일본
수신 : 로저 힐스먼(Roger Hilsman)
주제 : 김종필의 개인적 상황,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 Berger 대사, 그리고 박정희에 관한 김종필의 견해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960년대 초반 한미관계

(이 자료는 첩보활동법 범위 안에서 미국의 국가 방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법령 18장 U.S.C 비밀문서 793과 794항에 의거하여, 어떤 식으로든 권한 없는 사람에게의 정보 전송 혹은 노출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

1. 1963년 2월 26일 동경에서 코다마 요시오(Kodama Yoshio)와 와타나베 츄네오(Watnabe Tsuneo) 요미우리 신문(Yomiuri Shimbun) 기자와 개인적으로 가진 만남에서, 전직 한국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종필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A. 비록 쿠데타 세력 안에서의 내부 파벌간의 불화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책임이 있으나, 그 주요 원인은 대한민국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대한민국 군대의 통치를 "혐오"했던 버거(Berger) 대사에 의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간섭에 있다.

   B. 버거 대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한,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합중국 정부의 고위층 관료들 사이에 군사통치에 대한 더욱 호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미합중국 내에서 대한민국의 로비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C. 박정희는 하토야마 이치로(Hatoyama Ichiro)와 같은 인물이다 : 그는 너무 감정적이고 완고하다.

   D. 비록 박정희를 혁명의 상징으로 세우고 이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 세력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김종필은 박정희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E. 김종필은 그 자신의 정치 조직을 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조직은 전국적인 기반 위에 세워졌으며,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그의 위치는 매우 확고한 발판 위에 서 있다.

2. 김종필은 심지어 그와 관련해서 주장되고 있는 추문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대해서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 자신이나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 어느 누구도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그 조사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을 3월 22일까지는 완전히 없애주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는 3월 22일 이후 확실히 대한민국으로 돌아

갈 것이라 계획하고 있으나, 군으로 돌아갈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검열삭제) 와타나베는 이것을 김종필이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 돌아갈 계획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3. (검열삭제) 유포. (서울, 동경) 대사 단독. (전문 끝)

1963년 3월 7일
정보 보고 전문
발신 : 대한민국
주제 : 박정희 사절로서 미합중국을 방문할 장택상의 계획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이 자료는 첩보활동법 범위 안에서 미국의 국가 방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법령 18장 U.S.C 비밀문서 793과 794항에 의거하여, 어떤 식으로든 권한 없는 사람에게의 정보 전송 혹은 노출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

1. 1963년 3월 3일 박정희 의장은 그의 사절로서 3월 10일경 미합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전직 자유당 국무총리 장택상과 그의 여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

2. 장택상은 워싱턴 고위층 관료들과 가능하다면 케네디(Kennedy)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실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것이다. 김삼용은 장택상의 임무는 박정희를 위한 정당 노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면상으로, 장택상 여행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박정희가 극도로 염려하고 있는, 특히 4월과 5월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3. (검열삭제)

전문 끝.

1963년 3월 1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2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본인은 3월 9일 현 사태의 비공식적인 검토를 위해 박 의장과 2시간 동안 만났다. 회담 동안 내내 그는 관대하고 친절했으나, 그의 언급의 취지는 그가 여러 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강한 압력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또한 정치에서의 퇴진과 정치 활동 해제와 관련된 그의 최근 국내 결정의 여파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풀어놓았다.

2. 본인은, 그는 대사관을 비롯한 한국 내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2월 18일 박 의장의 성명 이후 이 나라의 현 상황과 입장에 관한 수많은 후문과 보고서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로부터 우리는 의장의 행동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분명한 생각을 전달받았다. 그것은 완화된 분위기를 만들어냈으며; 이 나라 전반에 걸쳐 의장에 대한 굉장한 존경을 자아냈고; 그의 결심 이전에는 나타날 것으로 보였던 위험한 상황도 피했고; 순조로운 전환에 대한 전망도 기대이상으로 향상되었다.

3. 문제들 중 하나는 의장의 결정이 미국의 압력의 결과였다는 언론과 그밖에 곳에서도 나타났던 감정을 대중들 머리 속에서 없애는 것이었다. 또한 군사정부와 의장에 대한 미국의 적개심에 대해 돌고 있는 보고서들도 그와 본인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었다.

4. 본인은 그의 2월 18일 성명 바로 이전의 우리의 대화에서 그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생각을 표현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그의 성명은 경제적 어려움의 요인이 되어왔던 불안정에 대한 정치적, 심리적 염려를 잠재우게 했다. 경제적 상황은 향상되었고, 물가 압박과 품귀현상은 줄어들었으며, 쌀은 시장에 충분했다. 언론은 경제적 위기는 없다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1963년의 발전에 대한 경제적 토대와 전망은 양호하지만 물가상승의 압박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올해 말이나 1964년에는 그 결과가

심각해질 것이다. 만약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받아들인다면 위협은 관리할 수 있을만한 것이었다. 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운용사절단과 대사관과 함께 연구해왔다. 만약 이것들이 효과적이라면 현 사태는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정상화될 것이다. 그 동안에 우리는 올해 남은 기간에 추가적인 미국의 원조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요청을 재검토하고 있다. 경제적 안정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결정은 우리가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던 사태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무엇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민감하게 할 것이다.

5. 본인은 그의 2월 17일 결정에 있어서 미국은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본인이 말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랬다는 점을 의장에게 확신시켰다. 그러고 나서 킬렌(Killen)씨와 본인은 그에게 그와 같은 지원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그의 결정을 지키려는 그의 결의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안정과 빠른 정치적 양도를 촉구하려는 그의 노력에 도움이 되도록 의장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6. 의장은 그가 우리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몇 가지 점들을 강조하고 싶어했다. 그의 성명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의 오해"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들 마음속의 불안정"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그 "오해"는 정치에서 물러나겠다는 그의 결정이 미국의 압력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믿음이 잔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 영향에 관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 그는 그러한 보고서들이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 결정은 그 자신의 것이었다고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해는 여전히 널리 퍼져있다.

7. 그러고 나서 그는 한국 국민들은 경제적 전망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양호한 전망에 대한 본인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러한 견해를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꺼리고 있고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미국 잉여곡물양도법(PL 480) 합의는 그와 그의 정부에 의도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치가들 사이에서 반정부 세력은 미국이 군사정부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권력의 양도가 있을 때까지는 원조를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유포되어 있는 이야기로 그러한 견해를 조성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미국이 군사정부 내에서 신임을 잃었다는 소문을 만들어내

는 한편 그들이 미국으로부터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인상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것들은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의견이며; 그와 본인은 그들이 증거도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은 국민들이 미국이 그의 정부에게 "확실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8. 박정희는 만약 정치인들이 그들의 약속을 실행하고 정부가 권력의 분배를 행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행한다면 정치적 안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군 지도자들로부터 지지의 맹세를 받은 만큼 군대의 청렴함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다. 경제적 안정은 힘들다는 느낌을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미국의 지원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추가적인 미국의 경제적 원조의 표명은 가능한 한 빨리, 4월 전에는 확실히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9. 본인은 의장에게 그의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압력에 대한 책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그가 말했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소문을 유포하고 있다. 언젠가 그들은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사이, 특히 의장과 본인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거나 지지할 것이라는 그들 자신의 입장을 확립하기 바라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러한 소문에 완전히 말려들어 있다.

10. 박정희는 그는 소문을 믿지 않으며 그들 중 몇몇은 의도적으로 소문을 조작하고 있으나 그 영향은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다. 잘못된 인상을 깨끗이 없애는 방법은 정부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대한 대중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그와 본인이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원조에 관한 합동 성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 의식 속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이 원조를 구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사절단을 미국에 보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은 미국이 군사정부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들은 정부로부터 미국을 떼어놓고 싶어 한다.

11. 한 예로, 박정희는 자신을 미국에 특사로 보내 달라는 제의를 갖고 그에게

왔던 전직 자유당 국무총리 장택상을 인용하였다. 장택상은 한국을 도울 필요를 확신하고 있는 연방 하원 의원들과 고위층 관료를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케네디(Kennedy) 대통령과 약속하기 위해 박정희의 도움을 원했다. 의장은 장택상을 국무총리로 불렀으며 다음으로 박의장이 깨달은 것은 장택상은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한 그의 의도를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박정희는 장택상과 접촉이 없었으며 후자는 만약 그가 비공식적인 개인으로서 미국에 간다면 정부를 대신하는 임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12. 본인은 그가 특사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얘기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행해져야 할 것인가와 무엇이 행해지는 것이 필요할지 풀어갈 것이다. 만약 장택상이 미국에 간다면 그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한, 어쩌면 국무부의 하위 계급 관료들은 모든 것에서 그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사절을 파견하려는 개인이나 혹은 정당들에 의한 다른 시도들은 거의 거절당할 것이다.

13. 본인은 박정희에게 본인의 생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부에 의한 단호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행해져 왔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행해져야만 한다. 만약 정부가 그 일을 행한다면, 올해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은 가능성 있으며, 이것은 차례로 미국이 돕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전환에 대한 즉각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와 그 다음의 건전한 상황을 발전시키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의장은 동의했으나 그는 정부의 전환 동안에 우리의 지원에 대한 분명한 표시를 가질 수 없다면 그는 정치적 심리적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4. 킬렌씨와 본인은 이 상황을 잘 처리하기 위해 어떠한 최선책이 있는지 그와 논의하기 취해 곧 다시 만날 것을 합의했다.

논평 :

15.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제안된 행동 방침을 곧 보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본인은 박정희의 압박과 낙담한 기분은 단순히 거

짓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그가 그러한 방식으로 느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핵심 사항이 아니다. 본인은 아무래도 힘들어질 전환의 시기에 행정적인 통제를 할 열쇠가 박정희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지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군사적 온전함을 지킬 수 있고, 수용할만한 정치적 진보를 확신하고 있으며, 급격한 변화를 막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한국만큼 미국에도 이익을 가져올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정치에서 물러나겠다는 그의 결정은 군사정부의 영속을 선호하는 특정 군사 집단으로부터의 비난 하에서 있었던 일이며, 그가 나중에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 마련할 수 있는 단지 하나의 우회적인 계획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며, 모든 가능한 예방책으로 그의 결정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며, 전환의 시기 동안 그를 지지할 것이며, 그로 인해 복합적인 불안정 대신에 안정을 만들어내길 바라고 있다. 본인은 추후의 전문에서 이점에 관해 할 말이 더 있을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1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3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3월 13일 19시 30분 국무총리는 멜로이(Meloy) 장군과 본인에게 “최상급 긴급”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의 사택으로 즉시 와달라고 전화했다.

2. 국무총리는 18시 00분에 박 의장을 만났고 최고회의는 쿠데타와 암살 음모를 계획하고, 방금 드러난 2개의 또 다른 계획을 꿈꾸고 있는 음모자를 체포하고, 이 나라에서 증대하고 있는 혼란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15일 비상계엄령(Martial Law)을 선포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도록 지시 받았다고 했다. 이것은 “모든 정치 활동의 일시적 금지”와 “몇 개월

동안 선거의 연기"와 관련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박 의장을 대신해서 "민간 정부로의 재편성은 사태가 좀 더 정상적으로 된 후에 올해 안에 일어날 것이다"라며 우리에게 장담했다.

3. 그는 김동하-박임항 음모는 처음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보인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 (우파 민족주의자 단체의 지도자인) 이 범역(Yi Pom-Yoq, 이범석의 오자인 듯 : 역자주)의 지지자는 오늘 이 계파에서 쿠데타 음모가 있다고 정부에 알려왔다; 그리고 정당 당원들은 (그는 윤보선 당이라고 생각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박정희와 다른 이들을 암살하기 위해 테러 집단을 형성했다는 증거가 입수되었다.

4. 멜로이 장군과 본인은 앞서의 진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많은 질문을 했으나, 국무총리는 단지 심부름꾼일 뿐이고 답변들은 알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그는 누가 박정희와 상의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참모들이 자문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김종오 참모총장에 의하면 그들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전화했을 때 본인은 그와 저녁식사 중이었고 김종오는 그 당시와 후에 모든 것이 그에게는 뉴스거리였다고 말했다.)

5. 국무총리는 21시 00분 박정희를 만날 것이고 우리는 그에게 박정희에게 우리가 그를 만나고 싶고 언제가 좋을지 얘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가 가장 최근의 정세에 대해 생각하고 당황했고, 우리는 박정희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갑자기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떠났으나, 우리는 묵묵히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이유로서 그가 제시한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김종오 장군과 다른 이들로부터 이 나라의 사태가 잠잠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이해할 수 없었다.

6. 논평 : 현재 여러 정보통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논평과 함께 신속하게 훨씬 더 상세하게 보고할 것이다. 국무부가 이 최근의 사태나 혹은 이곳으로부터의 어떠한 언론 보도도 극도의 침묵 속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이다.

7. SPC-3.

버거(Berger)

1963년 3월 1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3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쿠데타 음모혐의로 함경도파와 다른 지도자들의 체포 이후, 박 의장의 2월 18일 성명에 의해 창출되었던 안정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은 퇴보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유력한 증거는 국무총리가 멜로이(Meloy) 장군과 본인에게 박정희의 의도는 3월 14일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등의 것이라고 말했던 지난 밤에 나타났다. 참고전문 참고.

2. 오늘 아침 본인은 지난 밤 우리의 회담에 연이어 국무총리를 만났다. 그는 의장이 지난 밤 늦게까지 그와 참모들과 다른 이들을 만났고, 계엄령 선포 계획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태가 여러 쿠데타와 암살 계획의 결과로 해서 점차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박정희가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대통령에 입후보할 것을 곧 요구하고, 한국의 일에 있어서 미국의 간섭과 그들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낡고 부패한 정치가들의 태도에 항의할 대규모 학생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에게 각인시키고 싶어 했다.

3. 그는 아무도 음모의 정도나 깊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사태는 매우 심각하고, 한국 국민들은 점점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이 그에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단체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얘기할 것을 재촉했을 때 그는 아마도 시민들을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3사단과 9사단, 수원과 김포 지구 공군 장교들과 몇몇 해병대들이 선두에 있다. 몇몇 선봉대는 북한에 붙었을 가능성도 있다. 멜로이 장군과 김종오 장군의 평가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본인은 변절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불안하게 하는 정보를 고려하여, 멜로이 장군과 본인은 가능한 한 빨리 박 의장과 그 자신, 군대의 장교들, 그리고 국방부장관을 만나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가

그러한 만남을 주선할 만큼 충분히 우호적일까?

4. 본인은 다시 연속적인 질문들로 그를 재촉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A. 박정희의 2월 18일 성명을 환영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는가?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학생들은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조직화하고 있으므로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학생들은 그들이 장면(Chang Myon) 시대에 했던 것처럼 정부를 장악하도록 허용될 것인가? 아니라고 답했다.

   C. 함경도파 지도자들이나 이범석(Lee Pom-Sok)이 꾀한 쿠데타가 군대나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본인은 그에게 미국도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러한 쿠데타가 성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그런 예상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D. 그는 누가 박 의장에게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충고했는지 지금은 아는가? 그는 여전히 모른다고 했다.

   E. 공산주의자들 이외에 누가 반미(反美) 감정을 선동하거나 한국 내 혼동을 일으켜서 박 의장의 민간정부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게 하려는가? 그는 약간의 용기를 가지고 그것은 김종필 집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5. 본인은 정부가 "말썽꾼들"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집단에 대항해 움직이기는 하지만 김종필이 한국 내 중앙정보부의 책임자였을 때 김종필과 연합하여 은밀히 민주공화당 조직에 다양한 파벌을 심었던 반미(反美) 좌익인사들의 집단을 제거하도록 하라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사람은 축출되었다고 말했다. 본인은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핵심 인물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는 내가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그도 알고 있다고 했다.

6. 본인은 쿠데타는 과장되었던 것으로 "혼동"은 박정희가 은퇴하고 선거를 유보하겠다는 그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박정희에게 강요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의견을 말했다.

본인은 2월 18일 박정희에게 미국 정부는 전환 시기 동안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도록 그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박 의장에게 했던 나의 확신을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러나 만약 불충분한 증거로 대량 체포를 감행하고, 사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고안된 혼동, 반미(反美) 시위, 그리고 내각의 대량 사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부에게 공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태는 거의 아닌 것이다.

7. 국무총리는 만약 미국이 추가적인 미국 잉여곡물양도법(PL 480)과 지원을 발표만 해도 모든 것은 안정될 것이라고 본인에게 말했다.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순서대로 그들의 집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그에게 말한 것을 후회했던 바, 워싱턴의 생각은 이곳의 전체 상황이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8. 논평 : 앞서의 진술은 국무부가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보내진 것이다. 본인은 김종오 장군과의 잇따른 대담에 관한 보고서를 보낼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1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4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국무총리를 만난 후 본인은 새로운 쿠데타 계획에 있어서 군대의 관련 정도에 대한 국무총리의 경고적인 묘사를 논의하기 위해 곧장 멜로이(Meloy) 장군에게 갔다. 한국군 참모총장 김종오 장군은 멜로이 장군과 같이 있었고 본인은 그에게 우리에게 합류하도록 요청했다.

2. 그들 모두 놀라움을 표하였고 (참고전문 3항의) 국무총리의 정보에 불신을 나타냈으며 그 대부분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의아해했다. 김 장군은 최전선 부대의 배신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다고 말했다.

3. 본인은 국무총리의 의견을 워싱턴에 보고해야만 한다고 말했고, 본인이 이러한 확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 두 개의 쿠데타 계획들이 드러났다는 것이 사실이며, 전날 밤 국무총리는 우익파 "족청(Chokchong)"을 위한 쿠데타 구상에 대해서와 정당 당원들이 박정희를 암살할 테러 집단을 조직하고 있었다는 정보에 대해서 전했다. 쿠데타 음모에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되었다고 주장되는 4개의 주요 집단에 대해, 멜로이 장군과 본인은 박정희, 모든 참모들,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무총리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다. 본인은 만약 4개의 주요 한국의 파벌들이나 정치 집단의 상당수가 체포된다면 군에 어떤 충격을 줄는지 김 장군에게 질문했다. 군대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단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김 장군은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4. 본인은 만약 어느 누군가 쿠데타 음모에 실제로 관련되어 있다면 한국 정부는 물론 반드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본인은 음모나 관련에 대한 이러한 보고서들의 몇몇은 박 의장이 그의 2월 18일 결정을 번복하게 하려고 강요하기 위해서 혼동을 야기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5. 본인은 김 장군에게 질문했다. 누가 학생 반미(反美) 시위를 자극하려고 했는지? 누가 미국의 간섭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는지? 누가 박 의장이 계엄령을 도입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선거를 유보하도록 권하였는지? 누가 공군 대장이 사임했다는 헛소문을 만들어냈는지? 공산주의자들 이외에 누가 혼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6. 본인은 박 의장에게 김종필은 반드시 이 나라를 떠나야만 하고 한국 내 중앙정보부의 추문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던 사람은 참모들과 국방부장관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김종필과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김 장군과 다른 참모들과 국방부장관은 머지않아 무언가로 혹은 다른 그리고 숙청과 같은 것으로 고소될 사람들의 명단에서 그들 자신들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가? 우리는 민주공화당 안팎에서 김종필의 조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원활한 자금 융통으로 활발하게 지내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

로 그도 그들이 박정희가 그의 2월 18일 성명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혼란을 야기하려고 결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김 장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본인은 우리가 전환기 동안 박 의장을 돕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질문했다. 그러나 이성과 질서가 사태에 개입할지 여부는 현재로는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한국군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이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단체이다. 김 장군과 참모총장들은 2월 초 혼란스러운 사태 속으로 들어와서, 상황의 안정과 분별력을 가져왔다. 박정희의 2월 18일 성명과 김종필의 떠남이 그 결과이다. 멜로이 장군과 본인은 그 성취는 현재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는 다시 무너지고 있고 그와 그의 동지들은 그들의 영향력과 분별력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한번 움직여야 한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14일
정보 보고 전문
발신 : 대한민국
주제 : 대한민국의 현 위기와 1963년 3월 14일에 관한 평가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이 자료는 첩보 활동 법 범위 안에서 미국의 국가 방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법령 18장 U.S.C 비밀문서 793과 794항에 의거하여, 어떤 식으로든 권한 없는 사람에게의 정보 전송 혹은 노출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

국외유출 금지
보고서 번호 : (검열삭제)
우선순위 : 지급

(검열삭제)

2. 대한민국의 사태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평화롭게 보이는 겉모습 아래에는 거대한 불평불만과 혼란이 있다. 1963년 1월과 2월의 2가지 주요한 정치적 위기 뒤에는 전직 한국 중앙정보부의 책임자이며 민주공화당(정

부 후원의 정당)의 전직 의장이었던 김종필의 정치적 추방과 유망한 민주공화당 대통령 입후보자로서 은퇴하겠다는 박정희의 결정,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정치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한 박정희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3. 김종필의 이탈과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박정희의 결정은 정치적 경제적 긴장을 풀기 위해 필요한 완화제 역할을 제공할 것이라고 느껴졌다. 정치적 활동은 더욱 가속화된 속도로 재개되었고, 정치활동 금지자 명단에서 풀려난 상당수의 정치인들은 협상과 행동을 개시했다. 주요 정치인들 중 이승만과 장면 정부 사이의 기간 동안 임시 국무총리직을 맡았던 허정은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다. 허정의 세력은 구(舊) 민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들, 지식인들, 학생들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구(舊)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에 걸쳐 있다.

4. 민주공화당은 지도자의 결여와 내부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국민의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민주공화당의 강경한 핵심 구성원들은 박 의장이 사태를 역전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혁명의 맹세를 저버린 것과, 그의 군사 동지들과 친구들을 포기한 것, 그리고 사태의 통제에 있어서의 나약함으로 해서 책망 받았다. 이들 구성원들은 부패한 구(舊) 정치인들에 의한 또 다른 정권 인수, 군부에 대한 숙청, 그리고 1963년 2월 18일 박정희의 (9개안) 조건들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정치인들의 결정이라는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렸다.

5. 강경한 핵심 민주공화당의 구성원들의 노력에 훨씬 더해, 정부 내의 함경도 파벌의 핵심 의원들은 함경도파 누군가에게 권력의 인계가 되도록 하는 그들의 요청을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에게 점점 더 압력을 가할 것이다. 박정희는 점점 격렬해져가고 있는 통치 쿠데타 세력 내부에서의 이들의 노력과 조직에 저항했다.

6. 한편으로는, 한국 중앙정보부의 새로운 책임자 김재춘 소장은 한국의 중앙정보부의 책임자였던 김종필의 재산 보유와 관계된 부정행위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러한 추문들은 3,800만 달러에 관한 그와 동료들의 1962년 중반 주식시장의 대규모 조작 사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워커힐 관광객 사업 계획, 새나라 자동차 의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쓸만한 정보수집의 착수

로 그 조사가 몇몇 조무래기들의 유죄 판결과 김종필의 결백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사가 진전됨에 따라 이것은 더욱 더 분명해졌다. 김재춘 자신이 3월 12일에 인정한 것은, 박 의장이 "합법적인" 해결보다는 "정치적인"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박정희와 쿠데타 세력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죄를 짓더라도) 김종필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소수의 김종필에게 고용된 사람들만 기소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7. 함경도 파벌은 박정희와 김종필 일당을 공격하기 위해 이 날조된 조사를 이용하고 있다. 박정희는 점점 필사적이 되어가고 있다. 1963년 3월 7일, 정권이 정부 전복을 획책했던 군사 집단에 반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이 집단이 음모했던 것은 사실이다. (검열삭제) 그 점에 있어서, 몇몇 지도자들의 이름과 함께 음모의 윤곽이 드러났다. 군사 정권이 1962년 7월에 이미 이 음모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정권이 그 집단에 접근하기 위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8. 최초의 체포 이후에, 음모자들의 하나는 함경도 파벌과 연루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재빨리 출동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부의장인 차지철 중위와 서울 시장인 윤태일 소장을 제외한 모든 핵심 함경도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음모에 있어서 함경도 연루 관계는 분명치가 않다.

9. 3월 13일 저녁까지 정권은 계엄령(Martial Law)을 다시 선포할 기회를 만들어냈다. 국무총리는 계엄령이 다시 선포될 것이고, 군대와 "특정" 정당의 대규모 숙청이 행해질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될 것이라고 대사에게 알려왔다. 강력한 미국의 반대가 있은 후에만 정부는 "이삼일"동안 계엄령의 재선포를 유보할 결정을 했다.

10. "쿠데타 음모"에 대한 정권의 폭로는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모두를 제거하기 위한 필사적인 계획의 한 부분이지만 특히 김종필의 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어쩌면 무기한으로 군사 정권을 유지해나가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이것은 김종필이 대한민국 정부로 돌아가는 것과 2월 중순 그가 그만두었던 그의 활동들을 속개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11.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물러나고 김종필이 이 나라를 떠났던 2월 중순에 수많은 보고서들이 말하길, 이것은 하나의 전술적 움직임이고 박정희와 김종필이 진정으로 권력을 포기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보고서들은 박정희는 적절한 시기에 박정희와 김종필의 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 것이고 김종필은 "의기양양하게"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12. 지난주의 사건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가능성 있다. 그러한 불행한 사태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이익에 중대하고 위험한 의미를 갖는다. (아마도 한국군 참모총장 김종오가 이끄는 일본 파벌을 제외하고) 다른 파벌들을 제외한 박정희와 김종필의 권력 집단에만 바탕을 두고 있는 어떠한 정권이든 군대 내부의 파벌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군대 내의 광범위하게 퍼진 숙청은 군대의 단합을 깨뜨리고 하나의 병력으로서의 그들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결국, 그러한 조잡한 권력 집단에 근거한 통치권은 아마도 억압적이고, 비평에 고도로 민감하며 반미(反美)적일 것이다. 경제적 상황은 급속도로 저하되고 국민적 동란(動亂)의 위험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13. 이 순간 한국의 사태는 1961년 5월 군사 혁명 이후 가장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한국에서 심각한 분쟁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검열삭제)

전문 끝.

1963년 3월 14일
육군부 통신 참모실 전문
발신 : 한국 주둔 미 육군
수신 : 워싱턴의 미 육군성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S-NFD) 버거(Berger) 대사는 김현철 국무총리로부터 1963년 3월 13일 저녁에 즉시 만나자는 요청의 전화를 받았다. 회담 과정에서 헌병대장은 박 의장은 앞으로 72시간 안에 계엄령(Martial Law)을 선포하기로 결정했고, 상당수의 군 인사들과 정치인들을 체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대사에게 전했

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결정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불안한 사태와 쿠데타 음모와 정치인들 사이의 논쟁으로부터 야기된 긴장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 (S-NFD) 더 늦은 저녁 박 의장은 자정 이후까지 계속됐던 비상회의를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을 그의 사택으로 소집했다. 헌병대장은 회의 후에 대사에게 전화해서 계엄령에 관한 결정은 며칠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3. (S-NFD) 대사관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 교통부 장관 김윤기, 그리고 전 국무총리 이범석은 쿠데타 음모와 관련해서 체포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를 받았다.

4. (S-NFD) 논평 :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박 의장의 결정은 미국 사람들만큼이나 한국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의 경악으로 다가왔다. 한국군 참모총장 김종오 장군은 ARMA와 몇몇 다른 대사관 관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사에게 그는 헌병대장에 의해 요청된 긴급회의에 대해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의장이 참모총장들의 조언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최초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부서장들과 다른 위원들과 상의한 후에 박 의장은 며칠 동안 계엄령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음이 분명했다. 누군지는 확실치 않지만 누군가 박 의장에게 부서장들이나 다른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과 상의하지 말고 결정을 내리라고 조언했던 것이다. 그 결정이 내려지고 미국 관료들에게 전달해서 미국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5. (U) GP-3.

1963년 3월 15일
정보 보고 전문
발신 : 대한민국
주제 : 군사 정권의 존속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4년 동안 더 군사정부의 연장을 하겠다고 1963년 3월 16일 오후에 발표될 것이다. 박정희 의장은 3월 15일 오후에 그의 결정을 사실상 확고히 했다. 의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논의와 승인 없이 단독으로 그의 결정에 도달했다.

2. 박 의장은 군사정부의 지속에 대한 국민의 지지의사를 묻기 위해 한 달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는 농촌에서의 그의 인기는 군사 정권을 위해 과반수 득표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3. 국민투표에 이어, 박 의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해산하고 군대와 민간인 양쪽 모두의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조직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4. 군사정부를 연장하려는 이 결정에 있어서 박 의장의 제의는 거의 전적으로 현재 쿠데타 세력 내에서 권력과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즉, 군사 정권 지속에 의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박정희 자신의 것으로서 첫째로는 박정희 자신의 야망에 뿌리박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한국 국민들을 도우려는 그의 희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5. 박 의장은 국민투표 후에 바로 방황하고 있는 김종필 대사의 한국 귀환을 예상하고 있다.

6. 지난 며칠동안의 몇 차례의 시위는 박 의장의 신변 보호 부대장인 박종규 중령의 작업인 것으로 사려된다. 시위의 이면에 있는 목적은 단순히 박 의장이 권력에 남아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7. (검열삭제)

전문 끝.

1963년 3월 16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4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3월 14일 저녁 본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 후에 박 의장은 앞으로 며칠 안에 그는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4년 더 군사정부가 권력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결정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만약 국민들이 군사정부를 지속하겠다는 그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그는 2월 18일의 제안을 토대로 8월에 민간인들에게 정부를 넘겨주도록 할 것이다.

2. 박정희는 최근의 쿠데타 음모와, 시위들, 특히 "불명예스러운" 군 관료들과 군인들의 오늘 시위로 인해 결심을 하게 됐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 첫 해에 그의 동지들은 혁명을 배반했다고 그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전직 정치인들은 기대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한국 국민들은 실망했다. 군의 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혁명을 매듭짓기 위한 노력으로 그는 2월의 제안들을 언급했다. 그러면 그의 결정은 안정을 가져오고 민간 통치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몇 주 동안 안정의 기미가 거의 없었고 최근의 쿠데타 음모는 불안정을 확대시키고 있다. 만약 선거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심지어는 민간정부로 권력의 이전이 이루어진 후에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것은 실로 명확한 일이다. 그는 민간정부로 되돌아간 후에 전개될 사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그것은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요약하자면, 그는 현재 계획대로 정부가 민간인 통치로 돌아가기에는 불충분한 토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3. 박정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군사정부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며, 따라서 그는 대중의 의견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문제점에 관해 연구해 왔고 국민들에게 그들이 계획대로 민간정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불안정한 사태를 고려해 현재 군사정부를 연장해서 미래를 위해 좀 더 단단한 기반을 다지기를 원하는지 물어볼 것을 결심했다. 국민투표는 국민들에게 의장이 몇 년 더 정부를 통치할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약속대로 8월에 정권 재편성을 원하는지 결정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만약 국민들이 군사 정권의 연장을 거부한다고 선택한다면, 그는 앞으로의 정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4. 박정희는 만약 정부가 국민투표의 길을 택한다면 그것은 한국 안팎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 시기인 것이며 그는 사태를 안정시킬 필요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는 일을 추진해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민간정부로의 전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군사정부를 지속할 결심을 택할 수도 있다. 그는 후자의 선택이 국가의 이익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은 그들의 희망사항을 나타낼 수 있다.

5. 박정희는 어느 정당도 현재 선거에서 이기고 분규를 해결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정부를 만들고 국민들이 내분에 대한 그의 의견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생각을 막힘없이 표현했다.

6. 국민투표의 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답하길, 이삼일 안에 성명을 발표하고 한 달 후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부를 것인지 질문했을 때, 그는 아니라고 답하며 현직 정당들이 말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7. 본인은 그에게 국민적 논쟁이 문제에 있어서 허용될지, 정당들이 국민투표에 반대할 기회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야당들이 투표에 참관하고 총투표수를 산출할 수 있게 될지 질문했다. 그는 국민투표는 지난 겨울의 헌법상의 국민투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투표에 참관하기 위해 선거위원회가 충분히 대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쟁은 허용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준에 의거한다. 비록 계획안에 대해 국민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말할 기회는 보장하지만, 정당 활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야당의 "공동전선"의 형성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대항하고 있는 국민들이 군사정부와 그 이력을 비평하는 것이 허용될지 질문했을 때, 그는 그것이 계획안에 반대하는 제안을 하기 위한 이유라면 허락될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1961년 5월 혁명이 불법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8. 4년 연장이 확정된 것인지 더 짧아질 수도 있는지 질문했을 때, 그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4년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4년 동안 정부가 어떻게 조직될 것인지의 질문에 그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부가 되어 행정부를 감사할 것이며, 내각은 정상적인 행정 의무를 수행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경험에 근거하여 그는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은 50명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며,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50대 50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9. 본인은 그에게 군사정부는 2년이면 충분하고 만약 군대가 너무 오래 권력에 머물러 있으면 권력과 돈에 의해 타락되거나 파벌에 의해 분열될 것이라고 했던 1961년의 이전의 생각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전의 생각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현재 2년은 너무 짧고 사태에 대한 그의 평가로 그는 이 나라는 아직 민간인 손에 권력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도자들의 새로운 세대는 반드시 한국을 통치하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10. 본인은 미래 군사정부에서 권력의 되풀이와 한국의 중앙정보부의 활동이 계속될 것인지 질문했다. 그는 그것은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지만 혁명을 거친 한국과 같은 미개발국은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정보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1월 중앙정보부의 세력이 감소되었을 때 사태를 통제할 정부의 능력은 약해졌다."

    본인은 분규가 발생한 것은 중앙정보부의 약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막대한 세력 때문이었다고 대답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군사정부의 잘못을 비평하기 두려워했었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에서 군사정부의 곤경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11. 박정희는 우리가 국민투표 계획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혹은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본인은 의장이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를 내놓았다고 대답했다. 본인은 본인의 정부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내로 본인은 그와 다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본인과 다시 대화를 할 것이지만 그는 본인이 이것은 실행하기로 계획한 최종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만약 본인이 좀 더 나은 방법에 대해 그에게 권하고 싶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그의 결정이고 "확고한" 것이다. (우리의 회담에 이어 본인은 박정희에게 다가가 "귀하의 결정에 관한 본인의 정부의 견해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질문했다. 그는 "맞다"라고 대답했다.)

12. 본인은 그에게, 워싱턴이 본인에게 질문할 하나는 김종필이 돌아와 정부 내 한 자리를 맡을 것인가의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김종필은 아마도 국민투표 이후에 돌아올 것이지만 현재로서 그가 어떤 관직에 선정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박정희는 본인이 김종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를 매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본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반감이나 혐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본인의 일은 본인의 정부가 사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김종필은 지난 2년에 걸쳐 매우 중요했고 본인의 정부에게 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본인의 일의 한 부분이었다.

13. 논평 : 앞서의 것은 멜로이(Meloy) 장군, 킬렌(Killen) 그리고 본인에게 진술된 것이었다. 국무총리는 또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고위층 한국 손님들은 박정희의 요청으로 회담에서 제외되었었다. 본인은 내일 한국팀 회담을 개최할 것이고 우리의 연합 논평을 전달할 것이다. 한편 다음의 것들은 본인의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소견이다 :

A. 이러한 가장 최근의 움직임이 즉흥적으로 행해졌는지 잘 짜여진 각본의 한 부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또 하나는 박정희의 2월 18일 성명이 진심이었는지 하는 것이다. 문제는 "권력의 효과적인 통제 안에 있는 세력들"(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서 설명하겠다)은 한 사람 혹은 다른 여러 조언에 따라 군사 정권을 존속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민주공화당과 김종필의 각본에 의해 그것을 행하려는 시도가 (i) 군사 쿠데타 세력 내의 분열과, (ii) 연합한 민간인 야당과 직면하여 실패할 가능성, 그리고 (iii) 입후보하지 않겠다던 박정희의 "결정"에 의해 좌절되었을 때 "효율적인 통제 안에 있는 세력들"은 새로운 전술을 채택했다. 새로운 전술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전(前) 동료들을 연루시킨 두 개의 쿠데타 음모를 드러내는 것, 다른 쿠데타 음모들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리고 쿠데타 음모의 "깊이와 폭"에 대하여 음울하고 모호하게 말하는 것 등이었다. "혼동"을 가중시키기 위해 그들은 한국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의 능력을 헐뜯고 박정희는 혁명을 배반할 수 없다는 시위를 피하기 시작했다. 쿠데타 음모와 유사한 몇몇 실체가 있을지도 모르는 반면, 어떻게 공모자들이 한국 군

대와 미국 정부의 반대에 맞서서 권력을 이어받거나 장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우리는 아무런 적절한 대답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누가 시위를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도 응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것 역시 의미 있는 일이다.

B. 지난주의 사건들은 박정희가 그의 2월 18일 성명을 포기하게 하려고 계획된 일들이었다. 만약 박정희가 그의 2월 18일 발표를 이행하려고 실제로 결심했다면, 그는 군대와 경찰이 군 안팎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김종필 조직의 해산과 관련될 것이고 박정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전혀 그럴 의향이 없었던 것이다.

C. 그 "효과적인 통제 안에 있는 세력들"이란 김종필 조직과 김종필과 박정희 주변의 선임 고문관들을 말한다. 게다가 그들은 그들의 활동 사항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는 군 장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과 지위와 직업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가령 군대는 국가의 이익 위에 운영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주의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혹은 어떠한 미래의 군사정부가 제시하는 "그들은 권력이나 돈에 의해 부패되거나 파벌주의에 의해 분열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한 이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인용한 것은 1961년 7월에 한 박정희 자신의 언급이며 본인은 오늘밤 그에게 그것을 상기시켰다.)

D. 국민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군사 통치의 존속 이외에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이해하기 힘들다. 김종필의 전국적인 조직은 그대로 건재하고 정부의 권력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용될 것이다. 야당은 군사정부나 민간정부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논의할 것이라는 박정희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군사정부의 비행을 비난할 만큼 충분히 용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E. 본인은 박정희가 국민투표 전후에, 특히 투표 후에 증대되고 폭 넓은 억압 없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더구나

김종필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김종필을 드러내놓고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거의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한국의 농장에 야채를 기르기 위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14. 우리가 박정희의 2월 18일 성명에 있어서 그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던 한편, 본인은 오늘 저녁 만찬에서 행한 짧은 건배자리에서 본인이 최근의 사태와 우리의 예감에 비추어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느꼈으며, 본인은 어떻게 미국 정부가 이 새로운 사건의 전환에 있어서 그를 지원할 것인지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2월 18일 성명 이전에 박정희와 본인인 가졌던 대화와는 달리 그가 우리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그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워싱턴의 지시를 위해 상의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본인은 작전상 긴급 전문으로 국무부의 견해를 보내주면 감사하겠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16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4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다음은 3월 16일 발표의 비공식적 번역문이다 (불필요한 단어들은 (#)으로 삭제되었다) :

"혁명이념의 필승을 다짐한 참신한 민정의 평화적 탄생은 혁명종결의 중대한 최종과업인 것이며 혁명정부는 이 최종과업을 위하여 온갖 성의와 방법, 그리고 노력을 다하여 민정의 터전을 바로잡기에 힘써 왔음은 이미 국민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2·18성명이나, 2·27선서가 모두 바로 이 민정의 터전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충정의 표현이었으며 또 평화적 민정탄생을 위한 정치적 체질개선에 최선의 인위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위적 노력만으로써 도저히 짧은 기간 동안에 민정으로의 준비작업을 다

할 수 없다는 엄연한 시간문제를 부득이 본인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혁명의 제1년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혁명적 정리 작업에 바빴으며, 제2년도에 들어와서 비로소 경제계획의 1차년도 계획시행 등 본격적 국가 재건에 힘써 왔거니와 금년의 제3년도는 남은 8개월 동안, 민정 이양을 위한 준비에 치중하는 해로 제정해 왔던 것입니다.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긴다는 것은 단순한 민정에서 민정으로의 정권교체와는 또 다른 특이한 용의와 준비를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다시는 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건전한 민정에로의 정치적 체질개선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 체질개선은 비단 인위적 노력에 기대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기간의 시간적 부여가 또한 불가피하게 요구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우리의 정치적 체질개선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졌던 지난 2개월간이라는 시간적 경과 속에서 이루어졌던 제반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불행하게도 가지고야 말았던 이 군정을 설사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혁명의 염려가 없는 건전한 체질의 민정탄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혁명의 가능성을 내포한 채로라도 민정이양으로 서둘러야 할 것이냐 라는 두 갈래 길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선 오늘날 후진국가들을 개관할 때 군사혁명은 하나의 유행처럼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군인의 집권욕에 기인한 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민족이 처해 있는 고루한 타성적 사회성에 기인한 것이며 그 사회적 구각을 탈피하겠다는 하나의 체질개선의 민족적 대수술을 뜻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체질개선에 성공한 국가들은 민족적 비약이 구속되고 있으나 그 체질개선을 이룩하지 못한 국가들은 혁명의 되풀이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이미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치적, 사회적 제체질의 개선을 이룩한 채 민정에 들어가려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위치와 자세를 냉정히 비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체질개선을 이룩하기는커녕 오히려 혁명이전의 옛 모습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후죽순격의 정당의 난입,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인의 무상한 이합집산, 추잡한 파쟁 등 정계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그 틈을 탄 일부 군인을 포함한 극렬분자들의 반국가적 음모 등은 민심에 극심한 부정과 공포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무질서하고 불안한 분위기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또는 정권 인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한 정치

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국가 장래가 염려되고 우리 스스로 혁명당국의 무책임성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불행한 일련의 사태나 정치적, 사회적 제약성은 바로 일부 군인, 정치인,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민정 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화근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 나라의 비극적 모습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혁명이 없는 건전한 민정탄생을 기약하기 위하여 민정이양을 위한 과도적 군정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약 4년간 군정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그 가부를 국민투표에 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국민투표는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이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장애할 염려가 있는 모든 정당 활동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혁명정부가 이 국민투표에서 신임을 얻게 될 때에는 앞으로 4년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사회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결실을 거두어 민생을 안정케 할 것이며, 민정이양을 위한 확고한 터전을 마련함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A. 혁명정부의 영역을 넓혀 과거의 당파나 계보에 구속됨이 없이 광범위하게 인재를 등용하여 혁정(革政)에 참여케 할 것이며,

B. 직능대표, 지역대표 등 민간인이 참여한 입법기관으로 최고회의를 전면 개편 보강한다.

C. 초당파적 정계의 중진으로 구성한 자문기관을 둔다.

D. 민정이양을 위한 초당파적 구성의 연구기관을 둔다.

E. 과거의 일절의 당파나 계보를 청산하고 건전한 새로운 양당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만일, 군정연장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때는 정부는 즉각 정치활동의 재개(再開)를 선언하고 계획된 대로 민정이양을 실시할 것이며 우리는 일절 민정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전적으로 이 정권을 이양하고 물러설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영생발전의 길은 곧 우리 민족 스스로의 정치적, 사회적 체질개선에 있는 것이며 이는 바로 인간개조인 것이며 민족개조의 대민족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개선 없이는 우리는 영구히 고루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민족적 대 비약을 성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

스로가 지닌 악의 노예가 될 것이냐 또는 선의 구사자가 될 것이냐 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오늘 본인의 이 결심과 충정을 깊이 이해하고 전폭적인 지지 있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16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54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대한민국 군 장교들의 태도와 한국팀 회의의 결말에 관한 정보의 결여로 우리는 최종 판단을 내리고 싶지 않다. 한편 우리의 일시적인 생각은, 우리가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군사 독재 정권의 전망에 있어서 박 의장이 발표한 행동 방향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군사 독재 정권은 불안정과, 파벌 싸움, 나쁜 평판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귀하가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귀하는 박 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미국 정부는

   (a) 4년 동안 더 군사정부를 지속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b) 이것을 1961년 11월 14일 케네디(Kennedy)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서에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박의장의 거듭된 맹세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c) 만일 그것들이 제약 없이 실시되도록 허락된다면,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박의장으로부터 조기에 순조롭게 민간정부로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한국 국민들에 의해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우리는 제안된 국민투표가 한국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d) 가장 근본적인 방법에 있어서 박 의장의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원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 박 의장이 그의 결정을 바꿀 것이라는 희망으로 한동안 결정에 관한 공적인 논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2. 귀하를 위한 정보. 우리는 다음의 조치들 중 어느 하나 혹은 모두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

(a) 1961년 11월 14일 공동 성명서에서 서약했던 박 의장에게 케네디 대통령이 서신을 보낼 가능성;

(b) 민간정부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박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적인 비난;

(c) 어떠한 새로운 경제 발전 원조에 대한 고려의 보류;

(d) 가능성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최소 수준의 준비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일정 범위의 군사적 원조의 보류, 예를 들자면 대규모 무기류 등과 같은 원조의 보류,

(e) 박 의장에게 지지 대표단을 보내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부와의 협의. 귀하를 위한 정보 끝.

3. 위의 가능한 행동들에 대한 귀하의 논평을 바란다.

4. (a) 박정희가 일시에 혹은 여러 단계에 걸쳐 물러서도록 유발하는 방법과 (b) 실질적으로 군대를 통솔하는 군 참모총장들과 다른 지휘관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의 잠재성에 관한 귀하의 논평도 바란다. 군 참모총장들은 어떠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지?

5. 현재 한국 사람들의 대중적 정서와 반응, 그리고 박정희 계획에 반대하여 그러한 정서와 반응이 동원될 방식 등에 관해 보고하기 바란다.

6. 국방성도 같은 의견이다.

러스크(Rusk)

1963년 3월 16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54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우리가 귀하의 평가를 원하는 또 다른 질문은 이 정부가 합법적인 민간정부의 선출에 알맞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지탱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끝.

러스크(Rusk)

1963년 3월 1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5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국민투표에 대한 박정희의 공식적인 발표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정사실로 대처하도록 강요할 시기가 되었다.
2. 상황이 매우 복잡해서 한국팀은 시행 가능한 조치에 관한 평가와 권고를 내릴 며칠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3. 국무부의 의회, 언론,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 문제에 감사한다. 국무부는 단지 사실만을 표현하고 2월 18과 27일의 성명들로부터 새로운 변화 상황이 연출되었으므로 그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만 발표하기를 건의한다. 국무부나 의회 혹은 다른 부서의 어떠한 공식적인 성명이 있으면 긴급하게 타전해 주기 바란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1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5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군사정부의 지속에 대한 박정희의 국민투표에 관한 성명은 한국 언론과 민간부문에서 가장 광범위한 주의를 끌었다. 3월 17일 언론은 이후락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대변인이 국민투표는 4월 25일 전에 시행될 것이라고 한 것을 기사화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국민투표는 헌법 부칙 2조를 개정하여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인 첫 국회 개회를 1967년 8월 15일까지 연기하는 사항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대사관 전문 652호에서 언급한) 새로운 임시 조치법을 실행하면서 공보부 장관은 3월 16일 정치인들은 정당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금지되고, 설령 용인된 개인적 자격을 가진 인물들에 의한 발표라 하더라도 언론은 그러한 성명을 기사화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국무총리는 “국민들은 역사적인 국민투표를 시행함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2. 3월 17일자 한국일보에 기사화된 정치지도자들의 비평적인 반응은 박정희의 성명에 야당 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윤보선은 대중의 신임에 대한 청천벽력과 같은 위반이라고 선언하고 국민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허정은 그 결정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비극”이라고 묘사하며 정권의 이양을 늦추려는 시도에 있어서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병로는 왜 군대가 군인들 자신들에 의해 생긴 정치적 혼란에 대해 “민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조영 민주공화당 대변인은 그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던 조치를 거의 홀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 밖의 지식인들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만약 동의를 얻는데 필요하다면 국민투표가 조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3. 한국의 조간신문들은 1면을 장식한 대사의 논평은 대사관 전문 650호에 보

고된 논평을 일면 기사로 실었다. 라디오 방송은 국무부가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1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Meloy, 대한민국 서울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170917Z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우리의 보고서들은 체포된 많은 인물들과 연관된 진행되고 있는 쿠데타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김종필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그가 이 나라를 떠났을 때 그것은 4월 중순 전 어느 날에 박정희를 타도하려는 시도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 본인은 군대가 연관된 것 하나를 포함한 3개의 시위는 박정희가 모르게 단행되었으나 쿠데타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군 참모총장들과 상의하지 않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이 연쇄적인 사건들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융통성 있는 계획의 일부분이었다고 믿도록 만들었다. 민주공화당의 지도자 직에 대한 허정의 수락을 확보하는 것의 실패 이후, 박정희는 9개항의 제의를 착수하고 진행했다. 혼란이 증가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의 다음 단계는 국방부장관과 4개 군 참모총장들이 반대하고 있는 계엄령(Martial Law)을 재선포하려는 생각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독단적으로 국민투표에 관한 결정을 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이것이 한국을 위한 박정희의 애국적인 생각의 솔직한 표현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존중을 구실삼아 그의 권위를 영속하려는 기도인지 분명하지 않다.

마스터 플랜의 가능성은 본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이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잠재적 요소에 대한 경계를 지속할 것이다. 만약 국민투표 결과가 군사 정권의 존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오면 김종필은 국민투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귀환으로 그는 박정희 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은 불안정을 조성할 수도 있는 예측 불허의 사태이다.

4개 군 참모총장들이 상당히 오래도록 이 조치를 논의했고 현재 국민투표 발표는 기정사실이라고 오늘 아침 김종오 장군은 본인에게 전했다. 항의는 부적절하고 그들의 임무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와 다른 참모총장들은 그들의 대변인을 통해서 군대는 믿을만하고 연루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개인이라도 관련되면 엄하고 단호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본인에게 단언했다. 참모총장들은 어제 오후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박정희를 지지할 것으로 결심했다.

군대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며 가장 믿을만한 안정을 줄 수 있는 세력이다. 지금은 원조와 군대의 규모를 갖고 개입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이다.

지난 금요일 최고회의 빌딩 앞에서의 장교들의 시위는 당연히 그들이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들 인물들은 김종오 장군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최고회의에 의해 통제되는 수도방위 사령부의 군인들이다. 그들은 또한 최초의 혁명 요원들이라고 주장하고 1961년 5월 쿠데타 이후 훨씬 더 호의적인 대접을 받다가 군대에서 소외된 소위 혁명동지회 구성원들이다.

그들의 행동은 이 단체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며, 본인이 알고 있는 군대 내부의 어떠한 의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행동은 좀 더 심각한 위협의 압력하에 있고 심지어는 쿠데타 음모로 분류되었다.

우리가 대중, 특히 학생들과 정치인들의 반응에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기까지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것이다. 본인은 상황이 절망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은 이 시점에서 받아들여질 어떠한 급격한 행동이나 최후통첩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1963년 3월 18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볼(Ball)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55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사건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될 것

이기에 귀하가 하루 이틀 안에 한국팀의 권고를 제출할 수 있기 바란다. 그동안 한국팀의 논의에서 고려되고 있는 대안들에 관하여 통보해주면 감사하겠다. 또한 KRA 0255에서 멜로이(Meloy) 장군이 전달한 견해에 대한 귀하의 논평을 요한다.

볼(Ball)

1963년 3월 19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마닐라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103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3월 18일 김용식 한국 대사는 그가 외무부장관직을 맡도록 급히 서울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본인에게 전했다. 겨우 지난 10월에 이곳에 도착한 김 대사는 3월 25일이나 26일에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가족은 2주 더 후에 떠날 것이다.

그의 장래 지위에 대한 축하에 감사하며 김 대사는 한-미 관계의 친밀함과 대체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SCP-5. 1963년 3월 30일 비밀 해제함.

스티븐슨(Stevenson)

(일자미기재)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한국의 Berger
수신 : 워싱턴의 Rusk
워싱턴의 Taylor
하와이의 Felt
전문번호 : KRA 26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국방부장관과 4개 군 참모총장들은 오늘 멜로이(Meloy) 장관과 본인을 만나길 요청했다. 그들은 전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아볼 시간을 주도록 워싱턴이 한국의 사태에 관한 어떠한 비우호적인 성명을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우리는 그들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 관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군대와 민간인 양편의 주요 지도자들을 부를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멜로이 장군과 본인은 이 요구를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성명 발표를 얼마나 연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비밀이고 알 필요에 근거해서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멜로이 장군의 사무실에서 가졌던 만남을 SINCS 채널을 통해 보냈다.

특수보안과 참고 : 07시 00분 이후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는가?

1963년 3월 2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7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국무부의 즉각적인 접수를 보증하기 위해서 중요 메시지가 육군 통신선로를 통해 보내졌다고 보고하는 바이다.

2. 전문 시작. 국방부장관과 4개 군 참모총장들은 3월 20일 오후 비밀리에 멜로이(Meloy) 장군과 본인을 만나길 요청했다. 그들은 박정희의 국민투표 발표 이후 이곳에서의 사태들에 의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들이 가능한 해결책들을 탐색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 정부가 단지 고통만을 강조만 할 어떠한 반박 성명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국민투표가 미국의 지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했고, 대한민국 정부, 군과 민간인 지도자들이 그들이 “국가 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의된 행동 과정을 모색하도록 함께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

는 미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해야 처지에 있는 압박감과 우리는 무기한으로 논평을 피할 수 없다는 압박감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그들의 요구에 따르길 촉구한다.

3. 앞서의 진술은 대략적으로 메시지이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 윤보선 전대통령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본인은 체포, 검거, 폭력은 미국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반박 논평을 회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할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지도자들은 체포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윤보선이 풀려났다는 것을 조금 전에 들었다.

4.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들과의 회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보낼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1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7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국방부장관과 4개 군 참모총장들과의 3월 20일 회담에서의 토론은 참고전문에서 요약된 논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방부장관은 “지금은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사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질문했다. 워싱턴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경제원조를 중단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소식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고 우리가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문했다.

2. 본인은 한국인들은 해결에 대한 자신들 고유의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초 이래 권력의 이양에 관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들의 전개와 지난 며칠 동안 건의되었던 대안들에 대해 재검토했다. 그 이래

로 멜로이(Meloy) 장군과 본인은 선의로 군사정부를 지원할 의도로 일을 해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지를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재 우리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고, 본인은 박 의장과 그의 참모들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 부과한 문제를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본인은 그들에게 아직 우리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말할 수 없었다. 우리는 침묵을 지켰으나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에게는 고려해야 할 의회와 대중여론이 있다.

3. 본인은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귀하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멜로이 장군의 지지를 받아 본인은 노조와 정치적 지도자들이 뭉쳐서 국가적 해결을 이루도록 그들에게 강하게 권유했다. 2월 18일의 해결책은 국민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었으나, 본인은 해결책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4. 국방부장관은 3월 16일의 국민투표 계획은 2월 18일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사태는 바뀌었다. 의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군사정부를 지원하도록 요청했고, 그들에게 국민투표에 의해 표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기각된다면 그는 은퇴하고 2월 18일의 맹세를 이행할 것이다. 왜 우리가 국민투표에 반대하는지 질문했고, 우리가 결과를 기다릴 것을 요청했다.

5. 본인은 의장이 우리에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그의 결정을 전했을 때, 멜로이 장군과 본인은 그것이 시행될 조건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말함으로써 답변했다. 우리는 토론, 집회, 조직의 자유에 대해 요청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자유로운 토의와 자유로운 선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만약 국민투표가 엄격한 제약 아래 시행된다면, 그것은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다.

6. 김종오는 그들이 박 의장에게 국민투표의 시행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우리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믿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만약 군사정부가 실패한다면, 이 나라도 실패하고 미국도 실패할 것이다.

7. 본인은 해결의 절차가 무엇으로 채택되든지 그것은 반드시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부는 법을 준비해왔으나 그들은

국민들이 편안히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직 군대만이 통치할 수 있고 민간인들은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는 국민적 화합의 관점에서 폭넓은 합의를 찾아야만 한다.

8. 김종오는 지금 당장 그들이 갖고 있는 주요 관심사는 미국의 태도라고 말했다. 만약 미국이 3월 16일의 제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발표한다면, 정치가들과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정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은 미국이 현재로선 비우호적인 성명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싶어 했다. 멜로이 장군과 본인은 그들의 의견에 대해 워싱턴에 통보할 것에 동의했으나,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공식적인 미국의 성명은 없었다.

9. 그들은 미국을 해결책에 관해 조언을 해야만 하는 큰형으로 언급했다. 본인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답변했고 국민적인 수용을 얻어낼 필요에 대해 재차 얘기했다. 김종오는 정치인들은 민주적인 국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무조건적으로 포고했다고 말했다. 본인은 그들에게 동의와 자유로운 선택을 필요로 하고, 그 방법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고 일깨웠다. 본인은 정치인들은 3월 16일 제안에 서명할 것을 결심했고 만약 지도자들에 대한 폭력과 체포가 일어난다면 문제를 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0. 마치 신호에 의한 것처럼, 그 순간 우리는 민간인들에 의한 시위와 윤보선의 체포에 대한 전화 보고를 받았다. 그들은 그가 투옥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자택에 갇힐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그것이 맞았음이 증명됐다).

11. 그들은 박 의장과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의원들과 함께 우리의 대화에 관해 논의하고 가능성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에 미국이 비우호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사태를 “자극”하지 않기를 희망했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 다시 만날 것에 동의했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1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56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1. 3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허정은 1963년에 군사 정권을 끝내겠다고 1961년 11월 그에게 했던 맹세를 지키도록 군사 쿠데타 세력에게 요구하도록 케네디 대통령에게 간청했다는 AP 통신 기사에 관한 정보와 권고를 요청한다.
2. 기사는 그가 분명한 미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월요일에 대사를 만나려고 했으나 대사가 바쁘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 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러스크(Rusk)

1963년 3월 21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8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3. (검열삭제)

4. 사실상 한국일보에 따르면 허정이 했던 것은 “권력을 지키려는 최후의 필사적인 노력에 몰두해 있는 군인 집단”에 대한 책망이었다. 경향신문은 허정이 말한 “한국의 60만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아주 소수의 군인 집단”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권력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권력에 굶주린 소수의 군인들”이라는 표현에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항해서 일어섰는가?”

라고 덧붙였다. 어느 신문의 기사가 맞는지에 상관없이, 군 지도자들은 정치적 위기에 공개적으로 관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5. 우리가 군사 정권의 연장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세우려는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군 지도자들과 정부 모두에게 도전받고 있다.

버거(Berger)

참고 : 국방장관실과 특수보안과 장교 각각에게 전달됐음.

1963년 3월 2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Meloy, 대한민국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KRA 27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3 Box 129

전하는 바에 의하면, 허정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규모 집단에게 행한 연설에서 정치 현장을 매우 불안하게 하는 언급을 했다. 그는 국민의 진정한 적들은 현재 이 나라와 군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 집단이라고 간단히 언명했다. 그는 나아가 소위 쿠데타 음모 때문에 체포된 군사 지도자들은 잘못 기소된 것이고 그들만이 진실하고 양심적인 애국지사들이라고 언급했다.

이 언급들은 신문 겉면을 널따랗게 장식했고 국방부장관과 군 참모총장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줬다. 그들은 군대의 선임 지도자들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군인들과 젊은 장교들 마음속에 심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나쁜 영향력의 전개를 막기 위해 오늘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이 시점에서 매우 복잡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성명을 발표하지 말도록 긴급하게 요청했다.

본인은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우리가 사건의 이러한 최근 변화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런 성명도 하지 않을 것을 반복해서 제안한다.

1963년 3월 2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8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모든 한국군 선임 지휘관들과의 회의 후에, 국방부장관은 라디오를 통해 한국군대는 박정희의 3월 16일 결정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최소 80명의 한국 장군들이 국방부에서 대통령 저택까지 행진했다.
2.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주요 정당들에 의해 미리 계획된 정오의 시위는 경찰에 의해 해산되고 많은 시위자들이 체포됐다. 두세 명의 시위자들 역시 같은 시각 군사정권의 연장에 “결사반대”라는 전단을 뿌리다 대사관 앞에서 체포됐다.
3. 12시 20분 편영태는 200-300명의 군중들에게 군사 통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기 시작해서 대사관을 지나갔다. 행진은 길모퉁이에서 멈췄고 몇몇 시위자들이 체포됐다.
4. 12시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대변인 이후락은 미국은 아시아에서 한국의 입장을 인식해야만 하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군사 정권을 지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5. 완전한 내용과 성명이 잇따를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8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국가재건최고회의는 3월 21일 본인이 의장에게 표명한 의견 견해에 따라 범국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상담을 위한 원탁토의의 필요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오늘 오후 회의할 것이라고 조금 전 알려왔다.

2. 즉시 다음 전문에서 미국의 성명을 위한 우리의 권고를 보낼 것이다. 국무부에 제안하는 것은 성명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우리가 조언할 때까지는 발표하지 말라는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9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국무부의 계획들이 장문의 성명이라면, 본질적인 다음의 주제들을 포함해서 대략적인 골자를 적어 보낼 것을 건의한다. 괄호 안의 항목들은 생략해도 된다.

1. 서약들:

   A. 민간정부의 전환에 관한 최초의 혁명주체의 맹세.

   B. 의장의 1961년 8월 12일 성명.

   C. 1961년 11월 박정희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준 확언과 워싱턴에서 김종필에 의해 행해진 확언을 포함한 후속 약속들

2. 정치활동의 재개와 선거를 통해 민간정부로 되돌아가려는 계획들은 1963년 1월 초에 진행되기 시작했다.

(3. 한편 심각한 분열이 김종필을 실력자 자리와 민주공화당의 의장 자리에서

제거하기를 요구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은 수가 증가함으로써 쿠데타 세력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전개되었다.)

4. 2월 초에는 언론에서 박정희가 민주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5. 2월 11일 그리고 다시 2월 13일에 김종필은 박정희가 2월 14일이나 15일에 그가 대통령에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할 것이라고 그에게 얘기한 것을 대사에게 통보했다. 그는 대사에게 박정희가 그 결정을 바꾸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사는 김종필에게 박정희가 그의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미국 대사를 만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박 의장에게 얘기하라고 했다.)

6. 2월 14일 박 의장은 대사에게 전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왜 그가 퇴진하려고 결심했는지 그의 의도와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미국의 견해에 대해 질문했다. 대사는 그의 정부에 보고해서 지시를 받고 싶다고 대답했다. 2월 17일 대사는 지침을 근거로 하여 박 의장을 만나길 청했다. 대사는 박 의장에게 그가 퇴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2월 14일의 입장이 2월 17일에도 여전히 같은 의견인지 질문했다. 의장은 그렇다고 했고 과도기 동안 그와 그의 정부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래서 대사는 만약 그의 결정이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과도기 동안 그와 그의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7. 박 의장의 2월 18일 성명은 주요한 정치인들과 이 나라, 그리고 미국 정부의 성명에 의해 이것은 민간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닦는 것이라며 환영받았다.

(8. 3월 14일에 국무총리는 대사에게 이 나라의 사태는 쿠데타 음모로 인해 매우 불안정하다고 전했으며, 그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본인에게 알리도록 박 의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이것은 여전히 올해 시행될 선거를 몇 달 연기하는 것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9. 의장은 3월 15일 그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대사에게 알려왔다. 3월 16일 의장은 국민투표 계획을 발표했다. 3월 18일 국무총리는 대사에게 군사정부의 지속에 대한 국민투표는 4년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고 전달했다.

10. 3월 21일 미국의 태도와 권고가 박 의장에게 전달됐다.

11. 3월 22일 국무총리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통보받았다.

12. 3월 22일 국방부장관은 국민투표에 대한 3월 16일의 계획의 군사적 지지를 군 참모총장들과 일선 지휘관들의 명의로 발표했다.

13. 성명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3월 16일의 성명에 의해 야기된 새로운 사태가 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가 실행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월 18일의 성명을 지지하는 것을 피하고 우리가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조점은 정부, 군 참모총장들 그리고 민간인 지도자들이 모두 함께 국가적 긴급 사항에 대한 국민적 해결책을 찾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 우리의 노력에 있다는 것이다. 원조를 감축하거나 그만두겠다는 협박을 피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에 중점을 둔다. 군사 정권의 지속을 위한 국민투표를 용인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해결하는 것은 국무부에 달려있다.

(14. 의장은 3월 19일에는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3월 21일에는 대사에게 말하길, 만약 부패한 정치인들이 물러나면, 그는 그의 결정을 뒤바꿀 것이라며 3월말까지 그들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 언급에 아무런 중요성도 두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중시되지 않아야 하며 아마도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9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다음은 국방부장관이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에 라디오를 통해서 낭독한 성명의 전체 본문이다 :

축어적 보고 : 불필요한 말들은 생략된 본문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들 그리고 어머니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와 한국전에서 그들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미국과 우방국들의 젊은이들은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나라 땅에 그들의 고귀한 젊음을 바쳤다. 그러나 몇몇 비애국적인 정치적 모리배들과 그들의 동조자들은 마치 그들은 공산주의 위협의 쓰디쓴 경험을 잊은 것처럼 이 나라의 반공산주의 방어 자세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무분별한 활동들에 그들 자신을 바치고 있다.

“이 사태는 대한민국 군대가 혼란과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민주주의 체제 아래 쿠데타를 계획하게 몰아갔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군사혁명에 이어, 정치적 안정은 국민들과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강력한 협력으로 회복시켰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민간정부로의 권력을 양도하기 위한 준비는 8월 12일과 2월 18일의 성명들과 2월 17일의 맹세를 통해서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빠른 시일 안에 정치 활동이 가능할 것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들 단체와 그들의 동조자들에 의해 행해진 비열한 파벌싸움과, 많은 군인들을 포함한 반역자들 단체에 의해 계획되었던 실패한 유혈 쿠데타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불안정은 다시금 이 나라를 휩쓸 것이다.

“권력 이양의 근거가 완전하지 않고 불안한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까닭에, 국가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박 의장은 민간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모든 사태를 자칭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단체 자체의 통치로 맡길 것인지 국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요청하기 위해 호소했다.” 이것이 바로 3월 16일의 선포 이면에 있는 그 이유이다. 게다가, 3월 19일 정치 회의에서 박 의장은 국민들에게 그들의 의지에 대해 물어보기조차 거절하는 정치인들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대체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갈망하는 인정된 정치인들 단체는 그들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불안정을 야기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군의 통합에 손상을 주는 것에 그들 자신을 헌신하며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공관 앞에서 시위에 돌입했고, 심지어 그들의 활동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반(反)정부, 반(反)국가 쿠데타 계획을 성실한 군인들의 행동으로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밤낮으로 국가

의 방위에 자신들을 바쳤던 우리의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걱정을 주고 있다.

"한국 군대의 첫 번째 사명은 현재 정치적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고, 유엔군의 협력으로 군대의 강력한 단합을 보장하기 위한 길과 방법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모든 군사 지도자들의 회의를 소집했다. 지금 우리는 3개 대한민국 군대들의 지휘자들의 이름 아래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 호소하며 다음의 결의안을 발표한다."

1. 우리는 공산주의의 침략을 깨부술 능력을 갖고 있는 현 정부를 강력히 지지한다.
2. 우리는 혁명의 과제들은 어떤 식으로든 성취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군의 화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도 참을 수 없다.
4. 우리는 현 사태를 평정시키기 위해서 3월 16일의 성명에 기술된 국가적 국민투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69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국무총리는 그의 정부가 다음 주에 현 사태를 해결할 방법들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군 지도자들과 민간인 지도자들로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의원들의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본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3월 22일 오후 늦게 전화했다. 우리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오늘 오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위의 사항에 동의했으나 아직 자세한 사항에 관한 확실한 정보는 없다.
2. 그 후 곧 박 의장의 비서실장이 대사관에 와서 본인에게 아래 사항을 전달

하고 싶다는 의장의 지시에 관해 알려왔다 :

"3월 21일 의장과의 회담에서 대사는 현 국가적인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해결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압력 단체의 국민적 대표들의 원탁회의 회담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그때 의장은 (검열삭제)를 고려할 것이고 계획을 연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오늘 그는 실지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과 함께 그의 마음을 정했다. 이것은 조금 전 발표되었다. 만날 대표들이 누가 될 것인가와 회의 시간은 검토중이고 대사는 검토가 끝나면 통보받을 것이다. 그러한 국가적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범국민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본인은 의장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해결책을 제공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의장에게 전해달라고 비서실장에게 요청했다.

4. 라디오 뉴스 방송은 이번 주말에 "내각과 모든 분야의 대표들의 참여로" 회의를 요구하려는 의도의 내각 성명의 혼동된 보고서를 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SCNR) 위원들은 현재 사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옵서버로서"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5. 논평 : 우리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은 전갈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처리하고 있다. 우리의 단호한 입장에 맞서 정부는 3월 16일의 국민투표 입장으로부터 최소한도로 뒤로 물러서 있다. 우리는 이 계획에 누가 반대하고 있으며 누가 3월 16일 결정을 지지하고 싶어 하는지 정부 내의 강력한 세력들에 대해 알고 있다. 민간인 지도자들은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과 상황에 대한 좀 더 완전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심스러울 것이다. 우리가 자세한 것을 알 때까지 본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보류하는 신중함을 지킬 것을 제안한다.

6. 여기에서 어떤 확실한 일들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번 박 의장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선임 군 장교들에게 국민투표는 현 사태의 해결책으로만 남아 있고, 그는 3월 16일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그는 국방부장관의 성명에 (참고 : 대사관 전문 691호) "깊이 감명 받았다" 고 알렸다.

7. 즉시 다음 전문에 국무부의 성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9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국무부의 성명은 현재 유용하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명은 국무부의 전반적인 필요에 관한 참고전문 B에서 제안했던 문구로 작성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직무상 공식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는 한정된 성명을 선호할 것이다. 또한 국무부의 이해를 위해 다음 문장을 제시한다.:

A. 회담들이 국민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음 주에 소집될 것이라고 한 발표는 솔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 절차가 (시민들이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자신감을 주는) 건설적인 해결을 위한 문을 열고 긴장을 풀거나 열광하는 것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B. 13번째 단락에 대하여, 첫째와 둘째 문장에서 특히 우리의 의견을 언급하라. 우리는 누가 대화에서 책임을 맡을지 모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하는 것이 낫겠다,” 는 세 번째 문장은 삭제하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C. 국민투표의 비(非)수용과 군사 정권의 4년 연장에 관해 공식적인 성명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한국인들이 국민투표 제안에서 마련한대로 4년까지 군사 정권을 연장하는 것보다 다른 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2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57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우리는 3월 22일에 박정희 의장과 국방부장관의 3월 16일 결정에 대한 지지 발표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허정이 말하였었을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국방부장관의 성명과 군 부대장들의 시위행진은 3월 16일의 결정을 숨김없이 지지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군대가 관련되어 있다. 박정희와 군 참모총장들 양측은 우리가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사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들은 3.16 결정의 강화에 우리들의 침묵을 이용하고 있다. 다양한 정치적 집단들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후속 조치는 내각을 중심에 두고, 쿠데타 세력을 참관인으로 삼고 협의의 분명한 목적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약화되고 있다. 우리는 야당 지도자들을 그러한 협의에 응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2. 정부 지도자들과의 앞으로의 접촉에서 귀하가 그들이 중간에 만든 3월 16일의 결정을 거듭 언명하는 단호한 성명들을 예외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제안하라.

3. 미국이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의 효과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개념을 갖고 싶다. 귀하는 여러 구성원들 사이의 협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설 의향인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솔직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가.

4. 귀하가 그들과 논의한 이후 미국의 입장이 약해졌다는 하나의 신호로서 박정희와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 간파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전문에서 제안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싶다. 우리는 성명이 앞으로 며칠 안에 필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상황의 진전을 고려한 귀하의 추후의 권고들에게도 감사할 것이다.

러스크(Rusk)

1963년 3월 2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0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정부와 민간과 군대의 핵심 지도자들이 회합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요청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비공식적으로 3월 26일이나 27일에 개최될 회의에 초청할 조직체들의 명단을 보여주었다. 명단은 중요한 인물들, 군 참모총장들, (더 이상 옵서버로서가 아닌 채로 명단에 오른)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과, 사태의 해결에 관련되지 않은 기타 조직의 많은 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명단은 확실히 우리의 요구를 풀어주기 위해 꾀해진 것이지만, 참석자들은 대부분 통치권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최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 절차에 대해 감명 받지는 않을 것이다.

2. 위의 견해에서 보면, 성명은 협의 단체에 대한 언급을 피해야 하고 국가적으로 받아들일만한 해결책을 찾을 필요를 강조해야 한다.

3. 이 시점에서 국지적인 관점에서 솔직한 역사적 기록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만일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공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성명이 만들어지든 미국의 입장이 약해진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되며 위협을 내포하지 않아야 한다.

4. (참고전문 10-4-3) 영향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박정희에게 행한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범위는 박정희와 통치권의 다른 인물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야기한 문제점들을 미국의 의견과 반응의 관점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당분간은 우리가 통치권과 충돌 과정에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할 것을 권한다. 민간인들은 미국이 군사정부의 계획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기다릴 것이고, 이것이 표면화되는 정도에 따라 그들은 고무될 것이고 그들의 입장을 강화할 것이다. 대사관은 현 시점에서 국무부가 성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영향에 대해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

록 국무부가 제안된 성명의 본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0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박 의장의 비서실장은 현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월 26일이나 27일에 시작될 원탁회의에 예정된 참석자들의 관료 명단을 비공식적으로 대사관에 주었다. 명단에는 의장에 국무총리, 7명의 내각 장관들, 모든 군 참모총장들, 3명의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대표들, 43명의 정치, 사회, 기업, 종교단체 대표들과, 이범석과 변영태를 비롯한 8명의 주요 정치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조직체 대표들에는 17개의 분리된 당들을 포함하는 다른 단체들과 22개의 기타 세부 단체들로부터 각각 1명씩과 함께 민주공화당, 신정당 그리고 민정당으로부터 각각 3명씩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세부 단체들은 한국 재향군인회, 노동조합연맹,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와 한국올림픽위원회와 같은 정부 관할 조직체들이다.

2. 라디오는 3월 23일 저녁 명단에 있는 개인들과 조직들에게 초대장이 보내졌다고 발표한 것을 보도했다. 우리는 공식적인 반응을 발표할 것이지만 핵심 정치 지도자들은 회합의 유용성에 관해 회의적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3월 16일 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그들의 사전 논평을 전제한다면 그러하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0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3월 22일 시위들의 여파로, 언론은 체포된 105명의 재판이 군 법정으로 양도되었다는 기사를 실었다. 50세 이상의 19명의 시위자들은 임시로 풀려났으나 다른 사람들은 서울 구치소로 넘어갔다. 관련된 사람들 중 유명한 인사들로 전직 국회의원들인 신민당의 서범석 의원, 신민당 김영삼 의원, 그리고 신민당 이영춘 의원을 포함하고 있다. 역시 다른 도시에서도 약 20명의 시위자들의 재판이 군 법정으로 넘어갔다고 보도됐다. 사건과 관련지어 내무부장관은 정부가 시위에 있어서 임시 조치법을 적용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민간인 측 정치 지도자들은 국방부장관의 3월 22일 성명을 비난했다.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허정은 만약 박정희의 3월 16일 성명이 무조건적으로 철회된다면 몇몇 정치인들의 자발적인 은퇴를 포함한 양보를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허정은 또한 군사 정권의 연장에 반대에 있어서 한 동안은 "극단적인 조치"가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관 관료들과의 개인 회담에서 윤보선의 전직 비서는 또한, 만약 군사정부가 3월 16일 성명을 철회한다면, 윤보선은 박정희의 2월 18일 안건에 근거하여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윤보선은 나아가 박정희의 정국 수습 9개 안에 더하여 다른 (명확하지 않은) 조건들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3. 정부 측에서는 이후락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대변인이 만약 국민투표가 승인되면 군사정부는 과도기 정부로 재편성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언론이 인용해 발표했다. 대한일보는 이후락이 군사정부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 것을 보도했다. 그러나 다른 신문들은 그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고 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후락은 또한 구 정치인들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4. 아침 시간에 도시 자체는 시위대들로 혼란스럽고, 오늘은 아직 정치가들이 추가적인 대중 시위들을 할 징후는 없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0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국무부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도록 수정될 것을 제안한다.:

인용문

올해 민간정부로 복귀시키겠다는 이전의 맹세와는 정반대로 4년 동안 더 군사 통치를 계속하려는 군사 쿠데타 세력의 노력은 한국에 고통스러운 사태를 야기했다. 우리는 그러한 군사 정권의 연장이 한국인들이 확실히 필요로 하고 바라고 있는 안정과 효과적인 정부를 가져올 수 있고, 이 전반적인 문제가 한국 정부에 의해 재검토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쿠데타 세력과 한국의 주요 정치 단체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민간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과정을 함께 풀어갈 것을 바란다.

인용문 끝

2. 시기에 관해서는, 3월 25일 국무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을 제의한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0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3월 24일 언론은 정부의 노력은 온화하게 회유적인 것으로 보이고 야당들이 3월 27일에 시작하는 협상에 합류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특집기사로 실었다. 민주공화당 지도자들은 중용과 타협을 촉구하려고 윤보선을 방문했고 내무부 장관은 허정에게 부탁했다. 이후락은 3월 23일 언론에 성공적인 국민투표에 잇따라 예상되는 변화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의장직과 대통령 직으로 분리된 "과도 국민 정부"를 제공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단지 입법적인 권력만을 갖고 민간인 우위의 강화된 내각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후락은 과도기가 4년보다 단축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거절했으나 박정희는 이 기간은 경제적 "재건"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언명했다고 말했다.

2. 민간인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3월 27일의 회의에 대해 냉랭하고, 3월 22일 시위자들의 석방을 위한 합법적인 조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에 3월 24일로 논의되었던 한강 회담의 허가에 대한 정부의 거부를 당분간은 받아들이고 있다. 일요일 아침, 도시는 조용했고 당분간 더 이상의 소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어느 측도 3월 16일 제안의 핵심 사항에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표면상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동안 양측은 추가적인 노력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0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해리먼(Harriman)과 힐스먼(Hilsman)에게

본인은 이곳의 사태에 대한 본인의 평가와 함께 우리의 방침에 관해서 미국을 위한 함축된 의미와 권고를 3월 25일 오전까지 귀하의 책상에 올려놓을 것이다. 사건들의 의미에 관하여 대사관과 미군 사이에 강조점의 중요한 차이가 있고 이

것들은 곧 혹은 쉽게 조화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관하여 본인은 본인의 평가와 권고안을 제출하며,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동안 국무부가 더 이상 망설이고 있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멜로이(Meloy) 장군은 다른 전문에 본인의 견해에 관한 그의 논평을 보낼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5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58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국무부 전문 579호는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 705호에 상응한다.
2. 귀하를 위한 정보. 성명은 발표되기 전에 대통령에 의해 통과되었다. 귀하를 위한 정보 끝.

러스크(Rusk)

1963년 3월 25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1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3월 26일 아침 일찍 로렌스 베이커(Lawrence Baker)라는 한 미국 시민은 한국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금되었다. 베이커는 대사관에 전화해서 면담을 준비하고 있는 영사를 만나길 요청했다.
2. 3월 25일 저녁 늦게 베이커는 대사관 직원에게 전화해서 황헌진 장군은 베

이커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황헌진은 소위 쿠데타 음모와 관련지어 지난주 내내 대한민국 경찰이 쫓고 있었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6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1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사태가 어떻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참고전문에 명시된 우리의 분석과 권고들과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여러 극단적인 성명을 "미국 정보원", "한 미국 공무원" 그리고 "미국 공무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3월 26일 워싱턴에서 보도한 UPI 통신의 리로리 핸슨 (Leroy Hanson)을 급히 만나도록 하라.
2. 공식적인 성명과 연관된 이러한 성명들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국무부는 이런 종류의 배경 논평을 차단하고 이미 일어나 손해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6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2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베이커(Baker)는 한국에 남아있을 것과 4일 안에 추가되는 질문에 순순히 따른다는 조건 하에 한국의 중앙정보부에서 풀려났다.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대사관이 베이커가 한국에 남아있는 것을 보증하라고 요구했다. 보증은 하지는 않았지만 대사관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의 여권을 보관하겠다는 것에 동의했다.

2.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대사관 대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기록하도록 허락했다. 질문들은 정연한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베이커는 자신의 일상적인 질문들에는 잘 대답했으나 황헌진 장군에 관계해서는 어떠한 본질적인 질문에도 대답하기를 거부했다. 베이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변호사도 없고 답변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러한 질문들에 대응했다. 한국의 중앙정보부로부터 보장은 없었다.

3. 여러 명의 한국 중앙정보부 조사원들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공식적인 질문은 그 뒤 현 한국 정부는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있고 반미(反美)적이라고 되풀이하여 주장하는 베이커와의 일반적인 정치적 토론이 되었다.

4. 한국 중앙정보부 책임자는 도망자를 숨겨준 것으로 베이커에 대한 범죄적 고소를 강제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만약 황 장군에 대한 그들의 조사에 베이커가 협조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점에 있어서 베이커는 그가 협조할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5. 한국 중앙정보부는 만약 베이커가 4일 안에 그 이상의 질문에 그가 바라는 대로 변호사를 동반하고 자발적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를 수감할 것이라고 분명히 애기했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6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2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3월 26일 오후 언론은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반응에 대한 보도를 매우 폭넓게 다루었다. 링컨 백서(Lincoln White Statement)에 더해, 대부분의 신문들은 미국은 군사 정권의 연장을 필사적으로 반대했고, 3월 16일 선언의 결과로 원조와 관계된 어떤 결정들을 이미 취해졌다고 주장하는 UPI 리로이 핸슨(Leroy Hansen)의 기사를 실었다. 다른 기사들은 또한 미국의 결정을 강조하며 케네디 대통령은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관한 더 많은 언급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 미국의 성명에 대해 논평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대변인 이후락은, 대사관 전문 717호에서의 보고에 더하여, 실질적인 문제는 군사정부를 대체할 훌륭한 민간정부를 만드는 것이지만 현 통치권은 어떠한 민간정부보다 더욱 안정되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의 복귀를 막음으로써 받은 원조에 대해 미국에게 보답하기를 바라면서 건전한 민간정부에 이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과도정부를 창출하려는 군부의 시도를 덧붙였다.

3.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후락과 비슷한 논평을 쏟아냄으로써 분노를 감추려고 했다. 김정열 당 의장은 미국의 원조에 사의를 표했으나 권력의 이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 야당 지도자들은 국무부의 논평에 동의했다; 윤보선, 허정, 이범석 등 모두는 백악관의 언급이 “적합하다”고 찬성했다. 백두진은 미국은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고를 했다고만 언급했다. 전진한은 미국의 입장은 군사 정권의 연장에 반대하는 국민적 움직임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5. 3개의 주요 정당들 의원들은 가능한 타협안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 주요 야당 지도자들은 어제 박정희의 회동 요청을 거절한 건에 대하여 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6일 오후에 회동했다. 개인적으로 야당 지도자들은 박정희를 만나지 않으면 실질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고, 정부가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정부 여당에게 실질적은 타협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두 야당들은 협상들은 3월말까지 계속될 것이지만, 만약 그때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투쟁은 4월 1일에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언론은 몇몇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미리 유포되고 있는 군사 정권 연장

반대 범국민적 조직의 형성 계획들을 보도했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6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58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라이스(Rice)는 쿠데타 음모는 군 요원들에 의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기반을 갖는 정부를 발족시키기 위하여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4. 대사는 미국은 어떠한 정확한 공식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두 함께 건전한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한국인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 국민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고 폭넓은 지지기반을 가진 정부를 갖게 되길 바라고 있다.

러스크(Rusk)

1963년 3월 26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2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3월 27일 멜로이 장군과 본인은 국무총리의 긴급 요청으로 그를 만난 후에 김종오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다. 계속되는 혼란과 사태의 불안정은 이들 두 대화들에서 잘 설명되었다.

2. 김 장군은 3월 16일에 제안된 국민투표를 집행할 정부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3월 26일 회합을 가졌다고 말했다. 국민투표가 4월에 시행되게 되면, 그것은 3월 27일 오후에 소집된 원탁회의에 제출된 이 재조직 안에 근거하여 실시될 것이다.

3. 김 장군이 읽은 보고서에서 약술된 것처럼 재조직 안은 다음과 같다 :

   A. 새 정부는 "초당파적 과도정부"라고 명명될 것이다. 정부의 과제는 5.16 혁명의 이상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건강한 기초를 설립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수단으로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변화"하기 노력할 것이다.

   B. "견제와 균형" 체제는 입법, 행정, 사법적 책임의 조항을 통해 채택될 것이다.

   C. 대통령은 저명한 민간인 지도자들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된 "정치적 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D. 초당파적 내각은 모두 공동체에서 뽑힌 구성원들로 형성될 것이다.

   E. 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그대로 존속될 것이나 그 위원들은 "반 이상을" 민간인들로 충원해서 60명으로 늘릴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국회와 유사한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F.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아래에서 민간정부로의 전환에 관한 날짜와 방법에 대해 조언할 30명으로 구성된 "조사 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다.

4. 이 계획은 회담에서 거론될 것이나 김 장군은 윤보선과 허정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회담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본인은 김 장군에게 정치 지도자들과의 대화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이 3월 16일의 제안을 철회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최고의 핵심 지휘자들"은 과도정부를 위한 새로운 계획에 호의를 갖고 있고, 그는 이것은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5. 본인은 김 장군에게 이 계획이 핵심 정치 구성원들과의 협의 없이 나왔거나 절차 결정에 있어서 그들의 참여가 안정되고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 것이라

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정부와, 군(軍) 그리고 정당들의 핵심 인물들 사이에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해왔다. 만약 해결책이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 사태들을 누그러지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얻어 임무를 수행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군사정부가 길어질수록 계획을 정당들에게 강요하려고 할 것이고, 사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본인은 김 장군에게 왜 정부가 주요 정치 지도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려 하지 않았는지 질문했다.

6. 김 장군은 그 중요성과 윤보선과 허정의 역할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들의 시위들을 통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냈고, 허정은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군사 지도자들을 공격했다. 본인은 윤보선과 허정은 중요한 정치 단체들의 지도자들이므로 합의된 국민적 해결책을 창출하기 위해 이 단체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김 장군에게 상기시켰다. 김 장군은 계획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7. 국무총리와의 뒤이은 만남에서, 그는 아침에 박 의장을 만났다고 말문을 열었으며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 박정희의 "최종 결정"을 전해주길 요청 받았다. 의장은 그가 대안을 가지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미국이 군사정부의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집하고 3월 16일의 제안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정치로부터 은퇴"할 것이라는 생각을 펼쳤다. 만약 미국의 결정이 추가 원조 제공이나 보충적인 미국 잉여곡물양도법(PL 480)의 동의의 실패와 관련되어 있다면, 경제적 결과들은 의장이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다. 국무총리는 계속해서 말하길, 군대는 박정희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그의 은퇴는 "불평의 소리"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가졌던 "따뜻한 감정"은 따뜻한 상태로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고, 공산주의 앞잡이들은 사태를 이용하려 할 것이며, 심지어 "북한군이 이동할" 수도 있다고 했다.

8. 국무총리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2가지 방책을 찾았다고 말했다. 하나는, 몇몇 원로 정치인들이 3월 19일 박정희와 논의한 방침을 따라 정치에서 은퇴하는 것이다. 현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100명의 정치인들이 은퇴한다면 박정희는 3월 16일의 제안을 철회하고, 정치에서 물러날 것이며, 올 후반기에 선거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것의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윤보선과 허정을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회동을 추구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의해 박정희에게 촉구되고 있는 해결책이다.

9.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두 번째 해결책은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계획된 4년 대신에 2년으로 군사 정권을 단축하며, 확장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함께 초당파적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김종오에 의해 전에 약술되었던 계획이다.)

10. 본인은 국무총리에게 군사 정권의 연장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의 구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대로 미국의 견해를 상기시켰으며 정부와 주요 정치단체들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본인은 정치인들을 만나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꺼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11. 그는 정치인들은 협력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태도를 감안하여, 그들은 박정희로 하여금 3월 16일 제안을 철회하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즉 스스로 정치에서 물러나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현 상황과 언젠가 “국민들이 그들에게 분노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은퇴 안에 동의한다면, 이 나라는 올 가을 선거를 향해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군 지도자들을 통제할 것이다. 만약 박정희가 미국의 주장에 직면하여 그냥 사임해 버린다면, 그의 후계자는 아마도 책임을 떠맡게 될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선출된 “어떤 장군”이 될 것이다.

12.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원탁회의 만남은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지만 여러 다양한 계획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저녁 주요 정당들의 몇몇 2인자 정치인들을 만나서, 대안들을 심사하고, 박정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에 대해 문을 열어 놓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박정희가 사임에 관해 갑작스런 결정을 내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은 미국의 반대에 직면하여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함축적으로 나타냈다.

논평 :

13. 본인은 정치인들과 정부 사이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을 때까지 미국으로서

는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실직적인 해결책을 기대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사태는 한동안 이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불분명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국무총리의 두 번째 "해결책"은 3항에서 요약됐고 위의 9항은 "자발적인 은퇴" 안에 대한 그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을 처리하려 하는 방향이다. 그것은 김종서(Kim Chong-So)의 표현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비록 정부는 정당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연합전선을 깨뜨리기 위하여 최고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지라도, 정치 지도자들은 협의 없이 도달한 어떠한 강요된 해결책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 박정희가 사임할 것이라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국무총리의 표현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말은 미국을 좀 더 순응시키기 위해 계획된 또 다른 협박이다.

버거(Berger)

1963년 3월 2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26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라이샤워(Reichauer)로부터 버거(Berger) 대사에게

1. 배 대사는 그의 요청으로 3월 27일 본인과의 아침 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신임 한국 외무부장관 김용식을 데려왔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지적인 면에서 김용식에게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귀하도 그에게서 서울의 사태에 유익한 부가 설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검열삭제)

전체적인 한-일 문제에 관한 그의 융통성과 솔직함은 현재의 우울한 날씨에서 밝은 부분으로 본인에게 강하게 다가왔다.

3. (검열삭제)

4. 배 대사는 자신이 가진 귀하와 박정희와의 대화에 대해 본인에게 얘기하는 것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했다. 본인은 이미 워싱턴에서 만들어진 성명을 뛰어넘어 미국의 생각을 설명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두 사람 모두에게 분명히 했다.

라이샤워(Reischauer)

1963년 3월 28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58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우리는 특히 이 시점에서 어떤 특별한 해결책에 우리 자신을 묶어 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a. 우리와 한국의 야당들은 박 의장과 그의 고문들의 성실성에 대해 의심할만한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b. 우리는 아직 주요 야당 지도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c. 우리는 김종오와 기타 군 참모총장들의 박정희의 3월 16일 결정에 대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우리의 목적은:

   a.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지지의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안정적인 정부의 수립과;

   b. 정치 무대에서 한국군의 축출과; 그리고

   c. 한국과 유엔군 사령부(UNC)의 국제적인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간정부로의 전환은 가장 빠른 시

기에 선거를 통하여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사 쿠데타 세력은 군의 당파 싸움에 의해 갈라졌고 아마도 안정과 인기가 하락하는 것에 직면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재차 약속한 선거들이 1963년 국제연합총회(UNGA) 전에 실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명하는 것에 있어서 힘든 시기를 맞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과 유엔군 사령부의 활력이 되는 많은 국제적 지지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할 것이다.

4. 우리는 귀하가 제안된 국민투표가 좀 더 자유로울 것과 (참고전문 A의 6항에서의) 군사 통치의 연장을 단축할 것에 근거한 협상을 장려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현 상황 아래서,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이 실현될 것이라고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다. 최근의 정치 활동의 금지와 당 지도자들의 체포는 국민투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불가능하게 했다. 군사 정권 연장기간의 단순한 단축에 관해서 우리는 1년이나 2년 정도 연장을 더 큰 합리화라고 여기지 않으며 4년 연장도 기본적으로 유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입장에 있다. 우리는 효과적인 민간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한 분위기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하는 것만으로 쉽게 향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것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확실히 덕망 높은 야당 지도자들인 허정과 윤보선을 반드시 포함한 민간 지도자들과 함께 쿠데타 세력의 성실한 협의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참고전문 B의 5항에 나타난 대로) 김종오 장군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재조직 계획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 점에 대해 귀하가 강조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6. 쿠데타 세력과 민간인 야당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의미 있는 협의를 성취하도록 좀 더 나은 입장에 서기 위해서, 귀하는 가장 빠른 기회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요 야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확보해야 하고, 그들에게 귀하의 권고와 논평을 전해야 한다. 비록 우리는 합리적인 결론에 대해 그들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지지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래 정부는 조만간 그들 진영으로부터 올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 측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소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하는 그들이 건설적인 접근을 하고 쿠데타 지도자들이 명예로운 방법으로 퇴진하게 하며 앞으로의 역할과 안정에 관한 확신을 주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7. 만일 쿠데타 세력과 야당이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수용 가능한 2월

27일 원칙으로 복귀할 길을 찾을 것이며 이 노선을 따르는 것이 최상의 정리라고 믿고 있다. 만약 "부패한" 정치인들이 물러난다면 2월 27일 합의로의 복귀한다는 타협안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누가 부패했는지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귀하는 완전한 정치적 정화 개념은 한국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밖에서도 강력하게 비난받아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허정, 윤보선, 김병노와 같은 인물들이 부패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귀하를 위한 정보: 이 타협적인 제안의 명쾌함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은 즉각 거절당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단지 몇몇 2인자 서열의 정치인들이 은퇴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받아들일만한 것일 수 있다. 귀하를 위한 정보 끝.

8. 김종오 장군은 2월 27일 원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했고 후에 계엄령을 반대했으며, 군사 정권의 연장에 관한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귀하가 그를 새로운 주요 군 세력으로 평가하는 집단 내에서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가 그와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쿠데타 세력의 3월 16일 결정에 대한 그의 명료한 지지에 관해서, 우리는 그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한다. 3월 22일에 군사적 통합을 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군 세력에 파벌주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상과, 많은 군인들이 군대가 정치에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는 인상, 그리고 대다수가 여전히 군대는 내부의 방위 역할, 특히 대중적인 움직임에 반대하는 역할을 하지 않다는 한국의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9. 비록 우리는 민간-군 조합의 실용성과 내구성에 대하여 회의적이지만, 선거를 기다리는 동안 단기간의 잠정적인 타협으로서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타협 아래 박 의장은 확대된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동아리 활동에 제한되어 있어야 하며, 명백히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밖으로부터의 충고에 근거한 혼자서 결정하는 최근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10. 적절한 시점에 귀하는 우리의 견해로는 김종필의 한국으로의 귀환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한 전망에서 보면 모두에게 가장 불운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박 의장이 알게 하여야 한다.

11. 국방성도 같은 생각이다.

러스크(Rusk)

1963년 4월 1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5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윤보선, 허정 그리고 박 의장의 4월 1일 아침 회의의 결론에서, 이후락은 세 사람은 1시간 넘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가졌으나 아무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후락은 윤보선과 허정의 요청에 따라 12명의 실무급 그룹이 4월 1일 15시에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그룹은 각각 윤보선과 허정이 지명한 두 대표단과 민간 정치인들에 의해 지명된 헌법을 전공한 한 명의 변호사로 구성될 것이다. 정부 측 대표는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인 강기천과 박현식, 입법 기관의 장(長)인 문홍주,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다른 자문위원들과 고문들을 포함한 7명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락은 또한 더 이상 세 거두들의 회담 계획은 없으며 최종적인 정부 결정이 며칠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2. 회의 말미에 간단한 성명에서 허정과 윤보선 모두 아무런 합의와 원칙을 이루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허정은 또한 실무급 그룹은 양측의 특수한 입장을 연구하도록 계획되었다고 말했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1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60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우리는 만약 쿠데타 세력이 야당 지도자들과의 현재의 대화를 중단하고 3월 16일의 결정을 진행한다면 미국 정부의 성명이 워싱턴에서 작성되어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귀하는 모든 논평을 거절해야 하며 워싱턴에서 만들고 예측한 논평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2.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성명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쿠데타 세력이 민간 정치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결정과 군사 정권의 연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는 진심으로 쿠데타 세력이 이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1961년 5월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쿠데타 세력이 1963년 선거를 통해서 민간정부를 복귀시키겠다는 거듭된 맹세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쿠데타 세력의 현 결정은 급작스럽게 사태를 바꾸었고, 우리는 그것이 한국에 대한 우리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위의 대략적인 성명에 대한 귀하의 논평을 요한다.

4. 만약 박정희가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면 미국 정부가 발표해야 할 성명의 일반적인 내용을 그에게 알려줄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국민투표에 관한 박정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귀하의 노력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러스크(Rusk)

1963년 4월 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5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본인은 4월 2일 아침 박 의장과 만나 대통령의 서신을 전달했다. 우리는 내용을 즉각적으로 발표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에게 전했지만, 만약 한국에서의 사태가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미국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사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박정희 의장은 내용을 공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 본인은 그 다음에 (대사관 전문 748호 2항에서) 의장의 주목을 끌었던 어떤 생각들에 관해 의장의 비서실장에게 질문했던 며칠 전의 비서실장과의 대담에 관해 언급했다. 본인은 현재 의장에게 이러한 견해들을 반복하도록 분명한 지침을 받았으므로 다음의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하였다 :

   A. 본인의 정부는 귀하의 정부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만 할 뿐인 국민투표에 관한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귀하가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어떠한 성명이라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에게 본인의 정부에게 알리고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한다.

   B. 본인의 정부는 세 번의 회담은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합의된 결론을 찾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결론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적 해결책을 위한 토대를 찾기 위해 회담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C. 본인의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성급하고 편파적인 결정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3. 박정희는 그가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사전 통보 기간이 필요한지 질문했다. 본인은 그가 본인에게 통보한 후에 본인 정부의 견해들이 상당히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며 의장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인 정부의 견해들을 듣고 싶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4. 박정희는 본인에게 사전에 알려줄 계획이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미국이 혁명정부가 스스로 답을 찾는 상황을 올바르게 평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은 3월 16일의 국민투표에 관한 발표는 미국에게는 가장 심각

한 문제를 야기했으며 그가 앞으로 어떠한 성명을 발표하더라도 그 전에 미국 정부의 생각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5. 박정희는 윤보선과 허정과의 회담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의 정부는 현재 국민투표를 계속할 것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계획대로 과도정부를 설립할 것이다. 본인은 회담들은 국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한 해결점에 도달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 대안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만약 어느 측이라도 주어진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할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면, 진정한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의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인에게 다짐했으며, 본인에게 "본인의 서신에 친절하게 답장해 준 케네디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6. 논평 : 정치인들과의 회담을 진행하는 방법과 위에서 의장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명백한 것은, 그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국민투표는 4월 25일 거행될 것이고 잇따라올 계획된 과도 민간-군사정부의 당위성을 설명할 성명을 발표할 의향인 것이다. 본인이 그가 성명 이전에 통보와 언급할 기회에 대한 우리의 요청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나 참모총장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어느 누구도 편파적인 결정을 받아들이려는 것을 확실히 설득하여 단념시키려고 하거나 야당들과 개방된 생각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야당 정치인들은 박정희가 협상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들은 정부의 계획에 맞서 계속해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우리에게 알려왔다. 윤보선은 국민투표와 정부의 계획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는 그들이 타협된 해결책에 대하여 문을 닫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

7. 전개될 다음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까다롭고 미묘하다. 만약 의장이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면 본인은 공식적인 성명으로 정면충돌을 하는 것은 피하고 한국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에 우리가 검토하고 논평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된 성명이라도 통보해준다면 감사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 추가적인 변화는 여러 형태로 일어나기 쉽다. 본인은 국민투표와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증하리라고 예상하며 언론의 비판에 제약, 체포, 계엄령에 반대하는 시위대들과

사태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군대의 동요를 가져올 만한 현상이 초래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은 이것이 우리 입장에 영향을 미칠 매우 실질적이고 염려스러운 문제점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2일
유엔군사령관 발신전문
발신 : 유엔군사령관, 대한민국 서울
수신 : 태평양사령부 합참의장
전문번호 : UK 50205 CC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C) 다음은 한국에서의 현재와 앞으로의 가능성들에 대한 본인의 느낌과 평가와 군사적 관심사를 나타낸다. 본인에게는 극동아시아의 안보는 한국 문제에 대한 학리적인 취급보다도 훨씬 더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2. (C) 현 군사정부는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수행했던 그 정부와 혼돈하지 않아야 한다. 현 정부는 훌륭하게 착상된 것이었고 모든 사항에서 훌륭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나라 정부의 안정을 가져왔다. 비록 그 최초의 혁명적인 맹세들이 아직도 정책의 길잡이 이지만, 불규칙한 조치들과 그에 대한 연루,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패는 정부 구조와 동시에 민주공화당을 약화시킨 강제적인 사임들을 가져오는 사태를 야기했다.

3. (C) 군사정부는 우리가 박정희의 권력의 배경으로 생각하며 김종필의 남아있는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군 참모총장들의 후원으로부터 그 힘을 모으고 있다. 증거들이 박정희에 대한 군 최고 지휘관들의 충성은 그들 나라의 정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바램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견을 입증하고 있다.

4. (C) 과도정부의 정권이 현재 제안한 것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 의해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군대는 허정이 1960년 과도정부의 내각수반으로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슬픈 기억을 포함하여 정치인들을 의심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5. (C) 박정희의 정당한 신념에 대한 의심만큼 군대도 정치인들의 정당한 신념에 대한 의심을 가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한국의 다른 정치 혹은 사회단체에서처럼 그 이상은 아닐지라도 군대에서도 그만큼 청렴함이 나타나고 있다. 본인의 생각으로, 박정희의 임시 변통적인 해결책들의 어느 정도는 군사혁명의 목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의해 주도되는 강력한 후속 정부를 만들려는 우선적인 욕구를 비롯하여 미국의 욕구에 대한 박의장의 평가에 기인하고 있다.

6. (C) 정부의 활동들은 이러한 권력 투쟁 기간 동안에는 정체되었지만 사태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권력 경쟁은 미국 정책에 대하여 보도한 언론의 개별적인 해석에 편승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 자신의 이권을 위해 미국 정책에 대한 설명을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그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전술들로 상당한 힘과 확신을 얻고 있다.

7. (C) 상호간에 합의된 임시 연합정부가 하나의 해결책이며 그러한 변형된 형태는 이미 박정희에 의해 주창되어 왔으나, 정치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박정희의 계획에 포함된 애매한 기간의 연장 때문에 그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관직을 위해 투쟁하는 최소한 11개의 정당들과 함께 하면서 결속된 군대의 지원이 없는 연합정부는 힘에 있어서 불확실하다. 그러한 정부가 6개월 이상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치인들은 군대에게 양보해야 한다. 박정희는 여전히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강한 사람이다.

1963년 4월 2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볼(Ball)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60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앞으로 며칠 동안 귀하는 정부 측의 핵심 지도자들과의 설득적인 노력에 특히 분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귀하의 판단으로 귀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박정희의 결정이 장차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원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사적인 방식으로 언급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그러한 언급은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대사관 전문 686호) 이후락 장군의 성명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한국의 언론에서의 추측을 언급함으로써 꺼낼 수 있을 것이다. 귀하는 이것은 미국의 원조 계획에 대한 매우 세련된 이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의문점은 미국 정부가 한국 내부의 정치적 사태에 영향을 줄 경제적 원조 계획을 이용하려고 할 것인지 아닌지에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의 계속적인 상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 국민과 의회의 지지 정도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것이다. 만약 쿠데타 세력이 민간정부로의 전환에 대한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먼저 얻지 않은 채 군사 정권을 연장하려는 계획을 진행한다면, 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현재의 대중들의 비판은 어쩔 수 없이 강화될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커다란 원조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행정부의 능력은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3. 귀하는 사태의 전개가 수반할 수 있는 환경의 파괴는 심각한 원조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한 환경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불안정 어느 것에 의해서라도 파괴될 수 있다. 끝.

볼(Ball)

1963년 4월 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6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박정희와의 4월 2일 회담은 (참고전문 A) 정부가 야당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3월 16일의 결정을 진행시키려고 생각한다는 우리의 견해를 강화시켰다. 그것은 국무부가 본인의 가장 최근의 회담에 대한 보고서를 받기 전에 발송했던 참고전문 B의 내용에 따른 행동을 지시하도록 국무부를 이끌었던 결론이었다. 그러므로 참고전문 B는 우리의 즉각적인 요청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2. 새로운 요소가 이후 추가되었다. 이동원 비서실장은 오늘 우리에게 박정희가 4월 5일에 발표하기로 계획된 성명의 초고 문안을 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길, 이 초고의 제시와 유엔 업무와 국방위원회(UN Affairs and Defense Committee)를 위한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의장인 김희덕 장군이 4월 1일 본인을 방문함으로써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부의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려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 장군의 언급은 상당히 산만해서 본인은 그들이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이상하기까지 한 통지 방식으로 본인은 우리가 현재 공식적으로 통보 받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3. 이동원에 따르면 초고 문안은 박정희가 아직 승인하지 않았으나, 3월 31일 저녁에 열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도달한 견해와 결정들을 나타내고 있다. 초고 성명의 전체 문안은 다음 전문에 나올 것이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민간 정치가들의 참회의 부족과 국민감정과 주권을 부정하는 (즉, 미국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견책

   B.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는 계획의 재확인은 현재 민간정부로의 즉각적인 이양과 불특정 기간 동안 “범국민적 과도정부”로의 이양 사이에서의 하나의 선택권으로서 정의되고 있다.

4. 그가 문안을 정치 고문에게 보냈을 때, 이동원은 미국과 군사정부 사이에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대안적인 해결책을 탄원했다. 그는 박정희는 본인이 4월 2일 그에게 나타냈던 (참고전문 A) 견해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고 결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원은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 가능성들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약술해 나갔다 :

   A. 헌법상 최종 기한인 1963년 12월 26일 안에 민간정부를 설치하기 위해 1963년 후반기에는 선거를 실시할 것, 예를 들면 허정의 계획이 그것

이다.

B. 위의 (A)와 같으나,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조항을 더한다.

C. 위의 (A)와 같으나, 박정희가 합동참모본부장이 되고 군대와 민간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에 합의한다.

D. 위의 (A)와 같으나, 박정희는 이 시점에 3월 16일의 국민투표에 대한 제안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보다는 "일시 정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치 활동은 재개할 것이며, 만약 사태가 우호적으로 진전된다면, 국민투표의 "일시적 정지"는 영원할 것이고 2월 27일의 맹세로 복귀될 것이다.

E. 선거들은 올해에 개최될 것이지만, 모든 정당들은 박정희의 단독 대통령 후보에 동의한다.

5. 비록 이동원은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이라고 말했으나, 우리는 이것이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 선수를 치는 것이고, 단지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주어져야"만 하는가를 보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이러한 제안들이 윤보선과 허정과의 대담에서는 나오지 않았는지 질문했을 때, 이동원은 그것은 불가능했다고 대답했다. 대신에 그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사이에서 도달할 해결책을 요구했다. 박정희는 윤보선과 허정의 태도 때문에 더 이상은 그들과 협상하지 않을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추측컨대 그가 의미하는 것은 박정희는 윤보선과 허정에게 승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6. 또한 "박정희에 의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된 성명의 문안 전달은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입장의 단호함을 미국에 통감시키려는 움직임으로 고안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대한 야당의 "사대주의"와 관련된 경멸적인 언급은 미국에 대한 일종의 협박으로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 이동원은 이와 관련해서 그것들을 "완화되게" 그 경멸적인 문장을 다시 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7. 이동원은 그의 견해로 4항의 대안 (D)는 박정희가 수용하도록 "설득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박정희가

야당의 요구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정서에 맞서 완전히 3월 16일의 성명을 철회할 수 없으나 결국은 그것을 사장시킬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것의 실행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정희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가 이러한 대안을 정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박정희를 진퇴양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고 그가 그것의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동원의 언급에서 박정희의 후퇴 입장은 아마도 4항의 대안 (C)가 될 것이다. 다른 대안들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8. 본인은 이들 대안들의 상대적인 장점이나 유효성을 분석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동원이 박정희를 위해 한 말이란 것을 확신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박정희는 결국 그것이 얼마나 "범국민적 과도정부"로서 위장하고 있고 탈출구를 찾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국민투표에 의한 군사 정권의 연장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수도 있다. 대안 (D)는 단지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다. (한편으로 그는 추가적인 경제원조를 제공하도록 미국을 설득하기를 바랄 것이다.) 대안 (D) 아래 그는 정치 무대의 무질서 때문에 미래의 "안정"을 위하여 군사 정권의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할 것이다. 하지만, 있게 될 내부의 반응과 특히 미국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하면 다시 한번 스스로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9. 이동원의 대안적 해결책들은 박정희의 승인을 받았고 미국이 활용할 "출구"로서 계획된 것들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박정희가 국민투표 발표를 성취하려고 계획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이던, 우리는 현재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10.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그들 자신의 해결책을 풀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으나, 그 원칙은 상호간의 확신의 결여와 적개심의 강도 때문에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 사태는 우리가 박정희와 그 반대파에게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조용히 일지라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국무부가 결정해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박정희가 허정과 윤보선과 해결책을 협상할 의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우리가 양측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해결책을 얻

어내도록 수 있다면 박의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11. 국무부의 이전 지시를 고려하고 미국의 성명이 참고전문 B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돌려서 말한다고 해도 국민투표에 대해 제안하는 성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것을 박정희와 국가재건최고회의, 참모총장들에,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국무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것으로서 분명히 해야만 할 것이다. 본인은 따라서 국무부가 본인이 다음의 내용들을 따라 나아가도록 지시할 것을 고려해 주길 건의한다.:

A. 국민투표와 "범국민적 과도정부"에 대한 박정희의 계획된 성명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만약 그것이 달성된다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반대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박정희에게 알린다. 바람직한 것은 그리고 나서 국무부에 의해 제출된 초고 성명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B. 박정희에게 미국은 군대의 거듭된 맹세를 수행함으로써 헌법 체제 안에서 선거들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설립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대의적 민간정부를 수립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C. 박정희가 4월 5일의 그의 계획된 성명을 1963년에 민간정부로의 전환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D. 만약 그가 우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해결책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요청한다면, 박정희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야당들과 대안을 연구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에 관하여 1963년 후반까지 선거들의 연기, 국민투표 제안에 대한 보류, 그리고 박정희 지휘 아래 과도정부의 확장을 포함하는 4항 (D) 문안에 따른 해결책의 수용에 관한 국무부의 견해를 요청한다. 미국은 나중에 파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진실로 그러한 과도정부와 일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허정은 이미 3월 16일의 제안을 유보하는 것보다는 철회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한 해결책을 받아들이겠다는 그의 의향을 나타냈다.

12. 본인은 박정희가 제안한 성명을 철회할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도 하고 싶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해야만 하고 참고전문 A 7항에서 언급했던 삭감 정책을 채택해야만 한다. 우리는 참고전문 B의 2항에서 제안한 성명을 연구하고 있다.

13. 이 전문의 답변을 속히 요청한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6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다음은 참고전문에서 언급했던 박 의장의 초고 성명의 자유로운 번역이다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상황들의 현실성들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들어가기 전에 정치 체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과도정부의 시기를 수립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루어 내기 위해서, 본인은 국가적 국민투표의 실시를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정치적 믿음을 3월 16일에 밝혔습니다."

"그 이후 구 정치인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본인은 만약 정치인들이 과거 잘못의 반성으로서 3월 말까지 정치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날 것을, 본인은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민간정부로의 이양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본인의 결정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인의 충정어린 이 제안에 대해 최소한도의 반응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위와 '행진'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방식에 개입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분별한 사대주의적 행동들에 의해 그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날 국가적 치욕감이라는 아물지 않은 상처에 치욕적인 못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타고난 조건에 근거한 주권정신과 자치능력은 민주주의의 원

동력입니다.”

“국민적 권리를 위한 안전과 그런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가 없는 민주적 체제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외국 신문이 논평한 것처럼, 신발은 발에 맞게 만들어져야지 발이 신발에 맞도록 다듬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노력은 스스로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자치를 위하여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왔고 이것은, 본인이 믿기에는, 우리와 함께 피를 흘렸던 자유 우방국들에 대한 우리의 귀중한 대답입니다.”

“본인과 선의를 가진 수많은 애국적인 동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 결국에 지나친 사대주의자의 말과 행동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신생국들의 독립의 민주주의 정신과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본인은 상호간의 조정에 근거한 상호 이해와 정치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본인의 노력으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계속적인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들을 기초로 해서 협상하는 것을 거절했고, 그들의 극도의 완강한 태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팽배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본인은 편협한 사고방식과 극단적인 투쟁방식을 갖고 있는 이들 전직 정치인들과의 어떠한 협상도 결국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더구나, 본인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본인의 3월 16일 성명에서 나타냈던 국가적인 국민투표의 실시에 의해 민간정부 혹은 민간정부 이전의 과도정부 사이의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 각각의 그리고 모두의 의견을 묻겠다는 정부의 현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실정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 특히 불가피한 4.19와 5.16 혁명들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권력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오늘날 다시금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확실히 국가적인 비극이며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권력은 특별히 의도되고 현존하는 정치적 세력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들만이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수 있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간정부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민간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국민적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을 과도정부를 위한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 각자 그리고 모두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나라와 국가적 운명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유엔군 사령관(CINCUNC), 서울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UK 50198
관리번호 : 001-102-2001-0000092 Box 129

1. (U) 미국의 입장에 대한 발표는 상당히 선정적인 언론 기사들과 어우러져 상당한 반미(反美)주의를 자극했다. 우리는 이것의 어느 정도는 당국의 의향을 담은 것이고,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신문들의 뉴스기사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C) 비록 정부의 몇몇은 미국의 입장에 감사하고 이해할지라도, 전반적으로 보아 그들의 영향력은 강력하지 않다.

3. (C) 본인의 실제 생각은 반미(反美)주의의 흐름은 군대로 퍼질 수 있고 분열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비교적 작은 사안들은 정도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고 그것은 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지휘명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 (C)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사안은 전방 육군 부대들의 막사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비교적 소액의 63 군사원조계획(MAP)의 변형에 대한 요구이다. 본인은 이것은, 만약 승인받지 못한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반미(反美)주의와 같은 것을 자극할 수 있는 단지 하나의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업무가 성공적이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은 이 반미(反美)주의가 공산주의의 선전을 확산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5. (C) 군대가, 영국 전문 50185호에 보고된 3월 22일의 그들의 행동에서 보듯이, 확고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그들의 생각에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으며, 단 한 명의 대변인을 통해서 행동하며, 불행하게도, 그들은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문제들에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다. 합동 회의를 통해 얻어진 어떤 해결책에서도, 우리는 군대가 단호할 것과, 혁명 이면의 동기들과 혁명의 맹세들이 지켜질 것과 미래의 정부들에 의해 그들에 대한 역습이 없어야 한다는 보증을 요청해야만 한다. 워싱턴은 군대는 정치에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한국군은 국내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표명해왔다. 본인이 가까운 장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대가 정치적인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내부의 방위 분야에 있어서도 안정을 창출할 수 있는 지배적인 세력이라는 것이다.

6. (C) 역사적으로, 그들은 안정된 세력이었다. 그러므로 이 반미(反美)주의가 그들의 방위 역할과 안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킬 정도로 군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과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임무는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염려하고 있다. 만일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반미(反美) 물결을 부추기는 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영향력은 꽤 위태롭게 될 것이다.

7. (C) 맥나마라(McNamara) 장관의 대한민국 군의 감축 가능성에 대한 하원에서의 증언의 발표는 오늘 오전 한국 언론의 전면을 장식하였다. 이 시점에서 2월에 있었던 이와 같은 증언의 발표는 클레이(Clay) 도보와 함께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8. (C) 본인은 현재의 이러한 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용어들을 동원한 온건한 발표들을 촉구한다.

1963년 4월 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6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언론은 4월 3일 오늘 계속될 실무진 회담을 특종기사로 보도했다. 야당은 군사 정권을 12월 26일까지 존속할 것과, 국민투표 계획의 철회에 대한 보답으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과, 올해 선거들을 관리할 성실한 과도정권의 창출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여전히 정부의 제안들에 한정된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다른 신문기사들은 군사 정권에 대항하는 운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직 민주당원들인 민정당 의원들의 모임을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은 민간 정치인들은 협상 중단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정부가 즉시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3. 그러나 여러 대안적 계획들이 표면에 떠돌고 있다. 고위층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 과도정부의 연장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의 연기가 고려되고 있다. "정상" 회담을 마련하는데 일조했고 박정희와 친밀한 것으로 알려진 퇴역 장군 김웅조는 두 타협안이 회담의 의제였다고 밝혔다. 두 계획들은 윤보선과 허정에게 은퇴할 정치인들 명단을 제출할 것과, 올 9월에 권력을 이양할 것을 요청했다. 한 계획은 박정희가 대통령에 입후보할 것을 인정했고, 다른 것은 그에게 모든 군대를 관할하는 오성(五星) 장군이 될 것을 요청했다. 김웅조는 윤보선과 허정이 합의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윤보선과 허정이 응하지 않아 회담의 실패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4. 그 밖의 전개 사항들: 박정희와의 회담을 보도했던 (대사관 전문 764호) 세 명의 민정당 의원들은 분명히 중앙정보부에 구류되어 있었고, 중앙정보부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인정했다고 했다. 참고전문에서의 설명에 덧붙여 정부는 또한 박정희가 "목숨을 걸고" 정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부정하고 있다. 언론은 또한 AP 통신이 민간정부의 복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박정희에게 보낸 케네디(Kennedy) 대통령의 답변에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협상에 의한 타결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링컨 화이트(Lincoln White)의 논평을 전하고 있다. 대통령의 원조 전문 역시 특집 기사로 다루어졌다.

논평 :

5. 언론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3월 16일의 제안의 영속성에 대해, 그것은 대사관의 가용한 다른 정보와 그 밖의 다른 곳에서 보고된 사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72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장관과 해리먼(Harriman)에게만 보고할 것

1. 4월 3일 오후 경제계획위원회 의장 대리는 박 의장의 고문이며 의장과 허정, 윤보선 사이의 회담에서 상황을 후원하고 있는 중개자인 김웅조 장군이 발표한 견해에 답변하기 위해 상급 대사관 관리를 긴급히 만날 것을 요청했다.

2. 한국군의 핵심 지도자들은 미국 군대가 군사정부의 연장에 대한 생각을 지지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충분히 오랫동안 버틸 수만 있다면, 미국 군대의 영향력은 연장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올 것이라고 박의장에게 말하고 있다. 김 장군은 멜로이(Meloy) 장군은 가능한 빨리 주요 군 지도자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 귀하를 위한 정보: 몇 사람의 미국군 장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무분별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인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고, 멜로이 장군은 이것을 중지시킬 조치들을 취했다. 귀하를 위한 조언 끝. 오늘밤 본인은 멜로이 장군에게 다음의 3가지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요 군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평가할 필요에 대해 말했다 :

   A. 만약 한국 군대가 정치 활동에 관계하길 고집하고 미국 군대가 고취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던 비개입의 전통을 버린다면, 그것은 조만간 한국 군대의 사기와 전투력에 심각한 결과와 함께 그들을 분열시킬 것이다.

   B. 미국 정부의 정책은 군사 정권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선거들이 올해에 실시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군사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한국과 마주 보고 정책들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

C. 미국 군대는 앞서 말한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

4. 오늘밤 저녁식사에서 멜로이 장군은 이들 방침에 따라 김종오 참모총장에게 강력하게 애기했고, 멜로이 장군과 본인은 회담을 계속하기 위해 4월 4일에 다시 김 장군을 만날 것이다.

5. 멜로이 장군의 노력에 대한 지원으로 그리고 이 전문과 관련 없이, 귀하가 테일러(Taylor) 장군에게 멜로이 장군에게 전문을 보내 미국 군대는 한국 군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 영향력은 군사 정권의 연장에 반대하도록 주요 군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최대한도까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도록 요청해 줄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3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볼(Ball)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61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귀하가 참고전문 A의 11항 a, b, c에서 제안한 행동 지침을 승인한다. 참고전문 B에서 국무총리가 요청하긴 했으나 필요하다면 11항 d 역시 승인될 것이다.

2. 만약 귀하가 참고전문 A의 11항에서 나타냈던 대로 국무부의 초고 성명 내용을 박 의장에게 준다면, 미국의 원조에 관해 명쾌하게 털어놓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한 언급을 승인하고 있는 국무부 전문 605호는 박 의장의 부하들에게 이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논의들에 있어서 의장이나 그의 중재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반미(反美) 성명에 대한 구실을 줄 것이다.

3. 다음은 참고전문 A의 4항에 있는 5가지 대안들에 관해 귀하에게 지침이 되게 하려는 우리의 논평들이다. 참고전문 A의 4항에 약술된 5가지 대안적인

해결책 중 어느 것을 지지할 우리의 능력은 양측의 신뢰에 달려있다. 5가지 대안들의 어느 것에 대한 실행 가능성도 역시 박 의장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달려있다.

A. (대안 A의) 1963년 후반기 선거들에 대한 허정의 계획과 1963년 12월 20일 이전에 민간정부로의 이양은 우리에게 가장 수용 가능한 것이다.

B. 우리는 (대안 B의) 박 의장의 대통령 입후보를 쉽게 반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결코 그것에 대한 반대를 표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2월 18일과 27일, 그리고 3월 16일 입장의 변화 이후 자유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대안은 선거들의 자유에 대한 불확실함을 일으킬 (현재 다른 대안들보다는 덜하지만) 위험스러운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이다.

C. (대안 C의) 민간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합동참모본부장으로서의 박정희의 임명은 그를 민간 지도자단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게 할 입장에 올려놓으려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D. 호의적인 상황전개에 따른 3월 16일의 결정에 대한 유보(대안 D)는 올해 선거 실시에 대한 핑계를 미리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박정희의 체면을 살릴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민간 정치 지도자들은 아마도 올해 사실상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 대통령 후보로서의 박정희에 대한 모든 정당들의 합의(대안 E의)는 비현실적이다.

4. 만약 귀하가 대안 D가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야당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귀하가 참고전문 B에서 요청한대로 우리의 생각에 대안 D가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현재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알릴 것을 승인한다.

5. 비록 한국 정부로부터의 가장 최근의 요청이 더 이상 야당과 귀하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귀하가 개별적으로 야당 견해에 대해 보고하고 논평할 것을 요청한다.

6. 국방성도 같은 의견이다.

볼(Ball)

1963년 4월 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7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국무총리는 4월 3일 저녁 본인에게, 현 위기의 해결을 위한 최고의 희망사항으로 제안된 1963년 말 선거와 국민투표의 보류를 대비해 이동원이 대사관에 제기한 대안 계획은 그의 생각이었다고 전해왔다. 그는 만약 미국이 그 계획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박정희를 납득시킬 수 있고 야당지도자들에게 막다른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 국무총리는 그 계획이 미국에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한국 정부는 모든 주요 정치 지도자들과 문제점을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재차 요청하지는 않았다.

3. 논평 : 이 계획에 대한 국무총리의 대단한 관심은 그것이 가능한 해결 방법이고 박정희에 의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야당의 승인을 얻을 것이라는 그의 낙관론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우리의 영향력을 끼워 넣지 않아야만 한다고 믿게 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만약 야당이 그 계획에 협력한다면, 국가적으로 수용할만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7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대사관은 대통령의 “병합하고 있는 민주적 통치형태(A Merging Pattern of Democratic Rule)”라는 문구의 의미 해석을 요구하는 언론과 한국 관료들에게 휩싸였다. 사태는 UPI통신이 머리글과 본문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민주적 통치형태(An Emerging Pattern of Democratic Rule)”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사실로 인하여 복잡해졌다. AP 통신 기사는 케네디의 말을 머리글에서는 “emerging”이라고 인용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그의 말을 “merging”이라고 인용하고 있다.
2. 대사관은 또한 “민주적 통치의 발전(Blossoming of Democratic Rule)”과 “국민을 위한 결정(Decision for The People)” 문구들의 해석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통신원들의 질문도 받았다. 친정부 인사들은 후자를 국민투표의 승인으로 해석했다.
3. 미국 통신원들은 위의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본인을 만나기를 요청했다. 본인은 대통령의 성명에 관해 언급할 생각이 없으며 우리는 그것은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당사자인 한국 사람들에게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야당 정치인들은 현재 기자 회견을 하고 있고 본인은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반응에 대한 보고를 할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4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볼(Ball)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612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정확한 문구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형태(An Emerging Pattern)”이다.
2. 국무부는 대통령의 반응은 미국의 3월 25일 성명의 재확인과, “민주적

(democratic)" 즉, 민간인(civilian) 통치는 국민들에 의해 동의될 것이며, 박의장이 현재 회담들의 결과로서 "민주적 통치의 발전(Blossoming of Democratic Rule)을 허락하기를" 바란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는 국민투표가 국민들의 "판단"에 대한 정당한 표현을 나타내지 않을 것임에 주목했다. 대통령의 의견은 확실히 현재의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의 3월 21일 답변과 국무부의 3월 25일 성명의 연장인 것이다. 대통령은 현 위기의 미국적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언론의 견해에 반박하고 있다.

3. 4월 4일자 미국 해외 정보국(USIA)의 Signals를 통하여 게재된 대통령의 답변에 대한 뉴욕 타임즈의 특별 논평에 주목하라.

볼(Ball)

1963년 4월 5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알제리공화국) 알제리 미국대사관
서울 미국대사관
아디스 아바바 미국대사관
(수단) 하르툼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1553호, 615호, 516호, 25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평양 라디오 방송은 4월 1일 허석신(Ho Sok-sin)을 알제리(Algeria) 북한 대사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대사관은 확인과, 북한의 외교 관계의 확대를 막고 있는 미국 정책 입장에서 이 북한 외교대표에 대한 알제리의 승인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도록 어떠한 영향력을 사용할 것인지를 청해왔다. 대사관은 알제리 정부와의 교섭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기니 (인민혁명공화국)와 말리 (공화국) 만이 북한 정권과 완전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비공산주의 국가들이다. (기니 공화국의 수도 코나크리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는 또한 말리 공화국에도 공인되어 있다.) 그러나 정

권은 예멘, 우간다 그리고 아마도 그밖에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과도 완전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 새로운 외교 관계들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프리카를 순회하고 있는 이수용(Yi Su-yong) 유엔(UN) 대한민국 대사의 왕성한 노력의 응답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북한 정권과 대조를 이루어, 대한민국은 이미 50개 이상의 자유세계 국가들과 외교 관계들을 갖고 있고, 한국 안건이 투표에 부쳐졌을 때인 지난 12월 유엔의 전체 회의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48년 12월 이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서 유엔에 의해 인식되어 왔고,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의 완전한 회원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엔 산하 많은 기구들의 회원인 반면 북한은 어느 기구의 회원도 아니다.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 해서 알제리는 결국 자유세계에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통일아랍공화국(UAR),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확고한 중립국들조차 북한과 완전한 외교 관계를 사절했으며, 영사(領事) 혹은 상사(商事) 수준에서 북한으로부터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동등한 대표를 승인했다.

이러한 정보에 따라서 알제리 정부와의 교섭에 있어서 대사관은, 그것의 신중성에 있어서, 미국이 알제리 정부가 대한민국을 따돌릴 효과가 있을 어떠한 최종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결정을 재고하거나 최소한 대한민국이 현재 입장의 향상 기회를 가질 때까지 연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다. 알제리를 향한 대한민국의 호의적인 의향은 1962년 7월 4일 새로운 알제리 공화국에 대한 승인 문서에 나타냈다.

추가 배경정보는 1962년 6월 27일 의 RFE-28과 국무부의 출판물들인 “한국 통일에 관한 기록, 1943-1960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과 “한-미 관계의 역사적 개요 (A Historical Summary of United States -Korean Relations)”에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모든 부서에 보내졌다.

아디스 아바바와 하르툼 미국대사관 귀하 : 대사관들은 앞서 말한 것을 정보를 위해 이수용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미국대사관 귀하 : 대사관은 포노프(Fonoff)와 교섭할 것을 부탁했고 알제리에서 북한의 노력에 대항할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다.

러스크(Rusk)

1963년 4월 5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61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해리먼(Harriman)으로부터 대사에게
참고전문의 5항에 포함된 요청을 테일러(Taylor) 장군과 논의했다. 멜로이(Meloy) 장군에게 적절히 조언하려는 테일러 장군을 이해한다.

러스크(Rusk)

1963년 4월 5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8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한국 언론은 4월 5일과 6일 계속된 협상과 궁극적인 타협에 대한 전망에서 낙관적인 보도를 했다. 정부는 국민투표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고 윤보선과 허정은 다음 주 회담에 대한 희망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 단체들은 또한 정부가 12월 26일까지 권력을 이양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대사관 전문 775호에서 보고됐던 계획들에 대한 타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정희의 입후보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2. 미국의 태도들에 관한 통신사 기사들은 계속해서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스펜서 데이비스(Spencer Davis)는 원조 수준에 영향을 끼칠 정치적 위기는 군사 정권 연장에 계속적인 미국의 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다른 기사들과 함

께 4월 5일과 6일에 보도되었다고 전했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8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외무부장관은 본인에게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알려왔다. 정부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4월 10일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추론과 불명확함으로 보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4월 8일 저녁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는 오전에 그 계획을 설명하고 그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윤보선과 허정을 만나고 있었다. 그밖에 다른 밀사들은 다른 주요 정치 인사들을 만나고 있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오늘 오후 계획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미 통과가 확실한 것이었다.

2. 외무부장관은 우리에게 공식적인 번역문을 보낼 것이지만 우선 대략적인 정부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

   A. 정부는 정당 지도자들과 완전한 협의 후에 헌법의 틀 내에서 9월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B. 정치적 활동들은 즉시 재개될 것이다.

   C. 정부는 정당들의 질(質)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재정비를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고할 것이다. (그는 현재 너무나 많은 소수 정당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D. 3월 16일의 성명과 헌법을 바꾸기 위한 법적인 절차들(국민투표 계획)은 9월까지 보류될 것이다.

E. 한편 정부는 국가적 안녕의 문제들(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외무부장관은 정부는 올 후반기에 선거들을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을 발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 시점에서 3월 16일의 입장에 대한 번복으로 너무나 좋지 않은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들이 선거들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 계획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할 것임을 알아주기를 원했다. 외무부장관은 성명에서의 핵심어들은 헌법의 틀 안에서의 선거와 정치 지도자들과의 완전한 협의 후에 결론을 내린 타협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본인의 반응을 알고 싶어 했다. 본인은 만약 기본적인 윤곽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면, 국가적으로 수용할만한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것이라며 국민적 반응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태도를 유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4. 외무부장관은 방식은 합리적이며, 정부는 이 기본대로 진행해 나가야만 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몇몇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그들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정부가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5. 알게 되는 대로 반응뿐만 아니라 가능한 빨리 성명의 본문을 보낼 것이다. 우리가 알릴 때까지 국무부는 논평을 유보할 것을 권한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8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다음의 성명은 4월 8일 박 의장의 결정 하에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대변인

이후락이 오후 라디오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비공식적인 번역문이며 불필요한 말들은 생략됐다) :

"정부는 5.16 혁명의 이상을 계승할 새로운 책임 있고 능력 있는 민간정부의 탄생을 돕기 위해서 올해 1월 초에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허용했다. 그러나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 불과 3개월밖에 안된 오늘날의 정치 상황은 긴장과 혼란을 가져왔고 훌륭한 시민들에게 경악과 불안을 야기했다.

정치계에서 그러한 상황들은 즉각적으로 전반적인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전해진 바에 의하면 지난해의 흉년에 이은 사태는 국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앞으로의 삶을 위협받는 상황을 가져왔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정치 경제적인 불안과 함께, 질서유지와 공공복지의 책임에 대해 나태했음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 나라는 혁명 정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구시대 정치인들의 점유물도 아니다. 정치적 상황의 개혁을 정부에 의해 할 것인가, 혹은 구시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대중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인 것이다. 만약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원칙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정치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타협할 시기인 것이다. 권력의 이양에 대해 염려하기 전에 본인은 정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힘겨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그들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희망에 대한 반응으로 절박한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다. 본인은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라며, 그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바란다.

1) 3월 16일 성명에서 제안한 개정된 헌법의 수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9월말까지 보류될 것이다.

2) 9월 중에 정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혹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모든 정당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전반적인 정부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3) 한편 정부는 행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고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4) 정치적 활동들은 다시 허용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정당들은 정치적 상황의 개혁을 이행할 것이며 정치계의 정화가 기대된다. 같은 시기에, 구(舊) 정당들은 새로운 정치적 풍토를 만들고 정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그리고 건전한 민간정부로의 권력 이양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될 것이다. 긴급사태의 해결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마련될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8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성명은 박정희가 그의 3월 16일 성명에 의해 스스로 자초했던 곤경에 대한 쿠데타 세력의 "해결책"을 나타낸 것이다. 얼마간 박정희의 체면을 살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그러한 확실한 성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철회와 올해 선거에 대한 확실한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국민투표나 선거들에 관한 결정을 연기하고 9월에 검토와 토론을 요구함으로써, 성명은 군사정부의 영속이나 2월 27일 맹세에 상관없이 박의장의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2. 우리는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의도는 올해 선거들을 실시할 것이라는 이전의 약속을 확인했고(대사관 전문 777호 12항 C와 D) 이런 식으로 성명을 해석하도록 사전에 경고받았다. 만약 박정희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다시 번복하고 군사 정권을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그들은 미국의 반응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현재 알고 있다. 게다가, 심지어 가을에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현재의 언급조차도 번복하기 쉬운 것이어서 계획들의 실질적인 실시 여부는 오직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만 나타날 것이다.

3. 성명의 세 가지 긍정적인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

   A. 4월에 국민투표에 대한 계획이 억제되었다.

   B.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 혹은 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를 9월에 결정하고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약속이 있다.

   C. 정치 활동의 금지가 해제되었다.

4. 해결책은 정치 지도자들과의 토의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의 합의된 국가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들은 그것이 정면충돌을 피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선거를 실시하려는 계획에 대한 분명한 공표의 결여는 그들로 하여금 쿠데타 세력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허정의 입장은 그의 제1보좌관 의하면 윤보선보다는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의 정당은 성명이 즉각적인 국민투표를 없앤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 단계 더 필요한 것은, 소위 가을의 선거들에 대한 발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윤보선이 생각하는 대로 정부가 선거를 실행하지 않고 군사정부의 연장에 대한 국민투표로 되돌아가려는 결정만을 9월에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초의 입장으로서 허정의 정당은 정부에 의해 선거들을 확신하는 더 추가된 수정안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윤보선은 공개적으로 성명에 반대하고 있고 3월 16일 제안에 대한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 우리는 야당에게 국무총리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록 야당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위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야당에게 완전히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해야 할 것은 조용히 전해져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본인은 야당에게 성명은 위의 3항에서 언급했듯이 3가지 긍정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우리가 성명에서 의미하는 방향을 보건대 그것은 올해 선거들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그들은 이 추측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허정의 견해와 선거들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즉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의 정당에 근접하는 것이다.

6. 성명이 발표된 이후 본인은 이 시점에 군사정부에 의한 더 이상의 양보의

기회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성명은 올해의 선거들에 대해 가능성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자주 반복함으로써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박정희가 후보로 나온 (새로운) 여당에 대항하게 될 정치적 운동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를 압박하는 것 이외에 다른 옵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7. 대사관은 여기에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무부에 모든 성명들을 보낼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8일
Meloy가 Taylor에게 보낸 전문
발신 : 한국, Meloy 장군
수신 : 워싱턴, Taylor 장군
전문번호 : KRA 362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한국 군대에서 20만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에 관해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에 대한 소문들은 서울의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이것에서 정치적 성과를 올리고 있고, 소문에 더하여 그것들은 참모총장들 사이에, 특히 김종오에게 상당한 염려를 야기하고 있다.

본인은 그 문제에 관해 어느 측에서도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다. 귀하가 알고 있듯이, 본인은 이 시점에 한국 군대에서 감축하기를 권하지 않는다. 본인은 만약 어떠한 그런 행동들이 논의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정치적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몇 달 동안 그와 같은 발표는 보류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정치적 진전을 보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 당장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잠시 냉정해지는 것이다.

1963년 4월 10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볼(Ball)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632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우리는 이 시점에 외무부장관이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참고전문 5항에서 지적했던 이유에다, 대통령의 일정은 실질적으로 외무부장관의 이른 방문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는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을 떠나 있을 것이고 돌아와서도 일정이 매우 바쁘다. 새로운 대한민국 대사는 아무리 빨라도 5월 초순까지는 신임장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박정희가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서신이 전달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면 한가지 가능성은 귀하를 통하거나 한국 대사에게 국무부를 통해 서신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가장 빠른 방법들이다.

2. 우리 생각에는 서신은 만약 그것이 올해 선거들을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공약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거의 효용이 없을 것이며, 만약 공약이 공식적이 될 수 없다면 즉각적인 실용성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무부장관의 방문과 서신은 어쩌면 우리가 박정희와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에 의해 최근 발표된 성명에 마지못해 동의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불리한 상황에 미국을 처하게 하기 쉬운 은밀하거나 암묵적인 공약의 방문과 수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황당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우리는 비록 많이 놀라지는 않았지만, 정 대사를 김정열로 대신할 계획에 대해 알게 된 것에 유감스럽다. 배경에는 한국 대사관 관리가 국무부에 털어놓은, 새로 도착한 이장희 정치 영사의 항의에 대하여 4월 4일경 박의장에게 정대사가 보낸 개인 서신에서 자신의 권고를 담은 미국의 견해에 대한 솔직한 보고서가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김정열의 순응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건주의자로서 그리고 민간 야당 지도자들과 훌륭한 개인적 관계를 가지면서 쿠데타 세력에 친밀한 몇 인물 중 하나로서 한국의 사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

4. 반대로 조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정열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참고전문에 대해 고려할 의향이 없다.

볼(Ball)

1963년 4월 1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80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이후락은 4월 10일 언론에 말하길, 박 의장은 같은 날 아침 그의 자택에서 수많은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A) 그는 전직 정치인들은 올해 권력의 이양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삼갈 것이고, B) 앞으로 2년 동안 필요로 하는 정치적 안정은 모든 과거 정치적 당파들의 협조로 범국민적 정당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희의 논평은 아침 신문에 홍종철을 비롯한 몇몇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이 (대사관 전문 794호에서 보고되었던) 전날 이후락의 언급을 비난했다고 보도 이후에 나왔다. 홍종철은 만약 정치 무대에 필요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권력의 이양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됐다. 4월 8일 성명에 대한 언론의 전반적인 회의적 태도에 힘입어, 야당들은 군사 정권의 연장에 반대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12월 26일까지 권력의 이양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을 재촉했다. 윤보선과 허정은 3월 16일의 성명을 철회하라는 합동 선거전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0일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같은 시각 야당 조직 활동들은 평소대로 당파적 갈등들과 함께 재개되었고 민주공화당은 해산을 논의했으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2. 미국의 견해에 대한 고찰은 줄어들었으나 2개의 신문들은 4월 8일 성명과 계획들에 불만스러운 미국이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동 아시아 담당자를 보낸다고 주장하는 일본 언론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또한 미국은 이케다(Ikeda) 수상이 외무부장관에게 단순히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해 군사

정권의 유지를 지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한편, 모든 서울의 신문들은 이케다(Ikeda)가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버거(Berger)

1963년 4월 29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83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1. 1월 이후 우리는 쿠데타 세력과 내각 위원들의 민첩한 변화에 의해 명확해진 경제적 안정화에 관한 협상과 정치적 위기에 대한 하루하루의 추이에 골몰하여왔다. 갑작스럽고 극적인 상황변화들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곳의 사태에 대한 워싱턴의 이해에 필요한 정치, 경제, 심리적 평가를 동시에 올려놓기는 불가능하게 했다. 선거에 관한 결정을 9월까지 연기하기로 한 4월 8일 박정희의 성명으로, 그리고 어떤 반(反)통화팽창적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지난주 미국대외원조처(USOM)에게 한 한국 정부의 약속으로, 현재 워싱턴이 내려야만 할 어떤 정책 결정들과의 즉각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과도기적 평가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인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 세력들의 역할, 현안들과 개인들에 대한 대사관의 분석을 이번 주 보낼 예정이다. 우리의 현재 생각으로 쿠데타 세력 내의 온건주의자들은 군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국민투표 제안은 한국에서의 안정에 대한 전망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토대를 찾기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강력한 입장은 이 결론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나, 그것은 또한 한국 자체에서 반대적 조치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 사실 본인은 후자가 4월 국민투표를 포기할 결정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3. 잘된다면, 올해 선거를 통해서 한국에 정치적 해결을 가져오는 문제들에 대해, 온건한 군대와 민간 지도자들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토와 비밀 회담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몇 주 혹은 몇 달이면 결과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긴장감은 진정되었고 내부 충돌의 즉각적인 위험은 방지되었다.

4. 정치적 상황의 이 휴식으로 이 나라의 관심은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에 얼마간 기인했던 경제적 불안정에 더욱 더 집중되고 있으나, 1962년에 발생해서 1963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통화팽창의 압력에 중심을 두고 있다. 산업 생산, 세금 징수 그리고 수출은 1/4 분기에는 잘 버텨나갔으나, 국내 물가의 상승, 외국환 보유의 하락, 그리고 두드러진 물가 상승 통화 팽창의 예상에 따른 증대하는 사재기 경향은 현재 이 나라에 상당한 불안감을 낳고 있다. 정부는 신용 제한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3월에 몇 가지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주 미국대외원조처(USOM)와 예산을 삭감하고 적자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올바른 방향에서 근본적인 방책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정부가 1963년 대차 계산에서 그것들을 수정하도록 하는 압력에 저항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정치적 해결을 찾으려하는 앞으로의 결정적인 4개월 동안 우리 눈앞의 문제는 정부가 안정화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안정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유지하도록 도울 미국의 행동지침들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하는 일이다.

5. 현재 긴급한 문제는 쌀 가격의 상승 추세이다. 이것은 올해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예상해 비축해 두려는 농부들과 상인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으로 얼마간은 1962년의 더 적은 수확량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며, 얼마간은 그들이 더 많은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쓰고 있는 지난 18개월 동원 인구의 가장 커다란 계층의 부풀려진 수입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한국 자체의 곡물 공급에 더하여 1962년 6월 합의로부터 밀과 보리의 이월(移越)과 함께, 1962년 11월 미국 잉여곡물양도법(PL 480)의 합의 아래 제공된 단 40만 톤의 밀은 1961년과 거의 마찬가지로 같은 양의 식품 섭취량으로 올해 동안 한국 국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나, 그것이 전체 국면에 퍼져있는 심리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리고 더 높은 소비 유형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 11월에 햅쌀을 수확할 때까지 본인은 공급을 감소시킴에 따라 쌀값의 심각한

압박을 예상하고 있다. 신용대부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5만 톤의 쌀을 수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비축해 두려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유발하고 가격 압박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나,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과 외국환 보유의 감소에 대한 염려는 현재 한국 사회에 아주 상당히 뿌리 깊게 박혀있고, 이들 두 가지 조치가 쌀값에 있어서 더 한 층의 상승을 저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6. 추가적인 미국 잉여곡물양도법(PL 480)의 밀에 대한 우리의 성명 시기와 참고전문에서 요청된 것처럼 추가적인 특별조치는 중요한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인은 최소한 미국 잉여곡물양도법(PL 480)을 위한 우리의 요청을 지원한다는 즉각적인 워싱턴의 결정은 앞으로의 중대한 4개월 동안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에 공헌할 것이라고 강력히 느끼고 있다.

7. 요약하면, 본인은 한국은 지금 쉴 새 없는 불안전과 초조한 불안정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선거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나 안정화 조치에 대한 수행 지침을 가질 때까지 미국 잉여곡물양도법(PL 480)에 대한 성명을 보류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의 좌절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원조를 발표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끌고 싶은 정치적 경제적 방향에서 현지 인사들과 현지 상황에 영향을 미칠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 몇 달 동안 일본과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고 어업에 있어서 이권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원의 흔적들은 일본이 한국 정부와 결말을 짓도록 설득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5월 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85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6 Box 129

1. 박 의장, 국무총리, 기타 정부 지도자들 대구로 여행 중인 대사는 참고전문의 언론 보도에 의해 모두 방해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AFP 통신 기사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정보 없이, 대사는 국무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통고했다 :

   A. 출마여부의 결정은 박정희에게 달려 있다.

   B. 우리는 올해 선거의 중요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C. 선거의 시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워야 하며, 우리는 정부가 그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야당과 상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2. 대사는 이 시점에서 워싱턴의 성명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무부가 문제들을 제안해서 링컨 화이트(Lincoln White)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건의한다.

버거(Berger)

1963년 5월 7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뉴욕 미국유엔(USUN)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2797호, 68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스티븐슨(Stevenson) 대사와 버거(Berger) 대사에게만 보고

대통령은 현재 18공수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해밀턴 하우즈(Hamilton H. Howze) 중장을 대장으로 승진시켜 미8군의 사령관이며 유엔 사령부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임명하는데 동의했다. 그는 8월 1일자로 퇴역 장군 명단에 오르게 될 멜로이(Guy S. Meloy, Jr.) 장군을 대신할 것이다.

그의 많은 중요한 임무들 중 하우즈 장군은 1959년에서 1960년까지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이었다.

이 임명에 대해 유엔(UN)과 한국의 관련 당국들에게 이 임명에 대하여 조언하고, 지명이 대통령에 의해 상원에 제출될 때까지 그들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도

록 요청하라.

대통령이 5월 10일 오전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5월 8일이나 9일에는 귀하의 통고들을 마치고 워싱턴 시각으로 5월 9일 16시 00분 이전에 국무부에 사실을 보고하라. 추천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라도 보고하라.

러스크(Rusk)

1963년 5월 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뉴욕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409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하우즈(Howze) 장군

국무부 전문 2797호를 통하여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 최고사령관으로 하우즈 장군을 지명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 오늘 UN에 통보했다. 사무총장은 현재 이곳에 없지만 (유엔의) 얼쿠하트(Urquhart)는 통보에 감사를 표했고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유엔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질 것인지 궁금해 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무부는 어떻게 우리가 지난날 명령의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들을 처리할지 알려줄 것을 건의한다.

스티븐슨(Stevenson)

1963년 5월 9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뉴욕 미국유엔(USUN)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 : 2824호, 68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스티븐슨(Stevenson) 대사와 버거(Berger) 대사에게만 보고

1. 워싱턴 시각으로 5월 14일 11시 00분에 맞춰 현재 하우즈(Howze) 추천에 관한 상황을 알린다. 그 시각까지 정보 누출을 막아주기 바란다.

2. 국무부는 하우즈의 상원의 승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전문으로 귀하에게 조언할 것이다.

미국 유엔(USUN) 귀하 : 하우즈 승인에 대한 정보를 받는 즉시 하우즈의 임명에 관해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도록 요청한다. 문서는 멜로이의 임명 시기에 맞게 제출되도록 빈틈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1961년 3월 28일 S/4773을 참고하라.

서울 미국대사관 귀하 : 문서로 선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게 알릴 때, 귀하의 판단에 따라 귀하는 하우즈의 이전 경력에 관한 정보에 대해 참고전문을 이용하도록 하라.

러스크(Rusk)

1963년 5월 2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91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동경대사관 버거(Berger) 대사에게

1. 다음은 5월 24일 조선일보에 실린 문명자 기자의 워싱턴발 기사의 번역문이다 :

"특정 지위를 가진 국무부 관리는 5월 22일 대한민국 군대의 상황이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의 상황과 비슷함을 강조했다. 즉, 만약 대한민국이 권력을 이양하는 확고한 질서를 성립하지 못한다면 독재정권은 독재정권을 매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독재자의 생성과 몰락이 반복된다면 국가 발전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겨우 5시간 전에 김정열 한국 대사의 새로운 부임에 대해 워싱턴에 있는 한국 기자들에게 간단하게 발표했던 관료는, 한국에 대

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에서의 군사 정권의 연장은 한국의 안정과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2월 19일과 2월 25일의 성명들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한국 군사 정권의 연장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대는 거의 확실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 직에 입후보하리라는 박의장의 가능성에 관한 논평에 대한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그 관료는 미국은 만약 의장이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 세력에서 후보자로서 관직에 입후보할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가 민간인으로서 입후보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억양으로 봐서 미국이 김종필 의장의 입후보는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관료는 군사 쿠데타 2주년 기념에서 쿠데타 세력이 민간정부로의 권력 이양에 대한 일정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들을 실시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아직까지는 아무런 사설적인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버거(Berger)

1963년 5월 2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92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4 Box 129

버거(Berger) 대사가 국무부에 보냄

1. 본인은 5월 28일 오전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그를 만났다. 의례적인 인사 후에, 그는 더 이른 아침에 박 의장과 만나 본인을 정치적 사태에 끌어들이길 희망하였다고 언급했다. 김종필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초기의 대사관을 언급하며 박 의장은 현재 새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김종필을 한국에 돌아오게 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는 박정희에게 김종필을 심지어 더 오랜 기간 외국에 머물게 하도록 조언했다.

2. 5월 27일 민주공화당 대통령직 후보에 대한 박정희의 반응에 대해 질문했

고, 국무총리는 박정희는 단지 관심을 표현했다고만 대답했다. 과정에서 범국민적 정당(PNP)의 준비과정을 언급했다. 최초의 계획은 범국민적 정당과 민주공화당을 합병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현재 이 계획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박정희가 민주공화당 지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다". 대신에, 박정희는 합병하기를 기다릴 것이고 새로운 당의 총재로서 입후보할 것이다. 국무총리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모르지만, 2주 정도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지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 국무총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은 현재 민주공화당을 해산시킨 후에, 범국민적 정당(PNP)과 민주공화당의 합병에 호의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공화당에 의해 그러한 결과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고, 국무총리는 그들이 박정희가 합병을 희망하는 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박정희는 5월 28일 저녁에 민주공화당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합병할 것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4. 국무총리는 범국민적 정당에 합류하도록 교섭 받았던 김도연, 이범석, 변영태와 같은 민간인 지도자들은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2,000명이 넘는 전직 정치인들과 이전 정부 인사들을 비롯한 젊은 정치인들, 특히 전직 자유당원들은 들어올 것이다.

5. 국무총리는 범국민적 정당과 민주공화당 모두는 효과적인 합병을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을 협상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민주공화당을 해산시키려는 이전의 바람은 지난 몇 주에 걸쳐 민주공화당 세력의 부상을 감안한다면 가능하지 않다. 지금은 양 측 모두 협상을 해야만 하고, 이 협상은 박정희의 희망을 감안하면 성취되어야만 한다. 새 정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주공화당의 몇몇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들은 제거되어야 하고, 권력의 분배와 다양한 관련 집단 속에서 지명이 분배되는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제는 즉시 시작되어 성공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국무총리는 이러한 상황들 아래 박정희의 선거는 과거의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승리할 만큼 강력한 야당 후보자가 없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0월에 대통령 선거를, 11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각은 사전 일정을 준비하기를 희망했고 대통령 선거를 9월 24일에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한 달 후에 하는 것으로 일단 건의했다.

논평 :

7. 정부 내에 급작스런 정치적 움직임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 온건주의자들은 민주공화당이 안전하고 우세한 위치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고, 범국민적 정당을 별도로 밀어내려는 시도에 반대했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선거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발생된 것을 가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정당을 위한 계획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에 설득 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착수에 있어서, 민주공화당의 입장은 민주공화당의 해산과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서 범국민적 정당의 생성이라는 이전의 계획에 비추어, 합병과 관련된 두 주요 요인들 중의 하나로서 남아있다. 그 때문에 민주공화당은 중요한 역할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온건주의자들과 민간 위원들 사이의 동맹이 민주공화당의 기구를 수용할 만큼 충분히 강력할 것인지 보여줄 수 있게 남아있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만약 국무총리의 말이 입증되면, 온건주의자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분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공화당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마지스트레티(Magistretti)

1963년 6월 26일
유엔군사령관 발신전문
발신 : 유엔군사령관
수신 : 합동참모본부
전문번호 : UK 50419 CC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멜로이(Meloy)로부터 테일러(Taylor) 장군과 펠트(Felt)장군에게 단독.

1. 참고전문 :

A. 대사관 전문 1030호.

B. 대사관 전문 990호.

2. (U) 일련의 자연 재난들은 지난여름 이후 이 나라를 괴롭혀왔다. 우선, 1962년의 모내기 시기가 시작될 때의 심각한 가뭄은 지난 가을 쌀 수확에 있어서 매우 불충분한 수확을 하게 했다. 올 봄의 때 아닌 홍수는 올해의 벼 수확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태풍 셜리(Shirley)는 대한민국의 남부 지방에 30cm 이상의 비를 퍼부었고, 약 3일마다 같은 지방에 25cm 이상의 억수같은 비를 퍼부음으로써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지방 농토의 상당량이 완전히 범람되어 이들 지방에 남아있던 보리와 야채밭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한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식량난에 접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C) 일반 대중은, 특히 서울과 부산 지역의 사람들은 상당한 염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규모의 식량 폭동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들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와 어떠한 종류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은 이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치적 가능성과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하여 교사된 혼란의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4. (C) 오늘 오후 본인은 지난 2월과 3월의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를 비롯해 본인이 위의 상황들을 보아 온 것과 마찬가지로 절망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국방부장관과 4개 군 참모총장들의 방문을 받았다.

5. (C) 본인의 생각에, 대한민국은 되돌아보면 다소 덜 중요하게 보이는 지난 6개월의 정치적 위기의 오랜 시간 동안 직면했던 최악의 위기 중 하나와 마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C) 대한민국 관료들은 식량 공급은 대략 2주 안에 서울과 부산에서, 7월 중순까지는 몇 개의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8월 초순까지는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에서 바닥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평가는 과장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곡물의 도착 시기는 가장 중요하다.

7. (C) 본인은 미국 대사에 의해 권고된 수량의 미국 식량의 전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할 것과, 한국 국민들에게 재차 확신을 주고 심각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 특별한 노력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길 권고한다.

미 육군성 61064.

1963년 6월 2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유엔군사령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80746Z호, (육군 전문)UK 8059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1. 1963년 6월 24일 05시 15분 그리니치 표준시의 영국(UK) 전문 50409호 8항 참고.
2. 6월 28일 조선인민군은 유엔 사령부(UNC)의 6월 25일 편지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인용시작. 6월 25일자 귀하의 편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1963년 5월 17일 불법적으로 우리 영역 영공을 침범해서 현재 우리 측에 의해 체포된 귀하의 군인들에 관한 문제는 제 168차, 169차, 170차, 171차, 172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들과 제 258회 장관 회의에서 논의되어왔다. 심지어 1963년 6월 10일자로 귀하가 본인에게 서신을 보낸 이후조차도, 귀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2개차 회의들에서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들었다. 인용 끝.
3.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선인민군 측이 처음으로 그들이 조종사들을 데리고 있고 또한 조종사들이 구금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1963년 6월 30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볼(Ball)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86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귀하는 대한민국에게 북한의 쌀 제공을 거절하라고 조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서 제공받은 곡물은 필요에 상당하는 것이고, 북한은 자체가 곡물 수

입국이며, 참고 전문 B에서 지적했듯이, 선전 목적을 위해 제공하려는 것이다.

볼(Ball)

1963년 7월 1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볼(Ball)
수신 : 동경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1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1. 국무부는 5월 17일 이후 두 명의 미국군 대위의 북한 억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7월 1일 일본 대사관의 추루미(Tsurumi) 영사를 불러들였다. 일본 정부에 대한 요청을 요약하면, 6월 27일과 28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사관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 (참고전문은 동경대사관에 전송되었다). 특히 일본이 요청 받은 것들은: (1) 북한 인사들에게 운송 권한을 주는 것을 거부할 것과; (2) 북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무역 거래를 좌절시킬 것이다. 국무부 관료는 일본과 북한 사이에 계획된 정기적 운항 서비스에 대한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에 압력을 미칠 추가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서비스의 개시를 늦출 것을 건의했다. 추루미 영사는 보고하여 일본 정부의 견해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무부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2. 대사관은 외무부장관과 함께 헬리콥터 조종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무부의 교섭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대사관은 비록 단지 두 사람의 개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지라도, 두 사람의 석방을 얻어내기 위한 모든 합당한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미국 정부에 의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볼(Ball)

1963년 7월 1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볼(Ball)

수신 : 런던 미국대사관, 서울 미국대사관, 웰링턴 미국대사관, 오타와 미국대사관, 캔버라 미국대사관호, 태평양사령부 정치고문, 동경 미국대사관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7월 1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대사관들은, 6월 29일 군사정전위원회(MAC) 회의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석방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통보해왔다. 그에 따라 대사관들은 참고전문에서 약술되었듯이 북한에 제한된 비군사적 압력의 적용에 대해 그들 정부들에게 요청하도록 요청 받았다고 알려왔다.

유사한 교섭이 7월 2일 캐나다 대사관에도 전해질 것이다. (7월 1일은 캐나다 공휴일이다.)

볼(Ball)

1963년 7월 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3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1. 대사관은 외무부장관이 국무부장관과 다른 부서 관료들과 논의할 동안 지적된 주제에 대해 다음의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검열삭제)

3. 대한민국 경제적 상황. 외무부장관은 식량 사태와 미국 곡물의 추가 선적의 필요성과 미국의 경제적 원조에 대해 계속적인 필요성에 집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열삭제)

대사관 관료들은 기대를 저하시켰고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계급에게 되풀이하고 있는 주안점인 무상원조의 감소 경향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부장관은 경제적 부분에서 워싱턴으로부터 어느 정도 실제적인 이익이 되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대할 것이다.

(검열삭제)

4. 대한민국 정치적 상황. 국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들을 실시할 계획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표명하기를 기대할 것으로 외무부장관은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국무부장관에게 이들 계획들을 독려하고, 어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고, 그러나 선거들은 진정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바램을 강조할 것을 건의했다. 우리는 워싱턴의 외무부에게 합류하고 있는 박 의장의 비서실장인 이동원 박사가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할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는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적이고 유능한 이야기꾼이다. 정치적 상황의 논의 과정에서, 국무부는 미국의 견해를 표명하고 싶을 것이다. (검열삭제)

5. 머지않아 발표할 국제연합총회(UNGA). 외무부장관은 아마도 이 대사에 의해 약술된 전략을 되풀이할 것이다(참고전문 B). 국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이 대한민국 외교공관들이 지금부터 국제연합 총회 때까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국가들과 함께 가능한 한 많은 외교적 사절단의 기초 연구를 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6. 대한민국 외교대표단의 확장. 외무부장관은 확장 계획에 있어서 미국의 도움을 구할 것이다. (검열삭제) 국무부장관이 특정 경우들에 대한 논의 없이 확장에 대한 지지를 하겠다는 일반적인 성명을 발표할 것을 건의한다. 외무부장관은 관계 확장에 있어서,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에서의 북한의 노력에 대해 틀림없이 논의할 것이고, 미국과 대한민국의 방침들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 타협하려고 할 것이다. 국무부는 이 생각에 대한 미국 노력의 한계를 지적해야 할 것이고 특정 문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가능성들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관료들은 때때로 대한민국 정부와만 관계하도록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관한 여론을 과장하고 있으므로, 특정 국가들에서 동등한 수용을 얻어낼 수 있

는 북한의 능력의 위험성에 대해 그들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버거(Berger)

1963년 7월 16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1. 제 174차 군사정전위원회(MAC) 회의는 7월 16일 11시 00분에 소집되었다. 다음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UNCMAC)와 조선인민군(KPA) 사이의 대화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다 :

UNCMAC : 회의는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귀환에 대한 논의를 거절한 귀하의 불법적인 태도에 항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KPA : 귀하는 조종사들이 우리의 영토에 침범했던 5월 17일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 귀하는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들 조종사들은 범죄인들이며 그들을 되돌려 보낼지 여부는 우리 측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다. 만약 귀하가 오늘 회의에서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귀하를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귀하는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이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해군 위반 행위들의 책임들)

UNCMAC : 우리는 귀하의 책임들을 조사할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는 조종사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조종사들을 범죄인들이라고 하는 귀하의 처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본인은 조종사들은 우연히 귀하의 영역에 들어간 것임을 되풀이한다. 우리는 본의 아닌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다. 조종사들의 계속적인 감금은 불법이다. 귀하는 조종사들의 석방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KPA : 조종사들이 범죄인들이 아니라는 귀하의 언급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은 휴전에 총체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우리의 영공에 침범했다. 귀하의 바보 같은 언급을 되풀이하지 말라. 사과 대신에, 귀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고 귀하가 얼마나 크게 말하던 간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비무장지대(DMZ) 병기들을 발포한 위반에 대한 책임과 계속적인 위반에 대한 경고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UNCMAC : 책임에 대해 물을 것이다. 조종사들이 범죄인들이 아니라는 우리의 주장은 귀하 역시 그들이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므로 귀하를 당황하게 했음이 틀림없다. 본인은 귀하에게 왜 귀하가 조종사들에 관한 문제에 대답할 수 없는지 혹은 대답하지 않는지 밝힐 것을 제의한다. 귀하는 언제 조종사들이 귀환될 것인지는 귀하 측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에 관해 언제 귀하가 알려줄 것인가?

KPA : 귀하는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로 되어 있으나, 침입자들을 계속해서 두둔하고 있다. 모든 귀하의 언급들은 죄인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휴전 위반에 대한 방지를 위해 귀하의 힘을 아끼도록 하라. (비무장지대에서의 무기 위반에 대한 책임들)

UNCMAC : 제 173차 군사정전위원회(MAC) 회의에서 본인은 위로 물품을 조종사들에게 전달해 주길 제안했었다. 귀하 측은 거절했다. 본인은 이 HKF 요청을 되풀이한다.

KPA : (여러 가지 비무장지대에서의 위반에 대한 책임들). 귀하의 질문들은 이전의 회의에서 답변했다.

UNCMAC : 주장하고 있는 위반들에 대해 물을 것이다. 본인은 조종사들에 대한 문제로 돌아간다. 제 258차 장관 회의에서 귀하 측은 조종사들과 가족들 사이에 서신 교환에 있어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 받았었다. 우리 측은 귀하가 이 합당하고 인도주의적인 제안에 따라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

KPA : 본인은 귀하가 어디서 귀하가 귀하의 질문들에 답변을 찾을 것인가 기록하기를 권한다. (6월 25일 비무장지대 위반에 대한 책임들)

UNCMAC : 본인은 조종사들의 귀환에 대한 협상을 준비해왔다. 귀하는 이 문제를 피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고 있다. 본인은 언제 어디서

귀하가 조종사들을 돌려줄 것인지 답변해주길 바라고 있다. (휴회를 제기함)

KPA : 여러 가지 비무장지대에서의 위반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UNCMAC : 본인은 귀하가 귀하 측의 고위급 관료이며 협상을 위임받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귀하가 조종사들의 귀환에 대한 협상 시도를 무시하고 단지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는 위반들에 대해서 읽고만 있는 것을 보니 이 인상은 잘못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

KPA : 귀하는 귀하의 위반 사항들을 숨길 수 없다. 지난 기록들은 귀하가 우리의 책임 요청에 대한 조사에 대해 936회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단지 890회의 조사 기록만을 제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UNCMAC : 본인은 귀하의 진술에 언급하겠다. 귀하는 조사에 관해 때가 되면 통보받을 것이다. 다른 문제에 관해 논의 할 것이 있는가?

KPA : 귀하는 왜 귀하가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으면서 귀하가 책임들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휴회에 동의함)

2. 회의는 13시 05분에 중단되었다.

버거(Berger)

1963년 7월 1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2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1. 국무총리는 7월 16일 본인에게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고 본인은 1시간 반 동안 무엇이 말해지지 않았는지 혹은 반만 말해 졌는지에 대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었다.

2. 그는 본인이 정부에서의 최근 변화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는지 묻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본인은 그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가볍게 대답했

다. 본인의 일은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이고, 지난 4일간 그 일들을 해왔다. 그는 변화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선거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며, 정부 정책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김은 의장과 회의에서 방금 돌아왔고 이렇게 말하도록 지시 받은 것이 분명하다.) 본인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국무총리는 그리고 나서 말하길, 한국 중앙정보부의 새로운 책임자인 김형욱 대령은 중앙정보부가 정치에 가담하지 않고 국가 안보에만 집중하도록 지시 받았다고 했다. 본인은 미소 지었고, 국무총리는 "본인은 그가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켜봐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4. 국무총리는 김재춘은 박정희가 민간인들을 합류시키 위해서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은 참고전문 4항에서 보듯이 박정희의 말과는 다른 것이다.) 발표함으로써 자유민주당(Lib-Dem. Party)을 창당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에서 축출되었다고 말했다. 김재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질문했을 때, 국무총리는 "그는 다른 방법으로는 합류할 민간인들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5.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는 10월 말 전에 추가로 35만 톤의 곡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것은 미국대외원조처(USOM)와 그들 부서 사이에 합의된 수량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이것에 대한 것이나 다른 어떠한 수량에 대해서도 합의는 없었으나, 추가적인 식량의 필요성은 미국대외원조처와 대한민국 정부 기관들에 의해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6. 이것은 지시 받은 그의 밑천을 고갈시켰다. 본인은 그리고 나서 가격이 상승했고, 외국환 보유고가 하락했으며 내각은 올해의 결산 잔액에 대한 요청으로 추경 예산에서 14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은 이것이 삭감되기는 하겠지만 추경 예산은 가격 상승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본인은 이런 종류의 재정과 회계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질문했다. 그는 경제기획원 의장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만약 이 나라가 앞으로 10일 정도 버틸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상한 말을 했다. 본인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질문했고, 그는 이것은 정확하게 식량이 필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이 언급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고 그것은 아무 의

미도 없거나 어떤 위기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김종필이 인계받기 위해 돌아오고 있거나 오직 하늘만이 그 뜻을 알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7. 본인은 박 의장은 그가 정부를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인에게 얘기했고 곧이어 그것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은 주요 변화들에 대한 소문으로 떠들썩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있는 부하들은 변화들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의장이 정부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의장에게 말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의장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에 관해서는, 그가 정치에 식상했고 물러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8. 지난주 동안 혹은 그 즈음, 주식 시장이 다시 급변하기 시작했고 본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했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파동이 있었으나 심각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대답했다. 본인이 웃자 그는 밝게 웃으면서 그가 정부와 야당들 모두 시장에서 약간의 자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만약 시장에서 손을 떼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이때가 좋은 시기인 것이다. 그는 증권 거래소 소장에게 상당히 주의를 주었다.

9. 본인은 그에게 이전의 대화에서 그가 두 명의 핵심 야당과 두세 명의 소수 야당의 대통령 입후보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키며, 그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그는 야당들은 통합하고 있으며 그는 현재 박정희에게 반대하는 윤보선이나 허정 단 한 사람의 야당 후보자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그는 박정희가 65대 35 비율 정도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 논평 : 국무총리는 본인에게, 그는 물위에서 흔들리는 코르크 마개이며, 그는 정치적 경제적 혼란에 둘러싸인 나라를 보고 있으나 정작 그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인상을 남겼다. 이것은 이틀 전에 경제기획원 의장에 의해 킬렌(Killen)에게 상당한 확신을 주었던 언급에 의해 확인되었다. 원 의장은 정부에 합류했고 군(軍)-민(民) 동맹의 토대에서만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원칙 위에 자유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민주공화당 내의 김종필 집단은 현재 일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자유민주당 민간인들

과의 수용할 수 있을만한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민주공화당의 거부는 건전한 군(軍)-민(民) 동맹을 이룩하려는 희망을 끝내버렸다.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 집단은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만 관심이 있고 그들의 소비 경향들은 이 나라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 집단에 반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지만, 한 시간에서 그 다음까지 그가 사무실에 있게 될지 그는 알지 못했다

버거(Berger)

1963년 7월 17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뉴욕 미국유엔,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159호, 62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오늘 클리브랜드(Cleveland) 차관보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김 외무부 장관은 미국이 제18차 총회(GA)에서 한국 안건을 정확히 제17차 총회처럼, 즉, 대한민국까지로만 확장된 논쟁에 참석할 초대장을 가지고 제17차 총회에서 통과된 동일한 실질적인 결론의 통과가 확보되도록 다루어지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관들은 다른 정부들에게도 유사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리브랜드는 제17차 총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확보되도록 가능한 최선의 결과가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는 몇 번을 강조했으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음 가을 총회에서의 상황이 우세할 것인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차례로 이것은, (1) 공산주의의 태도에, 특히 국제연합(UN)의 능력과 권한과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북한의 태도에도 어느 정도 달려 있고; (2) 대한민국이 민주적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후자와 연관지어, 클리브랜드는 올 가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자유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반면, 자유선거의 실시는 한국 안건에 있어서 총회 구성원들의 입장에 상당히 호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에게,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들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설득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장관은 대한민국은 확실히 가을에 자유로운 민주주의 선거들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가 감시하는 것도 환영할 것이니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을 주었다.

총회의 의사일정에 있어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클리브랜드는 만약 한국의 선거들이 실시된 이후에 한국 안건이 총회에서 논의된다면 한국의 견지에서는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클리브랜드는 또한 만약 한국 정부가 한국의 선거들을 관찰하도록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에게 한국 정부의 초대장이 총회 의장에게 문서로 전해진다면, 이 절차에 더욱 폭넓은 관심을 모으게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한국 정부는 유엔의 권한과 권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에 대해 재확인시키는 것과 같은 접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관은 비록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향에 불과한 성명이 한국 안건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기에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을지라도, 클리브랜드씨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우간다의 오보테(Obote) 수상에게 했던 스티븐슨(Stevenson) 대사와 윌리암스(Williams) 주지사의 성공적인 건의에 대해 그와 그의 정부의 상당한 감사를 표했다. 그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문제의 앞으로의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

제 18차 총회에서 한국 안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의심이 필요도 없어야 하는 한편, 대사관과 미국유엔(USUN) 양측은 미국은 지난해의 방식에 따라 같은 부분의 언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과의 대화에서 매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선거들을 어떻게 시행하는가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이다. 지난해 토론 전에 북한의 과격한 태도는 미국이 총회의 요청된 임무(RES)에서 북한에 조건부 초청장을 발행하는 관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토론에 대한민국 정부만을 참석하도록 초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러스크(Rusk)

1963년 7월 19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7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1. 본인이 오늘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본인에게 선거가 연기될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소문에 대해 들었는지 질문했다. 본인은 그렇다라고 우리는 점점 더 자주 그러한 소문을 듣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러한 소문들에 대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내무위원회 의장 김용선 소장은 현재 박정희에게 선거 일정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총리는 본인에게 세부사항을 전하고 싶어했다 :

   A. 선거 일정에 대한 발표는 7월 28일이나 29일로 한다.

   B. 의장은 8월 15일에서 18일 사이에 현역에서 은퇴한다.

   C. 의장은 3월 18일과 9월 2일 사이에 민주공화당 임명을 받아들인다. (정당 이름은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D. 선거전 시작을 알리는 선거 공포: 9월 2일.

   E. 대통령 선거 : 10월 2일.

2.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는 선거법을 변경하자는 야당의 요구들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

   A. 허용된 연설 횟수는 증가될 것이다.

   B. 허용된 벽보 숫자는 증가될 것이다.

   C. 비록 몇몇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들은 반대하지만,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정당을 허용하는 제안은 아마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수용될 것이다.

   D. 국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방안은 거부될 것이다.

   E. 만약 한 정당 당원이 허용된 경비 수준을 초과하면, 정당 당원은 기소될 것이지만 선거는 즉시 그대로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F. 박 의장은 현재 국가 선거위원회에 2명의 위원들을 지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를 조직하고 산출할 책임이 있다.) 그는 이것을 포기하고 야당에게 이들 2명을 지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야당의 요구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3. 본인은 국무총리에게 정보를 준 것에 대해 감사했고 국무부도 이 사전 정보를 알게 되어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버거(Berger)

1963년 7월 2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9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1. (검열삭제) 만약 우리가 추가 식량 곡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2. 국무총리는 7월 20일 오전 본인에게, 의장은 스마트(Smart) 장군을 위한 송별 점심 식사 후에 본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말했고 박정희를 만난 후에 본인이 그를 방문하기를 요청했다.

3. (점심 식사에서 초조해 보였고 몰두해 있었던) 박정희는 본인에게 남아있기를 요청하지 않았다. 국무총리는 놀란 듯이 보였고 “무슨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없다”는 핑계로 얼버무렸다.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는 말했다 :

A. 그는 완전히 솔직하게 본인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검열삭제)

8차 미국 잉여곡물양도법(PL 480) 합의 아래 제공되었던 최초의 수량에 더하여, 보리 농작물에 대한 밝은 전망에 비추어 75,000 톤을 공급하였다. 작황이 붕괴되었을 때, 올 해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85만 톤에 더하여 우리는 지난해에 이월한 20만 톤으로 즉시 대응했다. 국무총리는 진솔했고 본인도 공평하게 솔직하였다. 지난해 11월 제 8차 합의에 동의한 2주 후에 더 많은

공급을 (검열삭제). 만약 위기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왜 정부는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일찍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는가? 왜 정부는 가격을 2,000원에서 그토록 오래도록 붙잡으려고 했는가? 왜 정부는 곡물로 포도주와 맥주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지난주까지 연기했는가? 사실은 정부가 (검열삭제)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고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워싱턴에 정당화할 수 있을만한 추가량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고 있었다. 본인은 워싱턴은 우리가 1인당 표준으로 1961년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공급된 반입물과 함께 올해의 모든 식량 공급량에 완전히 정통해있다고 그를 상기시켰다. 본인은 문제는 고가(高價)로 식량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로 정부의 총체적인 물가 상승적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7. 논평 :

킬렌(Killen)은 또한 강화된 압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는 햅쌀이 나오기 시작하는 10월까지 필요한 최소량은 맞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급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또한 요청된 40만 톤은 보리 농작물이 나오는 내년 5월까지 필요한 것을 채워줄 계획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제 9차 미국 잉여곡물양도법(PL 480)에서 내년 봄 부족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9차 합의하에 도착한 후에 10월에서 1월 사이 과도기 기간 동안 반드시 도착해야만 하는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전문은 수일 내에 보고될 것이다.

8. 위의 3항에서 국무총리의 논평과 (검열삭제)

우리는 이것을 빈틈없이 따를 것이고 전개가 되는 대로 워싱턴에 보고할 것이다.

버거(Berger)

1963년 7월 3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12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7월 30일 12시 30분에 미8군 G-2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

1. 7월 30일 09시경 문산리 근처 비무장지대(DMZ) 남쪽 11km(7마일)에서 5명의 북한 침입자들로 판단된 일행이 대한민국 국립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그들을 찾고 있는 50명의 국립경찰을 돕기 위해 제1기갑수색 부대(Cav)에서 15명의 미국 군인들이 급파되었고, 한 미국 군인은 침입자들* 체포. 잇따른 총격전에서 1명의 대한민국 국립경찰과 2명의 북한 침입자들이 사망했다. 계속되는 총격전으로 생존해있는 북한 침입자들을 놓쳤다. 사건에 관한 더 완전한 세부사항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2. 미 8군은 제1기갑수색 부대 구역 후방에 대략 4명의 북한 침입자들 각각의 3개 그룹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제1기갑 수색부대 구역은 현재 경계 태세 중이다.

버거(Berger)

*받은 대로의 문장임.
참고 : 국방장관실, 육군, 해군, 공군, 미 중앙정보국에 전달됐음.

1963년 7월 3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미8군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KA 920170 GI (육군 전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1. 한국 표준시 1963년 7월 30일 09시 09분, 대한민국 국립경찰은 7월 29일 (판문점) 남쪽 11km(7마일)에서 5명으로 보이는 북한인들과 총격전을 벌였다.

2. 미국 군인들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1기갑수색 부대가 50명의 국립경찰과 합세하여 수색에 나섰고, 미국군 한 명이 전사했고, 한 명의 대한민국 국립경찰이 전사했으며, 두 명의 북한인이 죽었다.

3. 1군단 (감시 초소) 분석은 제1기갑수색 부대 후방 지역에서 최소 4명의 북한인들 3그룹이 있다는 것이다.

1963년 7월 3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미8군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KA 31348 GI-1 (육군 전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5 Box 129

1. (C) 일반 - 1963년 7월 29일 05시 40분과 06시 00분 사이에 A기병 중대, 제9기갑수색 비행대대, 제1기갑수색 부대의 3명의 구성원들은 알 수 없는 수의 적들에 의해 습격당했고, 2명의 미국 군인들은 죽었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2. (C) 사건의 결과 :

A. PFC의 실러(Seiler), 데살트(Dessart), 포스터(Foster)는 7월 29일 05시 30분 데살트와 포스터가 375 감시 초소에서의 임무를 위해 교대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375 감시 초소로 향하던 중 A 기병중대의 작전 중심에서 떠났다. 29일 06시 45분, 임무 수행 중이던 군인은 그들의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375 감시 초소로 호출이 왔고 그날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 29일 07시 20분, 쉴러(Shealer) 2D 육군 중위와 호프만(Hoffman) 상사는 실종된 교대자를 찾으러 떠났다. 양 측 모두 교대자는 아마도 군 작전지와 375 감시 초소 사이의 진흙 속에 틀어박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B. 약 4km쯤 운전했을 때, 쉴러 중위와 호프만 상사는 CT060035 근처 비무장지대 남쪽 경계선 밖으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진 도랑에 전복되

어 있는 3명의 탑승자가 타고 있었던 1/4 톤 차량과 마주쳤다. 그것으로 PFC의 데살트와 실러는 총을 맞고 죽었고 포스터는 중상을 입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PFC 포스터는 중위와 상사에 의해 그의 부대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그가 가슴과, 배, 둔부, 손을 맞은 것을 확인됐다.

C. PFC 포스터와의 간단한 회담으로 그들의 차량이 작은 다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다리 한 끝으로부터 자동적인 무기 사격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포스터는 또한 2번의 폭발을 들었고, 1/4 톤 차량은 도랑으로 떨어져 전복되었으며 그를 깨끗하게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PFC 데살트는 일어섰고 "트림 총(Burp Gun)"의 두 번째 발사가 그를 쓰러뜨렸을 때 알 수 없는 뭔가를 외쳤다고 진술했다. 포스터는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으나, 누군가 "떨어져(away)"를 의미한다고 믿었던 "cutta"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에 대해 어렴풋한 기억이 난다고 했다.

D. 습격당한 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7.62밀리 SMG에 쓰이는 54개의 탄약통들, 여전히 그곳에 있는 핀과 함께 터지지 않은 소련제 F1 방어용 수류탄 1개, 같은 종류의 수류탄 핀 2개, 습격 지점에서 북-북서쪽으로 대략 200-300미터에서 일본제 검은 고무 비옷 3개를 발견했다.

E. PFC 데살트와 포스터는 M-14 소총으로 무장했었고, 운전사인 PFC 실러는 무장하지 않았었다. 그 2개의 M-14 소총들은 실종됐고 적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한다. 어느 무기도 자동 분리기(Automatic Selector)가 장착되지 않았다.

3. (C) 관련 사건들:

A. 7월 28일 23시 00분, CT83013 근처 제8기갑 수색부대 전투단의 군인들이 잠복해있는 한 매복 지점으로부터 약 35미터 지점에서 DIRKS 저격용 안경을 통해 두 명의 알 수 없는 인물들을 보았다. 매복 지점의 군인들은 M-14와 엽총 11발을 소모했고, 1개의 파쇄성 수류탄을 던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B. 7월 29일 02시와 04시 사이, CT071016 근처 제8기갑 수색부대 군인들이 잠복해있는 또 다른 매복 지점으로부터 50미터 거리 정도에서 목소

리와 움직임을 들었으나, 눈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

4. (C) 평가:

A. 제8기갑 수색부대에 의해 보고된 사건에 비추어 시간과 간격을 생각해 보면, 3명 혹은 4명의 무장한 적들 일당은 발견되었고 총격을 가하고 나서, 그 후에 비무장지대의 북쪽을 향하여 움직였다. 같은 적군 일당과 관련된 3개의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봤을 때, 미국 군인들에 대한 공격은 부대 (감시초소) 구역을 나가려고 들어온 것이거나 시도하려고 하였고 미군 조사팀에 의해 탈출 경로가 차단되었던 것으로 생각했었을 정찰 팀에 의한 필사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었다.

B. 그것은 이 행동이 미국 군대만이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구역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잘 짜여진 북한군의 공격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행동은 강화된 "양키는 물러가라"라는 북한의 반미(反美) 선동 주제와 부합하는 것이다. 그 중대성은 휴전협정 서명 10주년 기념과 관계있는 것이고, 많은 긴장을 자아낸 사건들 중에 처음일 수 있다는 것이다.

1963년 8월 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13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1. 외무부 정치국장 황호을(Hwang Ho-Ul)은 대사관 직원에게 동경 외무부장관 회담의 재개에 대하여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전했다. 황은 대한민국측은 비공식적으로 결국 12마일 경계를 수용할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검열삭제) 그러므로, 외무부장관은 일본인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의지를 다음과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A. 평화선 구역 내에서 고기잡이를 규정하는 어떤 합의를 하며

B. 재산청구권의 재정적 타결 조건 이외에 수산업 경제협력을 이룬다.

2. 외무부장관은 만일 일본이 평화선 내에서 일시적인(1-2년) 어획 제한을 일본의 일 년 평균 어획량(230,000톤)으로 제한하고 수산업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정부는 12마일 경계를 수용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3. 황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내문제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산업에 대한 추가 차관과 어획량 제한에 대한 자국의 어려운 문제를 강조하였다. 나아가 일본 측은 12마일 경계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적인 동의 없이 재무부장관은 EX-IM 차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은 무상원조로 수산업 차관을 보장하는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전문 3항) 외무부장관 오히라(Ohira)가 일본 정부는 재산권청구 타결 방안으로 합의된 총액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수산업 차관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은 또한 만일 어족보존 규정이 평화선 내에서 실행 가능하고, 공정하다면 비공식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의도 합의되지 않았다.

4. 결론이 나지 않은 최초의 외무부장관 회담 이후에 황은 (검열삭제) 대한민국 정부가 12마일 경계선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가 그에 다른 양보를 하는 상황에 근거한 다음의 김-오히라 회담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황은 (검열삭제) 말했다. (검열삭제)

5. 야당의 비난과 일부 대한민국 국민의 염려를 억제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은 라디오 방송 연설과 언론과 수산업 이해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한·일 협상의 사실에 대하여 대중을 교육시키는 광범위한 계획에 착수했다고 황은 말했다. 황은 외무부장관은 또한 그들의 공격의 예봉을 꺾기 위하여 일부 야당지도자들과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6. 황은 또한 정치회담은 외무부 실무 관리들이나 혹은 일본을 대표하는 Caoro와 더불어 8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평 :

7. 황의 낙관과 12마일 경계선 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외무부장관의 언명된 의

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국내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여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때늦게 필수적인 첫 단계로서 협상에 대하여 대중을 계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야당의 비난이 단시일에 쉽사리 억제될 것 같지는 않다.

8. GP-3.

버거(Berger)

1963년 8월 2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알제리 미국대사관 전문 179호, 카이로 미국대사관 전문 492호, 코나크리 미국대사관 전문 132호, 랭군 미국대사관 전문 28호
통보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 102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1. 북한이 5월 17일 이래 붙잡혀 있는 두 명의 미군 대위를 방면하기를 계속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부는 북한이 장교들을 풀어주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선택된 비군사적인 압력을 행사해왔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 :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은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 (a) 북한 요원들의 통행권을 제한할 것, (b) 북한에게 중요한 무역거래를 동결할 것. 또한 적십자 국제위원회는 소련과 공산중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헬리콥터 요원들의 복지와 방면을 요구하였다. 인도도 뉴델리에 있는 북한 총영사에게 대위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남예멘 정부(SYG)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참고 끝)

2. 또한 뉴델리의 북한 대표부는 수취인 우편물의 배달할 사절단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부는 주재국 정부들이 이들 북한 사절단으로부터 대위들의 안녕에 대한 정보와 이들 가족들의 깊은 염려에 근거하는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조종사들을 방면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기꺼이 도움을 줄 것이지 의문이다. 만일 반대가 없다면 외무국에서 적절한 접근을 하도록

Action Posts에 요청한다.

3. 귀하의 재량으로 활용될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추가적 증거는 유엔군사령부가 통제하는 영역에서 두 명을 죽이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미군 부대에 대한 그들의 7월 29일의 살인적 공격이다.

4. GP-3.

러스크(Rusk)

1963년 8월 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14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군사정전위원회 회담(176차)이 8월 3일 11시에 개최되었다. 다음은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에 교환된 대화의 요약이다 :

유엔군사령부 : (7월 29일 매복하여 미군 2명의 사살에 대하여 상세한 묘사를 하였음.) 우리 측은 도발적이고 적대적인 행위에 분개하였다. 귀하는 휴전협정의 사격중지 합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군 : 귀하의 비난이 조사되었으나 전적으로 거짓이었다. 소위 사고는 반미(反美)적 남한 대중에 대한 공격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작된 픽션이다. (남한의 간첩이 7월 19, 21, 27일에 북한에 파견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소위 간첩들이 사용했다는 구명 뗏목과 보트의 모터를 증거로 제시함.)

유엔군사령부 : 어떻게 귀하는 우리의 영토에서 일어난 사고를 조사했는가? 귀하의 가장 최근 공격은 귀측의 무장단이 경계선을 넘어와서 비무장지대 남쪽 약 500미터 지점에서 우리의 요원들과 사격전을 벌였던 때는 현재 회담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났다. (7월 29일 사고의 사진, 수류탄, 실탄 등을 제시함) 본인은 이런 도발을 멈추겠다는 약속을 요구한다.

북한군 : (소위 남한 간첩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유엔군사령부의 공격을 비난함.)

유엔군사령부 : 왜 귀하는 7월 29일 2명의 유엔군사령부 요원에 대한 살인을 부인하는가? 증거는 이 사고가 비무장지대 훨씬 남쪽에서 발생하였으며, 다음날의 사격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살인자들은 계획적인 공격임무를 띠고 귀측에서 파견하였다.

북한군 : (혐의를 부인함)

유엔군사령부 : 우리 측은 7월 30일 사격전에서 사살된 귀하의 요원의 시체를 돌려줄 준비가 되어있다.

북한군 : (사고에 관한 유엔군사령부의 혐의를 계속 부인함)

유엔군사령부 : 귀하는 5월 17일 부주의하게 귀하의 영내에 들어간 유엔군사령부의 조종사들을 억류하고 있다. 이들 조종사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그들을 계속 억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군 : 5월 17일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귀측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현재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사법권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귀하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유엔군사령부 : 세상 사람들은 귀측에 의하여 저질러진 공개적인 테러운동에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제시한 증거와 사실들을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본인은 휴회를 제의한다.

북한군 : 7월 29일 무장한 차량과 두 대의 지프가 귀측에서 비무장지대로 들어와서 그 지역에 1,500발을 사격하였다.

유엔군사령부 : 귀하의 전략은 명백하게 세계가 알 수 있게 노출되었다. 본인은 귀하에게 만일 귀하가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위험한 결과에 대하여 경고한다. 본인은 비록 귀하의 비난이 귀하가 반복적으로 끌어들이는 조작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비난을 자세히 조사하겠다.

북한군 : (간략한 일반적인 선동 성명으로 대응함) 회담은 14시 30분경에 휴회되었다.

버거(Berger)

1963년 8월 5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14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1. 대사관 직원은 대한민국 외무부 미주국장 구(Ku)와 함께 참고전문의 노선에 따라 핵실험금지조약에 대한민국이 가입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구는 조약의 가입문제가 외무부의 조약국에서 숙고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그 조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다면 대한민국이 그 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무언의 승인을 의미한다는 국내의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조약에 가입한 어떤 국가를 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에게 강조하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조약을 서명하거나 가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는 조약의 가입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실한 입장은 조약국의 연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거듭 대답하였다. 그는 하루 이틀 내에 좀 더 심도 있는 대사관-외무부 논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2. GP-3

버거(Berger)

1963년 8월 7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볼(Ball), 장관대리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11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군 병력 규모의 감축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교섭하자는 귀하의 권고는 거부되었다. 현 단계에서 소련과의 관계에 대한 베이징의 의도가 불확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군대를 감축한다는 주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미국 정부는 향후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교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GP-3

볼(Ball), 장관대리

1963년 8월 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15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다음은 대한민국 언론에 실린 리로이 한센(Leroy Hansen)의 기사 내용의 번역이다. (불필요한 단어는 생략.)

1. "한국의 실력자, 박정희 장군이 다시 국민적 약속을 저버리고 오는 가을에 총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이곳에서 명백히 증대되고 있다. 관리들은 복잡한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전망을 논평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지만, 위의 가능성이 한국 상황의 평가에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2. "정부내외의 많은 인사들은 박 장군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1961년 5월에 권력을 잡은 박 장군은 초기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민간인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후에 그는 약속을 취소했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군사 통치를 연장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는 다시 한번 미국의 희망에 응하는 계획을 뒤집고 10월 말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 "현재로서는 선거가 결국 실시될 것이고 박의장은 민간인으로서 대통령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미국 관리들은 박 장군의 성실성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표시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의 느낌은 이미 한번 불에 데인 사람의 신중함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한번 박 장군의 약속파기에 데었기 때문에 그가 장차 취할 행동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있다."

4. "미국 관리들은 보도에 의하면 최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의 교체를 염려하고 있다. 중앙정보부는 한 때 한국에서 제2인자로 여겨졌던 김종필 중령이 이끌었던 조직이다. 중앙정보부가 부패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그리고 민간 정치지도자들의 점증하는 반대에 직면하여, 김은 국가를 떠나 현재 유럽을 여행하고 있다. 그런 후에 김재춘 (Kim Chae-Ch'un)이 중앙정보부를 장악하였다. 최근에 김형욱(Kim Hyong-Uk)이 그 직위에 임명되었다. 이것

은 미국 관리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김은 김종필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이며 "젊은 호랑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김형욱의 임명이 군사통치의 완성을 의미하며 김종필의 귀국을 의미한다고 염려하고 있다. 만일 김종필이 귀국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초를 위험하게 할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5. "박 장군이 군사통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비무장지대의 사건들 때문에 훨씬 더 증대되었다. 일부 워싱턴 소식통들은 박 장군이 사건들을 핑계로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박 장군이 "전방의 군사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인에게 정부를 이양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만일, 박 장군이 다시 약속을 번복하고 군사 통치를 연장한다면 한·미 관계는 역사상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징후는 아직 없지만 이곳의 관찰자들에게 식량이 부족한 한국이 미국의 원조를 얻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시이다. 정부와 군부에 의하여 민간인들에게 탄압이 가해지지 않는 한 미국은 박정희의 후보 지위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선거라는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이곳 사람들은 말한다."

버거(Berger)

1963년 8월 1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19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1. 우리는 뉴욕의 체이스 맨하탄(Chase Manhattan)과 내셔널 시티(National City) 은행으로부터 각각 900만 달러의 대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한국은행 직원에게서 비밀리에 전해 들었다. 담보는 현재 공식적 외환보유

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기예금이 될 것이다. 만기 지급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출은 1963년 하반기에 개정된 무역계획의 일부로서 민간 수입업자(정부와 정부기업 수입업자들을 제외하는)들을 재정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개인적인 거래는 비교적 단기거래가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출이 회전될 것이다.

2. 미국 은행들에게 있어서 이 대출은 위험이 없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추가 외부 재원은 한국 정부가 열심히 자신의 국내외 재원을 보존하고 그것들을 우선순위의 합리적인 규모로 활용해야 시기를 연기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올 가을 선거 이전에 물가수준 통제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과 기업가들에게 재확인시키고 싶어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지급어음 적자를 운영할 것이다.

3. 만일 이 보고가 확신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만일 한국의 경제정책이 통화팽창을 억제하고 수입을 줄이기 위하여 좀 더 단단히 조여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급어음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며 이러한 종류의 대출은 오직 나쁜 정책을 부추길 뿐이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미국 은행 직원들에게 설명하기 바란다. 만일 상황이 담보를 예치하기 위하여 어음상환 청구권이 필요한 지점까지 악화된다면 불미스러운 정치적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줘야 한다. 은행들은 또한 그들이 이런 종류의 일에 있어서 국무부 및 재무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통보 받아야 한다.

4. GP-3

버거(Berger)

1963년 8월 1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0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1. 외무부장관은 8월 14일 본인을 방문하여 김종필, 송요찬 및 내각교체 보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박의장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설명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필과 송요찬에 대하여 힐스먼(Hilsman) 차관보가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고한 워싱턴 김 대사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2. 외무부장관은 박의장이 김종필은 분명히 선거이전에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본인에게 통보할 권한을 그에게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가 선거이후에 언제 복귀할 것이지 혹은 복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는 그 때가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는 10월 12일에, 국회의원 선거는 1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으나 9월 5일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날짜가 약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래 선거일이 8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국경일을 피하기 위하여(우리가 보기에는 빈약한 이유임) 그리고 선거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혼동되지만 가능한 이유) 연기를 결정했다.

3. 외무부장관은 본인에게 송요찬 사건이 미국 측에게 왜 그렇게 많은 염려를 불러일으키는지 이유를 물었다. 그는 본인에게 송은 정치적 이유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전쟁기간동안 송에 의하여 살해된 조 대령의 친척이 제기한 고소 때문에 체포되었다고 강조했다. 엄중한 표정으로 외무부장관은 송은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적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체포가 정치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4. 본인은 외무부장관에게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아무도 송의 체포가 동아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그가 정부를 비난했다는 것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다. 송은 미국에서 미 군부와 민간인 써클에서 친구를 갖고 있는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외무부장관이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서) 송에 대한 조 대령의 사건은 1960년에 종료되었고, 4·19 혁명 기간동안 송이 사격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정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이 혐의는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외무부장관에게 상기시켰다. 더욱이 이러한 주장들은 과거부터 잘 알려져 있었고 군사정부가 그를 내각수반으로 임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제 와서 법률적 이유로 송을 체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선거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5. 외무부장관은 자신이 송요찬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자유로운 선거의 실시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인에게 확신시키고자 하였다. 본인은 그에게 자유선거에 대한 정부의 서약은 비판을 체포로 통제하고 대답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 위에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6. 내각교체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은 박의장은 선거 이전에 더 이상의 교체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7. GP-3

버거(Berger)

1963년 8월 15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0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1. 참고전문 B에 보고된 외무부장관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현 시점에서 박의장에게 참고전문 A에 설정된 사항들을 주장한다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됨. 내각수반도 8월 14일 본인에게 박의장은 선거 이전에 김종필의 복귀를 허락하지 않기로 분명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2. 아마도 워싱턴과 이곳에 있는 미국 대표들의 힘이 다시 한번 김종필 추종자들의 압력과 김종필의 귀국을 허락하려는 박의장의 의지를 막은 것 같다. 우리는 박의장이 미국의 입장을 전달받았으며 이해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대표들은 김종필의 복귀에 반대하는 정부의 인사들에 의하여 개진된 주장의 효율성을 강화시켰다.

3. 참고전문 A의 6항에 대하여 우리는 비록 김종필이 당장 복귀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가능한 행동을 연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우리의 견해를 국무부에

보고하겠다.

4. GP-3

버거(Berger)

1963년 8월 16일
육군성 통신참모부 전문
발신 : 주한 미8군사령관
수신 :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육군성 정보참모부, 워싱턴 합동참모부 등 다수
전문번호 : 미8군 145-63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1. (C-NF)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상황: 일주일 동안 남한의 정치적 관심은 8월 11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의 송요찬 전임 내각수반의 체포에 집중되었다. 송은 한국전쟁기간동안 부하의 불법처형 혐의와 60년 4월 학생혁명 기간동안 학생시위대에 사격을 명령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때늦고 빤히 들여다보이는 혐의내용은 체포가 성급히 그리고 형편없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 송이 정권을 매우 비난하는 장문의 기사를 한 신문에 발표한지 불과 3일 후에 체포당했다는 것 때문에 체포의 배경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야당지도자들은 이미 그 사건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나 그들의 비난은 만일 그들이 너무 심하게 비난하면 보복당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그 정도를 누그러뜨릴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는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의 수사관들이 송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증거를 얻기 위하여 현재까지 노력하였으나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소가 약해 보이지만 최종 기소는 다음의 혐의들의 일부나 혹은 전부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1) 전투상황에서 추가로 군인을 불법 처형한 것, (2) 그의 초기의 직장생활에서 부정부패, (3) 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의 조작에 가담, (4) 군사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공모.

"타이거"송의 체포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동지관계와 자유민주당을 고도로

폭로시킬 위치에 있으며 62년 6월까지 내각수반을 지낸 이 골치 아픈 정부 비판자를 정치현장에서 제거하려는 의도로 유발되었다. 야당캠프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인민당(People's Party)으로 흡수를 추진하는 노력이 떠오르는 정당의 몇몇 구성요소들 가운데 국회의원 지역구의 할당을 놓고 장애에 부딪혔다. 문제는 출마할 수 있는 선거구보다도 유망한 국회의원 후보자들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2. (C-NF) 대한민국 육군 방첩대장의 임명보류: 몇몇 소식통들은 8월 15-16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박정희 의장은 11시에 계획된 방첩대 대장의 교체를 멈추기 위하여 직접 개입하였으며 전성화(Chon Sung-Hwa) 준장이 사령관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교체의 이유에 관하여 들려오는 의혹들 가운데 한 가지는 박의장이 다가오는 선거준비를 위하여 군사정부와 민주공화당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행보로서 그 재임명을 이용한다는 대중적 비난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이다.

1963년 9월 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7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1. 7월 중순이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진로는 참고전문에 담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낳게 하였다. 현재의 이 재평가는 아직은 주로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는 참고전문의 배경분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민주공화당에서 강경파들이 쿠데타 세력을 지배하고 있으며 중도파들이 중립화되거나 제거되는 반면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를 확장 강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모여들고 있다.

2. 강경파에 의하여 계획된 몇몇 조치들은 특히 미국의 분별력 있는 태도에 의하여 기선을 제압당했다. 김종필의 복귀는 다시 한번 연기되는 듯하며 싹쓸

이식 내각교체도 일시적으로 멈추어졌고 야당의 비판에 대한 탄압위험도 송요찬 사건에 대해 취해진 미국의 태도로 인하여 당분간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경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영속화시키기로 결심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3. 이러한 목표의 성취는 특히 도시지역에서 증대된 정권에 대한 대중적 비판에 직면하여 좀 더 어렵게 되었다. 상당히 공정한 선거절차를 통하여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에게 승리를 안기면서 원활한 선거운영에 대한 정부의 초기 희망은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다. 결과적으로 쿠데타 세력은 현재 비판에 대하여 좀 더 가혹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언론과 다른 비판자들을 위협하면서 필요하다면 비판을 둔화시키기 위하여 좀 더 억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다.

4. 협소한 권력기반에서 운용되고 있는 쿠데타 세력의 지배그룹은 점차 내부의 당파적 책략과 권력의 유지 문제에 정신을 쏟고 있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는 강경파에 의하여 재조직되었고 핵심적 위치에 김종필의 측근들을 포진시켰으며 정부와 정치적 정책결정에 대하여 자신의 권력을 재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향력 있는 지위에서 밀려난 반 김종필 그룹의 멤버들의 강경파에 대한 반대는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효과적이지도 응집력이 강하지도 않다.

5. 박정희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한민국 군대의 지지에 계속 달려있다. 쿠데타 세력의 권위는 군대에서 과거 몇 개월 동안 곤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된 요인은 저임금의 장교와 사병들에게 부과된 물가상승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대중적 반대를 끌어 모을 폭발적인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예를 들면 대규모 선거조작), 대한민국 군대는 쿠데타 세력에게 공감한 채 남아있는 것 같으며 선배 사령관들은 기꺼이 쿠데타 세력의 계획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머뭇거리거나 반대를 표시하는 사령관들은 계속 제거될 것이며 핵심보직에서 교체될 것이다.

6. 민간인 야당세력은 정권에 대항하여 통합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과거의 당파주의 폐단과 개인적인 야망과 근시안적인 단견으로 계속 심각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 민간 정치가들이 쿠데타 세력에 대항하여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은 다음 두 주 동안 결정적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효과

적인 단합의 전망은 최근의 정당간의 쓸데없는 언쟁과 야당지도자들이 겪어 왔던 대중적 이미지로 인하여 악화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7주 남은 상황에서 야당은 여전히 단일후보를 정하지 못했으며 정당통합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자금은 부족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대망을 품은 사람들 사이의 경쟁은 강력하며 매우 치열하다. 더구나 단일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된 야당의 출현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야당을 약화시키고 분열시키고 위협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비록 야당지도자들이 정국의 흐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자신할지라도 현재 군사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반대가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바뀐다는 증거는 없다. 만일 야당이 단일후보를 중심을 분열을 극복한다면 이것은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7. 선거유세는 수일 이내에 절정에 이를 것이다. 분위기가 과열되면 정권은 박의 후보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야당지도자들과 그들의 집권능력을 헐뜯기 위하여 사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인기쇠락을 만회하고 선거 시기에 호의적인 대중들의 태도를 이끌 것으로 보이는 쌀의 대풍년에 상당히 장담하고 있다. 기대되는 쌀 작황은 이미 식량가격의 압박과 2월부터 정부를 계속 곤경에 빠뜨렸던 식량부족심리를 상당부분 없애고 있다.

버거(Berger)

1963년 9월 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27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앞의 7항 계속: 역자 주) 쿠데타 세력은 실패는 정도를 낮추는 반면 지난 2년의 건설적인 업적과 박의장의 권위를 고양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선거에서의 성공은 좋은 정당조직과 정부행정조직의 활용, 풍부한 자금과 정부

의 직할권의 활용을 통하여 추구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강경파는 필요한 다른 조치가 무엇이든지 택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되어 있고 야당은 매우 활동적이어서 탄압조치에 의존하는 것이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 정부의 지나친 탄압은 특히 도시에서 야당-국민의 저항이라는 연쇄반응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

8. 작년에 자리 잡은 정치적 견해차이는 그것이 지속되리라는 분위기를 연출했고 우리들에게 정치투쟁 기간이 좀 더 오래 끌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야당은 현재 가능한 한 조속히 군사정부와 쿠데타 세력의 몰락이라는 유일한 목표를 마음에 두고 있다. 만일 그것이 선거를 통하여 가능하지 않으며 많은 야당지도자들이 쿠데타 세력의 정책이 그러한 가능성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면 야당은 변화의 과정을 가속시킬 기회나 사건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기다릴 것이다.

9. 현재의 상황에서 전망은 박의장의 승리이지만 민주공화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기회는 별로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하여 좀 더 심각한 전망 때문에 쿠데타 세력은 다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혹독한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박의장의 승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사이의 간격은 민주공화당에 의하여 자신의 후보들에게 더 많은 열정을 불어넣기 위하여 활용될 것이다.

10. 상황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든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의 출현전망은 불분명하다 :

A.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한 박의장의 승리는 통치에 귀찮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연합에 달려 있지만 양측의 적대감과 신뢰의 부족은 그것을 쉽지 않게 할 것이며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B. 박의장과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점할 수 있으며 만일 선거가 명백하게 조작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대중적 저항은 없을 것이다.

C. 위의 둘 중 한 가지 경우에 일정 단계에서 김종필의 복귀는 불가피하며 그렇게 되면 그와 강경파는 정부를 지배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 내

의 친 김종필 파와 반 김종필 파 간에 싸움의 재개를 생산할 것이다.

D. 만일 어떠한 외부적인 기회에 의하여 야당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성공한다면 그들은 내부의 분열로 곤경에 처할 것이며 또 다른 쿠데타의 위험을 안은 채 민간인들과 패배한 쿠데타 세력간에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11.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 전개에 있어서 서구적 의미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기대하거나 혹은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조치들이 가끔 이상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이다. 한국의 정치적 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세력들의 상호작용에 계속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현 단계에서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연쇄적인 무질서를 야기할 대격변을 촉진하지 않고 사태를 변화시키는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우리는 인내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한국인의 역동성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인내하며 성취의 목표는 물론 행동의 한계를 정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빨리 국내의 정치적 일들에 우리 자신을 밀어넣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정한 해결책에 너무나 의존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공정한 선거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그 원칙이 위협받으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12. 쿠데타 세력 중에는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국이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여러 기회에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통화개혁, 군사통치의 연장, 김종필, 송요찬 등). 향후 우리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노선을 쿠데타 세력이 벗어나면 확실히 즉각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정치적 탄압은 폭로시키고 비난받아하며 무책임한 경제정책들은 처벌되어야 한다. 우리는 억압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선천적인 혐오 때문만 아니라 인기 없고 정당성 없는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의 장기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해야 한다. 이것은 방해받았을 때 불만을 드러냈던 쿠데타 세력과의 공개적 대립의 위험을 증가시키겠지만 우리는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반발도 극복할 준비를 갖추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정책은 유동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들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여전히 참고전문 7항에서 표현했던

견해대로 미국은 당분간 계속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A. 쿠데타 세력에 대한 긴밀한 정치적 검증을 하는 한편 동시에 그들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을 때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B. 자유로운 대중토론과 공정한 선거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계속 강조한다.

C. 우리의 경제원조를 경제전선에서 향상된 대한민국 정부의 성취를 위한 우리의 요구사항들과 점증적으로 결부시킨다.

D. 책임 있는 야당세력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며 생존 가능한 야당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향력을 적절히 사용한다.

E. 국내의 격변이 생기면 결국 조정자임을 증명할 군대의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14. 호제(Howze) 장군과 킬렌(Killen)도 이 메시지를 보았다.

15. GP-2.

버거(Berger)

1963년 9월 6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30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1. 송요찬은 9월 6일 오전 자유민주당 대통령 후보지명을 수락하였다. 감옥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송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군사정부를 순조롭게 종결시키고 현재 압살당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은 대통령 후보지명을 수락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은 권력을 위한 일상적인 투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생사문제이다. 만일 죽어가는 민주주주의 소생시킬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본인은 언제든

지 본인의 계획을 변경하고 현장에서 은퇴할 준비를 할 것이다."

논평 :

2. 현 단계에서 송의 입후보를 대통령 직을 위한 신중한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송의 정치적 신봉자의 범위는 인상적이지 않으며 자유민주당은 결코 선거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정당이 아니다. 더구나 자유민주당은 막후의 실력자 중 한 사람인 김재춘이 당을 포기하고 국가를 떠난다는 최근의 보도로 더욱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래가 불안하다. 그러나 입후보는 정부에 대한 그의 공격을 밀고 나가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 공격의 정치적 중요성을 제고시킨다. 동시에 입후보는 후보지명 결정에 분명히 계산되었던 효과 즉, 송의 체포를 둘러싼 정치적 억압의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버거(Berger)

1963년 9월 10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31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1. 김종필의 귀국문제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최소한 박의장은 대통령 선거이후에 즉시 김을 귀국시키기로 굳게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친김종필 인사들은 좀 더 일찍 그의 귀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박의장의 승리 이후까지 연기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2. 김에게 비우호적인 잘 알려진 미국의 태도와 미국의 견해와 상관 없이 10월 15일 이후에 그의 귀국을 예상하고 있는 그의 지지자들은 대사관에게 우리의 태도를 재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강력한 김종필의 부하들(예를 들면, 김영태와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8기생 대령들)은 화해를 위하여 미국이 김종필을 워싱턴에 초청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심지어 합참의장 김종오(Kim Chong-O)도 그가 확실히 권력의 지위에 복귀할 것이며 우리와의 충돌은 저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종필과 잠정적 화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오는 김종필이 10월 초에 워싱턴으로 초대되어 그 곳에서 그는 김정열(Kim Chong-yol) 대사와 김종오에 의하여 면담을 받고 그의 옛날 방식으로 회귀하지 말도록 "충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오는 2월에 김종필을 외국으로 보내라고 박의장에게 가정 효율적으로 주장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 그는 김종필이 문밖에 와 있으며 아무것도 박의장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다.

4. 9월 10일 언론은 "김종필과 가까운 소식통"으로부터 김종필은 "조만간 그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없애고 권력이 민간정부에 이양된 이후에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간에 제기될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는 이것을 김의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을 치켜세우는 의도적인 시도로 보고 있다. 박의장과 강경파는 미국의 수용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김종필이 워싱턴에 들러서 귀국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김종필을 워싱턴에 가게 하는 것은 그의 방문을 정권에 대한 우리의 지지로 이용하고 김종필의 귀국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우리의 의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

5. 우리는 김종필이 워싱턴의 견해에 노출됨으로써 "교육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며 김종오나 김정열이 그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가질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반대로 김종필은 가능하다면 그들이 미국의 주요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미국의 염려를 잠재우기 위하여 그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6 우리는 김종필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의 복귀를 정부와 공개적으로 대립할 주요현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이후까지 그의 복귀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이후로 그의 추방을 연장하는 것은 실질적인 보복조치와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 그 보복조치를 실행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7. 본인은 김종필을 그러한 종류의 현안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사실상, 그가 우리의 외교적 권고에 반하여 복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취급

하면서 공적인 논평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는 한국 내부에서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김종필이 정권과 관련된 우리의 문제 중 유일한 증상이므로 김종필 개인으로 인하여 쿠데타 세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조건 지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쿠데타 세력과 대립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그들의 통치능력이나 무능력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와 국내적으로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김종필이 권력을 가진 지위로 복귀하는 것의 불가피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가 축복으로 바꾸게 될 워싱턴 초대를 행함으로써 그의 위신을 높여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워싱턴이 아니라 이곳에서 취급되어져야 하며 "도움"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는 김종오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충고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행해져야한다.

9. GP-3.

버거(Berger)

1963년 9월 11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20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1. 참고전문 A 13항의 권고에 동의한다.

2. 우리는 이 권고가 참고전문 B에서 만들어진 권고에 대한 보충으로 이해하며 정책들은 참고전문 B, C, D에서 확립되었다고 이해한다.

3. 우리는 참고전문 A에서 제시된 분석에 감사하며 약간의 견해 차이를 반영하는 다음의 논평들을 제시하는 것이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A. 우리는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고도의 안정의 기대에 관한 참고전문 A의 철학에 동의하며 한국의 국내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우리는 젊은 대령들의

통치(young tiger rule)가 계속되면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부족과 불안정을 결과할 것이라는 참고전문 B의 6항에 있는 귀하의 예상에 계속 찬성한다.

B. 우리는 선거의 가능한 결과 중 우리가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결과 즉,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거부당한 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에 전반적으로 난처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의 초기 몇 년 동안에 발생했지만 실제로 심각한 불안정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의 대통령체제가 헌법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의 효율성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비판의 광장과 정부에 이익이 되는 영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전처럼 작용할 것이다.

C. 우리는 일정 단계에서 김종필의 복귀가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참고전문 A의 10 c항). 우리는 이 문제는 쿠데타 세력의 선거승리에 역할을 하고자 하는 김종필의 이해할 수 있는 의도의 결과로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만일 김종필이 외국에 있는 동안 민주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한다면, 비록 김종필과 박의장의 개인적인 연대가 항상 그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부여하겠지만, 김종필은 거의 승리에 불가피한 요소로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D. 비록 우리가 군부지도자들의 가능한 조정자 역할에 대하여 참고전문 A의 13 E항에 완전히 동의하더라도, 우리는 박정희의 계속적인 정권유지의 핵심이 한국 군대에 의한 지지라는 참고전문 A의 5항의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일반화는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박정희에 대한 군대의 중요한 태도는 지지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부족으로서 정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쿠데타 세력과 박정희의 군대 경력의 본질 때문에 우리는 만일 군대의 지도부가 그에게 그가 광범위한 군부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통보하면 그는 아마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는 희망을 버릴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선거운동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군부의 그러한 행동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5. 송요찬의 예상치 못한 후보지명과 현재까지 인민당(People's Party)이 후보

지명을 실패한 것은 상황을 혼란시키고 있다.

6. (항목이 없음: 역자 주)

7. 귀하의 논평과 가능한 한 조속히 선거결과에 대한 대사관의 평가를 보내주면 감사하겠다. 끝.

러스크(Rusk)

1963년 9월 21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384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8 Box 129

1. 본인은 오늘 오전 내각수반을 방문하여 언제 우리가 송요찬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본인은 그에게 송요찬이 수일 이내에 석방될 것이라고 지난 주에 외무부장관과 대통령 비서뿐만 아니라 내각수반도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본인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석방하였다는 효과를 주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더 이상의 어떠한 불만도 유보해야 한다고 워싱턴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행동 실패는 본인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만들었다.

2. 내각수반은 박의장에게 계속 송을 석방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박의장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했다. 의장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와 군부로부터 송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재판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여러 야당 집단들은 밴스(Vance) 장관의 방문을 송 사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데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밴스 장관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가 석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와 미국이 송의 입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찻집 풍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박의장은 다음 주까지 문제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내각수반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이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 송

이 석방된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3. 본인은 국무부에 다음주 화요일까지 논평을 유보하라고 요청할 것이나 워싱턴은 더 이상 오랫동안 보류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과 언론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언론기자들이 선거를 취재하기 위하여 다음 주에 도착할 것이므로 계속된 송의 수감은 다시 뉴스거리가 될 것이고 국무부는 언론의 질문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은 미국 정부는 송 사건이 순전히 사법적인 문제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여론과 같이 미국의 여론도 이 사건을 선거기간 동안 자유토론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쿠데타 세력의 조치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 본인은 내각수반에게 우리는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쿠데타 세력이 우리가 송을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그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를 신뢰한다는 사실에 강하게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각수반은 이것을 부인했으나 대사관은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위원(김회덕, Kim Hui-Dok)과 대통령 비서(이동원, Yi Tong-won)로부터 그러한 보도가 회람되고 있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내에서 정보보고서로서 통용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논평 :

A. 군부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는 송의 석방을 반대하고 내각수반은 최근 우리의 침묵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더 이상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강경한 노선을 부추기고 있으나 우리는 송 사건의 처리를 놓고 쿠데타 세력이 깊이 분열되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 본인의 방문목적은 우리의 진지하고 계속적인 관심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강경파들이 박의 결정에 편견을 주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우리가 송을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허위 비난을 논박하는 것이었다.

B. 국무부는 계속 논평을 연기하고 대사관의 더 많은 권고를 기다리라고 제안한다.

버거(Berger)

1963년 10월 11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45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아래 내용은 경상도 지방을 5일 동안 현장시찰하고 10월 10일 귀환한 대사관 직원 두 명의 소감이다. 직원들은 도시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집중적인 감시를 받았고 정보요원들에 의하여 명백하고 주제넘은 도청을 당했다.

2. 대구와 부산의 시민지배당(Civil Rule Party, CRP) 지도자들은 위축되어 있는 듯했다. 그들은 대부분 친정부적 민주공화당(Democratic Republican Party, DRP)이 자금과 조직과 지방 행정력과 결탁하여 시골지역의 대부분을 석권하였다고 여기는 듯했다. 그들은 도시지역에서의 경쟁은 거의 대등하다고 평가했다. CRP는 아직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한된 선거유세 집회 숫자조차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유세활동계획도 막연한 것 같았다.

3. 대구에서 인민당(Peoples Party, PP)은 재정조달이 원활한 듯하나 허정(Ho Chong)의 탈퇴 이후에 무기력해 보였다. 부산에서 PP는 붕괴의 과정에 있는 듯했다. 비록 민주당(Democratic Party, DP)이 희망하는 바를 향하여 조용히 작동하면서 윤보선의 후보지위 지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적인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고 어떤 다른 야당도 매우 두드러지지 않는다.

4. 부산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이후에 법정에서 제기될 한 사건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9월 29일 윤보선 집회를 위하여 부산역 광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CRP의 요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집회는 부산의 주요 거리에 넘쳐났고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 CRP의 집회는 규정을 어기면서 열렸으므로 위원회는 현재 사진을 갖고 법정소송을 위한 법률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매번 발표를 즐기면서 CRP의 지역 지도자들은 유죄가 확정된다면 5년 정도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은 CRP는

법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약을 마셨던 소크라테스의 생애를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5. 대구와 부산의 야당지도자들은 현재 DRP의 주요 활동은 당원의 신규모집이며 신규당원들은 야간 회합에 무리를 지어 모여든다고 말했다. DP의 한 소식통은 DRP는 지난 두 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당원을 모집하였다고 말했다. 야당지도자들은 DRP가 돈으로 당원들을 매수하며 (각 마을 이장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5,000원을 받았다), 정부의 계약에 대한 암시를 통하여 기업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구제식량계획의 조작을 통하여 신규당원을 유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6. 김천, 대구, 부산에서 박의장의 집회는 각각 6,000, 10만, 20만 명을 끌어들였다. 비록 박수부대가 이들 모든 집회에 참석했지만, 군중동원이라는 야당의 비난을 지지할만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박의장은 대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연설했지만 세 곳 모두 군중들은 우호적이었으며 집회의 다른 연사들보다도 박의장에게 더 많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효과적인 유세방식을 개발한) 박의장은 자신의 연설에서 점잖은 발언을 하고 싸우는 일은 부하들에게 맡긴다. 이들 중 한 명인 전임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국회의원 박준규(Pak Chun Kyu)는 부산에서 조용하고 주의 깊은 군중들로부터 상당한 야유를 이끌어 냈다.

7. 비록 물가 상승적 경제 환경과 수입원자재의 부족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도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인 정부정책과 결부시키는 것 같지 않았다. 박의장은 그의 연설에서 물가상승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A. 누적된 잘못이 이전 행정부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B. 흉작

   C. 감소된 미국의 원조

   D. 1962년의 화폐개혁(그는 이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비정치적 관찰자들의 분석조차도 박의장의 설명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8. 농민들의 경제적 불만은 쌀농사가 평년보다 좋을 것이라는 기대와 도로공사의 노임으로 지불되는 구제식량을 정부가 넉넉하게 줌으로써 약화되는 것

같았다. 1961년 고리대금 사채탕감계획에 대한 불평은 여타의 다른 지역보다도 경상도의 부유한 집단에서 훨씬 덜했다(박의장 자신이 부산에서 이 계획도 의도는 좋았으나 "실패"다고 시인하였다.). 일부 농민들은 야당이 구성하는 정부가 과거의 군사정부보다도 미래에 더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논평 :

9. 관리들은 박의장이 대구와 부산의 전통적 "야당"성향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경상도에서 개인적으로 인기가 높다는 인상을 갖고 떠나갔다. 관리들은 DRP의 소위 불법적 혹은 불공정한 선거시행 주장이나 혹은 박정희와 군사정부를 향하여 주장된 윤보선과 허정의 공산주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 대중들은 전혀 주목할 만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버거(Berger)

1963년 10월 1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476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0월 14일 지방 라디오방송은 성명미상의 외국 소식통을 인용하여 김종필이 10월 19일에 동경에 도착하여 10월 21일에 서울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버거(Berger)

1963년 10월 1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47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쿠데타 세력이 대통령 선거 직후에 윤보선을 포함하여 야당지도자들을 체포하려는 점증하는 징후가 있다. 그러한 징후는 윤보선의 승패여부를 떠나서 발생할 수 있다.

2.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박정희의 현재 의도에 대하여 내각수반이 본인에게 한 확언은 (참고전문 2항) 명확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 본인은 가능한 한 조속히 내각수반을 만나서 박정희의 승리로 종결되는 선거 이후에 있을 윤보선의 체포나 혹은 광범위한 체포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그에게 반복할 예정이다. 본인은 그에게 만일 체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심각한 대중적 소요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소요가 즉시 발생하건 그렇지 않건 윤과 다른 사람들이 체포되면 국무부는 즉시 공개적 비난을 할 것이며 우리의 성명은 송요찬이 체포되었을 때 발표했던 성명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본인은 또한 그에게 그러한 체포나 보복조치는 대한민국과 우리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입장으로 우리를 몰아갈 것임을 경고할 예정이다. 본인은 그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박정희에게 강조할 것과 우리가 보기에 만일 그가 당선된다면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노선은 보복과 체포가 전혀 없을 것임을 즉시 발표하는 것이라고 박에게 제안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3. 본인은 우리가 선거 사후처리로서 보복적 체포가 있을 경우에 한가하게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쿠데타 세력은 야당의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견해로 볼 때 송요찬 사건과 비슷한 거짓된 법률적 주장의 활용이 될 것이다.

4. 윤보선의 비서 이재하(Yi Chae-ha)는 10월 14일 아침 대사관 직원에게 10월 13일 오후에 일단의 중앙정보부와 경찰 요원들이 윤씨의 자택근처에 배치되었다고 알려왔다. 윤은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씨는 체포시도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시도를 염려한다고 말하면서 만일 필요하다면 윤씨가 미국 육군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물어왔다. 이씨는 정치적 망명은 미국의 관행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는 또한 윤씨는 정치적 지도자이자 합법적인 정당의 후보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5. 윤씨는 중개자들을 통하여 오늘 아침 호제(Howze) 장군에게 미국 육군병원에의 즉각적인 입원을 요청하였다. 요청은 적절한 민간병원이 가용하다는 분명한 이유로 거절되었다. 윤씨의 중개자들은 또한 오늘 윤이 밤새도록 머무를 것이라는 암시를 하면서 대사관 건물에서 만찬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정중히 거절되었다.

6. 만일 정치적 망명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우리는 물론 FAM225.2에 의거하여 행동하겠지만 국무부의 지침에 의존할 것이다.

7. GP-2

버거(Berger)

1963년 10월 14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48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본인은 10월 14일 오후에 내각수반을 만나서 그에게 10월 11일 그가 본인에게 박정희의 관용정책에 따라 선거이후에 체포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으나, 우리는 정부의 고위층으로부터 윤보선을 포함한 야당지도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체포와 보복계획이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2. 내각수반은 단호히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을 제외하고 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본인에게 확언하였다. 그는 윤씨는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정부는 260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 중 일부를 기소할 예정이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6건이나 혹은 12건 정도가 선거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질문에 대하여 내각수반은 자신은 오늘 아침 그 문제를 논의했던 박의장을 대신하여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각은 오늘 오전에 전체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박의장에게 선거일

이후에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관용정책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에 기초하여 박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 본인은 워싱턴의 지침에 근거하여(참고전문 B) 발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윤씨와 다른 야당지도자들을 체포할 경우에 미국 정부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이러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밖에 없음을 박의장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본인은 미국 정부는 매우 면밀하게 선거운동을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선거이후에 패자들에게 닥칠 일을 포함하여 전체의 선거과정을 가능한 한 공정하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4. 내각수반의 논평에 따라 본인이 워싱턴에 윤씨에 대한 아무런 조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며 대규모 체포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고해도 괜찮은지 물었다. 이에 대해 내각수반은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그는 윤씨는 체포되지 않겠지만 선거일 이후에 법무부는 선거법 위반사례들을 검토하여 몇몇에 대해서는 기소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수반은 박의장을 공산주의와 황태성(Whang Tae-sung) 사건과 결부시킨 윤씨의 행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윤씨가 이들 기소당한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경우에 판결은 법정에 달려 있으나 내각수반의 생각에 윤씨는 감옥 형보다는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며 항소하면 그 재판은 길게는 2년 정도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 본인은 내각수반에게 선거이후에 가장 현명한 노선은 모든 선거법 위반사례를 기각하는 것이라는 본인의 견해를 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는 깊게 분열될 것이며 소요가 일어날 것이므로 정치가들의 업무는 소요를 진정시키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각수반은 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위반사건을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용서받는다면 국회의원 후보들은 선거에서 무모하게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각과 박의장은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 관용을 베풀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각수반은 박의장은 선거를 문민 헌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박의장 자신이 당선된다

면 정치가로서 새로운 활동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안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만일 박의장이 실패한다면 그는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려설 것이며 아마 국회의원 선거에 돌입하여 정치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6. 내각수반은 윤이 어떤 외국대사관으로 숨어 들어가서 정부가 자신에게 납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게 특별한 경찰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게 전임 대통령으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있다.

7. 본인은 미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어떤 일을 하거나 말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송요찬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에도 불개입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 본인은 그에게 체포가 계획되었다는 우리의 정보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려줬으며 만일 그 정책이 실행된다면 미국은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그에게 박의장에게 그렇게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내각수반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이 정부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8. 논평 : 내각수반은 윤씨의 체포나 대규모의 보복의 경우에 미국의 공식반응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떠났다. 관용에 대한 그의 약속에 덧붙여진 “소수의 기소”는 다분히 빠져나갈 구실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가 오직 예비적인 조치만 취하고 실질적인 기소는 국회의원 선거이후까지 미룰 것이다.

9. GP-2

버거(Berger)

1963년 10월 16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0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선거 경쟁이 매우 백중하고 선거 이후의 어려움과 불확실함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무부가 결론과 논평을 내는데 매우 신중하야 한다고 제안한다.

2. 만일 윤보선의 승리가 구체화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발표된다면 이곳과 워싱턴에 있는 우리는 그 결과를 한국인들의 목소리로서 환영해야하며 평화로운 권력이양에 대한 희망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윤의 승리가 매우 근소하여 재검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백한 논평을 유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재검표는 법적으로 최종집계발표 30일 이내에 요청될 수 있다.

3. 만일 박의 승리가 확실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야당은 격렬히 항의할 것이며 비록 대중들이 야당의 항의에 반응한다고 해도 우리는 연계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역시 재검표의 가능성이 있다.

4. 우리가 위의 대안들을 각기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쿠데타 세력의 권력과 선거이전 행동의 관점에서 볼 때, 윤의 승리는 국민기대의 증거이자 혁명적 지도자 정신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소수 야당 후보자들에게 부여된 투표수에 의하여 강화된다. 우리는 근소한 차이로 이긴 박의 승리를 승인한다고 서둘러 발표할 필요가 없으며 대중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하여 시간을 가질 수 있다.

5. 우리는 쿠데타 세력이 흔들리는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근소한 박의 승리를 미국이 축복해 주도록 열심히 갈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을 심사숙고해야겠지만 너무 때 이르게 우리 자신을 개입시키지 않고 대중의 분위기가 쿠데타 세력에게 호의적인지 여부를 살피고 쿠데타 세력이 우리가 옹호할 수 없는 선거이후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6. 우리는 선거가 너무 백중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위의 견해를 우리가 취할 초기의 권고로서 제안한다. 제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겠다.

7. GP-2

버거(Berger)

1963년 10월 16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1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선거에 대한 우리의 예비평가는 선거가 인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잠정적 결론이다. 우리는 야당지도자, 언론과 일반대중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최종결론을 유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조속히 자세한 평가를 전송하겠다. 그러는 동안 안내지침으로서 우리는 국무부 대변인 성명이 다음과 같이 발표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매우 백중한 결과를 낳았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과에 근거하면 박의장이 그의 주요 경쟁자를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으며 다른 세 명의 경쟁자는 훨씬 뒤졌다. 총 1천 85만 7,000표 중 90%의 집계에 의하면 공식통계는 박의장이 십만표 이하로 앞서고 있다. 우리는 하루나 이틀 후에 가능한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초의 보고서는 한국의 선거일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며 83.1%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만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받는다면 대변인은 판단을 피하면서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의 보고서는 선거가 조용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할 것을 제안한다.

3. 이곳에서 우리가 따라 갈 수 있도록 국무부가 논평하고자 하는 것을 조속히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곳에 주재하는 지역과 미국 언론들로부터 약간의 발표를 요청받고 있으나 연기하고 있다.

4. GP-3

버거(Berger)

1963년 10월 1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2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최종집계는 실제로 박정희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이제 선거와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해야한다고 판단한다.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의 노선에 따라 성명을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

"10월 15일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표명한 백중하게 치러진 선거에서 박정희 의장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모든 보고는 선거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선택을 행한 한국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선택이 공정하게 기록되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선거는 1963년 말 이전에 한국에서 민간정부의 회복의 시작을 의미했다. 우리는 모든 정파의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질서정연하고 성공적인 이러한 첫 단계의 결과를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민간정부의 회복에 있어서 다음 단계인 11월 26일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절도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

2. 우리가 정부와 야당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좀 더 확신하기 전까지 공식성명에서 우리의 견해를 상세히 밝힌다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배경설명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기자들에게 좀 더 낙관적인 견해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3. 지역 언론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작성된 성명을 조속히 대사관에 통보하기 바란다. GP-3.

버거(Berger)

1963년 10월 1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52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7일 최종 공식 선거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총 직접투표수 :	11,036,175
총 무효투표수 :	954,977
총 부재자 투표수 :	1,948,840
총 유효투표수 :	12,985,015
투표율 :	84.99%

2. 지역별 총계는 다음과 같다 :

A. 서울

박정희 - 371,627
윤보선 - 802,052
변영태 - 26,728
장이석 - 10,537
오재영 - 20,634

B. 부산

박정희 - 242,779
윤보선 - 239,083
변영태 - 7,106
장이석 - 3,419
오재영 - 11,214

C. 경기도

박정희 - 384,764
윤보선 - 661,984
변영태 - 34,775
장이석 - 27,554
오재영 - 54,770

D. 강원도

박정희 - 296,711
윤보선 - 368,092

변영태 - 24,924
장이석 - 24,528
오재영 - 35,568

E. 충청북도

박정희 - 202,789
윤보선 - 249,397
변영태 - 15,669
장이석 - 14,971
오재영 - 26,911

F. 충청남도

박정희 - 405,077
윤보선 - 490,663
변영태 - 26,639
장이석 - 23,359
오재영 - 47,364

G. 전라북도

박정희 - 408,556
윤보선 - 343,171
변영태 - 18,617
장이석 - 18,223
오재영 - 37,906

H. 전라남도

박정희 - 765,712
윤보선 - 480,800
변영태 - 17,312
장이석 - 22,604
오재영 - 51,714

I. 경상북도

박정희 - 837,124
윤보선 - 543,392

변영태 - 31,113
장이석 - 34,662
오재영 - 58,079

J. 경상남도

박정희 - 706,079
윤보선 - 341,971
변영태 - 19,323
장이석 - 16,014
오재영 - 60,645

K. 제주도

박정희 - 81,422
윤보선 - 26,009
변영태 - 2,207
장이석 - 3,006
오재영 - 3,859

L. 총계

박정희 - 4,702,640
윤보선 - 4,546,614
변영태 - 224,443
장이석 - 198,837
오재영 - 408,664

버거(Berger)

1963년 10월 18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32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국무부 기록은 1960년은 물론이고 1956년 5월 이승만의 당선발표에 대하여 미국 정부 관리들이 아무런 서한도 보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장관은 국가의 원수에게 메시기를 보내지 않는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어떤 제휴관계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서면 축하문을 보내기 전에 취임계획에 관한 공식 서면 통보를 먼저 받는 것이 관례이다. 1956년 8월 이승만의 취임식의 경우에 대통령이 공식서한을 보냈고 1960년 8월 25일 윤보선의 취임식에 대통령이 축하서한을 보냈다.

2. 국무부는 따라서 귀하가 이 시점에서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오직 구두로 축하를 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귀하가 제시한 초안(대사관 전문 528호)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이라는 구절을 제외하고 그대로 구두로 발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만일 귀하가 귀하 자신의 서면 축하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귀하는 "자유롭게 선택한" 이라는 구절을 제외하고 참고전문 528호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되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귀하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라는 내용을 담을 권한을 부여받았다. 귀하의 결정을 보고하기 바란다.

3. GP-3

러스크(Rusk)

1963년 10월 21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러스크(Rusk)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전문번호 : 335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다음은 선거이후의 모습과 우리의 정책과 연관된 약간의 예비적 견해이다. 귀하의 논평을 요구한다.

2. 민주적 선거는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우리가 염려했던 눈에 띄는 보복이나 대규모 조작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하여 중

립을 견지한 미국의 태도는 공개적으로 잘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과 아래에서 언급한 다른 유리한 상황의 전개는 대부분 대사관의 효과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귀하와 귀하의 직원들에게 따뜻한 칭찬의 말을 보내는 바이다.

3. 비록 유효한 투표수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박정희의 근소한 승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며 복잡한 정치상황을 야기할 것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만일 박이 강력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했더라면 그는 참고전문 B의 3항에서 설정한 보복조치들을 훨씬 쉽게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특히 근소한 차이로 야당이 승리했다면 일정기간 동안 광범위한 불확실, 불안정, 그러고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상당한 폭력이 있었을 것이다.

4. 선거에 대한 우리의 예비적이고 잠정적인 해석은 야당이 도덕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높은 숫자의 무효표를 계산에 넣지 않더라고 박의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가 상대적으로 근소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약간의 군대지역에서 야당지지는 군대 내부에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지지가 당연시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5. 우리는 양측의 절제된 대화에 고무되고 있지만, 특히 김종필의 복귀로 인하여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될 그의 악의적인 억압적 영향력에 대한 위험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개시는 절제와 협조의 분위기의 일시적인 악화와 더불어 정치적인 갈등을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전 추측은 민주공화당이 새로운 비례대표제 체제의 결과로 국회의석의 다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투표자의 과반득표를 얻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현재의 세력균형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6. 우리는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참고전문 B의 7항의 A, B, C, D가 여전히 미국정책을 위한 건전한 지침역할을 한다고 여긴다. 야당득표의 힘은 7항 A와 D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거의 자유를 강조할 필요성(7항 B)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여전히 시기적절하며 특히 김종필의 재등장으로 그렇다. 원조를 한국인의 성취와 연관 짓는 것은 필수적이다(7항 C).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대사관-주한미국원조사절단(USOM)이 꾸준히 그러한 원칙에 충실한 결과로서 현재 한국에서 잘 이해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7.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특별 강조점을 제안한다.

A. 정부와 야당 양측에게 절제, 인내, 협조의 촉진. 비록 우리가 계속적인 정치적 갈등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협조를 가장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야당을 전복하는데 협조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정치적 대화가 건설적인 통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한·일 관계 정상화와 경제적 안정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B. 국익증진과 경쟁력에 근거하여 각료와 다른 핵심 직위에 대한 최상의 인선을 하도록 박정희를 격려할 것. 우리는 계속적인 막후 활동보다도 내각과 각료의 권위와 책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캐나다곡물 구입은 이러한 면에서 시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중앙정보부가 부적절하게 개입된 활동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C. 김종필과 정부 내 그의 추종자들의 위협에 대한 집중의 재개. 우리는 김종필의 한국에서의 오랜 부재와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얻은 야당의 출현, 그리고 우리의 냉담한 대접 등이 한국에서 그의 정치적 세력을 약화시키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변화했는지 여부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그를 여전히 위험스런 불안정한 세력으로 보고 있다. 그를 억제하기 위하려는 작업으로 대사관은 국무부가 추문사례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상당수를 포함하여 많은 질문을 받아왔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8. 내주쯤 적절한 기회에 힐스먼(Hilsman)은 질서 있는 선거의 실시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선거이후의 발전을 격려할 것이다.

9. GP-3.

러스크(Rusk)

1963년 10월 28일
국무부 발신전문
발신 : 볼(Ball)
수신 : 서울 미국대사관, 태평양사령부 정치고문
전문번호 : 359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귀하는 한국에서 미군 1개 사단을 철수시키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한민국의 관리들과 언론에 밝히기 바란다. 미국은 한국에서 육군을 철수시킬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가 없다. 더 이상의 지침은 회람 전문 756과 785호에 있다.

그러나 한국 관리들과의 논의에서 서울대사관은 그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은 한국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적절한 병력규모를 계속 검토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노선을 계속 취하기 바란다. 우리는 물론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며 그러한 협의 이후까지 아무런 결정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볼(Ball)

1963년 11월 7일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
제목 :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는 한국 언론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Big Lift” 작전의 성공과 아시아에 유사한 작전의 적용 가능성, 해외 방위비용을 감축하라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압력, 가까운 장래에 베트남 남부에서 일부 병력의 철수발표,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감축을 위한 미국과 일본 사이의 협상 등은 이러한 사건들이 주한미군의 장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한국 언론에서 상당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의 반응은 한 목소리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반대하였다. 대부분의 사설과 기사들은 처음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과 주한미군의 감축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미국 관리들의 발표로부터 함축적인 의미를 내놓은 다음 왜 그러한 감축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를 증명하려고 했다.

2. 언론은 “Big Lift” 작전이 미군의 기동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이렇게 입증된 기동성은 한국의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0월 29일자 코리아 타임스의 사설은 “Big Lift 작전은 좋은 날씨와 적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교전 시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지 의심스러우며 공중 수송된 병력과 장비의 전개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산악지형에서 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의 사설은 북한과 중국군대의 공중과 지상병력 규모, 그들이 남한에 근접해 있음과 사전 배치된 장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인용하면서 미군의 공중수송 능력이 적의 이러한 천연적인 장점을 극복하는데 충분하다는 데 의문을 표명하였다. 조선일보는 공중수송 적전은 엄격히 반격작전이며 침략을 방지하지는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3. 언론들은 외국에 배치된 재래식 무기를 "막강한 화력을 지닌 신무기"로 교체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아일보는 공산주의 군대도 화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몇 시간 이내에 대규모 지상병력과 장비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된 화력이 병력의 감축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핵무기에 의존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지전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도 이러한 논제를 반복했다. 한국일보는 전면전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핵무기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국지전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실용성에는 의문을 표했다. 경향신문은 "우리나라와 같은 협소한 산악지역에서 핵전쟁은 전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4. 주한미군 감축의 심리적 영향은 주된 관심사이다. 수많은 한국인들에 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949년 군대를 철수시킨 미국의 결정과 1950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초래했던 사실을 빈번히 언급하였다. 코리안 리퍼블릭(Korean Republic)은 한국전쟁은 평화조약이나 혹은 한국의 재통일이라는 유엔의 최종적인 목표의 성취로 종결되지 않고 휴전협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들은 여전히 성취되어야 하는 채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한국의 전선은 모든 자유세계의 방어요새이기 때문에 한국의 무장병력 홀로 방어책임을 떠맡을 수 없다. 미군의 존재는 한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 자유세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미국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유세계의 최전방에 놓여있는 한국은 군사력의 균형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도 한국의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만일 미군 1개 사단이 철수된다면 주한미군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한국의 사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한국에 주둔하는 "8만 명의 미군"의 존재를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강력한 미국의 의지의 상징으로 보았으며, 그 일부분의 철수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한국의 믿음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은 "병력의 군사적인 상관관계에 달려있다"는 대통령의 발표에 집중적인 관심이 모아졌다. 현재까지 한국 언론들의 공통된 견해는 비록 주한미군을 즉각적으로 감축할 계획은 없을지라도 그러한 감축은 불가피하며 단지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사를 대신하여:
/서명/
필립 하비브(Philip C. Habib)
대사관 정치담당 참사관

1963년 11월 8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38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을 한국으로 귀환시키는 데 주한미군의 지원을 교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미 공군 조종사를 배정하여 KAL DC-4를 갖고 호놀룰루를 왕복비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대사관과 협의한 후에 주한미군은 이에 반대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상업용 여객기를 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2. KAL은 DC-4 전세기가 11월 16~20일에 호놀룰루를 왕복할 수 있도록 연방항공당국(FAA)의 이착륙허가를 요청하였다 (참고전문 B). 비행의 목적은 지정되지 않았으나 KAL 사장 신유협(Shin Yoo-hyup)이 11월 8일 오후에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주한미군에 한 요청에 대한 지원을 구하였다 (1항). 신은 엄격한 보안을 요구하면서 비행의 목적은 이승만을 귀환시키는 것이며

서울에 있는 이승만의 가족 대표들과 전세기 합의를 하였다고 대사관 직원에게 알려줬다. 신에 따르면 5~6명의 대한민국 관리들만 이 계획을 알고 있다.

3. 조종사를 포함한 KAL 전세기 승무원들은 여권을 제출하면 발행될 비자를 신청하였다.

4. 논평 : 이 시점에서 이승만의 한국 귀환은 만일 이승만이 도중에 사망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당(DRP)의 교묘한 선거운동 계략이 될 것이다. 이곳의 공군 장교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DC-4를 사용하는 것은 장거리 여행과 항공기내의 기압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승만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상업용 여객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조종사의 봉사를 요구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5. GP-3

버거(Berger)

1963년 11월 11일
McGeorge Bundy를 위한 비망록
주제 : "한국의 잊혀진 휴전협정" 이라는 책의 집필을 위하여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함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사는 에드거 문(S. Edger Moon)씨가 한국의 휴전협정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데 있어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권고를 요청한 귀하의 10월 26일 쪽지를 보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무부가 일상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을 대신하여 답신을 보낼 것을 권고한다.

1)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문(Moon)씨는 잘 알려진 학자나 저자가 아니고 대학 졸업장도 갖고 있지 않다.

2) 그의 요청은 얻고자 하는 도움의 성격과 연구주제의 정확성에 대하여 모호

하다.

3) 그는 1942년 이후의 출판되지 않은 공공문서에 접근을 허락받을 수 없다.

4)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이전의 공식, 비공식 문건들을 뽑아서 국방부 역사담당 관리의 협조를 받아 국무부 역사사서가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귀하가 동의한다면 국무부는 위의 3항과 4항에 근거하여 답신을 보낼 것이다.

비서실장

벤자민 리드(Benjamin H. Read)

1963년 11월 1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5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킬렌(Killen)과 본인은 11월 11일 4시간 30분 동안 박의장을 면담하였다. 내각수반, 외무부장관,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재정경제위원회 의장(김회독, Kim Hui-tok), 대통령 비서(이동원, Yi Tong-won), 국가재건최고회의(SCNR) 대변인 등도 참석했다.

2. 본인은 킬렌이 워싱턴에서 복귀한 이래 그는 여러 가지 경제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급 인사들과 면담을 해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면담을 시작했다. 본인은 서로 교환된 견해와 도달한 합의가 박의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각수반은 박의장은 모두 보고 받았으며 킬렌과 논의된 현안에 대하여 동의했으며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제안된 다섯 가지 사항들(참고전문 6항과 7항 참조)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중간에 끼어들면서 말했다.

3. 박의장은 자신은 논의의 결과를 모두 보고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킬렌과 다른 미국 관리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4. 킬렌은 한·미 관계의 광범위한 내용과 한국 내의 장기계획의 영향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장의 안정적, 진보적, 효율적인 정부의 지향에 있어서 경제정책과 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책임 있는 정부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안정을 수반하는 건강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 지난 2년에 걸친 우리의 권고와 제안은 성장과 합리적인 안정에 맞추어졌다. 정부와 합의한 최근의 제안들이 겉보기만 제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장래의 진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일시적인 경제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결과는 유리할 뿐이다. 킬렌(Killen)은 경제현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순전히 경제적 고려에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덧붙였다.

5. 킬렌은 그런 다음 내각수반과 경제계획국 의장과의 최근의 논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안정과 경제발전의 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적절하고 생산적인 달러-원 환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견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박의장에게 환기시켰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 편에서 이 문제가 심사숙고중이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조치가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것은 외국환 이익을 증대시키고 덜 중요한 수입품의 적절한 제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6. 킬렌은 소비와 수입에 있어서 원조에 덜 의존하게 되는 한국의 확대된 자립을 원한다고 박의장은 언명하였으며 미국은 이러한 박의장의 서면 합의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해왔고 앞으로도 제안할 조치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제개발처(AID)가 제공하는 대규모 자금은 과거와 현재의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지방수입액의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다. 화폐단위 원을 계속 진행시키려는 바램은 정부로 하여금 식량생산의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아왔고 아직도 우리는 최소한의 필요를 초과하는 식량의 수요에 포위되어 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한국인의 필요하다는 언급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필요를 초과하며, 특히 내핍과 자립이라는 합리적인 잣대로 측정해 보면 그렇다.

7. 킬렌은 박의장이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일을 진행시키면서 그 계획들을

적용시키고 있으므로 미국은 좀 더 자립적이고 확신에 찬 한국을 건설하는 데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결론지었다. 우리의 대부분의 제안은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8. 박의장은 자신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충분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심으로 동의했으며 자신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9. 내각수반은 박의장의 목표는 미국의 목표 즉,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의 건설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내각수반은 향후 2년이 매우 중요하며 박의장은 정치적인 인기를 희생하고라도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1963년 원조규모가 다음 2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불균형하게 비대한 대한민국의 예산을 결국 65억 원까지 삭감을 고려해야 하며 삭감금액은 38억원 이하로 공급될 것이며 외환보유고를 3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이것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화의 재평가는 건전한 경제가 성취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에는 불가하다. 미국 정부는 건전한 경제의 성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확인했다.

GP-3

버거(Berger)

1963년 11월 12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
전문번호 : 651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0. 본인은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바람직한 경제목표를 성취하도록 돕고 필요한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 첫 번째 한계는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에서 유래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현명하게 행동하면 우리는 그들을 지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과된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두 번째 제한은 미국의 대중과 의회의 견해와 태도에 따라 운영할 필요에서 유래한다. 워싱턴의 해외원조 예산배정 전쟁은 대한민국 정부에도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올 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한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듯이 그들도 우리의 필요와 제약을 이해해야한다.

11. 박의장은 우리와 지난 2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항상 도와주려는 우리의 성실한 의도에 감사했다고 말했다. 의견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은 심지어 자신의 각료들 사이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것을 솔직히 말하기를 원했다. 그의 정치적 반대파는 자신의 정부와 미국의 관계를 떼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거유세 연설들은 박정희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박정희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자립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것은 우방국들의 원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그가 반미(反美)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왜곡하고 있으며 다른 비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두 정부를 이간시키는 것이므로 국민들로 하여금 현재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박의장은 생각했다.

12. 본인은 선거유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입장은 항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만일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는 간섭한다는 비난에 놓일 것이고 만일 우리가 말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침묵으로써 편을 든다는 비난을 받는다. 우리의 결정은 정부가 기록에 근거하여 정적들에게 대답하도록 놔둔 채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13. 결론적으로 박은 양측사이에 다루어질 경제현안의 방식에 동의와 만족을 표하였다. 그는 현재 양측에 남아 있는 문제는 기본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킬렌과 경제계획국 의장이 이루어진 양해사항을 공식화시키는 간단한 서신교환을 합의했다.

14. GP-3

버거(Berger)

1963년 11월 13일
육군성 통신참모부 전문
발신 : 한국 유엔군사령관
수신 : 워싱턴 합동참모부
전문번호 : UK50766 AS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대략 오늘 오후 4시 30분경 유엔 사령부의 합동감시단의 선임단원과 10명의 유엔군사령부 단원 일행이 휴전협정의 후속 합의에 따라 군사경계선 표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를 하는 도중 북한의 자동무기가 발사되었다. 일행은 보트를 버리고 북한강의 북쪽 제방에 엄호할 수밖에 없었다.

2. 사고는 화천 저수지 북쪽과 한국군 2군단 지역의 춘천시내 북쪽 지역인 비무장지대 좌표 959408에서 일어났다.

3. 유엔군사정전위원회(UNCMAC) 선임위원은 북한군 선임위원에게 08시 51분에 남쪽 제방으로 일행의 통과를 위하여 안전한 행동을 요청하였다. 유엔 사령부 팀은 북한이 이 메시지를 받고 사격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남쪽 제방으로 복귀하였다. 북한의 무장대원들이 150야드의 거리에서 복귀를 관찰했으나 복귀하는 동안에 일행에 대하여 생포나 사격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한 명의 대한민국 장교가 최초의 사격으로 부상당하여 사살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름: 홍주우(Hong Jou Wou) 대위, 7사단 비무장지대 구역. 유엔군사령부 팀은 강의 북쪽으로부터 시체를 복귀시킬 수 없었다.

4. 이 지역의 경계선은 북한강의 중앙에 있다.

5. 상당한 공개가 예상된다.

6. 항의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7. 자세한 설명이 뒤따를 것이다.

1963년 11월 1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63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대사관은 11월 13일 14시 30분 미 육군 장교 1명, 미군병사 1명, 그리고 한국군 요원 5명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군사경계선 표지를 점검하던 도중 북한측으로부터 사격을 당했다는 것을 주한미군 정보참모부로부터 통보받았다. 보트에 있던 유엔군사령부 일행은 좌표 957410 지점인 강의 표시에 접근하고 있는 중이었다. 400발의 소총사격을 받는 즉시 일행은 보트 밖으로 뛰어내려 북쪽 해안에 수영해 갔다. 15시 30분에 일행은 북한 군인들에게 포위당했으나 그 시간 현재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보고했다.

2. GP-4.

버거(Berger)

1963년 11월 13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67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주한미군 정보참모부는 두 명의 미국인 요원과 5명의 한국인 요원들 중 4명이 유엔 지역으로 귀환하였다고 대사관에 통보하였다.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아직 모른다.

2. GP-4.

버거(Berger)

1963년 11월 14일
육군성 통신참모부 전문
발신 : 한국 유엔군사령관
수신 : 워싱턴 합동참모부
전문번호 : UK 50769 AS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본문은 참고전문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최초의 정보 발원지는 대한민국 육군 부대였다. 본 전문의 정보 원천은 유엔군사령부 합동팀의 선임 장교이다.

2. 사고당시 유엔군사령부의 합동감시단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임 장교(미군 중령), 미군 병사 1명, 민간인 통역사 1명(한국인), 한국군 장교 3명과 사병 2명.

3. 전체 일행은 무장을 하지 않았으며 적절히 신분이 확인되었다. 일행은 대략 2시간 동안 북한강의 북쪽 제방에 있는 표지들을 점검하고 철수를 위하여 제방으로 귀환하고 있었다. 보트는 일행을 싣기 위하여 북쪽 제방으로 가는 도중 강 한가운데서 사격을 받았다. 보트는 버려졌으며 북쪽 제방으로 떠내려갔다. 일행은 대략 오후 4시 30분에 자동화 무기와 소총에 의하여 사격을 받았다. 일행은 강의 북쪽 끝을 따라 사격을 피했으며 어두워지기 전까지 간헐적인 사격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물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어두워지자 일행은 약 200미터 떨어져 있는 보트로 갔으나 보트로 움직이는 동안 사격은 없었으며 보트로 남쪽 제방으로 귀환하였다.

4. 부팀장 대한민국 홍주우(Hong Jou-Woo) 대위가 오후 5시 30분경에 부상당했으며 오후 7시 30분경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일행은 전체 요원이 노출로부터 열악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트로 옮길 수가 없었다.

5. 홍 대위를 제외한 모든 일행은 대략 오후 9시 45분에 남쪽 제방에 도착하였다. 약 3시간 30분 동안 북한군은 대략 1,000발의 소총사격을 가하였다.

6. 네 명의 복귀한 대한민국 군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소속부대로 돌아갔으며 현재의 상태는 모른다. 두 명의 미군과 한 명의 통역사(한국인)는 서울 군인병원으로 옮겨져 11월 13일 17시에 도착하였다. 합동감시단 팀장 알프스 클

라크(Alphus R. Clark) 중령은 다리 근처에 타박상을 입었고 해럴드 알드리치(Harold Aldrich) 상병은 오른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는데 실탄이 사타구니에서 3인치 부근에 박혀있었지만 이것을 제외하면 모두 양호한 상태이다. 민간인 통역사인 한국인 김(Kim, S. D.)은 충격과 노출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7. 홍 대위의 안전한 귀환을 북한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하여 노력중이다. GP-4.

노트 : 이 메시지는 백악관과 국무부에 전달되었으며 사전에 사본이 합동참모부에 전해졌다.

1963년 11월 1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9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대사관은 1964년 계획들에 대한 배경으로서 효율과 안정화 프로그램과 경제전망의 조건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워싱턴 부서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안정 프로그램은 4개의 연말 목표를 표명하였다 : 자금공급과 예산적자, 상업은행의 신용확대에 각각 최고허용한도 38억 5,000만 원, 3억 원, 2억 2,000만 원, 한국 정부 보유 외환 최저 1억 1,500만 달러. 안정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새로운 재정정책과 외환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경제악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진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취되지 않았다. 정부는 1월이나 2월까지 비용지출을 연기함으로써 12월 31일 예산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제외하면 우리는 재정적자가 6~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슷하게 정부는 1964년 상반기에 만기가 되는 단기신용을 이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지불을 미룸으로써 외환보유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자금공급 목표는 만일 정부가 농민들에게 대여금을 환불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을 것인데 이것은 최소한 11월 26일 국회의원 선거전까지 가능성이 없다. 상업은행 신용확대는 아마 달성될 것이다.

3. 이처럼 12월 31일 통계적 목표는, 상업은행 신용확대 경우를 제외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저런 속임수로 달성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태도와 정책은 실제로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징후는 정부의 1964년 예산에 대한 접근이다. 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7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70억 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확인했다. 70억 원도 여전히 3억 원의 적자를 의미하지만 삭감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과정의 특징인 추경예산에 계속적인 압력을 촉진할 것이다. 1964년 실제 지출규모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며 상응하는 적자폭의 확대를 부를 것이다.

4. 통화팽창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쌀 수매가격의 결정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쌀 가격은 현재의 선거 정국에서 매우 민감한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결정을 미루어왔다. 권고위원회는 석당 거의 4,200원의 가격을 권고했다. 가격은 석당 3,7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것은 1963년의 지출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시키는 것이며 1964년에 9,000만 원까지 추가시키는 것이다. 만일 정부의 1백만 석을 구입하기로 한다면 고액구입가는 고가의 필수식품가격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인상 요구를 강화시킬 것이다.

5. 안정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기 때문에(비록 6월에 서명되었지만 4월에 시작됨) 물가는 8월 말까지 (매달 6%씩) 계속 급속히 치솟았다. 현재 쌀 가격의 계절적인 저하는 일시적으로 전체물가를 8~9월 수준으로 낮추었지만 쌀 이외의 다른 생필품가격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물가지표는 9월보다는 12월에 더 높지 않을 것이다. 자금공급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용지출을 일시적으로 멈추면 서서히 증가할 것이고, 외환보유고도 외부의 요인에 대하여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안정되거나 혹은 약간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1964년 원조협상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의 좋은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관상 개선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6. 대한민국 정부가 과격한 통화긴축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1964년에 통화팽창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된 주요원인은 경제가

더 이상 수입품의 증가규모와 그로 인한 통화긴축 효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7,500만 달러~1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규모는 35% 정도 상승하였다. 1963년의 수입규모는 5억 달러~5억 2,500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1964년의 수입은 아마 4억 2,500만 달러~4억 5,000만 달러가 될 것이며 원자재와 반제품의 구성비율은 1963년보다 더 작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쌀농사의 개선으로 곡식수입의 필요를 감소시켰고 핵심적인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품을 제외하기 위한 과감한 수입통제를 취하고 있으며 제고의 상당한 감소와 더불어, 경제는 외환보유고의 갑작스러운 감소 없이 몇 달 동안 고도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7. 증가하는 소득과 계속적인 투기와 매점매석 때문에 비록 계획에 없는 수입품이 합리적으로 잘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곡식이외의 다른 생필품의 가격은 거의 확실히 눈에 띄게 상승할 것이다. 외화보유고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입을 어느 정도 낮추어도 물가는 여전히 상승할 것이다. 비록 대규모 상업 작물이 물가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겠지만 약 15~20%의 물가상승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한 가파른 물가상승이 내년 하반기에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만일 정부가 (A) 모든 PL 480과 지원원조 수입품에 50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B) 지출규모를 최소한 72억 5,000만 원 정도로 유지하며, (C) 과감히 신용확대를 제한하며, (D)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한도로 안정화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진다면, 물가는 아마도 안정될 것이다. 통화팽창은 일시적인 경기침체와 약간의 경제활동의 둔화를 무릅쓰고 억제되어야 한다. 비록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확언을 하였지만(참고전문 참조),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이러한 확언에 대한 신뢰는 좀 더 자세한 계획이 실행되고 부분적으로 적용된 후에나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통화팽창의 기본 원인을 공략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공세를 공략하는 기술과 가격통제라는 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P-3

버거(Berger)

1963년 11월 17일
국무부 착신전문
발신 : 서울 미국대사관
수신 : 국무부장관
전문번호 : 690호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8. 새해 첫 몇 달 동안 가장 중대한 문제는 외환보유감소의 재현인데, 이것은 1963년에 발생했던 단기신용과 상환을 연기했던 채무를 갚을 필요로부터 일부 발생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점증하는 수입압력에 항복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 1월에 가장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다소 둔화될 것이다. 외국의 채권자들이 외부의 파산을 염려하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다시 재정지원을 해 줄 것이다. 한국의 미국주재은행들로부터 어느 정도 차관을 들여오면 이 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90~100(9,000만 달러~1억 달러의 오기로 보임: 역자 주)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감소가 급격히 계속된다면,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의무 불이행에 개입한다는 명확한 의지표명이 없으면 채권자들의 염려는 다시 고조될 것이다. 외환보유고의 감소는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좀 더 긴축예산과 신용정책을 채택하도록 만들 것이고, 특히 만일 그들이 한국의 이용 가능한 미국 잉여곡물양도법(PL 480)과 지원원조의 총액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고 확신하면 더욱 그럴 것이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기 전까지 그들은 미국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신들의 곤경에 대응할 것이다. 이들 두 가지 결론 모두 한·일간 경제관계가 내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 수정 가능성이 있다. 이곳의 관리들이 일본의 차관에 대한 기대나 타결에 따른 일본정부의 원조, 혹은 일본으로부터 들어 올 민간업자들의 대출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경향은 1964년에 한국을 곤경에서 벗어나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9. 종합하면, 연말의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전은 상당한 정도로 예산과 외환보유의 눈속임의 결과이다. 더욱이 자금공급과 은행신용목표가는 충족될 것이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안정화 프로그램

목표의 단순한 외적인 충족보다는 진정한 충족의 방향으로 과감하게 출발하지 않으면 통화팽창은 1964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록 1963년의 쌀농사의 풍년과 안정시키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력 때문에 통화팽창이 1963년에 경험한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일 매우 엄격한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수행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1964년 전반기에 심각한 지불균형문제를 야기할 만큼 충분히 심각해질 수 있다. 1964년도 계획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접근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산적자의 배제를 강조하고 현재 생필품과 건축에 있어서 지나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엄격한 전체 대출정책을 강조하는 집중적인 극도로 엄격한 안정화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것의 성공은 최소한 수입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실패는 미국으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10. 미국 잉여곡물양도법(PL 480)과 지원원조에 50원의 교환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이다. 만일 완전히 실행된다면 예산적자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향후 6개월 동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예산하는 것은 너무 때가 이르다.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1964년의 원래 예산에 추가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장담하건대, 내년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모두에게 경제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11. 안정화 프로그램의 진전에 대한 킬렌(Killen)의 견해는 별도로 보고될 것이다.

12. GP-3

버거(Berger)

1963년 11월 17일
육군성 통신참모부 전문
발신 : 한국 유엔군사령관
수신 : 워싱턴 합동참모부, 태평양사령부
전문번호 : UK 81085 AS
관리번호 : 001-102-2001-0000107 Box 129

1. 군사정전위원회 제179차 회의가 판문점의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에서 한국시간으로 1963년 11월 16일 11시에 유엔군사령부의 요청으로 열렸으며 14시 15분에 정회되었다.

2. 회담은 신임 유엔군사령부 선임위원 로버트 씨드록(Robert F. Seedlock) 소장의 자기소개와 신임 군사정전위원회 위원 존 알포드(John M. Alford) 해군 소장의 참석으로 개회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강을 따라 있는 공동감시소조 4구역에 있는 군사경계선 표지를 조사하고 있던 1963년 11월 13일에 구성된 유엔군사령부 합동감시단에 대하여 자동소총공격을 가한 것에 대하여 북한군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자동소총사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위 한 명이 치명적으로 부상당하였으며 미군사병 한 명이 부상당하였다. 북한군은 그 사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부정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들의 영토에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3. 유엔군사령부는 사고의 시간적인 묘사와 함께 행동장면을 묘사한 도표로 보충된 증거문서를 이용하여 북한군에게 거칠게 그 혐의를 인정할 것을 압박했다. 유엔군사령부는 군사경계선 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측이 합동으로 참석하는 감시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 권고는 북한군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최근에 유엔군사령부의 공동감시소조 5지역 감시단이 만든 35mm 컬러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군사경계선의 열악한 상황을 증명해 보였다. 그 슬라이드는 유지와 보수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사경계선의 모든 표지들의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이용되었다. 북한군은 소위 유엔군사령부의 지상과 해상 도발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으로 대응하였으며 과거의 간첩활동을 다시 거론하면서 군사경계선 표지들에 대한 공동감시단을 구성하자는 유엔군사령부의 제안을 무시하였다.

4.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선동적 비난에 방해받지 않고 명백한 공격사건에 대하여 계속 압박을 가했다. 북한군은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소위 과거의 위반사례들만을 계속 거론하였기 때문에 지친 것처럼 보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자신의 항의를 마치고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청취한 후에 휴회를 제의하였다. 북한군은 긴 선동연설을 시작하지 않고 휴회제안을 받아들였다.

5. 훌륭한 언론의 보도가 제공되었다. 50개 이상의 유엔 언론인들이 참석하였

다. 훌륭한 사진보도가 제출되었다. 대규모의 손님들이 회담에 참석하였다. 비정상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